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정효진(여성가족부 · 전문위원)
민경석(세종대학교 · 교수)
- ▶ 연구보조원 : 안지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김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최근 몇 년간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2013년에는 초·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문화예술활동, 방과후 활동, 주말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 등 공적인 부문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이 하나의 독립된 정책으로 분리된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강조해 왔던 것이 청소년활동정책이었습니다. 관련법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서비스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독립된 정책으로서의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주를 넘어서서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다양해졌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처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청소년활동정책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에 대한 자원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은 향후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기회는 많아졌지만, 청소년활동정책이 청소년들의 삶의 전반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간의 청소년활동정책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청소년활동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이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활동개념을 재정립하고,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전국규모의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활동개념은 외연이 너무 넓게 사용되어 청소년정책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다양한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정책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지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개념은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개념은 청소년사업(youth work)이나 청소년육성을 지향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관련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청소년활동의 결과인 청소년역량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폭넓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프로그램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선진국에서는 중앙으로부터의 정책보다는 지역연계를 통한 지역에서의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이면서도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램과 진로체험활동도 강조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은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 모두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험활동의 폭보다는 강도가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체험활동 참여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였지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보다 전문적인 활동지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그만큼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활동정책은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사업들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타부처의 체험활동 관련 정책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앙행정기관들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을 비교분석한 결과 주무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은 규모면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없어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지표에 청소년정책 관련 지표를 반영하거나 가칭 청소년정책종합평가단을 조직하여 지자체의 청소년활동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 즉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도인력,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별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역사정에 맞게끔 청소년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관련 행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제'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고, 전면적인 도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사례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가능성을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양한 청소년민간조직과 타영역 공공 및 민간조직 포함하는 중앙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의 진흥을 견인하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정책사업보다는 지역사회 허브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청소년활동시설 및 학교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취득요건으로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와 보수교육을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의 청소년활동관련 행정통계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모든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서 '참여' 또는 '자기주도성'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활동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

주제어: 청소년활동정책, 청소년활동정책평가,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참여, 자기주도성, 체계화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개념의 재정립, 정책수요자인 청소년, 학부모를 비롯하여 청소년지도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요구과약과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의 정책 평가를 토대로 청소년활동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 청소년활동개념 관련된 연구, 청소년역량개념 관련 연구 등 선행연구 분석과 청소년관련 법규 및 중앙부처 예산설명자료 등 문헌자료를 분석하였음.
-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역량 개념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음.
-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였음.

2)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

- 초·중·고등학생(초6, 중2, 고2)을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자녀들의 체험활동 참여실태와 학부모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과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음.

3) 전문가의견조사

- 청소년활동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3. 주요결과

1) 청소년활동개념의 재정립

- 그 동안 청소년수련활동개념은 외연이 너무 넓게 사용되어 청소년정책을 견인하는 데 한계에 봉착한 반면, 청소년활동개념은 다양한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정책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지향하기 위하여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청소년역량개념은 청소년활동개념의 결과요인으로 해석되지만, 청소년역량지표 관련 연구의 내용분석과 체험활동의 효과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결과 전인적 발달을 위한 청소년역량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청소년활동개념은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함. 그렇지만, 청소년활동효과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서 청소년활동은 경험의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요인들에 의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는 점을 알 수 있음.

2) 외국사례조사

- 주요선진국들은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 중의 하나는 지역연계를 통해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이 추진된다는 점임.
- 또한 많은 선진국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이면서도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램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로체험활동도 크게 강조되고 있음.

3) 실태조사 및 학부모 요구조사

- 청소년 체험활동의 실태를 체험활동의 참여정도와 참여방식, 시설 이용정도, 장애요인 및 요구,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 1년간 초등학생은 평균 6개 영역의 체험활동을, 중·고등학생은 평균 5개 영역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체험활동 폭이 넓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체험활동의 폭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뚜렷이 나타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체험활동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방식별 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단체활동 또는 개인참여 방식으로 참여할 때의 참여도가 대부분의 활동영역에서 높은 편이었고, 청소년단체, 개인참여 등 자발적 참여방식이 정의적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는 체험활동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험활동의 폭보다는 강도가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는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 초등학교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기를 기대하였지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보다 전문적인 활동지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그만큼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4)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 주무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은 청소년정책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 1990년대 이후로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또한 단위사업들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타영역에서의 체험활동정책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정책이 주변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중앙행정기관들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을 비교분석한 결과 주무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은 규모면에서 높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

4. 정책제언

1)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과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활성화 방안

- 청소년활동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서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지역연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단위에서 총괄조정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임.
- 이를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지표에 청소년정책 관련 지표를 반영하거나 가칭 「청소년정책종합평가단」을 조직하여 지자체 청소년활동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활동정책 장기비전 및 목표 설정 필요

- 중앙부처(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 즉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도인력, 청소년활동프로그램별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먼저 청소년활동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 차원의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사정에 맞게끔 청소년활동정책을 포함한 청소년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제고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관련 행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례를 하나씩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4)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의 재정비 방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양한 청소년민간조직과 타영역 공공 및 민간조직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포함하는 중앙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의 진흥을 견인해야 함.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정책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지역사회 허브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 및 학교 등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해야 함.

5) 청소년지도인력양성 시스템 개선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취득요건으로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와 보수교육에도 강의중심의 교육과정을 변화시켜 현장실습과정 등의 과정을 편성하고, 특히 보수교육은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6)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통계체계의 수립

- 과학적인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을 종합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자체에 는 지역의 청소년활동관련 행정통계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7) 청소년참여를 핵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 교류활동, 청소년문화존, 청소년공모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관련사업과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참여' 또는 '자기주도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것을 청소년활동정책을 차별화하는 전략의 핵심으로 하려 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
1) 연구내용	6
(1) 청소년활동개념의 재정립과 청소년활동효과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6
(2)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6
(3) 실태조사 및 학부모·전문가 요구조사	7
(4)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7
(5)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의 제시	8
2) 연구의 방법	8
(1) 문헌연구	8
(2) 전문가 자문	8
(3) 설문 조사	9
(4) 면접조사 및 전문가의견조사	9
(5) 기타 연구방법	9
3) 연구추진체계	10
II. 청소년활동개념의 재정립	11
1. 청소년활동개념의 재개념화	13
2. 청소년활동과 역량의 관계	16
3.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의 청소년활동개념	20
4.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32
III.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사례	33
1. 외국사례조사의 개요	35

2. 청소년 체험활동정책의 역사	36
3.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40
4.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42
5.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43
IV. 청소년활동 실태 및 학부모 요구조사	45
1.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47
1) 조사개요	47
2) 조사대상	47
3) 설문지 개발 및 조사내용	48
(1) 체험활동 참여 변인	51
(2) 정의적 특성 변인	54
4) 조사결과	59
(1)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율 및 참여의 폭	59
(2)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도 및 참여의 강도	61
(3) 체험활동 참여방식	63
(4) 체험활동 시설 이용정도	65
(5) 체험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	68
(6)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70
(7) 체험활동 참여와 정의적 특성의 관계	72
2. 학부모 요구조사	90
1) 조사의 개요	90
2) 조사결과	93
(1) 자녀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및 유형	93

(2) 체험활동 실태 및 평가	99
(3) 체험활동 경험과 학업/입시와의 관련성	106
(4)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108
(5) 청소년활동시설에 관한 평가	109
3.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110

V.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113

1. 청소년활동정책 자원 분석 및 평가의 목적과 개요	115
1)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의 목적	115
2) 분석 및 평가대상의 범위	116
3) 분석 및 평가의 수준과 방법	116
2. 주무부처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	119
1) 역사적 평가	119
2) 현단계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평가	125
(1) 시도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평가	126
(2)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127
(3)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평가	130
(4) 청소년지도인력에 대한 평가	131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평가	132
3. 중앙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137
1) 중앙부처별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결과	137
(1) 분석자료 작성방법 및 분석표의 설명	137
(2) 분석결과	138
4. 종합적인 논의 및 시사점	154

VI.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방안	155
1)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과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활성화 방안 ·	157
2) 청소년활동정책 장기비전 및 목표 설정 필요	160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제고 방안	164
4)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의 재정비 방안	165
5) 청소년지도인력양성 시스템 개선	167
6)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통계체계의 수립	168
7) 청소년참여를 핵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169
8) 종합적인 제언: 융합, 연계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 · 자기주도성 강화 ·	170
VII. 결론 및 요약	173
1. 요약	175
2. 결론	178
참 고 문 헌	181
부 록	201
1. 체험활동효과 메타분석 문헌리스트	203
2. 설문조사 표본설계 및 가중치와 모수추정	221
3. 설문조사 결과표	237
4. 설문지	291

표 목 차

〈표 II-1〉 역량개념 하위요인의 비교	18
〈표 II-2〉 블룸의 학습영역 분류체계와 역량의 분류체계 비교	19
〈표 II-3〉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문헌 분석자료	22
〈표 II-4〉 청소년 체험활동 효과 메타분석 결과	29
〈표 IV-1〉 설문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48
〈표 IV-2〉 청소년 활동·문화 관련 선행 실태조사의 개요	49
〈표 IV-3〉 조사영역별 설문문항의 구성	50
〈표 IV-4〉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52
〈표 IV-5〉 동기 문항	55
〈표 IV-6〉 자아존중감 문항	56
〈표 IV-7〉 몰입 문항	57
〈표 IV-8〉 행복감 문항	58
〈표 IV-9〉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방식(복수응답)	64
〈표 IV-10〉 체험활동 참여방식별 참여도	65
〈표 IV-11〉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률	66
〈표 IV-12〉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빈도	67
〈표 IV-13〉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순위응답)	69
〈표 IV-14〉 체험활동 참여 필요사항(순위응답)	70
〈표 IV-15〉 체험활동 경험과 동기 변수의 상관	73
〈표 IV-16〉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영향 모형 적합도	75
〈표 IV-17〉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영향 분석 결과	75
〈표 IV-18〉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표준화계수)	77
〈표 IV-19〉 체험활동 참여방식의 영향 모형 적합도	82
〈표 IV-20〉 체험활동 참여방식의 영향 분석 결과	83

〈표 IV-21〉 체험활동 참여방식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표준화계수)	86
〈표 IV-22〉 학부모요구조사(FGI) 대상 일람	91
〈표 IV-23〉 반구조화된 학부모요구조사(FGI) 질문지	92
〈표 V-1〉 청소년활동정책 전문가 평가결과(요약)	134
〈표 V-2〉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136
〈표 V-3〉 중앙부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표	141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10
【그림 II-1】 청소년역량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1)	20
【그림 II-2】 청소년역량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2)	31
【그림 IV-1】 영역별 체험활동 참여율	60
【그림 IV-2】 체험활동 폭	61
【그림 IV-3】 영역별 체험활동 참여도	62
【그림 IV-4】 체험활동 강도	63
【그림 IV-5】 체험활동 시설이용 폭	67
【그림 IV-6】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비율	68
【그림 IV-7】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71
【그림 IV-8】 체험활동 참여와 정의적 특성의 관계 개념도	73
【그림 IV-9】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영향(초기모형)	74
【그림 IV-10】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영향(연구모형)	74
【그림 IV-11】 체험활동 참여방식의 영향(초기모형)	81
【그림 IV-12】 체험활동 참여방식의 영향(연구모형)	82
【그림 V-1】 정부조직도 및 자원분석 중앙부처	118
【그림 V-2】 청소년활동정책 연표	123
【그림 V-3】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129
【그림 VI-1】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체계	172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활동 서비스의 양도 증가했지만, 사적인 기회도 많아졌다. 창의적 체험활동가 초·중·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산·도입되었으며,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문화예술활동, 동아리활동, 진로체험활동, 방과후 활동, 주말체험활동 등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뿐만아니라 공공의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기관들과 다양한 민간단체나 영리기관에서도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많은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진로체험활동은 '꿈과 끼'를 모토로 한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 1학기부터 이미 진로탐색 집중학기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11개교), 2013년 2학기에는 자유학기제가 전국 4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었다. 「진로교육법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학교현장은 체험활동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은 더 강조될 것이며, 관련된 인프라들도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비하면 이른바 청소년활동정책의 변화는 더디거나 주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청소년육성법 제정 이래 20여년 동안 이른바 청소년활동분야의 시설, 인력, 기관 등 인프라의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 이 장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청소년육성의 이념 아래 추진되어 온 청소년정책은 특히 청소년활동정책을 강조해 왔고,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정책이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소년 인구 전체로 보자면 청소년활동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이광호, 2011).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변화를 담보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활동정책’이 전반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김현철, 2012). 정책의 사회적 영향력이 낮고,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다. 양적으로 열악한 탓이기도 하지만,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성공적이든 아니든, 변화의 가능성이 있든 없든,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체험활동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무드는 청소년활동정책의 바깥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이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의 추진과정과 현단계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인 추진방안의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중앙부처 수준에서 관련 정책들이 총괄·조정되면 바람직하지만, 청소년활동정책 뿐아니라 많은 사회정책들에 있어서 총괄·조정은 난제이다.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들은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아니라 심지어 부처 안에서도 부서별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괄·조정의 대상인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난해하다. ‘청소년활동정책’이라는 용어가 기타 부처의 관련 정책이나 사업 또는 법령 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정책 이외의 분야에서는 생소한 개념으로 인식된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청소년활동정책은 관련된 모든 부처의 정책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청소년활동정책은 역사적으로 여타의 정책, 즉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이외의 정책과는 차별화되어 추진되어 왔다. 청소년육성의 개념을 ‘교(敎)와 ‘육(育)’으로 분리하여 이해했기 때문이다(김영호, 2012; 조영승, 1998). 학교 밖 영역의 청소년정책을 ‘육(育)’의 범주에 두고, 학교교육과정과 차별화 왔다. 그렇지만, 학교 밖의 영역을 모두 포괄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정책은 정책의 보편성을 상실하였다(김현철·최창욱·오해섭·이춘화·김지연, 2010). 수요자의 요구에 입각해서 보면, 청소년활동정책은 기존의 정책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관련부처들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정책은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후 관계부처합동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0;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모든 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선언적으

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정책의 총괄·조정을 표방해 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지는 못했다(김현철 외, 2010; 윤철경, 박병식, 김진호, 강현주, 2012). 청소년활동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편적인 청소년활동정책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간의 청소년활동정책이 추진해온 사업들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은 크게 부족하였다. 단위 사업의 목표는 있지만, 사업의 총체적 성과, 즉 청소년활동정책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다(김현철, 2012).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후부터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를 역량개발에 두고 있지만,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활동개념의 모호성은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를 세우는 데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육성개념을 기반으로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청소년사업(youth work)과 청소년역량 개념도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이광호, 2011; 김영호, 2012). 따라서 청소년활동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개념들, 특히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개념들로 보편적인 정책으로서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청소년활동 개념에 대한 논쟁도 제한된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evidence-based)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은 청소년활동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청소년활동실태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청소년들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관련 통계자료가 주기적으로 생산되어 오지도 못했다. 또한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청소년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어도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문헌분석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하였으며,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례로부터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 청소년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의 체험활동의 참여실태와 요구 그리고 자녀의 체험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하였으며,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요구와 평가의견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및 중앙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자원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1) 청소년활동개념의 재정립과 청소년활동효과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문헌분석을 통하여 청소년활동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청소년육성,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사업, 청소년역량 등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해서 논의되어 온 개념을 재개념화(reconceptualization)하였다.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다각적인 정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수련활동개념이 여전히 통용된다.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청소년 주무부처나 청소년관련법에 한정되어 해석되지 않고,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철학, 심리학, 교육학, 뇌신경학, 스포츠학 등 다학문적인 관점에서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재조명해야 하며, 청소년수련활동 중심의 청소년활동개념의 한계를 넘어 역량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청소년활동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활동 또는 체험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들에 대한 메타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 또는 체험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을 총괄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2)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그간에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이 단편적으로 소개된 바는 있지만,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연구된 예는 거의 없다.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이 소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외국의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주요 정책, 청소년 체험활동을 강조하게 된 역사적·문화적 배경요인, 정책의 주요내용,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 인력 및 기관,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등의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사례 조사대상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일본 등 총 8개국이다. 전통적인 교육선진국으로서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해서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정책 사례는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또한 최근 북구모델로서 주목받는 핀란드 이외에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독특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사점을 얻는 데 유익한 사례를 제공하며, 최근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하여 전환학년제로 잘 알려진 아일랜드와 1990년대 이후 교육정책과 청소년육성정책이 한국과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사례도 눈여겨 볼만한 사례이다.

(3) 실태조사 및 학부모·전문가 요구조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본 설문지의 개발은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나 청소년가치관조사(여성가족부) 등의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 체험활동에 특화된 반복횡단 조사 자료는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초·중·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를 조사하여 체험활동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였다.

또한 학부모 및 청소년현장 전문가, 교사,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요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요구조사 결과를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청소년활동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먼저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 현 단계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이외에 전 부처와 16개(세종특별시 제외)시도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2013년도 시행계획, 각 부처의 2013년도 예산설명자료, 각 부처 및 지자체(교육청 포함)의 체험활동 관련 업무보고 및 추진계획 등의 자료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활동정책자원분석을 실시한 후, 요구조사 및 외국사례조사결과와 자원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제작한

청소년활동정책 평가 틀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5)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의 제시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외국사례조사 결과,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달체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의 체계적 지원 및 역량 강화 방안, 청소년지도인력의 체계적 양성 방안, 체계적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방안, 기관별·지역별·계층별 격차 해소 방안, 예산확충 방안 등 항목별로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와 청소년활동정책(전달체계, 시설, 인력양성, 관련법 등) 평가관련 문헌,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외국정책 사례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청소년활동정책을 평가하기 전단계인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을 위하여, 전 중앙부처 및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16개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의 행정문서 및 관련법 등을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청소년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내용과 방법 전반과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문항 개발, 청소년활동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설문 조사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4,5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12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 틀로 하여 모집단을 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계 고등학교)으로 분류하고 6개 지역(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호남·제주)으로 집락화하였다. 표본을 표집하기 위해 1차 추출 단위를 학교로, 2차 추출 단위를 학급으로, 3차 추출 단위를 학생으로 하여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을 적용하였다. 학교당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2013년 5월 2일 ~ 5월 31일 기간 중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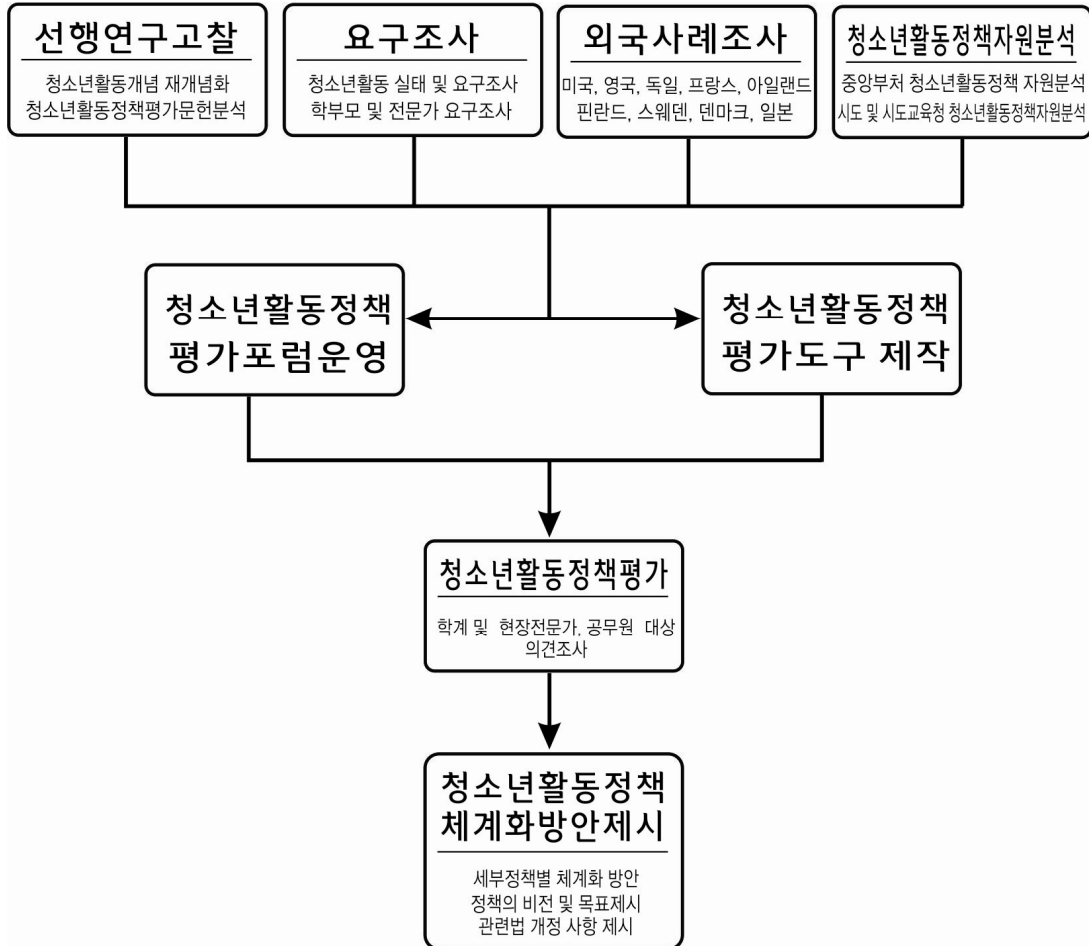
(4) 면접조사 및 전문가의견조사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결과와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자료를 토대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요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종합적인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추출하여 이를 청소년활동정책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을 평가할 목적으로 학계 및 현장전문가(교사 포함)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5) 기타 연구방법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을 주제로 2013년 2월 5일에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 개념의 재정립과 실태조사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7월에는 청소년활동정책 외국사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과 평가를 위해 청소년활동정책 분야 공무원, 현장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럼을 개최하고, 11월에는 공무원,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3) 연구추진체계



【그림 1 -1】 연구추진체계

제 II 장

청소년활동개념의 재정립

1. 청소년활동개념의 재개념화
2. 청소년활동과 역량의 관계
3.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의 청소년활동개념
4.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제 II 장

청소년활동개념의 재정립*

1. 청소년활동개념의 재개념화

청소년활동이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말이다. 특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이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말이다. ‘청소년활동’은 특수한 개념이다.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첫째,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특수성이다. 청소년활동개념은 학문적인 토대를 갖춘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개념으로 출발했다(김민, 2010; 전명기, 2010). 타부처 정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닌 특수한 개념이다.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과 같이 교육정책에서 ‘활동’이라는 개념들이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통칭해서 ‘청소년활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청소년활동정책’이라는 용어는 다른 정책 영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최근 교육정책에서는 ‘체험활동’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며, 일상적으로는 ‘청소년활동’ 개념보다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정책은 역사적으로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이외의 정책, 특히 교육정책과 차별화되어 왔다. 이념적으로는 청소년육성의 개념을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敎)’와 학교 밖 청소년활동, 특히 청소년수련활동을 중심으로 한 ‘육(育)’으로 분리하여 이해되어 왔다(김영호, 2012; 조영승, 1998). 이러한 배경 때문에 청소년활동정책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정책과 거리를 두어왔다. 비판적으로 보면, 차별화가 보편성 상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김현철 외, 2010).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청소년활동개념이 이와 같은 법률용어를 차용하거나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청소년활동개념이 학문적으로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김민, 2010; 전명기, 2010).

* 이 장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둘째, 청소년활동개념은 한국의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정책적인 개념으로 외국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비해서도 특수한 개념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대체로 청소년활동(youth work)보다는 청소년사업(youth work)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영국에서도 'Youth Activity'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학교교육과 구별 짓는 차원에서 'Youth Work'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박선영, 2013). 독일에서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청소년사업(Jugendarbeit; youth work)' 개념이 사용되며(이민희, 2013), 핀란드에서도 'youth work'을 의미하는 'nuorisotyö'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민전순, 2013). 프랑스어에서 '청소년활동'에 해당되는 개념은 'animation socioculturelle'로 직역하면 '사회문화적 활력충전(혹은 생기충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문화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지 않고 'animation(활력충전)'이라는 용어도 종종 사용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인 '청소년사업'의 개념과 유사하다(신선미, 2013).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青少年活動)'이란 개념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체험활동'개념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정책적인 용어로서도 '체험활동'개념이 더 많이 사용된다. 청소년육성(青少年育成) 개념도 사용되지만, 청소년육성은 유럽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사업'과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육성'개념과 흡사하고, 인지적인 영역의 발달보다는 정의적 영역이나 인성에 강조점을 둔다. 유럽의 경우 '청소년사업(youth work)' 개념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통합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일본의 청소년육성 개념 또한 마찬가지이다. 즉,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청소년복지와 엄밀히 구분하기보다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에는 '청소년활동' 개념을 '청소년사업' 개념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광호, 2011; 전명기, 2010). '청소년사업'은 내용적으로는 '청소년육성'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에 비해 청소년활동 개념은 협의의 개념이다. 달리 말하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의 하위개념이거나 또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의 하위개념이라기보다는 다른 하위영역인 청소년보호나 복지 또는 교육 등의 영역과 독립적인 개념이 아닌 도구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정책은 학교 밖의 정책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취약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과 배타적이지도 않아야 한다. 반면, '청소년활동'개념은 주로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등치되어 왔으며(김민, 2010), 그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개념의 외연이 너무 넓게 이해되어 왔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의 개념정의를 이러한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청소년수련활동' 개념의 외연은 넓어진 반면,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축소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은 축소되어야 하며,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확장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한계가 청소년활동개념이 특수성을 띠게 된 중요한 배경이기는 하지만, 청소년활동, 즉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경험은 교육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멀게는 17세기 교육개혁가 요하네스 코메니우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장자크 루소도 빼놓을 수 없다. 이후 ‘체험(Erlebnis)’을 어떤 대상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내적으로 깊이 그리고 총체적으로 파악한 상태로 지칭한 빌헬름 딜타이(김창환, 2010, p.75), 노작교육을 강조한 쾨리히 페스탈로치, 계속성이 담보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진정한 의미의 경험을 강조한 존 듀이(정윤경, 2010, p. 90) 등 많은 교육학자들이 경험을 중요한 주제로 삼아왔다. 심리학에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 상황중심 학습, 몰입 등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체험이나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김종백, 2010; Csikszentmihalyi; 1999). 호이칭아(Huizinga, 1938)는 「호모 루텐스」를 통해서, 카요와(Caillois, 1958)는 「놀이와 인간」을 통해서 체험에서의 놀이적 요소나 문화적 요소들을 강조했다. 정신분석학의 계통에서 「놀이」가 치료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도 체험의 중요성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주는 예이다(Crenshaw & Mordock, 2005). 청소년활동이 특히 청소년의 비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예, Crean, 2012). 최근에는 스포츠 분야나 뇌신경학 분야에서도 신체활동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와 관련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권순용, 2010; 노규식, 2010). 이러한 일련의 학문적 성과들은 체험활동이 단순히 정의적 또는 정서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영역의 발달과 신체발달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들을 보여준다. 로버트 루트번스타인(Root-Bernstein, 1999)은 『생각의 탄생』에서 다양한 체험 또는 경험이 지적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활동개념이 특수한 개념에서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학교교육에서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청소년활동개념을 학교교육과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실천적으로도 한계가 명백해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활동개념은 다른 어떤 개념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청소년활동개념, 특히 청소년수련활동개념이라는 특수한 개념의 틀에서 이해하거나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청소년활동과 역량의 관계

OECD가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개념을 강조한 이래(OECD, 2005), 국내에서도 역량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제 청소년정책에서 ‘역량’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역량개념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부터 청소년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되었으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도 정책목표로 제시되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그러나 역량개념은 학문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아직 논쟁적인 개념이다.

역량개념을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개념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청소년역량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역량지표 중에서 가장 적절한 지표를 정책적으로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할지의 문제는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역량지표들을 비교함으로써 역량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개념으로서의 역량개념이 포괄해야 하는 하위영역의 범주를 새롭게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의 역량지표들을 종합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역량개념과 청소년활동 개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역량개념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와 박현준(2010)은 DeSeCo 프로젝트의 핵심역량 개념(지적 도구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에 ‘사고력’의 범주를 추가하여 생애핵심역량지표를 개발하였다. 윤명희와 김진화(2008)는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초점을 맞춰 생활역량지표를 개발하였고, 주인중 등(2010)은 직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적인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진단도구인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K-CESA)를 개발하였으며, 이광우 등(2010)은 교육과정 설계를 목적으로 핵심역량요인들 개발하였다. 권일남, 이창식과 김태균(2011)이 개발한 청소년역량지표는 청소년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성렬(2012)은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지표들을 “현재의 생활에 초점을 맞춘 ‘생활역량’과 미래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미래역량’으로 구분하였다”(유성렬, 2012, p.36).

각각의 역량지표들을 비교해 보면, 많은 영역이 중첩되기도 하지만, 다른 지표들과 차별적인 하위영역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역량지표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OECD의 지표와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김기현 등(2010)의 지표영역을 기초해서 각각의 역량지표들의 하위요인을 배치시키고, 이 두 역량지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지표영역들은 별개의 지표영역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하위요인들을 배치시켰다(표 II-1). <표 II-1>에서 알 수 있듯이 OECD의 핵심역량지표 영역인 ‘지적 도구활용능력’,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에 김기현 등(2010)의 역량지표는 사고력을 추가했고, 다른 지표들로부터 ‘창의력’과 ‘심층역량’, ‘신체적 역량’이 추가되었다. ‘창의력’은 기본적으로 측정의 난점이 있고, ‘사고력’은 창의력에 비해 측정의 난점은 덜 하지만, 주관적 지표가 아닌 측정이 필요한 문항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은 다른 역량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측정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지만, 역량지표가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인 역량’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하위요인이지만, 전통적인 전인적 발달지표인 ‘지덕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의적 특성은 동기나 자아개념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역량과 자율적 역량까지 포괄하지만, OECD 지표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역량과 자율적 역량을 독립적인 하위영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나 자아개념과 같은 정의적인 특성들은 역량을 크게 표면역량과 심층역량으로 분류하고, 그 중 ‘자아개념’, ‘특질’, ‘동기’ 요인을 ‘심층역량’으로 본 소경희(2007)의 분류에 따라 ‘심층역량’을 하나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표 II-1>의 분류를 다시 학습영역의 분류체계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룸의 분류체계에 따라 재배치하였다(표 II-2). 여기서는 블룸이 최초로 제시한 분류체계(Bloom, 1956)를 앤더슨과 크래쓰홀(Anderson & Krathwohl, 2001)이 재구성한 신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역량지표들은 블룸의 분류체계 안에서 모두 재배치되었다(표 II-2). 즉,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심체적인 영역으로 재분류되었다.

인지적인 영역은 기억에서 창의까지 위계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위계적 배열에 맞춰 역량지표들도 위계적으로 재배치하였다. 하지만 정의적 영역과 심체적 영역은 위계적인 배열은 아니다. 인지적 영역에는 DeSeCo(OECD, 2005)의 지적 도구활용능력과 김기현 등(2010)이 제시한 핵심역량지표 중 사고력과 이광우 등(2010)이 제시한 역량지표 중 창의력을 대응시켰다.

정의적 영역에는 DeSeCo(OECD, 2005)의 사회적 상호작용역량과 자율적 역량 그리고 흔히 정의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동기’, ‘자아정체성’ 등의 심층역량(소경희, 2007)을 대응시켰고, 심체적 영역에는 권일남 등(2011)이 제시한 역량지표 중 신체적 역량을 대응시켰다. 블룸의 분류체계에 모두 대응되는 역량지표체계는 없지만, <표 II-2>의 각 역량지표의 하위요인들을

표 II-1 역량개념 하위요인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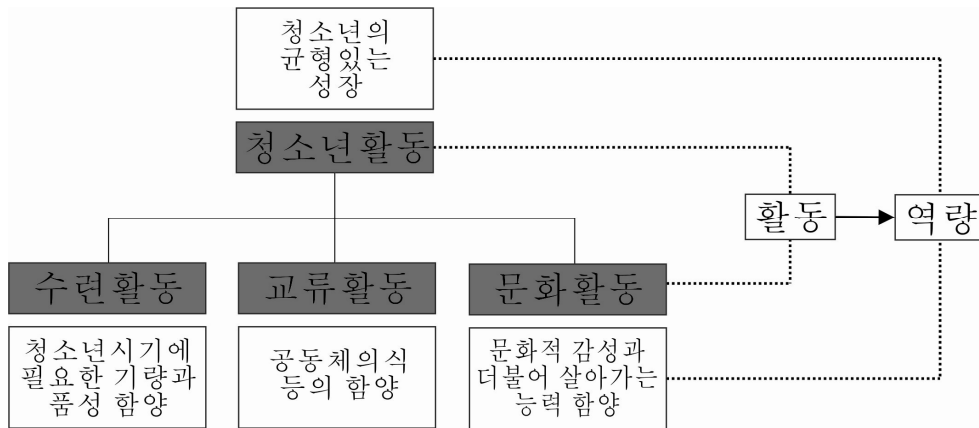
역량의 분류체계	OECD(2005)	김기현 외(2010)	윤명화, 김진화 (2008)	주인중 외(2010)	이광우 외(2010)	권일남 외(2011)	유성렬 (2012)	소경희(2007)
지적 도구활용능력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활용하기 기술을 상호적으로 활용하기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문제해결	글로벌 역량 자원, 정보, 기술의 활용 의사소통 (인지적 요소)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초학습능력	문제해결역량 리더십역량	의사소통(생활역량) 지식·정보·기술활용 (미래역량)	기술(표면역량) 지식(표면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협동,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협동 갈등관리	문제해결 공동체	대인관계 및 협력 (비인지적 요소)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문화이해	문제해결역량 갈등조정역량 대인관계역량 시민성역량	대인관계(생활역량) 시민성(생활역량)	-
자율적 역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행동하기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상황대처	자기관리 (비인지적 요소)	-	-	자율성(생활역량)	-
사고력	-	비판적 사고기술 비판적 사고경향	-	종합적 사고력 (인지적 요소)	-	-	종합적 사고력 (미래역량)	-
창의력	-	-	-	-	창의력	-	-	-
신체적 역량	-	-	-	자기관리 (비인지적 요소)	-	신체건강역량	-	-
심층역량	-	-	자기성장 자기조절	-	자기관리능력 진로개발능력	자아역량 성취동기역량	자기관리(생활역량) 진로개발(미래역량)	자아개념(심층역량) 특질(심층역량) 동기(심층역량)

표 II-2 블룸의 학습영역 분류체계와 역량의 분류체계 비교

블룸의 학습영역 분류체계		역량의 분류체계	
인지적 영역	기억(지식)	지적도구 활용능력	기초학습능력
	이해		정보처리 및 활용능력
	적용		글로벌, 다문화 이해 상호작용능력
	분석	사고력	추론적, 분석적 사고
	평가		평가적, 비판적 사고
	창의	창의력	창의력
정의적 영역	현상의 수용	심층역량	동기, 자아정체성
	현상에 대한 반응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대인관계, 타인이해, 문제해결력
	가치부여		협동, 시민의식
	조직		리더십, 자신감
	가치의 내면화	자율적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로인식
심체적 영역	-	신체적 역량	건강한 신체
			신체 및 건강 관리능력, 운동능력

종합하여 배치시키면 블룸의 세 가지 분류체계에 대응된다. 블룸의 세 가지 분류체계에 대응된다는 것은 지적인 성취와 창의성, 시민의식과 인성 그리고 신체적 건강함을 고루 갖추게 할 수 있는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 II-2>와 같이 역량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때, 청소년활동은 역량개념과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을까? 청소년역량개념은 청소년활동개념과 동일한 수준에서 논의되기도 하지만, 청소년역량은 청소년활동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성렬(2012)은 <그림 II-1>과 같이 청소년활동과 되는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역량의 함양이 청소년활동의 기본 목표가 되는 관계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설정은 청소년활동의 내용이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활동개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림 II-1>은 적어도 인지적인 영역의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활동의 범주를 <표 II-2>에 준하여 설정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게 활동과 역량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유성렬(2012). p.38

【그림 II-1】 청소년역량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1)

3.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의 청소년활동개념

최근 창의성과 인성이 강조되면서 그 수단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체험활동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개념이 혼돈스럽고, 측정상 난점도 많기 때문이다(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김현철 외,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학력경쟁체제 속에서는 체험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반감될 우려도 있다.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를 시행하고 있는 아일랜드에서도 전환학년제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다(김현철, 2013b). 일본에서도 「유토리교육」 실시 이후 끊임없이 학력저하논쟁(市川, 2002)과 학력의 계층간 격차(荻谷, 2001)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체험활동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만큼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청소년 체험활동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4배에 달한다는 성은모 등(2012)의 연구는 체험활동이 개인의 발달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문헌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단, 정량적인 메타분석이 아닌 정성적인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여 편의 관련문헌을 수집하여 최종적으로는 145여건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각 문헌의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그리고 주요결과(체험활동의 효과)에 정리하여 <표 II-3>에 제시하였다. 주요결과 중 긍정적인 효과는 '(+)'로, 부적인 효과는 '(-)'로 표기하였다. 논문에 따라 투입요인인 체험활동을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련활동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특정 스포츠활동이나 야외캠프 활동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따라서 투입요인과 결과를 정확히 매칭시키는 데 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의 영역을 분류하여 각각의 체험활동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체험활동의 영역을 크게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으로 나누었다. 교과활동영역의 체험활동은 교과연계형 체험활동을 의미한다. 비교과 활동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에 따라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에 문화활동을 추가하였고, 끝으로 수련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이 복합적으로 투입된 통합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해서 분류된 12개 영역의 체험활동이 <표 II-3>에서 역량의 대분류 영역인 '지적도구활용능력', '사고력', '창의력', '심층역량', '사회적 사회작용역량', '자율적 역량', '신체적 역량'의 어느 영역에 속하는 효과를 나타냈는지 <표 II-4>에 종합하였다. <표 II-4>는 각 영역의 체험활동이 어떤 역량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외재변수들인데, 이들 외재변수들은 체험활동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변인들이다.

표 II - 3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문헌 분석자료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교과활동 여량 기반의 교과형 수업모형 STEAM 기반 창의적 체험활동	성별 학교급, 학년 참여종목 참여빈도, 시간, 기간 참여강도 참여수준 참여형태, 참여 방식(단체/개인, 조직적/비조직적) 참여동기 동아리활동정도 자아존중감, 친 구존중감, 학교 존중감, 신체적 자신감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언어·수리(+) 자율적 행동역량(+), 도구활용역량(+) 감성지능(+),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주도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주제성, 친밀성)(+) 자아성취감(능력개발(+), 목적이상실현(+), 능력발휘(+)) 자아개념(+) 주제성(+), 자기수용성(+) 자아탄력성(+) 자기표현행동(적극적표현, 윤리적표현, 이타적표현, 직설적표현 간접적표현행동, 반소속성, 반회피성(+), 소극적 표현(-)) 전체 자아효능감(+)(신체적 자아효능감(+), 일반적 자아효능감(+), 사회적 자아효능감(+)) 자아성취감(+) 자기조절능력(주의성, 침착성, 집중성, 규범성, 인내성)(+) 신체적 자아효능감(인지된 신체능력(+), 신체적 자기표현자신감(+)) 신체적 자기개념(유능감(+), 외모(+), 신체활동(+), 신체전반(+), 긴장(+), 자신감(+), 규칙적 운동 및 근력(+), 지구력(+), 신체적 자기가치(+), 스포츠유능성(+), 몸매(+), 체력(+), 신체적 컨디션(+), 유연성, 체지방) 체력(체지방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뒷몸 일으키기(+), 뒷몸 앞으로 굽히기(+), 오래달리기-걷기(+)) 새롭거나 숙련된 기능(+), 경쟁성(+), 규칙 준수(+), 책임감(+), 교우관계(+), 협동심(+) 사회적 능력(사회참여도(+), 인기도(+), 사교성(+), 대인적응성(+), 주도성(+)) 사회적 능력(대인능력, 지역사회참여(공동체정서, 공동체참가, 이타성)(+) 사회적(활동(+), 인정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 자율성(+), 협동성(+), 준법성(+)) 사회적 행동(사회성(+), 주도성(+), 충동성(+), 관태민감성(+)) 사회적 관계(친밀도, 접촉빈도, 사회적지지)(+) 집단응집력(수용성(+), 집단관여(+)) 또래관계(유능감, 자신감, 지도성)(+)	권해수, 김민성, 강영신(2010)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2010) 김수호, 이태욱(2013) 강신영(2010) 고관우, 남진열(2011) 고종욱, 김민환, 김기운, 정일호(2006) 김귀봉, 김영수(1999) 김민선(2004) 김범식, 박종진(2000) 김수겸(2007) 김영수(2001) 김철주, 최미란(2008) 김홍석(2008) 남승구(2002) 문용, 강봉화(2004) 박경석(2009) 박병국(2004) 박성준, 김재현(2007) 박정화(2009) 박진성, 조준호(2000) 박종호, 변재출, 류호상(2006) 박혜란(2007) 변해진, 노재현(2011) 손준구(2001) 신세윤(2004) 신정현, 진신혜(2012) 안정덕, 한남익, 조광규(2003)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p>과학정보활동 - 모형만들기, 로봇활동 - 우주과학활동 - 정교과학활동 등 과학 동아리 활동 특별활동 과학반(사회적</p>		<p>셀프모니터링(+), 또래관계(+) 공동체의식(+)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개인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 학교적응능력(+)) 도덕성(사회문제에 관심(+)) 학교생활적응행동(학업적/사회적/정서적 적응행동)(+)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만족감(+), 기대충족(+), 학교생활(+), 학교행사(+)) 친구관계(+), 친척관계(+) 행복요인(자기민족, 대인관계, 능력/잠재력, 가족관계)(+) 행복감(매력적출거움(+), 몰입감(+), 자아실현(+), 행복감(+)) 가정생활만족(+) 심리적웰빙(+) 심리적 요구만족도(유능성, 자율성, 관계성)(+) 정신건강(강박증(-), 대인예민(-), 불안(+, -), 신체화(-), 정신증(-), 우울증(-), 공포불안(-), 편집증(-), 적대감(+, -)) 정서(행력(+), 피로(-), 혼란(-)) 정서행동(자기인식, 자기조절, 공간적 이해력, 동기화, 대인관계능력)(+) 공격성(-) 스트레스(일상적스트레스(-), 대인관계스트레스(-), 학교생활스트레스(-), 심리적스트레스(-)) 심리적스트레스(-), 신체적스트레스(-), 가정생활적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폭력행동(+, -) 사회질서 비행(지배성(-), 사교성(-), 활동성(+)), 대물 비행(사교성(+), 활동성(+), 자율성(+), 안정성(+)), 일반 비행(지배성(-), 사교성(-), 활동성(+)), 대인 비행(지배성(-), 사교성(-), 활동성(+)) 일탈(가정생활일탈(-), 사회생활일탈(-), 학교생활일탈(-)) 집단간 양대향성(-) 자업적 역할 모델로서의 열정 있는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직접적 체험을 경험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과학실험을 준비하며, 비슷한 재능과 희망을 가진 또래의 과학 동아리를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은 학생들을 과학관련 진로로 격려하는 좋은 요인임 과학적 태도(+), 과학정보 활용능력(+) 탐구심(+), 탐구능력(+) 공동체의식(+)</p>	<p>양중훈, 이종하(2010) 염두승(2003) 염두승, 이영민, 윤상문(2004) 윤만수, 강진홍(2001) 이강우(2002) 이강우(2003) 이강우, 채환국(2002) 이법관(2004) 이상행, 서희진(2000) 이상학, 원주연, 권정두(2012) 이종경, 서동균(2004) 이진갑(2000) 이진갑(2002) 이종섭(1999) 이환숙(2008) 이해화(2003) 이혜진(2004) 장진우, 윤상문(2004) 정우현, 박상범(2000) 정진오, 한아름(2008) 조남홍(2011) 조연철, 최창석(2001) 최명수, 정명섭, 김봉경(2006) 최용민(2006) 표내숙, 정상훈, 박철용(2009) 현정현, 홍준희, 이현영(2010) 황용준, 김감신(2005) 고관우, 남진열(2011) 문성호, 문호영(2010) 임영시, 문성호, 정경은(2010) 최미화, 최병렬, 최범순(2005) 최원호, 우유환, 박현주(2004)</p>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상호작용을 강조한 수준별 신택실험모형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류활동 -국제 교류 활동 -다문화 이해 활동 -세계 문화 비교 활동	공동체의식(+) 사회성(+), 사회적 역량(+)		고관우, 남진열(2011) 이광호(2005)
모험·개척활동 -탐사 등반, 야영활동 -해양활동, 극기훈련 야외체험활동(outdoor adventure programs) 야외교육프로그램(outdoor education program) Wilderness challenge programs Challenge(ropes) course	참여방식(자발적/비자발적) 참여기간(+) 연령(-) 프로그램 운영 하는 조직 상대적으로 강도가 세 활동 치료적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	자아개념(또래관계, 타인관계, 정서요인)(+) 자이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신감(+), 도전정신(+), 성취감(+) 행동지향성(action-orientation), 대처행동(+) 신체조건에 대한 태도(+), 태도(+) 학업성취도(+) 진로 선택준비도(+), 직업성숙도(+) 집단 역동(대인관계, 응집력, 효과성)(+) 공동체의식(+) 사회적 역량(+) 팀역(+), 삶의 생활만족도(+) 집단간 응파협성(-), 문제행동(-), 반사회적 행동(-), 비행(-) *활동에 참여한 처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 보다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행동이 덜 나타남 타인에 의한 행동평가(+), 행동관찰(+)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우울/불안(-) 학교성적(+), 학교출석률(+) 치료적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 발달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 * 모든 체험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효과성은 다양하게 나타남 * 체험활동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관해서는 일반화하기 어려움	고관우, 남진열(2011) 김용규, 정난희, 김주호(2009) 김윤나, 박옥식(2009) 문성호, 문호영(2010) 손준구(2001) 송병국, 박정배(2006) 이광호(2005) Cason & Gillis (1994) Gillis & Speelman (2008) Neill (2008) Wilson & Lipsey (2000)
직업체험활동 -진로 탐색 활동 -직업현장 체험	자아정체감(+) 자존감 전체(사회적 자존감(+), 학교 자존감(+)) 일반적 자이존중감(+), 사회적 자이존중감(+) 부모애착		강명숙, 이현림(2007) 강진영, 이영주(2009)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활동심 진로인식 프로그램 진로 교육 집단프로그램 (활동중심, 수업중심)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아존중감(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능력 자아(+), 교사관련 자아(+) 자기효능감(+) 자율적 행동역량(+), 창의성 발달(+) 학습동기 유발(+) 학습동기 전체(자기효능감(+), 성취가치(+), 학업성취동기(+)) 성취동기(미래지향성(+), 자신감(+), 책임감(+), 도전의식(+), 과업지향성(+)) 내적 통제성(+) 진로 의식(성숙(진로결정성(+), 진로관여성(+), 진로타협성(+), 진로성향(+))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계획수립(+), 목표선정(+)) 진로 정체감(+)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수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 선택준비도(+) 진로 발달(+) 경제의식(+), 자기이해(+), 실천의지(+) 진로성숙도(독립성(+), 진로문제에 대한 관심(+), 직업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력(+)) 인관관계(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및 개방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규칙준수(+), 학교행사 참여정도(+))	고관우, 남진열(2011) 권해수, 김민성, 강영신(2010) 김명희, 신현숙(2007) 김지연, 이명순(2011) 문성호, 문호영(2010) 송병국, 박정배(2006) 신선영, 송명자, 이현림(2009) 양수민, 주희진, 조규판(2009) 양종국(2004) 이종화, 김현숙(2012) 이하나, 김재형, 김동기(2009) 이현림, 박필자(2006) 이현림, 장정숙, 정상영(2005) 이현림, 최남욱, 류진영(2007) 임영식, 문성호, 장경은(2010) 조성삼, 주석진(2010) 정철영, 김봉환, 송병국, 최동선, 이종범, 김은석, 주홍석, 김보경(2012)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숲 체험 -환경 살리기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환경동아리)		새로운 가치 인식(+), 내면화(+), 다양한 측면에서 행동이나 사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인식(+) 환경소양함양(+), 환경 친화적 행동(+) 환경보존태도(+), 환경에 대한 책임감(+), 환경감수성(+), 자연친화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학교규칙(+), 교우관계(+))	고관우, 남진열(2011) 문성호, 문호영(2010) 변영호(2010) 이상균(2012) 임영식, 문성호, 장경은(2010)
자기(인성)개발활동 -토론 등 자기표현활동(독서) -심상수련활동 (인터넷 중독예방치료를 위한) 정보윤리 교육프로그램 대화지널 쓰기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문제해결, 갈등해결, 자기	SAFE 프로그램 (Sequenced, Active, Focused, Explicit; 순차적, 적극적, 집중적, 명시적)	자기인식 및 표현(+), 고립된 자아와 마주함, 스스로의 힘으로 타자와 타주함, 타자와 함께 '나됨'을 구성함. 타자와 함께 공유적 의미를 만들어감) 타인과의 관계형성(+), 편견을 내려놓고 이해로 향함, 인간은 관계적 존재임을 인식함, 선생님과의 보살핌관계가 형성됨, 친구들과의 보살핌관계가 형성됨 자기인식(self-perceptions)(+) 음상적 자기표현력(+) 상호작용 역량(+), 도구활용역량(+) 학교생활적응(+), 성취도평가가 점수(+) 관계 만족수준(+)	고관우, 남진열(2011) 권해수, 김민성, 강영신(2010) 박경숙, 서보윤(2011) 박주희(2010) 신은섭(2010) 정진오, 한아름(2008) Durlak, Weissberg, & Pachan (2010)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관리, 리더십, 의사결정 등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역량 기반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회적 기술(자기주장(+), 공감(+), 이타성(+), 적극성(+), 자기억제(+)) 공동체의식(+) 학교와의 유대감(bonding to school)(+), 학교생활만족(교우노감(+)) 긍정적 사회적 행동(+) 문제행동(-) 인터넷 이용시간의 변화(-), 인터넷 게임이 순수놀이로 변함, 인터넷 중독(-)	
봉사활동 -일손 돕기, 캠페인 -자선·구호 활동	봉사영역 봉사 경력 봉사방식 활동빈도, 기간 봉사시간 봉사만족도	자기효능감(+), 자이존중감(+), 자이탄력성(+), 자이정체성(+), 긍정적 자기지각(+) 성취동기(+) 진체 임파워먼트(+)(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자율성(+) 사회성(+) 사회적 책임감(+) 인성(사회성(+), 책임감(+)) 공동체의식(+) 학업성취(+),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또래애착(+), 또래관계(+) 도덕성(+) 시민의식(+) 복지의식(+) 삶의 행복감(+), 생활만족도(+), 삶의만족도(+) 진로 선택준비도(+) 비행(+) 나의 발전(+)(자신감, 리더십, 책임감, 성숙된 사고, 긍정적 행동, 미래의 비전, 청소년에 대한 관심, 대인관계 개선, 지역사회에 대한 개선) 자기만족(+)(성취, 자부심) 삶의 만족도(+) 즐거움(+)(자유로움, 재미, 스트레스해소, 새로운 경험) 친사회성(+) 사회적 신뢰감(+) 시민성(+) 사회참여의식(+) 공동체 의식(+)(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상호영향의식, 육구의 통합과 충족, 정서적 연계)	고관우, 남진열(2011) 김동배, 조학래(1997) 김미정(1997) 김선숙, 안재진(2012) 김윤나, 박옥식(2009) 김지혜(2012) 도종수(2011) 문성호, 문호영(2010) 서대석(2013) 송병국, 박정배(2006) 이성은(2009) 이수연, 김영모(2011) 임영신, 문성호, 정경은(2010) 조효운, 조성환, 김영희(2012) 허정철(2005)
사회참여활동 -지역사회의 어른들이나 정치인에게 청소년들의 생각을 건의하는 활동	참여수준(단체/개인의사결정참여수준) 참여형태(온라인/오프라인) 참여과정(원단/개인속의과정참여정도) 참여 양(참여경험기간, 참여한단체수)		박가나(2009) 박재숙(2011) 진은걸, 임영식(2009) 이용교, 이종섭(2010)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p>문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창, 비보이 등 댄스활동 -보컬, 락음악 등 음악활동 -코스프레, 플래시몹 등 팬덤 -발레 등 무용, 미술활동 -풍물, 민속놀이 -고전음악감상 등 악기연주 -학교생활무용프로그램 -재즈댄스활동 -무용활동 -레크레이션 활동 	<p>참여기간</p> <p>참여빈도</p> <p>참여강도</p> <p>참여유형</p> <p>참여정도</p> <p>평균여가시간, 여가생활만족도, 문화활동지출비용, 문화활동참여횟수, 문화활동참여만족도, 문화생활이용만족도</p>	<p>전체 자아개념(+)(신체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학업적 자아개념(+))</p> <p>자아존중감(+)(일반적/사회적/학교 자아존중감(+))</p> <p>자신감(+), 과제난이도(+)</p> <p>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주도성(+)</p> <p>성취목표지향(+), 신체적 유능감(+)</p> <p>학습활동(+)</p> <p>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손발력(+)</p> <p>신체상(운동발현 및 지속영역(+), 운동조절영역(+))</p> <p>도덕성(책임성(+), 긴장성(+, -), 정직성(-), 신뢰성(+, -))</p> <p>사회적지지(+, -), 접촉빈도(+), 접촉범위(+, -), 친밀도(-)</p> <p>정서(생활태도 발달(+), 사회성(지배성(+), 사교성(+), 자율성(+))</p> <p>스트레스(-)</p> <p>집단간 응대함성(-)</p> <p>공동체의식(+)</p> <p>문화예술의 이해(+), 문화예술기능(+), 창의성(+), 주제성(+)</p>	<p>고관우, 남진열(2011)</p> <p>구본행, 김을교(2002)</p> <p>김혜진, 황명자(2009)</p> <p>문성호, 문호영(2010)</p> <p>박성준, 김재현(2007)</p> <p>손연희, 서영환(2012)</p> <p>손준구(2001)</p> <p>염상세(2012)</p> <p>이건미(2010)</p> <p>이선경(2009)</p> <p>임상용, 오진식(2009)</p> <p>임영식, 문경호, 장경은(2010)</p> <p>장승우, 한선혁(2004)</p> <p>정경은(2011)</p>
<p>통합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활동, 여가활동, 창작적체험활동, 청소년활동, 청소년체험활동 등) -방과후 활동(신체적, 예술적, 인지적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지울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청소년 활동(문화예술관련 활동, 스포츠활동, 모험기척활동, 참여활동, 봉사활동 등) -체험활동(진로활동, 수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동아리 학급 활동(클럽활동, 특기적성활동, 단체활동) 	<p>활동유형</p> <p>참여빈도</p>	<p>자아정체감(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 대인관계)(+)</p> <p>자아존중감(주체성, 자기수용, 미래확신, 목표지향, 주도성, 친밀성)(+)</p> <p>자아존중감(+)</p> <p>자기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학업적 자기효능감)(+)</p> <p>자아개념(일반적자아, 학문적자아, 중요타인자아, 정서적자아)(+)</p> <p>사회자아개념(+), 학업자아개념(+)</p> <p>자아탄력성(+)</p> <p>자아성취감(+)</p> <p>자아신체감(+)</p> <p>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 잠재능력의 개발(+), 적극성/추진력 파악(+), 문제해결력을 발휘하는 인품(+)</p> <p>간접(-), 활력감(+), 자긍심(+), 신체적 자기개념(+), 스포츠유능감(+), 신체적 컨디션(+), 근력(+)</p> <p>건강중진행위(체력관리, 스트레스관리, 사회적지지, 자아실현, 영양관리, 운동)</p> <p>자신감(+)</p> <p>불안경험(인지, 적극, 행위)(+)</p> <p>진로성숙도(+), 긍정적자아관(+), 내직적업가치관(+)</p> <p>덕성(+)</p> <p>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p>	<p>강경빈, 문동규(2006)</p> <p>강봉화(2004)</p> <p>강성구(2007)</p> <p>구창모(2004)</p> <p>권일남, 김영철(2006)</p> <p>김경란(2004)</p> <p>김도영, 임영식(2013)</p> <p>김도영(2013a)</p> <p>김도영(2013b)</p> <p>김미연, 김정혜(2013)</p> <p>김성택, 김주훈(2003)</p> <p>김재철, 황매환, 김아영(2011)</p> <p>나명훈, 최종연(2006)</p> <p>박성준, 김재현(2007)</p> <p>박재숙(2010)</p> <p>배미희, 김홍순, 김창승(2012)</p>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등 포함) 여기활동1(신체적, 사교적, 문화적, 자연적, 정신적) 여기활동2(신체적활동, 휴식적활동, 예술적활동, 오락적활동, 사회적활동) 여기활동3(스포츠, 취미교양, 관람감상, 사교부문, 관광행락, 놀이오락) 여기활동4(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취미오락활동, 기타활동) 여기활동5(스포츠및건강활동, 취미및교양활동, 오락및사교활동, 감상및관광활동) 여기활동6(활동형, 스릴형, 취미형, 사회형, 문화형)	사회적(+) 공동체의식(+) 삶의질(경제적 삶의질(+), 환경적 삶의질(+), 사회적 삶의질(+)) 생리적여가만족도(+), 교육적여가만족도(+), 신체적여가만족도(+)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행복감(+) 신체화(-) 우울(-), 불안(-), 가해경험(-), 비행(-), 공격성(-), 문제행동(-) 가정생활비행(-), 학교생활비행(-), 사회생활비행수준(-) 시름스트레스(-) 예절의식(몸가짐, 인사, 언어, 방음, 전화/통신)(+), 예절행동(몸가짐, 인사, 언어, 방음, 전화/통신)(+)	배성민(2003) 설민희(2009) 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2012) 이감철(1999) 이경일, 김영숙(2003) 이영익(2007) 이은석, 이신장(2003) 이재형(2005) 정덕조, 권용일, 이연주(2008) 김은셀(2013) 최형암, 이재성, 문영경(2012) 허성철, 이은석, 이종영(2003) 허정식(1999) 허정철(2005)	

표 II-4

청소년 체험활동 효과 메타분석 결과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신체적 영역		외재변수
	지적도구활용능력	사고력	창의력	심층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역량	신체적역량		
교과활동	●				●	●			
건강·보건활동				●	●	●	●		성별/학교급/학년/참여빈도/시간/기간/강도/수준/참여종목/형태/참여방식/참여동기/자아존중감
과학정보활동	●	●			●	●			
교류활동				●	●				
모험개척활동				●	●	●	●		참여방식/참여기간(+)/참여강도(+)/연령(-)/프로그램목적
직업체험활동				●	●	●			부모애착
환경보존활동				●	●				
자기(인성)개발 활동	●			●	●				프로그램 특성
봉사활동				●	●	●			봉사영역/봉사경력/봉사방식/활동빈도/기간/시간/봉사만족도
사회참여활동				●	●				참여수준/형태/과정/양
문화활동			●	●	●	●	●		참여기간/빈도/강도/정도/시간 참여유형/활동만족도/문화활동지출비용
통합활동				●	●	●	●		활동유형 참여빈도

결국 <표 II-4>는 <표 II-3>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활동 프로그램'은 지적도구활용능력,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건강·보건활동'은 심층역량과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 및 신체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과학정보활동'은 지적도구활용능력과 사고력,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역량과 자율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교류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모험개척활동'은 심층역량과,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 그리고 신체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직업체험활동'은 심층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환경보존활동'은 심층역량과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덟째, '자기(인성)계발활동'은 지적도구활용능력과 심층역량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홉째, '봉사활동'은 심층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열 번째, '사회참여활동'은 심층역량과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문화활동'은 창의력, 심층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 그리고 신체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열한 번째, '통합활동'은 심층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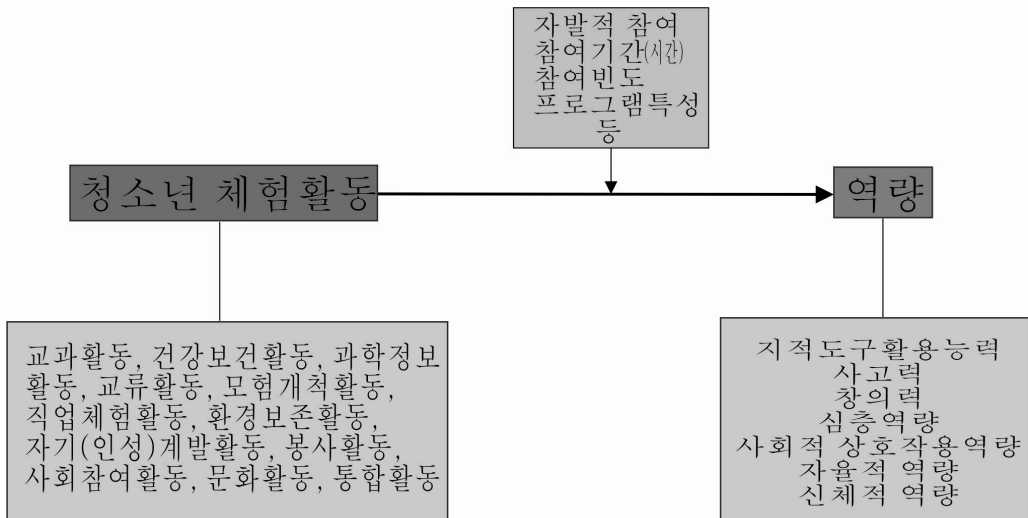
열두 번째, 분석대상 연구들 중 여러 연구들은 체험활동의 효과의 정도가 외재변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발적인 참여일수록 또는 참여의 기간 또는 시간이 길거나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체험활동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프로그램의 특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으며,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효과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 마디로, 포괄적 의미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서, 즉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그리고 신체적 영역의 역량을 고루 계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많은 체험활동이 아닌 체험활동 참여의 질적인 수준이 중요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각 활동영역의 효과가 반드시 <표 II-4>의 결과대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 연구방법이나 연구대상, 투입요인에 따라서도 연구설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활동영역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경험이 중요하며, 체험활동의 질적 수준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체험활동의 경험에서 역량에 이르는 경로는 복잡성이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김현철 등(2012)이 말한 ‘보이지 않는 경로(invisible path)’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며, 또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체험활동과 관련된 학문적인 논쟁이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잠정적인 수준에서 결론지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그림 II-1>을 <그림 II-2>와 같이 다시 그릴 수 있다. <그림 II-2>는 <그림 II-1>과는 달리 체험활동이 인지적인 영역의 활동과 신체활동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달목표인 역량의 내용들도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체험활동과 역량 사이에 체험활동의 질과 관련된 외재변수가 매개되어 있다. 즉,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체험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 등 등 질적으로 우수한 체험활동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결론지를 수 있다.



[그림 II-2] 청소년역량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2)

4.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 청소년활동개념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육성 개념과 혼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청소년사업개념이나 청소년 역량개념과도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개념의 문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문적 논쟁과 청소년 현장과의 소통을 요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 몇 가지 시도를 해 보았다.

첫째, 청소년활동개념은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개념 틀 안에서 학교교육과 차별화를 시도해 왔지만, 수련활동개념의 외연이 너무 넓어 학문적으로 실천적으로 혼란의 여지를 남겨 왔다. 반면 청소년활동개념은 청소년수련활동개념을 틀 안에서 너무 좁게 해석해 왔다.

둘째, 청소년활동개념은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개념의 하위 개념이거나 또는 방법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구미국가들은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사업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하고, 일본은 청소년육성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의 개념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정책 내에서 보다 폭넓은 의미로 쓰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활동, 보호, 복지라는 영역의 차별화보다는 활동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이유는 구미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지나친 학력경쟁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청소년들에게 각자의 소질에 따른 역량을 계발시켜야 하는 보다 절실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의 가치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청소년활동영역의 분리 자체가 청소년활동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셋째, 역량개념은 청소년활동개념과는 병렬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청소년활동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역량개념 또한 포괄적인 또는 전인적인 발달을 고려하여 '지덕체' 또는 '인지, 정의, 신체' 영역의 고른 발달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역량개념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통합적인 틀 안에서 청소년활동사업을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체험활동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로부터 체험활동의 양만이 문제가 아니라 체험활동의 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 III 장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사례

1. 외국사례조사의 개요
2. 청소년 체험활동정책의 역사
3.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4.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5.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제 III 장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사례*

1. 외국사례조사의 개요

본장에서는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외국의 사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일본 등 총 9개국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먼저 전통적인 교육선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교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그 다음 최근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로 주목받고 있는 아일랜드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가 발표된 이래 신흥교육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핀란드, 그리고 한 때 복지국가 모델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스웨덴, 청소년의 행복도 1위국으로 알려지고 교육과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선진적인 국가이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덴마크를 비교대상국으로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을 위시해서 이른바 청소년활동정책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일본도 비교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외국사례조사를 위하여 2 차례에 걸쳐 외국사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와 각국의 청소년정책 관련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서 각국의 사례를 비교하였으며, 그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청소년 체험활동을 강조하는 역사적 배경이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분석되어야 하지만 주로 교육학적 전통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에 관한 내용이다.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관련법과 시설, 전문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각국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례이다.

각국의 청소년활동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작업이다. 먼저 각국의 청소년들을

* 이 장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엄밀한 비교가 가능하며, 비교의 의미도 커진다. 그렇지만, 각국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이 빈약하다. 게다가 청소년활동정책의 비교범위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 자체가 난해하다. 따라서 각국의 관련 자료들을 균형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일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장에서는 각국의 상황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사안별로 더 주목해야 할 국가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각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자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보다는 각국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찾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청소년 체험활동정책의 역사

체험이 강조된 것은 구미의 교육적 전통 속에서 이미 오래되었다. 공교육이 보편화되기 이전부터 경험이나 체험활동과 관련된 이론적인 토대가 형성되어 왔다. 멀게는 요하네스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무엇보다 『대교수학(Great Didactic)』(Comenius, 2007)을 통해서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집대성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범교육론(Pampaedia)』(Comenius, 2003)을 통해서 체험 또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험론의 효시로 흔히 거론되는 사람은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일 것이다. 루소는 『에밀』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이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루소는 『에밀』을 통해서 지적인 성숙을 위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Rousseau, 2013). 이후 체험은 독일의 학풍에서 더 많이 강조되었다. 빌헬름 딜타이는 외적인 것을 내면화하는 체험(Erlebnis)과 더불어 내적인 것의 표현(Ausdruck)을 강조하였다. 유치원의 창시자인 프리벨(Froebel)은 체험과 표현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놀이(Spiel)를 인간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김창환, 2010, p.75). 놀이는 문화인류학자인 호이칭어나 카요아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었다. 호이칭아(Huizinga)는 『호모 루덴스』를 통해서 카요아(Caillois)는 『놀이와 인간』을 통해서 놀이를 문화적 행동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통찰하였다. 이들은 '놀이적 요소', 즉 '흥미', '재미'라고 하는 요소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Huizinga, 1938; Caillois, 1958). 놀이는 오늘날 심리치료에서 더 많이 주목받고 연구되고 있지만, 놀이치료는 오늘날에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도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모험활동 치료(adventure therapy)’가 위기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s, 2000). 개인적인 치료수준을 넘어서 공적으로 서비스화된 것으로는 영국 런던의 플레이데이(Play day)와 같은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Tokyo Play, 2011). 호이징어나 카요아가 놀이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봤다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는 카요아의 놀이연구에 주목하면서 몰입과 놀이의 관계에 주목하였다(Csikszentmihalyi, 2003). 달리 말하면, 체험활동의 놀이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결국 놀이와 체험활동은 매우 유사한 성격 띠다고 할 수 있다. 넓게 보면, 놀이든 체험활동이든 유사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체험활동은 카요아가 분류한 놀이의 유형, 즉 아곤(경쟁), 알레아(운), 미미크리(모의), 일링크스(현기증) 중 어딘가에 속한다(Caillois, 1958, p.70).

체험활동 중에서도 특히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발로르프학교는 체험활동을 교육의 모토로 삼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독일 뿐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들이 예술교육을 강조한다. 유럽 국가들의 예술교육은 정규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예술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데 특징이 있다.¹⁾ 핀란드도 예술교육, 특히 음악교육을 강조한다. 핀란드에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거의 100개에 달하는 음악학교가 설립되었다(파이팔레, 2007, p. 233-4). 스웨덴은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보다도 청소년들의 음악과 예술교육을 강조하는 나라이다. 1940년대부터 지역 음악학교(municipal music school)를 만들어 누구나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Heimonen, 2004).

체험을 강조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경험교육을 강조한 존 듀이와 노작교육을 강조한 페스탈로찌이일 것이다. 이들이 강조한 것은 결국 ‘체험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인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무조건 체험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빌헬름 딜타이가 ‘체험’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존듀이 역시 “모든 경험을 교육과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어떤 경험은 분명히 비교육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다음에 이어질 경험과의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교육적 경험이라고 본다. 경험이 체계적으로 조직될 때 교육적 경험이 되는 것이다”(Dewey, 2002, pp.131-137: 정윤경, 2010, p.90에서 재인용). 페스탈로찌의 노작교육도 단순한 체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좁은 뜻으로는 신체적 활동, 주로 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공적 활동을

1) 각국은 예술학교협회를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협회는 예술학교 유럽연맹(European Union of Music Schools)에 가입되어 있다(Heimonen, 2004).

뜻하며, 넓은 뜻으로는 신체적 활동을 주로 하는 기술상의 일이라든가 자연을 다루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개선을 기도하려는 것이다”(서울대학교 교육 연구소편, 1994, p. 185; 정윤경, 2010, p.92에서 재인용). “아르바이트(arbeit)를 노동으로 해석하지 않고 ‘노작’으로, 또 노작을 ‘창작하기 위해 힘을 쏟는 활동’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정윤경, 2010, p.92).

이상과 같은 교육학적 전통에서 체험 또는 경험을 강조하는 입장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단순히 체험활동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법론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들은 ‘내면화’, ‘지속성’, ‘체계화’, ‘상호작용’, ‘표현’, ‘흥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속성들은 구미의 교육전통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고, 오늘날에는 ‘구성주의’나 ‘자기주도성’, ‘STEAM 교육’과 같은 교육방법들로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주로 학교교육을 통해서 강조되어 온 것이라면, 주목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활동이다. 독일에서의 전통은 19세기말 ‘청소년운동(Jugendbewegung)’에서 찾을 수 있지만, 2차 대전 이후의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 대전 직후 256개가 설치되었던 청소년센터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4,000개가 넘게 되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이나 유럽에서 청소년활동 개념이 청소년사업 개념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청소년센터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용적으로는 자유로운 게임, 스포츠, 연극, 음악, 영화, 수공예 등의 활동이 제공되었지만, 전후의 범죄, 부랑생활, 정치적 급진성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기능하였기 때문이다(이민희, 2013, pp.4-5).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활동의 효시가 된 주일학교나 빈민학교, YMCA 같은 청소년단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개혁”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박선영, 2013, pp. 4-5).

오늘날 유럽의 청소년정책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특징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소년들은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가 리스본조약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활동과 학교 밖 교육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전략(An EU Strategy for Youth: Investing and Empowering)이 회원국들에게 무형식(non-formal education)으로 분류되는 청소년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European Commission, 2009; 박선영, 2013, p.7에서 재인용). 유럽연합의 청소년전략이 강조하는 것은 크게 8가지 영역인데, 그 중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participation), 자원봉사활동(voluntary activities)은 청소년활동에 관련된 영역이며, 고용과 앙테프레너십(entrepreneurship)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진로체험활동 등 청소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나머지 교육과 훈련, 건강과 복지, 사회통합, 청소년과 세계, 창의성과 문화 등은 넓게는 청소년사업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연계되어 있다.²⁾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교적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 1990년대 말은 일본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주입식교육, 극심한 학력경쟁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교육과정의 크게 바뀌게 된다. 1998년과 1999년 「학습지도요령(국가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고, 학습내용의 감축, 「종합적인 학습시간」(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의 도입, 「주5일수업제」 도입 등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유토리 교육」의 시작이다. 「유토리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 자율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성, 즉 「살아가는 힘」의 배양을 목표로 한 것이다(文部省, 1999). 「유토리 교육」은 도입시기부터 「학력저하논쟁」(市川, 2002)을 불러일으켰고, 학력의 계층 간 격차심화, 즉, 학력의 계층 간 양극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예, 荻谷, 2001), 논쟁 끝에 결국 「완전 주5일수업제」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이지만, 문부과학성은 꾸준히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및 진로체험활동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의 점차 늘어나고 있다(김현철, 2013a). 우여곡절 속에서도 일본은 꾸준히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강조해 왔지만, 정책적인 측면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동아리활동에 해당하는 부활동(部活動)³⁾이 활발하다. “일본의 한 교육 관련 기업이 2008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고교 입시를 앞둔 중 3 학생을 제외할 경우, 중학생들의 부활동 가입률은 90%를 넘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입률은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1 학생은 75.6%, 고2 학생은 67.4%가 부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들이 부활동에 할애하는 하루 평균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로 나타났다(최현주, 2013, p.115). 문경숙 등(2008)이 실시한 한국, 일본 등 국제비교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일본의 청소년들은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래관계형성 비율이 한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체험활동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지만,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참여가 높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2) http://ec.europa.eu/youth/policy/eu-youth-strategy_en.htm(2013년 10월 13일)

3) 일본어로 ‘부카츠도우’로 발음되지만, 줄여서 ‘부카츠’라고 부르기도 한다.

3.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각국의 청소년활동정책 행정체계 또는 전달체계를 총괄해서 보자면, 일단 우리나라와 같이 청소년활동정책이 별개의 정책으로 분리되어 추진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제2장에서 살펴본 청소년활동 관련 개념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구미의 국가들은 청소년사업이라는 보다 폭넓은 틀에서 청소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청소년사업에 대체되는 말이 청소년육성이다. 청소년활동정책은 별도의 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분리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사업 또는 청소년육성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내용적으로는 「유토리 교육」이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강조하는 정책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청소년 체험활동정책이나 청소년활동정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미 국가들이나 일본의 경우 청소년활동정책을 위한 행정체계나 전달체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독일은 청소년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구는 통일 전 「연방여성·청소년부」(Bmff)⁴⁾에서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로 다소 축소되었다. 청소년담당 지방단위 행정기구는 16개 주(州)마다 서로 다른 행정기구를 자치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지방청소년 업무는 「주 청소년청」(Landesjugendamt)을 중심으로 여러 민간 및 공공 청소년관계자들이 연계되어 전개된다. 「청소년청」은 광역시에는 구(區)마다 「구청소년청」(Bezirksjugendamt)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는 「시청소년청」(Stadtjugenamt), 자치단체에는 「지역청소년청」(Kreisjugendamt)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2011년 현재 전국에 563개소⁵⁾가 설치되어 있다(이민희, 2013, p.22-24).

프랑스의 청소년업무 주무부처는 스포츠·청소년·대중교육·단체생활부(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이지만, 스포츠·청소년·대중교육·단체생활부 이외에도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범부처청소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가 범부처 청소년정책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레종(région)과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데парта망(départe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청소년 담당부서는 “청소년·스포츠·사회통합실(Directions régionales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cohésion sociale, DRJSCS, 22개)이며,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청소년 담당부서로는 사회통합실(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 la cohésion sociale, DDCS 50개) 혹은 사회통합·주민보호실(Directions

4)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

5) 이는 10년 전의 616개보다 감소한 숫자이다(BmFSFJ, 2013: 290)

départementales de la cohésion sociale et de la protection de la population, DDCSPP 46개)이 있다. 대도시를 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DDCS가, 인구 4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DDCSPP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청소년 담당부서(DDCS)는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 청소년 담당부서를 겸하고 있다(신선미, 2013, p57-59).

핀란드는 교육문화부⁶⁾의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 문화체육부 내 청소년부서가 (Nuorisoyksikkö) 청소년업무 관련 사안들을 준비하고 청소년업무 국가개발계획과 청소년정책의 조율을 책임진다. 지역의 청소년활동은 경제개발·교통·환경센터, 즉 ELY-센터가 맡는다. 청소년활동 임무들은 6개의 ELY-센터들에 집중된다. ELY-센터들은 청소년활동들 중 청소년들의 작업장 활동, 아동·청소년정책 개발프로그램 업무, 아동·청소년들의 취미 활동 지원 등 관련 국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ELY-센터들은 아동·청소년정책의 (LANUKE)지역적 조율을 책임진다(민전순, 2013, pp.48-51).

독일, 프랑스, 핀란드의 전달체계를 비교하면, 독일은 지방정부까지 「청소년청」을 두어 가장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두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프랑스는 다양한 부처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범부처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핀란드는 교육문화부의 출연기관인 ELY-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추진하며, 아울러 교육과 문화 업무가 한 부서로 일원화되어 있어 다양한 관련업무의 총괄조정이 잘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국가마다 전달체계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어떤 형태이든 지역에서의 행정이 자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같이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이하 진흥기구)가 있다. 진흥기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처럼 청소년의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구이다. 1965년에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와 국립청년의집, 국립소년의집이 2006년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로 통합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일본의 청소년활동 전달체계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하부기구를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고, 내각부가 청소년육성정책을 총괄한다(최현주, 2013, p.110-112). 그렇지만, 일본 역시 구미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교육청이 중심이 되기도 하는데, 청소년활동정책 관련해서는 교육청(교육위원회)이

6) 핀란드의 교육문화부는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 교육부와 문화체육부로 나뉘며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이 재직하는 두 장관 체계로 되어 있다(민전순, 2013, p.49).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지역단위에서의 전달체계 역할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담당하지만, 지역자치가 강하다.

4.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의 청소년 체험활동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다. 본 절에서는 각국의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중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생활체육을 강조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소년봉사활동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연방자원봉사(BFD; Bundesfreiwilligendienst)를 통해 청소년들의 병역의무나 시민봉사 차원에서 봉사활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국제청소년자원봉사(IJFD; Internationale Jugendfreiwilligendienst)를 통해서 해외의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매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4년마다 개최되는 「독일 청소년지원 주간」(Deutscher Jugendhilfetag)은 독일전역에서 종합적인 포럼의 형태로 개최되며 전문적인 경험의 교류와 청소년정치적인 논의, 아동·청소년지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들과 수행들에 관한 소통과 전시 등이 행사의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다(이민희, 2013, pp.13-21).

영국의 'Youth in Action'은 국가수준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유럽연합의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이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청소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이며 참가율도 매우 높다.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통합과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1; 박선영, 2013, p.20). 또한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인 National Citizen Service(이하 NCS)가 있다.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한 2011년에만 10,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참가하였다. 여름방학 중 7~8주에 걸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이후 해마다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왔고, 지역마다 프로그램을 총괄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4단계가 끝난 후에는 4주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NCS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박선영, 2013, pp.21-22).

아일랜드 청소년활동정책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이하

TY)로 3년 과정인 중학교과정(Junior Certificate, 이하 JC)과 2년 과정인 고등학교과정(Leaving Certificate, 이하 LC)사이의 1년간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측면의 발달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지만(이기봉 외, 2011), 무엇보다 교사주도적인 JC과정과 달리 학생주도에 의해 보다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LC과정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기주도성이 강조된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김현철, 2013b).

일본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한 「유토리 교육」이 비판을 받아 오기는 했지만, 이후 「종합적인 학습시간」과 2000년 이후에는 「진로교육」이 크게 강조되면서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크게 강화되었다. 많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종합적인 학습시간」과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효고현에서의 「트라이 야르 워크」의 성공적 운영으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직업체험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성공적인 사례도 많고, 광범위한 직업체험활동 때문에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목적하는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기봉 외, 2011; 김현철, 2013a).

5.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라마다 청소년활동정책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 중의 하나는 지방정부 또는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든 지방정부 차원에서든 청소년활동사업은 다른 분야의 사업과 통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엇보다 지방정부 또는 지역에서 청소년활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달체계의 최상위 기구인 중앙정부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둘째, 일본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이 놓여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도 많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전략이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도 청소년들의 참여이다. 자원봉사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셋째, 유럽 국가들은 특히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소외계층의 문화참여와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이 문화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일랜드 사례와 일본 사례가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청소년활동정책이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의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제 IV 장

청소년활동 실태 및 학부모 요구조사

1.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2. 학부모 요구조사
3.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제 IV 장

청소년활동 실태 및 학부모 요구조사*

1.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활동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도와 참여방식, 체험활동의 장애요인 및 요구,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5월 2일 ~ 5월 31일 기간 중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로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 조사는 조사원이 주도하여 한 문항씩 함께 읽고 응답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조사대상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7)에 재학 중인 학생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총 150개 학교에서 4,519명이 조사되었고, 남학생이 52.4%, 여학생이 47.6%였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2.3%, 중학생이 33.0%,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28.8%,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 이 장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경석(세종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7)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예비조사 실시(2013. 4. 15.)결과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기에는 문항난이도가 높아 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학년의 경우에는 학교의 응답거부율이 높고, 1학년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이 5월이어서 중학교에서의 체험활동 경험이 1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2학년을 선정하는 등 학교급별로 대표학년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0%이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43.5%, 중소도시 41.2%, 읍·면지역이 15.3%였다. 가족구성은 양부모 가정이 90.3%, 한부모 가정이 7.4%, 조손가정이 1.5%였고, 경제수준은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5.6%,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8.3%, '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6.0%였다.

표 IV-1 설문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4,519	100.0
성별	남자	2,370	52.4
	여자	2,149	47.6
교급	초등학교	1,460	32.3
	중학교	1,490	33.0
	일반고	1,299	28.8
	특성화고	269	6.0
지역규모	대도시	1,967	43.5
	중소도시	1,860	41.2
	읍/면	692	15.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4,074	90.3
	한부모가정	332	7.4
	조손가정	69	1.5
	기타	38	0.8
경제적 수준	상	706	15.6
	중	3,537	78.3
	하	272	6.0

3) 설문지 개발 및 조사내용

설문조사는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와 그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항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표 IV-2>),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워크숍(2013. 2. 5.)을 실시하였다. 정책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a)의 청소년활동 관련 조사항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설문지 초안에 대해서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2013. 4. 15.)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활동 참여 변인과 정의적 특성 변인, 기타 변인, 배경 변인으로 최종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성 및 출처는 <표 IV-3>과 같다.

표 IV-2 청소년 활동·문화 관련 선행 실태조사의 개요			
연구자(연도)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영역
여성가족부 (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개인 활동 및 시설이용 경험 /미디어, 인터넷) - 가정생활(부모님과의 활동/부모님과의 대화/안전/가정생활 만족도) - 학교생활 및 방과 후 활동 - 진로 및 아르바이트(향후 진로 계획/진로교육 경험/진로체험 경험/장래 희망 직업/아르바이트 경험)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1~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청소년인구/생활여건) - 투입(청소년 기관 및 프로그램/청소년 지도사/청소년정책 재정) - 과정(청소년 활동/청소년 단체/청소년 복지/청소년 상담/청소년 교류/청소년 자원봉사/청소년 선도 및 교정/청소년 보호/학교교육) - 결과(신체적 건강/정의적 특성/인지적 특성/사회적 역량/시민적 역량/진로 및 직업적 역량)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Ⅳ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활동(활동의식-활동가치, 활동태도/활동경험-집단활동, 봉사활동, 문화활동, 야외활동, 스포츠활동, 교류활동, 시설이용) - 청소년 문화(문화의식-문화가치, 문화태도/문화경험-순수예술문화, 대중예술문화, 정보문화) - 청소년역량(정서적/인지적/사회적/시민적/직업적 역량)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초6 중1~중2 고1~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 청소년 활동(문화활동/교류활동), 기타 청소년활동 관련

연구자(연도)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영역
장근영, 김기현 (2006)	청소년 활동참가 실태조사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초,중,고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별 참가현황 - 일상생활과 청소년활동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08)	청소년 인종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 개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11~16 세	- 과학정보, 봉사, 문화예술 - 교류, 직업체험, 모험개척, 환경보존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 (2009)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초,중,고	- 실태, 만족도, 효과성(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관심도,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 사고, 단체 활동 참여, 친구와의 관계,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생활의 즐거움, 학습의욕)
김현철 외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유형모형 개발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고3	-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만족도), 학업동기(내적/외적/무동기), 자아존중감, 몰입

표 IV-3 조사영역별 설문문항의 구성

영역	내용	출처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 보건활동 · 과학정보활동 · 교류활동 · 모험 · 개척활동 · 직업체험활동 · 환경보존활동 · 자기(인성)개발활동 · 봉사활동 · 사회참여활동 · 대중문화활동 · 팬덤문화활동 · 고급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2011)의 인종수련활동 영역별 분류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12개 영역의 활동에 대해 복수응답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누리/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작성

영역	내용	출처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체험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	· 참여하고 싶은 활동 중 참여하지 못한 활동 유무 · 참여하지 못한 이유(1, 2, 3순위로 응답) · 체험활동 적극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 (1, 2, 3순위로 응답)	· 임지연 외(2009) 수정·보완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체험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정도 (12개 시설 각각에 대한 이용경험)	· 여성가족부(2012a)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정의적 특성 변인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15개 문항)	· 김현철 외(2012)	
	자아존중감(10개 문항)	· Rogenberg(1965)	
	동기	· 외재적 동기(6개 문항) · 내재적 동기(6개 문항) · 무동기(6개 문항)	· 김아영(2008)
	몰입	· 목표지향성(16개 문항) · 자의식의 상실(16개 문항)	· 이창호, 주영아, 권해수, 안현의(2002)
	행복감	· 주관적 행복(6개 문항) · 행복도(1개 문항)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
기타	학습활동참여(6개 문항)	· 연구진 작성	

(1) 체험활동 참여 변인

① 체험활동 참여도 및 참여방식

체험활동 참여 변인으로는 최근 1년간 각 체험활동 영역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참여도)’와 ‘어떻게 참여했는지(참여방식)’를 질문하였다. 체험활동의 영역은 총 12개 영역으로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대중문화활동’, ‘팬덤문화활동’, ‘고급문화활동’이다. 설문지에는 ‘대중문화활동’, ‘팬덤문화활동’, ‘고급문화활동’을 각각 문화활동(1), (2), (3)으로 표현하고, 대중문화에 해당하는 문화활동(1)은 댄스활동, 음악활동, 코스프레, 플레시 몹 등으로, 팬덤문화에 해당하는 문화활동(2)는 팬미팅, 팬카페 활동 등으로, 고급문화에 해당하는 문화활동(3)은 무용·미

술활동, 고전 및 전통문화활동 등으로 설명하였다.

활동의 영역 구분은 여성가족부(2011)의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표 IV-4>)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활동과 같은 활동경험을 묻는 '사회참여활동'을 추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대중문화, 팬덤문화, 고급문화의 3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질문하였다. 팬덤문화는 넓은 의미에서는 대중문화에 포함되지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팬덤문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유행하고 있고, 팬덤활동의 긍정적 영향(안은미, 김지선, 전선율, 정익중, 2013)이 재평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12개 영역에 대해 얼마나 참여했는지의 참여도를 '전혀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어떻게 참여했는지의 참여방식을 다음의 7가지 참여활동형태로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다.

-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 교내동아리활동
-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등)
- 온라인동아리활동
-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표 IV-4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영역	영역별 활동 예시(안)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모험개척활동	탐사·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영역	영역별 활동 예시(안)
봉사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 활동 등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체험 등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등
자기(인성) 계발활동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원자료: 여성가족부(2011).

출 처: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이상의 참여활동형태에 대하여 기존의 조사들은 대체로 체험활동 참여도와는 별도로 묻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참여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물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체험활동의 ‘참여의 폭(breadth)’과 ‘참여의 강도(intensity)’ 그리고 ‘참여의 방식(specificity)’과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Crean(2012)은 세 가지 변수가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 특히 정의적 영역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밝혔다.

② 체험활동의 장애요인 및 요구

최근 1년간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체험활동이 있는지,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 2, 3순위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체험활동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③ 체험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최근 1년간 체험활동 관련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시설의 구분은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a)의 문항을 참고하였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등)·수련원·문화의집·야영장’, ‘유스호스텔’, ‘도서관(단, 학교도서관은 제외)’, ‘사회복지관’, ‘수목림/수목원/자연휴양림’의 시설구분 중 야영장은 수련관·수련원보다는 유스호스텔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과 ‘유스호스텔, 야영장’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서관’에는 학교도

서관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구분은 시설의 유형보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험을 중요시 하는 구분이다. 이 외에 직업체험활동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직업체험활동 시설을 포함시켰다. 체험활동 시설의 이용경험에 대한 통계치는 특히 지역별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자료와 비교검토하기 위한 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2개 시설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
- 유스호스텔, 야영장
- 사회복지관
- 도서관
-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
-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기념관, 과학관
- 테마파크, 놀이동산, 공원,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 공연장, 음악회
- 스포츠경기장(프로 축구·야구·농구등)
-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헬스장
- 직업체험관(키자니아, 잠월드 등)
- 만화방, 노래방, PC방, DVD방, 게임방

(2) 정의적 특성 변인

체험활동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동기', '자아존중감', '몰입', '행복감' 등의 정의적 특성 변인을 사용하였다.

①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김현철 등(2012)의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15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김현철 외(201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고, 15개 문항의 응답을 합산하여 하나의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는 자아존중감, 몰입, 무동기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인은 다른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사용될 수 있지만, 체험활동 경험의 폭, 정도, 방식 등의 변인에 영향을 받는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

② 동기

‘동기’는 김아영(2010)이 2008년에 개발한 「한국형 학업적 자기조절 동기 척도」의 6개 하위척도⁸⁾ 중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무동기 등 3개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별 각 6개의 문항, 총 18개 문항에 대해 6점 척도(1=절대로 아니다, 2=아니다, 약간 아니다=3, 약간 그렇다=4, 그렇다=5, 정말 그렇다=6)로 측정하였다.

문항번호	문항내용	하위척도명
1)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므로 공부한다	외재적 동기
2)	나는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3)	나는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므로 공부한다	
4)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야단, 체벌)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5)	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6)	나는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7)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므로 공부한다	내재적 동기
8)	나는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한다	
9)	나는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한다	
10)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11)	나는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12)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	
13)	나는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동기
14)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5)	나는 솔직히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16)	나는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17)	인생에서 공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18)	공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8) 외재적 동기, 내사된 조절 동기, 확인된 조절 동기, 내재적 동기, 무동기

③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개 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개 문항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척도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IV-6 자아존중감 문항

문항번호	문항내용	역코딩문항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R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R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R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R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R

④ 몰입

‘몰입’ 척도는 이창호, 주영아, 권해수, 안현의(2002)가 개발한 「청소년 플로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지향성’ 16개 문항, ‘자의식의 상실’ 13개 문항, ‘산만한 사고의 차단’ 16개 문항의 총 45개 문항으로 개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과 ‘자의식의 상실’의 두 개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외한 ‘산만한 사고의 차단’ 척도는 동기 척도와 유사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설문 문항 증가에 따라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제외시켰다. 즉 ‘목표지향성’과 ‘자의식의 상실’ 척도가 체험활동이 지향하는 정적 영역의 요인으로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목표지향성’ 척도는 일단 일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잘 파악하며 자기 몸과 마음을 통제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의식의 상실’ 척도는 주어진 일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들을 나타내는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전히 그 일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공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존재마저 망각하는 절정단계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잘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창호 등(2002)은 이 척도를 ‘자의식의 상실’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몰입’ 척도는 문항의 난이도와 분량에 따른 응답 부담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에게는 조사하지 않았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표 IV-7 몰입 문항		
문항번호	문항내용	하위척도명
1)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목표를 분명히 한다	목표지향성
2)	나는 목표 달성 정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업적을 잘 평가할 수 있다	
3)	나는 목표가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안다	
4)	해도 해도 또 하고 싶은 활동이 많다	
5)	중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할지 빨리 알아 본다	
6)	내 생활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나는 하는 일이 너무 쉬워 재미가 없을 때 난이도를 조금 높여 내 능력에 맞출 줄 안다	
8)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기분은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지’ 하는 생각이다	
9)	세상일이 성공하고 안하고는 기본적으로 나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10)	나에게 있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일치할 때가 많다	
11)	나는 목표에 달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12)	목표 달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13)	나는 쉬운 일보다는 약간 어려운 일이 더 재미있다	
14)	나는 몸과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다	
15)	목표가 있으므로 나는 내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	
16)	일단 시작한 일(공부 등)은 끝을 볼 때까지 방해받고 싶지 않다	
17)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	
18)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는 걱정과 근심도 잊게 된다	
19)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과 관계가 없는 딴 생각은 나지 않는다	
20)	어떤 일을 하다가 시간이 순식간에 흐른 적이 있다	
21)	내가 하는 일은 대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22)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온 정신을 쏟아 딴 생각할 여유가 없다	

문항번호	문항내용	하위척도명
23)	나의 모든 정신 에너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24)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일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	
25)	일을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다	
26)	나는 일의 결과보다도 일 그 자체에 의의를 둔다	
27)	나는 어떤 일에 몰두하여(빠져들어) 내 자신을 잊을 때가 많다	
28)	나는 어떤 일에 쉽게 몰입한다(빠져든다)	
29)	요즈음 나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다	
30)	집중을 하여 일을 하다보면 앞으로의 걱정거리도 사라진다	
31)	나는 쉽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32)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면 '나' 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다	

⑤ 행복감

‘행복감’ 변인은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가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의 6개 영역 중 ‘주관적 행복’을 산출하는 데 사용한 6개 문항과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라는 단일 문항을 함께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행복감’은 체험활동이 동기, 자아존중감,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면서,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비전 또는 정책목표로 설정되는 변수로서 정책적인 함의가 많은 변인으로 판단된다.

표 IV-8 행복감 문항

문항	문항내용	하위척도명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주관적 행복 ⁹⁾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7)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	단일문항

9)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을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만족, 삶의 만족,

4) 조사결과

청소년 체험활동의 실태를 체험활동의 참여정도와 참여방식, 시설 이용정도, 장애요인 및 요구,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 살펴보았다. 체험활동의 참여정도는 각 체험활동에 대한 참여율과 참여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Crean, 2012)에 따르면, 체험활동의 '참여의 폭(breadth)'과 '참여의 강도(intensity)' 그리고 '참여의 방식(specificity)'은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를 산출하고 성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표본비율이며 가중치는 표본추출률, 응답률 및 가중치 사후 보정률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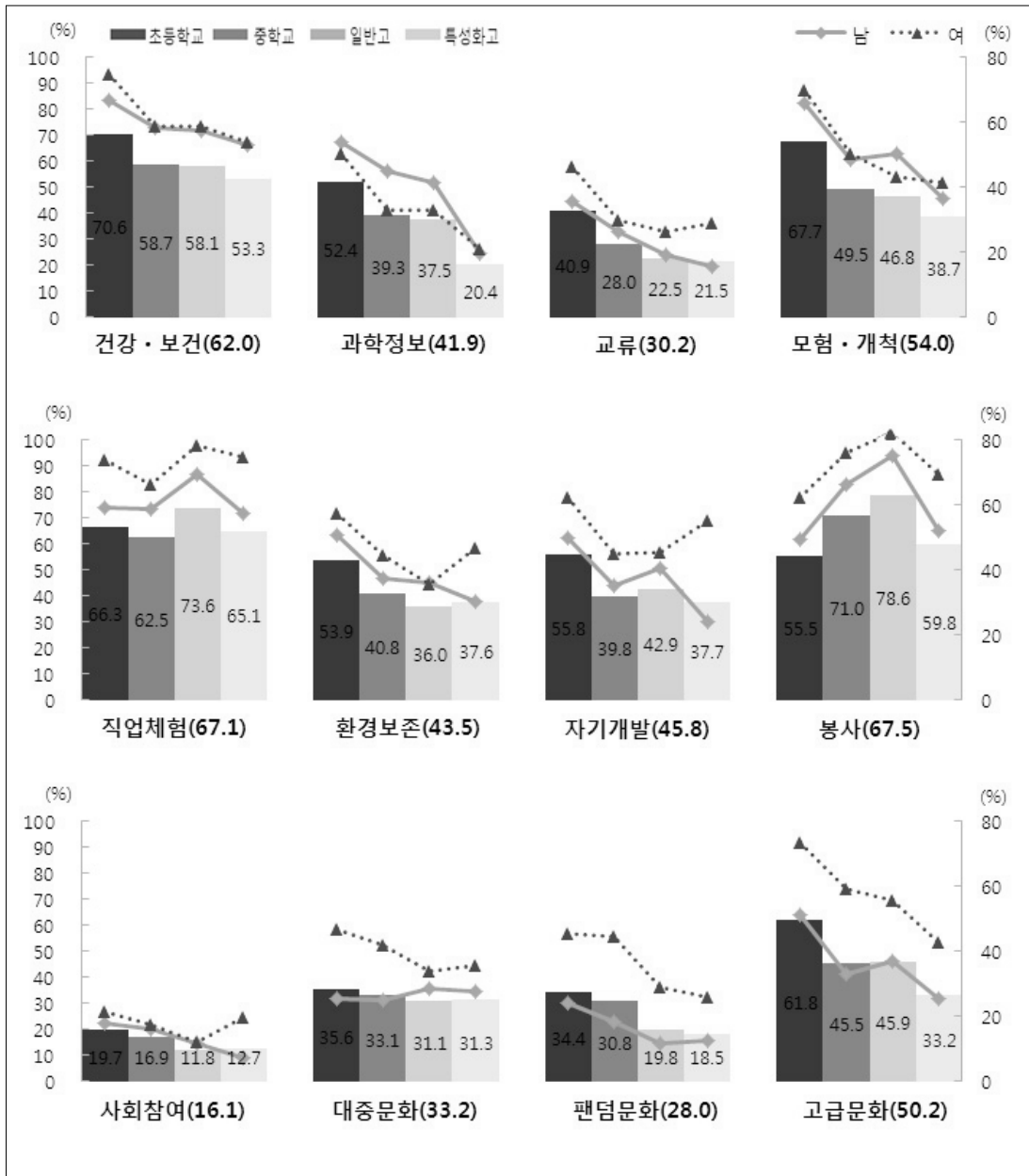
(1)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율 및 참여의 폭

최근 1년간의 참여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영역은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건강·보건활동이었다. 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은 이 세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참여활동은 전체 청소년의 16.1%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 참여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직업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의 경우는 고등학생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과학정보활동에는 남학생이, 건강·보건활동, 교류활동, 직업체험활동, 자기개발활동,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문화활동에는 여학생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중문화, 팬덤문화, 고급문화활동에서 성차가 더욱 두드러졌다(그림 IV-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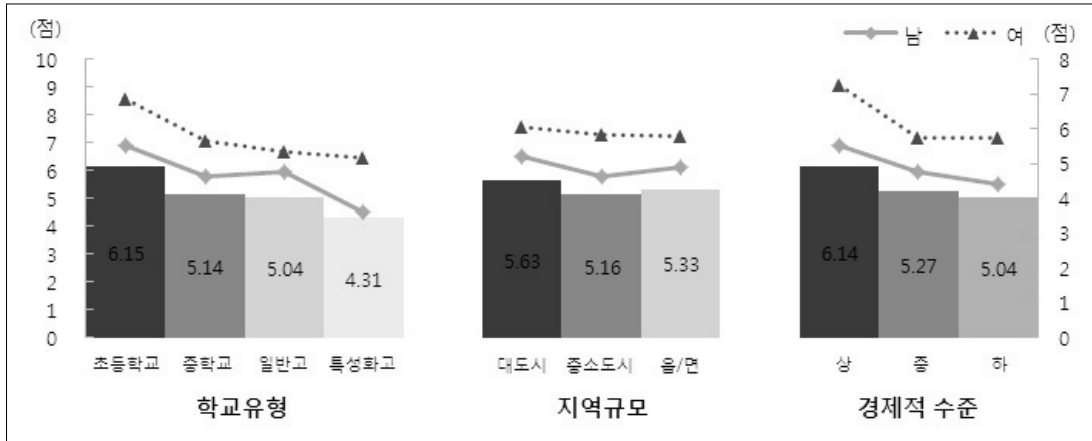
체험활동의 폭(breadth)은 12개 각 참여활동 영역에 대해 최근 1년간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였으며, 변수값의 범위는 0~12이다. 즉, 최근 1년간 어떠한 체험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0점, 12개 영역 모두에 참여한 경우는 12점이다.

체험활동의 폭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년간 평균 6개 영역의 체험활동을, 중·고등학생은 5개 영역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체험활동 폭이 넓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체험활동의 폭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체험활동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2 참조).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에 대한 응답의 합을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하여 OECD 국가들의 추세와 비교하였다.



【그림 IV-1】 영역별 체험활동 참여율



【그림 IV-2】 체험활동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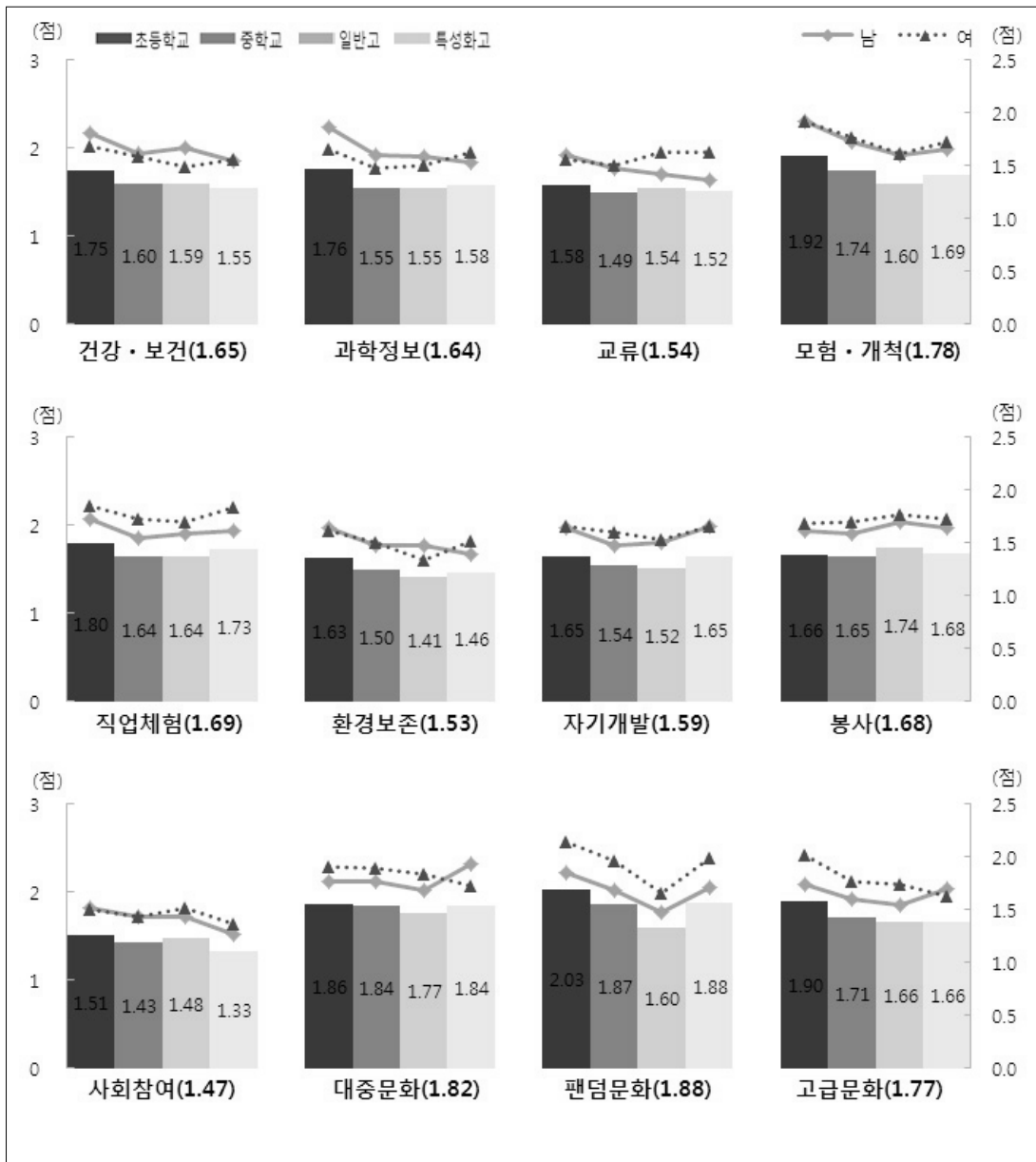
(2)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도 및 참여의 강도

각 영역별 체험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각 체험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질문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면 1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면 2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하였다. 체험활동 참여도는 [그림 IV-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팬덤문화활동에서 1.88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참여활동에서 1.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차는 모험·개척활동, 사회참여활동 등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직업체험활동과 문화활동(대중문화, 팬덤문화, 고급문화)에서는 두드러졌다. 대중문화활동과 팬덤문화활동의 참여율은 각각 33.2%와 28.0%로 낮은 편이지만([그림 IV-1]), 이 두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참여도는 높은 편이었다. 이는 이들 활동에 대한 참여가 대부분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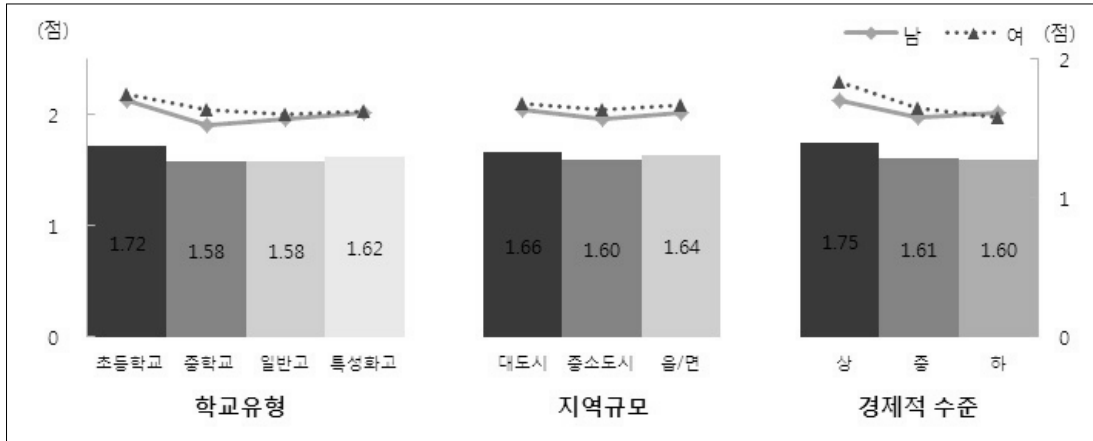
체험활동의 강도(intensity)는 최근 1년간 1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12개 각 체험활동에 대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점, 소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1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2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3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계를 낸 후, 이를 체험활동의 폭(breadth)으로 나눈 값으로 변수값의 범위는 1~3이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의 강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중고생보다, 대도시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보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4

참조). 결국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별, 경제적 수준별 차이는 체험활동의 강도보다는 체험활동의 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체험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IV-3】 영역별 체험활동 참여도



【그림 IV-4】 체험활동 강도

(3) 체험활동 참여방식

<표 IV-9>에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방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각 체험활동 영역에 대해 어떻게 참여했는지의 참여방식을,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누리/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복수응답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에서는 교내동아리활동, 교외동아리활동, 온라인동아리활동을 동아리활동으로 통합하여 ‘학교단체 참여’, ‘개인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종교활동’별 비율을 산출하였다. 청소년들은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교에서 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단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대중문화활동, 팬덤문화활동, 고급문화활동은 단체활동보다는 가족과 함께 또는 학원에서 하는 활동을 포함한 개인활동이 주를 이뤘다. 동아리활동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은 과학정보활동, 대중문화활동과 팬덤문화활동이었다.

표 IV-9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방식(복수응답)

단위: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건강·보건활동	학교단체참여 (68.2)	개인활동 (30.3)	동아리활동 (25.5)	청소년단체활동 (11.0)	종교활동 (4.3)
과학정보활동	학교단체참여 (59.4)	동아리활동 (29.6)	개인활동 (28.0)	청소년단체활동 (8.2)	종교활동 (0.9)
교류활동	학교단체참여 (53.4)	개인활동 (31.3)	동아리활동 (24.5)	청소년단체활동 (10.1)	종교활동 (5.5)
모험·개척활동	학교단체참여 (56.3)	개인활동 (41.9)	동아리활동 (17.7)	청소년단체활동 (16.0)	종교활동 (5.2)
직업체험활동	학교단체참여 (68.9)	개인활동 (33.7)	동아리활동 (24.6)	청소년단체활동 (5.1)	종교활동 (2.1)
환경보존활동	학교단체참여 (52.2)	개인활동 (41.2)	동아리활동 (20.7)	청소년단체활동 (10.1)	종교활동 (3.9)
자기인성개발활동	학교단체참여 (62.5)	개인활동 (27.9)	동아리활동 (26.6)	청소년단체활동 (4.8)	종교활동 (2.9)
봉사활동	개인활동 (49.9)	학교단체참여 (49.0)	동아리활동 (29.7)	청소년단체활동 (8.2)	종교활동 (5.5)
사회참여활동	개인활동 (41.9)	학교단체참여 (41.1)	동아리활동 (26.5)	청소년단체활동 (8.1)	종교활동 (6.5)
대중문화활동	개인활동 (57.7)	동아리활동 (33.1)	학교단체참여 (27.5)	종교활동 (5.5)	청소년단체활동 (5.4)
팬덤문화활동	개인활동 (73.2)	동아리활동 (32.0)	학교단체참여 (10.3)	청소년단체활동 (3.8)	종교활동 (1.1)
고급문화활동	개인활동 (75.8)	학교단체참여 (23.5)	동아리활동 (19.1)	종교활동 (3.7)	청소년단체활동 (2.4)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방식별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2개 영역의 활동에 대해 참여방식별 참여도를 산출하였다(표IV-10 참조). 그 결과,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누리/한별단 등) 방식으로 참여할 때의 참여도가 대부분의 활동영역에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지도자의 역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정보활동과 대중문화활동은 동아리활동 참여방식에서

참여도가 높았으며, 환경보존활동과 고급문화활동은 종교활동 참여방식에서 참여도가 높았다. 반면에 모든 활동에서 학교에서 학년 또는 학급 단위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참여방식이 비자발적인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표 IV-10 체험활동 참여방식별 참여도

단위: 점

	학교단체참여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종교활동	개인활동
건강·보건활동	1.61	1.82	1.86	1.81	1.88
과학정보활동	1.61	1.85	1.82	1.66	1.85
교류활동	1.52	1.70	1.76	1.66	1.73
모험·개척활동	1.80	1.89	2.07	2.01	1.87
직업체험활동	1.70	1.84	1.93	1.90	1.90
환경보존활동	1.52	1.64	1.76	1.79	1.64
자기(인성)개발활동	1.54	1.70	1.82	1.68	1.81
봉사활동	1.68	1.88	1.91	1.86	1.75
사회참여활동	1.45	1.61	1.74	1.72	1.55
대중문화활동	1.82	2.00	1.91	1.99	1.89
팬덤문화활동	1.84	2.04	2.07	1.81	1.91
고급문화활동	1.72	1.95	1.80	2.11	1.83

*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1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2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3점)의 평균임.

(4) 체험활동 시설 이용정도

최근 1년간 체험활동 관련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체험활동 관련시설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은 도서관(90.8%)이었고, 다음으로는 만화방, 노래방, PC방, 게임방(86.3%), 테마파크, 놀이동산, 공원,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86.2%)의 순이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의 이용률은 64.0%였다.

각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설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 1년에 1~2번의 빈도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사회복지관과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았다(표 IV-12 참조).

다음으로 체험활동 시설이용의 폭을 알아보았다. 체험활동 관련시설 중 만화방, 노래방, PC방, 게임방을 제외한 11개종의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각각 1점을 부여하고 총점을 산출하였다. 이용한 시설이 없으면 0점, 최근 1년간 11개종의 시설 모두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면 11점으로 변수값의 범위는 0~11이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경제적 수준은 높은 가정에 속한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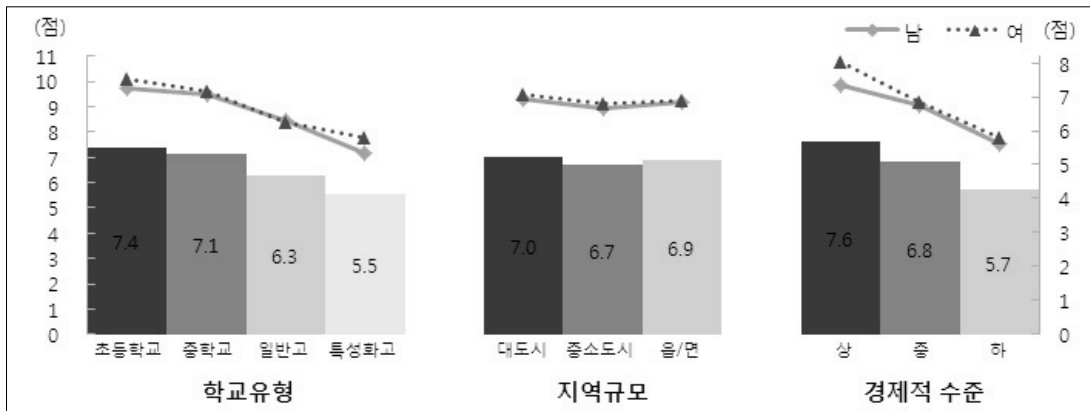
표 IV-11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률

단위: %

		청소년수련관 등	유스호스텔 등	사회복지관	도서관	수목림 등	박물관 등	테마파크 등	공연장 등	스포츠경기장	체육관 등	직업체험관	만화방 등
전	체	64.0	60.7	30.2	90.8	54.8	79.7	86.2	62.2	47.3	81.5	29.2	86.3
성	남자	62.4	60.7	30.2	88.8	52.7	77.7	83.3	57.3	56.1	82.8	27.9	87.2
	여자	65.8	60.8	30.3	93.0	57.1	82.0	89.4	67.6	37.7	80.0	30.5	85.2
학	초등학교	61.3	64.0	23.6	95.6	69.3	86.3	92.9	64.2	50.6	89.1	41.3	76.1
	중학교	68.0	64.7	32.4	89.6	56.3	81.6	88.7	64.6	52.6	82.7	29.7	89.1
	일반고	62.7	55.3	36.2	89.8	41.2	74.5	77.9	59.8	40.8	73.2	16.7	92.4
	특성학교	63.2	47.6	25.2	76.7	33.4	58.9	76.8	49.5	32.6	73.4	21.2	95.4
지	대도시	64.2	61.3	30.2	90.9	55.3	82.7	87.4	65.7	51.0	81.6	30.2	86.1
	중소도시	64.2	58.9	29.0	90.5	54.3	76.3	85.5	59.4	45.2	80.9	27.2	85.9
	읍/면	62.8	63.8	33.5	91.6	54.7	80.4	84.6	59.6	42.5	82.9	31.5	87.6
경	상	63.9	68.5	30.4	92.4	66.8	87.3	92.1	70.7	58.7	89.7	41.5	81.0
	중	64.4	60.3	30.1	90.8	54.0	79.6	86.3	61.5	45.8	80.7	27.2	87.0
	하	59.2	46.3	31.4	86.6	34.7	61.8	70.2	48.2	36.5	69.8	22.8	90.1

표 IV-12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빈도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이상	1주일에 1번	1주일에 2번이상	거의 매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	36.0	48.1	7.6	3.0	2.3	1.4	1.0	0.6
유스호스텔, 야영장	39.3	46.6	10.9	2.1	0.8	0.1	0.2	0.1
사회복지관	69.8	18.0	6.1	3.4	1.5	0.7	0.2	0.3
도서관	9.2	14.5	20.8	16.7	17.3	9.6	7.4	4.6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	45.2	36.3	12.4	3.7	1.7	0.4	0.2	0.1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기념관, 과학관	20.3	44.4	26.2	5.6	2.7	0.6	0.2	0.0
테마파크, 놀이동산, 공원,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13.8	44.9	29.8	6.3	3.4	1.0	0.5	0.3
공연장, 음악회	37.8	41.3	15.1	3.7	1.4	0.4	0.1	0.1
스포츠경기장(프로 축구· 야구·농구 등)	52.7	27.9	11.2	3.9	1.9	0.8	0.9	0.8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헬스장	18.5	21.6	15.5	8.8	6.2	5.7	11.7	12.1
직업체험관(키자니아, 잡월드 등)	70.8	24.2	3.8	0.6	0.4	0.1	0.0	0.0
만화방, 노래방, PC방, 게임방	13.7	13.6	16.3	15.8	14.7	8.9	11.2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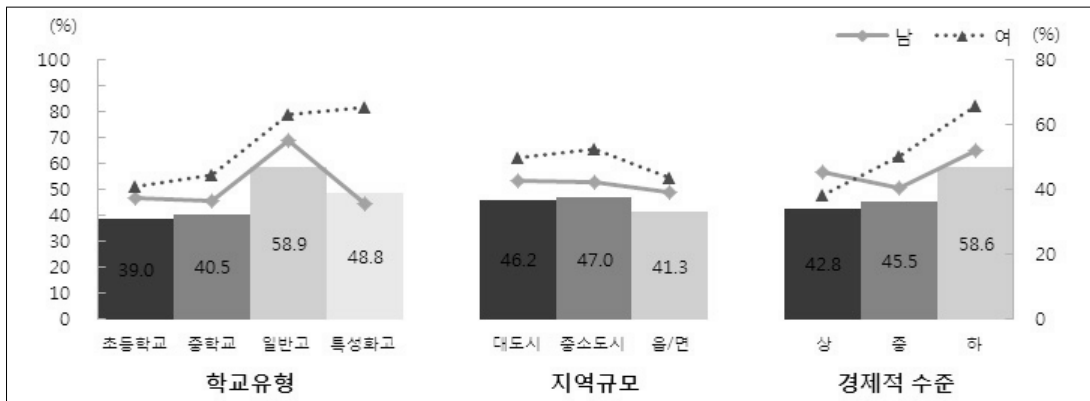
【그림 IV-5】 체험활동 시설이용 폭

(5) 체험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

최근 1년간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체험활동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초등학교생의 39.0%, 중학생의 40.5%,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58.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48.8%로,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IV-6 참조).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1, 2, 3순위로 응답하게 하고, 1순위 응답에는 300%, 2순위 응답에는 200%, 3순위 응답에는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 꼽은 것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였고, 두 번째 이유는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이유는 '참가비용이 부담돼서'였다. 즉 대부분 참여할 시간이 없거나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1, 2순위로 꼽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초등학교생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체험활동 장애요인 2순위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초등학교생의 경우는 '부모님의 반대'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를 2순위로 응답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참가비용이 부담돼서'라고 응답하여, 예산지원 등으로 격차해소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림 IV-6]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비율

표 IV-13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순위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전체		참여할 시간 없음	공부 방해	참가비용 부담	활동내용 잘모름	부모님의 반대	같이 참여할 친구 없음	필요/흥미 느끼지 못함	프로그램 마음에 들지않음	신청방법 모름
성별	남자	참여할 시간 없음	공부 방해	참가비용 부담	활동내용 잘모름	필요/흥미 느끼지 못함	부모님의 반대	같이 참여할 친구 없음	프로그램 마음에 들지않음	신청방법 모름
	여자	참여할 시간 없음	공부 방해	참가비용 부담	활동내용 잘모름	같이 참여할 친구 없음	부모님의 반대	신청방법 모름	프로그램 마음에 들지않음	필요/흥미 느끼지 못함
학교 유형	초등학교	참여할 시간 없음	부모님의 반대	참가비용 부담	같이 참여할 친구 없음	공부 방해	활동내용 잘모름	프로그램 마음에 들지않음	필요/흥미 느끼지 못함	신청방법 모름
	중학교	참여할 시간 없음	공부 방해	참가비용 부담	활동내용 잘모름	필요/흥미 느끼지 못함	같이 참여할 친구 없음	부모님의 반대	프로그램 마음에 들지않음	신청방법 모름
	일반고	참여할 시간 없음	공부 방해	활동내용 잘모름	참가비용 부담	신청방법 모름	부모님의 반대	같이 참여할 친구 없음	프로그램 마음에 들지않음	필요/흥미 느끼지 못함
	특성화고	참여할 시간 없음	활동내용 잘모름	참가비용 부담	신청방법 모름	필요/흥미 느끼지 못함	프로그램 마음에 들지않음	공부 방해	같이 참여할 친구 없음	부모님의 반대
경제 수준	상	참여할 시간 없음	공부 방해	부모님의 반대	활동내용 잘모름	참가비용 부담	프로그램 마음에 들지않음	필요/흥미 느끼지 못함	같이 참여할 친구 없음	신청방법 모름
	중	참여할 시간 없음	공부 방해	활동내용 잘모름	참가비용 부담	같이 참여할 친구 없음	부모님의 반대	필요/흥미 느끼지 못함	신청방법 모름	프로그램 마음에 들지않음
	하	참여할 시간 없음	참가비용 부담	공부 방해	활동내용 잘모름	같이 참여할 친구 없음	신청방법 모름	프로그램 마음에 들지않음	필요/흥미 느끼지 못함	부모님의 반대

다음으로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IV-14 참조). 장애요인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1순위 응답에는 300%, 2순위 응답에는 200%, 1순위 응답에는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이라고 응답하여 학교에서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는 '체험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2순위,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이 3순위였고, '체험활동에 참여한 기록을 학교 성적에 반영'하거나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체험활동 참여 필요사항(순위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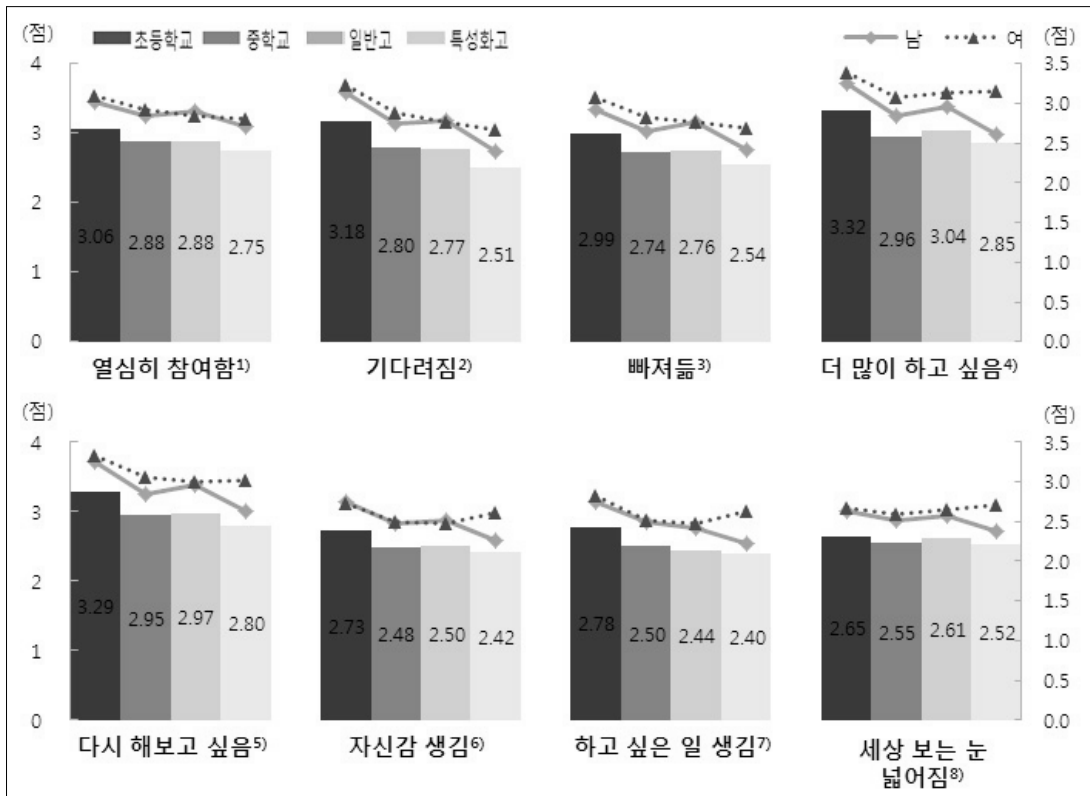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체		학교에서 기회 제공	참가비용 지원	정보제공	참여 기록을 학교성적에 반영	참여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성별	남자	학교에서 기회 제공	참가비용 지원	정보제공	참여 기록을 학교성적에 반영	참여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여자	학교에서 기회 제공	참가비용 지원	정보제공	참여 기록을 학교성적에 반영	참여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학교 유형	초등학교	학교에서 기회 제공	참가비용 지원	정보제공	참여 기록을 학교성적에 반영	참여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중학교	학교에서 기회 제공	참가비용 지원	정보제공	참여 기록을 학교성적에 반영	참여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일반고	정보제공	학교에서 기회 제공	참가비용 지원	참여 기록을 학교성적에 반영	참여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특성화고	참가비용 지원	정보제공	참여 기록을 학교성적에 반영	학교에서 기회 제공	참여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경제수준	상	학교에서 기회 제공	정보제공	참가비용 지원	참여 기록을 학교성적에 반영	참여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중	학교에서 기회 제공	참가비용 지원	정보제공	참여 기록을 학교성적에 반영	참여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하	참가비용 지원	학교에서 기회 제공	정보제공	참여 기록을 학교성적에 반영	참여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6)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15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분석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그런 편이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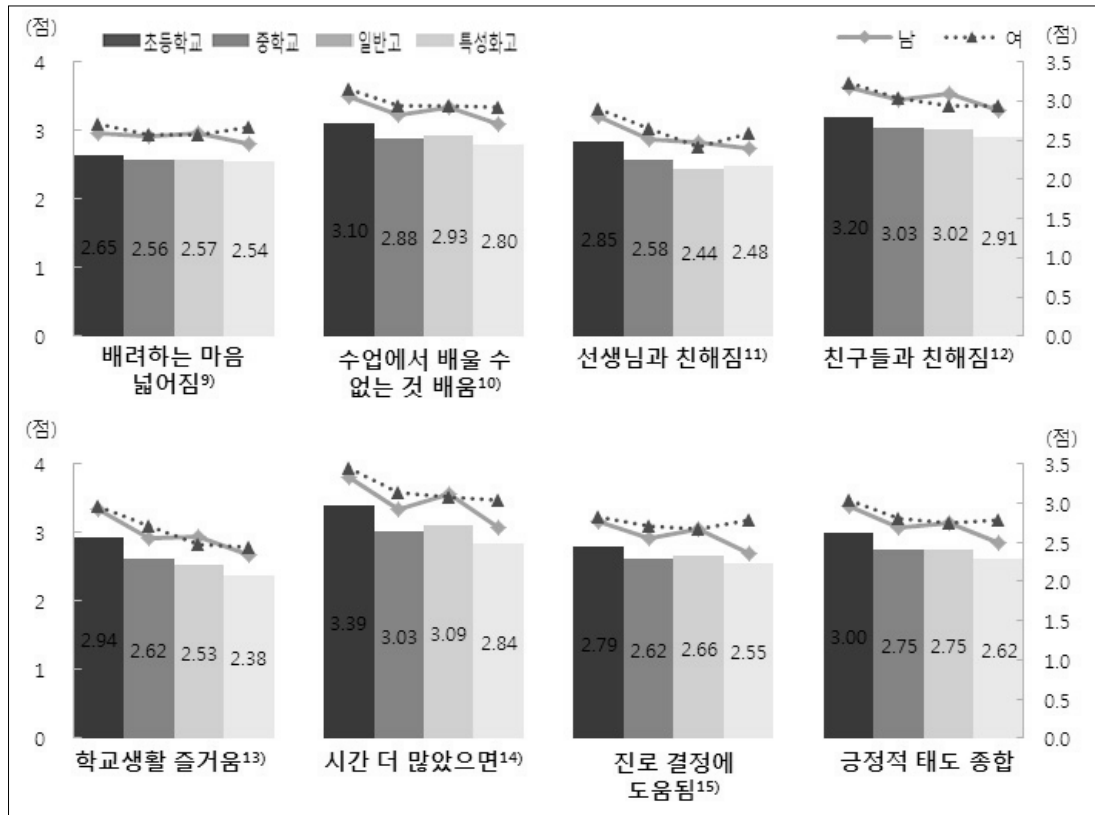
3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여 평균을 산출하였고, 긍정적 태도 종합은 15개 응답값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고 고급이 올라감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였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7 참조). 그러나 학교급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성차가 거의 없었고, 체험활동을 통해서 선생님, 친구들과 친해지고 학교생활이 즐겁다는 긍정적 인식은 남학생에서 더 높았다.



【그림 IV-7】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 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 2)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 3) 나는 체험활동에 빠져든다.
- 4)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 5) 다시 해 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다.
- 6)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 7)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 8)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그림 Ⅳ-7】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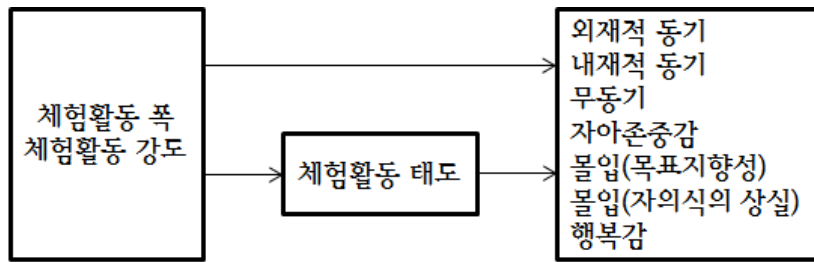
- 9)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 10)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 11)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 12)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 13) 나는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 14) 체험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 15)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7) 체험활동 참여와 정의적 특성의 관계

체험활동의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 변화의 분석을 위하여 경로분석모형(path analysis models)을 이용하였다. 경로분석은 셋 이상의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분석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

체험활동 참여의 폭과 강도는 청소년이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체험활동의 종류(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등)와 참여 수준(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등)으로 측정되었다. 매개변수로 설정된 태도 변수는 체험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수준으로 측정되었다(15개 문항). 내생변수는 동기, 자아존중감, 몰입, 행복감을 포함하였다. 동기변수는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 등 세 가지로 구성되었으나, <표 IV-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험활동 참여 변수와 외재적 동기, 무동기 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아 내재적동기만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몰입변수는 이창호(2002)의 6개 몰입척도 중 '목표지향성 몰입'과 '자의식의 상실 몰입'의 두 가지 척도가 조사되었다.



【그림 IV-8】 체험활동 참여와 정의적 특성의 관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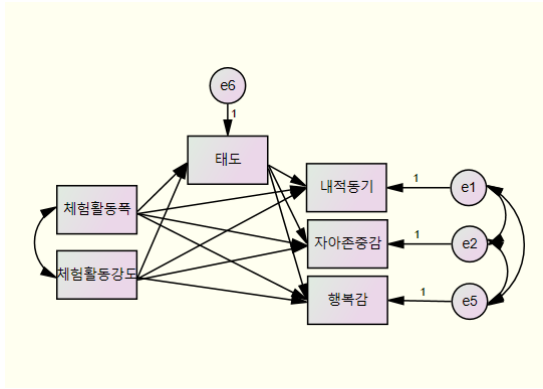
표 IV-15 체험활동 경험과 동기 변수의 상관

	체험활동의폭	체험활동의 강도	태도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
체험활동의폭	1	0.179**	0.347**	0.251**	0.022	-0.131**
체험활동의 강도	0.179**	1	0.363**	0.225**	-0.098**	-0.120**
태도	0.347**	0.363**	1	0.401**	-0.004	-0.258**
내재적 동기	0.251**	0.225**	0.401**	1	-0.144**	-0.435**
외재적 동기	0.022	-0.098**	-0.004	-0.144**	1	0.277**
무동기	-0.131**	-0.120**	-0.258**	-0.435**	0.27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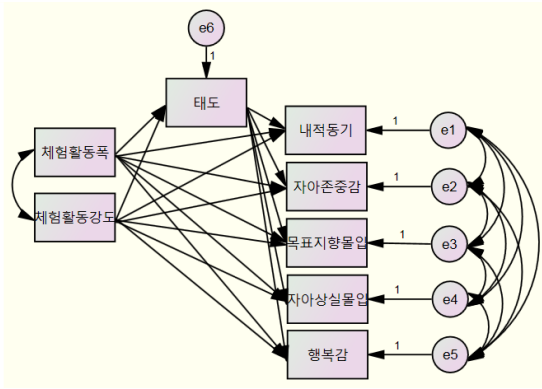
* $\alpha.05$, ** $\alpha.01$

①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가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체험활동의 폭(참여의 다양성)과 강도(참여의 깊이)가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IV-9]와 같이 초기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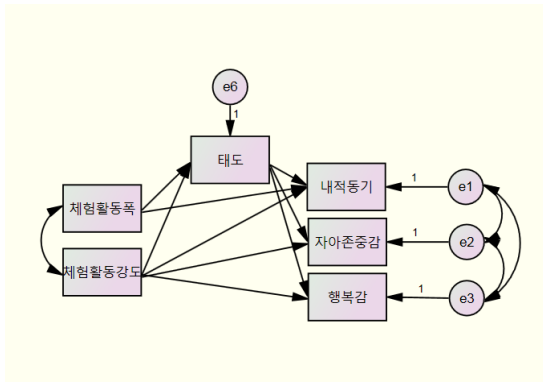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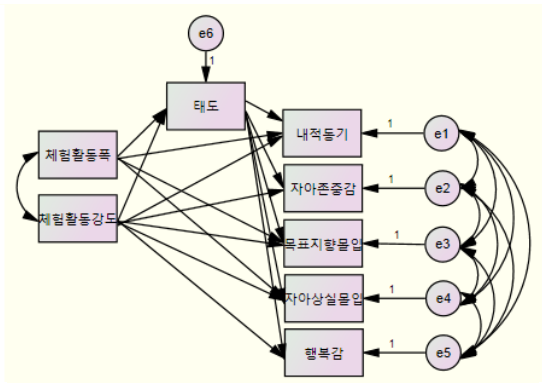


중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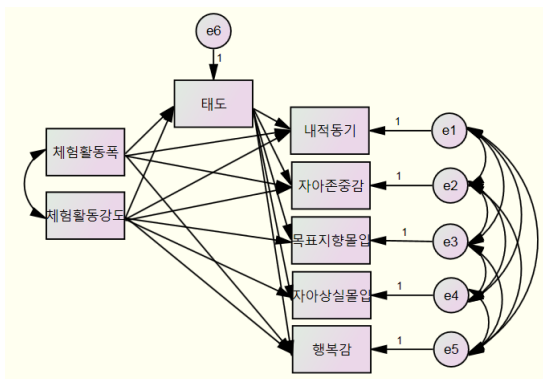
【그림 IV-9】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영향(초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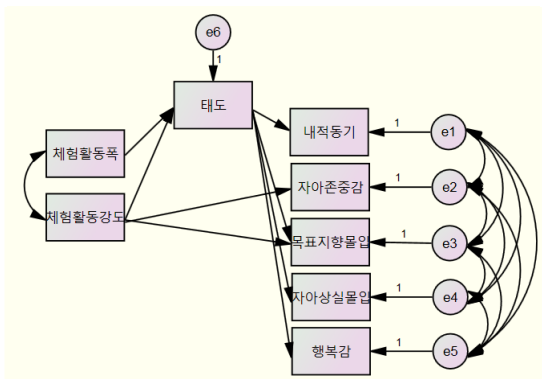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그림 IV-10】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영향(연구모형)

[그림 IV-9]의 초기모형에서 체험활동 참여의 폭과 강도는 정의적 특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초기모형에서 오차항은 서로 상관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는 경로를 삭제한 간명화된 연구모형과 이에 대한 추정 결과는 [그림 IV-10], <표 IV-16>, <표 IV-17>, <표 IV-18>과 같다.

표 IV-16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영향 모형 적합도

학교유형	$\chi^2(p\text{-value})$	DF	GFI	CFI	IFI	TLI	SRMR	RMSEA
초등학교	1.581(0.454)	2	1.000	1.000	1.000	1.002	0.0092	0.000
중학교	2.310(0.315)	2	1.000	1.000	1.000	0.998	0.0028	0.010
일반고	3.648(0.161)	2	0.999	0.999	0.999	0.988	0.0101	0.026
특성화고	10.347(0.323)	9	0.988	0.996	0.997	0.989	0.0441	0.025

표 IV-17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영향 분석 결과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경로계수(S.E.)	표준화계수	t-value	SMC
초 등 학 교	태도					0.179
		체험활동의 폭	0.637(0.074)	0.231	8.635**	
		체험활동의 강도	5.277(0.446)	0.316	11.821**	
	내적동기					0.221
		태도	0.327(0.025)	0.364	12.883**	
		체험활동의 폭	0.253(0.064)	0.102	3.939**	
		체험활동의 강도	1.987(0.412)	0.133	4.818**	
	자아존중감					0.134
		태도	1.173(0.294)	0.294	10.149**	
		체험활동의 강도	1.341(0.283)	0.137	4.729**	
		행복감				0.174
		태도	0.159(0.012)	0.367	12.973**	
	체험활동의 강도	0.764(0.205)	0.106	3.730**		
중 학 교	태도					0.208
		체험활동의 폭	0.741(0.066)	0.270	11.221**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경로계수(S.E.)	표준화계수	t-value	SMC
일 반 고		체험활동의 강도	5.583(0.431)	0.312	12.965**	
	내적동기					0.132
		태도	0.238(0.022)	0.301	10.921**	
		체험활동의 폭	0.192(0.055)	0.089	3.464**	
		체험활동의 강도	0.716(0.377)	0.051	1.900	
	자아존중감					0.073
		태도	0.112(0.015)	0.201	7.349**	
		체험활동의 강도	1.208(0.274)	0.121	4.413**	
	목표지향몰입					0.160
		태도	0.329(0.029)	0.310	11.455**	
		체험활동의 폭	0.172(0.071)	0.059	2.404*	
		체험활동의 강도	2.379(0.498)	0.125	4.776**	
	자아상실몰입					0.123
		태도	0.252(0.028)	0.265	9.076**	
		체험활동의 폭	0.140(0.075)	0.048	1.882	
		체험활동의 강도	2.339(0.508)	0.123	4.604**	
	행복감					0.109
		태도	0.118(0.011)	0.306	11.242**	
		체험활동의 강도	0.411(0.205)	0.054	2.004*	
		태도				0.174
		체험활동의 폭	0.783(0.080)	0.254	9.827**	
		체험활동의 강도	5.294(0.456)	0.300	11.608**	
	내적동기					0.131
		태도	0.224(0.024)	0.270	9.335**	
	체험활동의 폭	0.297(0.067)	0.116	4.404**		
	체험활동의 강도	1.302(0.409)	0.089	3.187**		
자아존중감					0.066	
	태도	0.119(0.018)	0.197	6.585**		
	체험활동의 폭	0.092(0.050)	0.049	1.839		
	체험활동의 강도	0.879(0.308)	0.083	2.856**		
목표지향몰입					0.106	
	태도	0.217(0.026)	0.241	8.498**		
	체험활동의 강도	2.430(0.451)	0.153	5.389**		
자아상실몰입					0.066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경로계수(S.E.)	표준화계수	t-value	SMC
		태도	0.193(0.027)	0.205	7.096**	
		체험활동의 강도	1.682(0.479)	0.102	3.509**	
	행복감					0.131
		태도	0.118(0.012)	0.277	9.438**	
		체험활동의 폭	0.061(0.035)	0.059	1.712	
		체험활동의 강도	0.441(0.212)	0.059	2.076*	
특성화 고	태도					0.205
		체험활동의 폭	1.153(0.193)	0.368	5.981**	
		체험활동의 강도	3.581(0.993)	0.222	3.605**	
	내적동기					0.130
		태도	0.275(0.048)	0.361	5.682**	
	자아존중감					0.020
		체험활동의 강도	1.337(0.463)	0.141	2.982*	
	목표지향몰입					0.147
		태도	0.314(0.061)	0.313	5.135**	
		체험활동의 강도	2.499(0.912)	0.154	2.741**	
	자아상실몰입					0.036
		태도	0.193(0.067)	0.189	2.897*	
	행복감					0.014
		태도	0.050(0.021)	0.117	2.383*	

*p <.05, **p<.01.

표 IV-18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표준화계수)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초등학교	태도					0.179
		체험활동의 폭	0.231**		0.231**	
		체험활동의 강도	0.316**		0.316**	
	내적동기					0.221
		태도	0.364**		0.367**	
		체험활동의 폭	0.102*	0.084**	0.186*	
	체험활동의 강도	0.133*	0.115*	0.248**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자아존중감					0.134
		태도	0.294*		0.294*	
		체험활동의 폭		0.068**	0.068**	
		체험활동의 강도	0.137*	0.093**	0.230*	
	행복감					0.174
		태도	0.367*		0.367**	
		체험활동의 폭		0.085**	0.085**	
		체험활동의 강도	0.106*	0.116*	0.222**	
	태도					0.208
		체험활동의 폭	0.270**		0.270**	
		체험활동의 강도	0.312*		0.312*	
	내적동기					0.132
		태도	0.301*		0.301*	
		체험활동의 폭	0.089**	0.081*	0.170*	
		체험활동의 강도	0.051	0.094*	0.144*	
	자아존중감					0.073
		태도	0.201*		0.201*	
		체험활동의 폭		0.054**	0.054**	
		체험활동의 강도	0.121*	0.063**	0.183**	
	목표지향몰입					0.160
		태도	0.310*		0.310*	
		체험활동의 폭	0.059*	0.084*	0.142**	
		체험활동의 강도	0.125**	0.097*	0.222*	
	자아상실몰입					0.123
		태도	0.265**		0.265**	
		체험활동의 폭	0.048*	0.071*	0.120**	
		체험활동의 강도	0.123**	0.083*	0.206*	
	행복감					0.109
		태도	0.306*		0.306*	
		체험활동의 폭		0.083**	0.083**	
		체험활동의 강도	0.054*	0.095*	0.149**	
	태도					0.174
		체험활동의 폭	0.254**		0.254**	
		체험활동의 강도	0.300*		0.300*	

중학교

일반고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내적동기					0.131
		태도	0.270*		0.270*	
		체험활동의 폭	0.116*	0.069**	0.185**	
		체험활동의 강도	0.089**	0.081**	0.170**	
	자아존중감					0.066
		태도	0.197*		0.197*	
		체험활동의 폭	0.049	0.050*	0.099**	
		체험활동의 강도	0.083*	0.059*	0.142*	
	목표지향몰입					0.106
		태도	0.242*		0.241*	
		체험활동의 폭		0.061**	0.061**	
		체험활동의 강도	0.153*	0.072**	0.225**	
	자아상실몰입					0.066
		태도	0.205*		0.205*	
		체험활동의 폭		0.052**	0.052**	
	체험활동의 강도	0.102**	0.062**	0.163**		
특성화고	행복감					0.131
		태도	0.277**		0.277**	
		체험활동의 폭	0.046	0.071*	0.117**	
		체험활동의 강도	0.059	0.083*	0.142*	
	태도					0.205
		체험활동의 폭	0.368**		0.368**	
		체험활동의 강도	0.222*		0.222*	
	내적동기					0.130
		태도	0.361**		0.361**	
		체험활동의 폭		0.133**	0.133**	
		체험활동의 강도		0.080*	0.080*	
	자아존중감					0.020
		체험활동의 강도	0.141*		0.141*	
	목표지향몰입					0.147
		태도	0.313*		0.313*	
	체험활동의 폭		0.115**	0.115**		
	체험활동의 강도	0.154**	0.069*	0.223**		
자아상실몰입					0.036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태도	0.189*		0.189*	
		체험활동의 폭		0.070*	0.070*	
		체험활동의 강도		0.042*	0.042*	
	행복감					0.014
		태도	0.117*		0.117*	
		체험활동의 폭		0.043*	0.043*	
		체험활동의 강도		0.026	0.026	

*p <.05, **p<.01.

[그림 IV-10]에 제시된 연구모형은 [그림 IV-9]와 비교하여 외생변수(체험활동의 폭과 강도)가 종속변수(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의 수가 줄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간명화 모형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기준인 0.9 이상의 GFI와 0.05이하의 RMSEA 수준을 고려할 때(Kline, 1998), 학교급별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표 IV-16>에서, 모든 학교급의 적합도 지수는 적절한 수준을 나타낸다.

경로계수와 효과수준을 제시한 <표 IV-17>과 <표 IV-18>에 따라, 전반적으로 체험활동의 참여 폭과 강도는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내적 동기, 자아존중감, 몰입, 행복감)에 대하여 모든 학교급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표준화계수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참여의 폭보다는 강도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는 폭과 강도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가 클수록 긍정적 태도를 가지며, 이는 다시 정의적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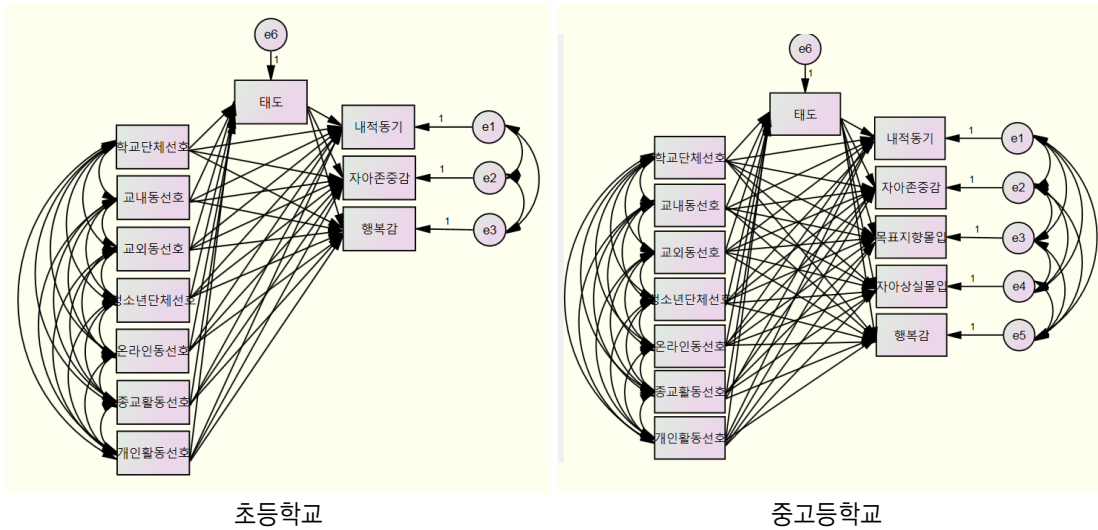
모형의 설명력은 중학교에서 가장 높으며, 체험활동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와 내적동기, 목표지향몰입에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체험활동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미약하다.

요약하면,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는 체험활동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험활동의 폭 보다는 강도가 청소년의 정의적 태도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학교급에서 체험활동 경험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체험활동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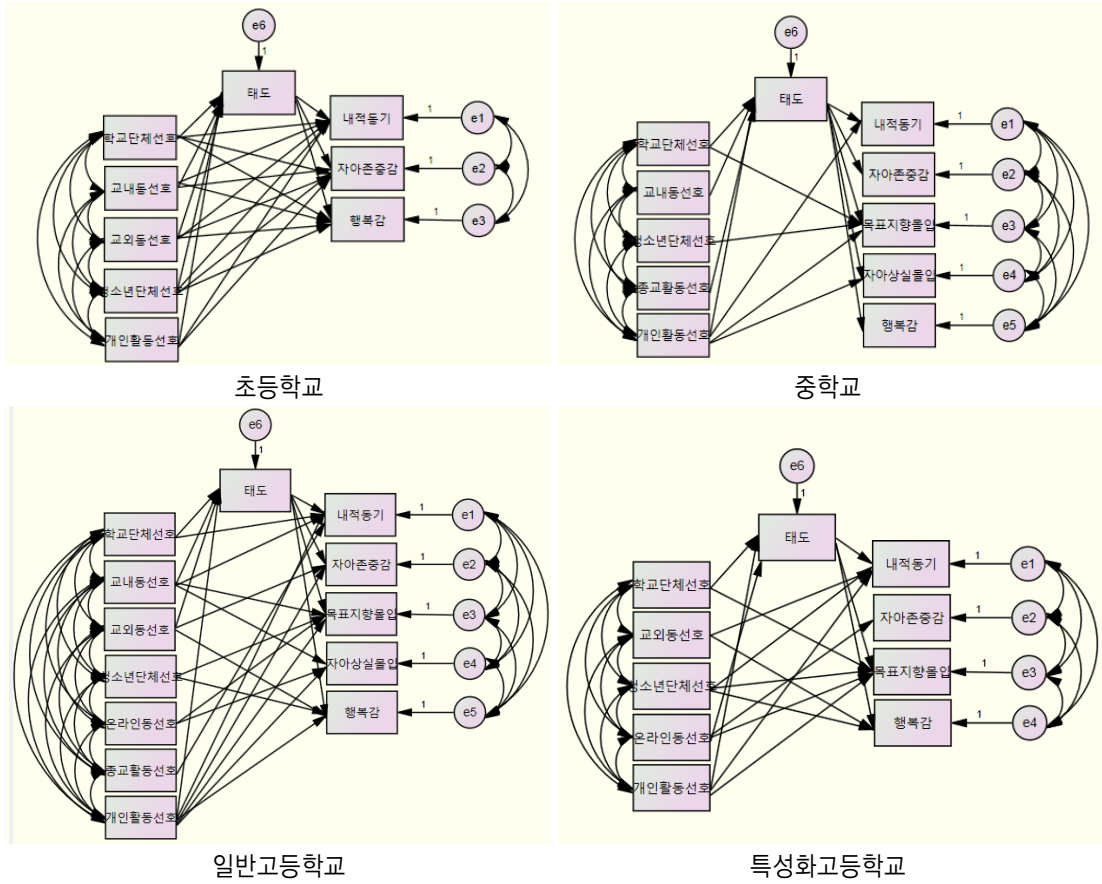
② 체험활동 참여방식이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체험활동의 참여방식(학교단체 참여, 교내동아리 참여 등 7개 유형)이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IV-11]과 같이 초기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IV-11] 체험활동 참여방식의 영향(초기모형)

[그림 IV-11]의 초기모형에서 체험활동의 7개 참여방식이 정의적 특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초기모형에서 오차항은 서로 상관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는 경로를 삭제한 간명화된 연구모형과 이에 대한 추정 결과는 [그림 IV-12], <표 IV-19>, <표 IV-20>, <표 IV-21>과 같다.



【그림 IV-12】 체험활동 참여방식의 영향(연구모형)

표 IV-19 체험활동 참여방식의 영향 모형 적합도

학교유형	$\chi^2(p\text{-value})$	DF	GFI	CFI	IFI	TLI	SRMR	RMSEA
초등학교	1.553(0.213)	1	1.000	1.000	1.000	0.989	0.0057	0.022
중학교	24.127(0.287)	21	0.997	0.999	0.999	0.997	0.0186	0.010
일반고	75.056(0.000)	23	0.991	0.975	0.976	0.916	0.0279	0.043
특성화고	18.219(0.149)	13	0.983	0.986	0.987	0.953	0.0458	0.043

표 IV-20 체험활동 참여방식의 영향 분석 결과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경로계수(S.E.)	표준화계수	t-value	SMC	
초등학교	태도					0.088	
		학교단체	0.373(0.088)	0.120	4.219**		
		교내동아리	0.432(0.199)	0.064	2.174*		
		교외동아리	0.220(0.209)	0.031	1.052		
		청소년 단체	0.477(0.119)	0.112	4.170**		
		개인 참여	0.561(0.091)	0.180	6.195**		
	내적동기						0.218
		태도	0.361(0.024)	0.403	14.961**		
		학교단체	-0.004(0.074)	-0.001	-0.052		
		교내동아리	0.188(0.165)	0.031	1.136		
		교외동아리	-0.123(0.173)	-0.019	-0.708		
		청소년단체	0.095(0.099)	0.025	0.963		
		개인 참여	0.663(0.079)	0.148	8.440**		
	자아존중감						0.121
		태도	0.199(0.017)	0.340	11.999**		
		학교단체	-0.010(0.051)	-0.005	-0.193		
		교내동아리	-0.130(0.114)	-0.033	-1.140		
		교외동아리	0.087(0.120)	0.021	0.722		
		청소년 단체	-0.071(0.069)	-0.029	-1.037		
		개인 참여	0.080(0.040)	0.044	1.998*		
	행복감						0.167
	태도	0.178(0.012)	0.409	14.947**			
	학교단체	0.012(0.037)	0.009	0.323			
	교내동아리	-0.099(0.082)	-0.034	-1.205			
	교외동아리	0.107(0.086)	0.035	1.246			
	청소년 단체	-0.065(0.050)	-0.035	-1.304			
중학교	태도					0.122	
		학교단체	0.369(0.082)	0.116	4.511**		
		교내동아리	0.533(0.137)	0.100	3.879**		
		종교 단체	0.689(0.255)	0.068	2.696**		
		개인 참여	0.889(0.092)	0.247	9.632**		
내적동기						0.146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경로계수(S.E.)	표준화계수	t-value	SMC
일반고		태도	0.238(0.020)	0.302	11.856**	
		개인 참여	0.462(0.071)	0.162	6.546**	
		자아존중감				0.060
		태도	0.138(0.014)	0.246	9.628**	
		목표지향몰입				0.149
		태도	0.371(0.027)	0.350	13.681**	
		학교단체	0.046(0.081)	0.007	0.572	
		청소년단체	0.403(0.199)	0.044	2.026*	
		개인 참여	0.281(0.093)	0.073	3.015**	
		자아상실몰입				0.112
		태도	0.325(0.028)	0.306	11.795**	
		개인 참여	0.271(0.096)	0.071	2.819**	
		행복감				0.106
		태도	0.139(0.011)	0.326	13.074**	
	일반고		태도			
		학교단체	0.447(0.100)	0.124	4.470**	
		교내동아리	0.578(0.161)	0.099	3.601**	
		교외동아리	1.180(0.231)	0.138	5.107**	
		개인 참여	0.704(0.112)	0.173	6.279**	
		내적동기				0.117
		태도	0.200(0.022)	0.243	8.997**	
		학교단체	0.199(0.078)	0.067	2.565*	
		교내동아리	0.368(0.129)	0.077	2.859**	
		종교 활동	0.272(0.228)	0.030	1.193	
		개인 참여	0.393(0.093)	0.118	4.232**	
		자아존중감				0.052
		태도	0.103(0.017)	0.172	6.195**	
		교외동아리	-0.021(0.133)	-0.004	-0.159	
		개인 참여	0.286(0.069)	0.118	4.177**	
		목표지향몰입				0.076
		태도	0.185(0.024)	0.208	7.746**	
		교내동아리	0.066(0.137)	0.013	0.479	
		청소년 단체	-0.375(0.280)	-0.033	-1.338	
		온라인 동아리	1.103(0.338)	0.083	3.260**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경로계수(S.E.)	표준화계수	t-value	SMC
특성화고		개인 참여	0.339(0.101)	0.110	3.928**	
	자아상실몰입					0.023
		교내동아리	0.113(0.151)	0.021	0.746	
		온라인 동아리	1.281(0.379)	0.091	3.383**	
		개인 참여	0.415(0.108)	0.109	3.846**	
	행복감					0.082
		태도	0.108(0.012)	0.258	9.381**	
		교외동아리	-0.014(0.096)	-0.004	-0.145	
		청소년 단체	-0.094(0.109)	-0.018	-0.866	
		개인 참여	0.127(0.047)	0.084	2.694**	
	태도					0.149
		학교단체	0.910(0.259)	0.228	3.518**	
		온라인동아리	1.238(0.796)	0.103	1.554	
		개인 참여	0.962(0.293)	0.224	3.282**	
	내적동기					0.163
	태도	0.240(0.049)	0.317	4.856**		
	교외동아리	0.714(0.464)	0.094	1.540		
	청소년단체	2.050(0.768)	0.168	2.668**		
	개인활동	0.222(0.213)	0.068	1.041		
자아존중감					0.006	
	온라인동아리	-0.567(0.354)	-0.080	-1.601		
목표지향몰입					0.149	
	태도	0.281(0.063)	0.282	4.471**		
	학교단체	0.171(0.234)	0.043	0.733		
	청소년 단체	3.307(0.979)	0.206	3.379**		
	온라인동아리	-1.064(0.745)	-0.089	-1.429		
	개인 활동	0.536(0.276)	0.125	1.942		
행복감					0.027	
	태도	0.034(0.021)	0.081	1.668		
	교외동아리	-0.572(0.207)	-0.138	-2.768**		
	청소년단체	0.519(0.336)	0.076	1.548		

*p <.05, **p <.01.

표 IV-21 체험활동 참여방식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표준화계수)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초등학교	태도					0.088
		학교단체	0.120**		0.120**	
		교내동아리	0.064		0.064	
		교외동아리	0.031		0.031	
		청소년 단체	0.112*		0.112*	
		개인참여	0.180*		0.180*	
	내적동기					0.218
		태도	0.403**		0.403**	
		학교단체	-0.001	0.048**	0.047	
		교내동아리	0.031	0.026*	0.057	
		교외동아리	-0.019	0.012	-0.007	
		청소년 단체	0.025	0.045*	0.070**	
		개인참여	0.148**	0.072**	0.220*	
	자아존중감					0.121
		태도	0.340*		0.340*	
		학교단체	-0.005	0.041**	0.036	
		교내동아리	-0.033	0.022*	-0.011	
		교외동아리	0.021	0.011	0.031	
		청소년 단체	-0.029	0.038*	0.010	
		개인참여	0.044*	0.061**	0.105*	
	행복감					0.167
	태도	0.409**		0.409**		
	학교단체	0.009	0.049**	0.058		
	교내동아리	-0.034	0.026*	-0.008		
	교외동아리	0.035	0.013	0.047		
	청소년 단체	-0.035	0.046*	0.011		
	개인참여		0.073*	0.073*		
중학교	태도					0.122
		학교단체	0.116**		0.116**	
		교내동아리	0.100**		0.100**	
		종교단체	0.068**		0.068**	
		개인참여	0.247*		0.247*	
	내적동기					0.146
	태도	0.302*		0.302*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학교단체		0.035*	0.035*		
		교내동아리		0.030*	0.030*		
		종교단체		0.020**	0.020**		
		개인참여	0.162**	0.074*	0.237*		
		자아존중감					0.060
		태도	0.246*		0.246*		
		학교단체		0.029**	0.029**		
		교내동아리		0.025*	0.025*		
		종교단체		0.017**	0.017**		
		개인참여		0.061*	0.061*		
		목표지향몰입					0.149
		태도	0.350*		0.350*		
		학교단체	0.007	0.041*	0.047		
		교내동아리		0.035**	0.035**		
		청소년 단체	0.044*		0.044*		
		종교단체		0.024**	0.024**		
		개인참여	0.073**	0.086*	0.160**		
		자아상실몰입					0.112
		태도	0.306**		0.306**		
		학교단체		0.035**	0.035**		
	교내동아리		0.031**	0.031**			
	종교단체		0.021**	0.021**			
	개인참여	0.071**	0.076**	0.061**			
	행복감					0.106	
	태도	0.326*		0.326*			
	학교단체		0.038**	0.038**			
	교내동아리		0.033*	0.033*			
	종교단체		0.022**	0.022**			
	개인참여		0.008*	0.008*			
일 반 교	태도					0.096	
		학교단체	0.124*		0.124*		
		교내동아리	0.099*		0.099*		
		교외동아리	0.138*		0.138*		
		개인참여	0.173*		0.173*		
		내적동기					0.117
	태도	0.243**		0.243**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학교단체	0.067*	0.030**	0.097**		
		교내동아리	0.077*	0.024*	0.101**		
		교외동아리		0.034**	0.034**		
		종교단체	0.030		0.030		
		개인참여	0.118**	0.042*	0.160*		
		자아존중감					0.052
		태도	0.172*		0.172*		
		학교단체		0.030**	0.030**		
		교내동아리		0.024*	0.024*		
		교외동아리	-0.004	0.034**	0.020		
		개인참여	0.118*	0.030*	0.147*		
		목표지향몰입					0.076
		태도	0.208*		0.208*		
		학교단체		0.026**	0.026**		
		교내동아리	0.013	0.021*	0.033		
		교외동아리		0.029**	0.029**		
		청소년단체	-0.033		-0.033		
		온라인 동아리	0.083**		0.083**		
		개인참여	0.110*	0.036*	0.146*		
		자아상실몰입					0.023
		교내동아리	0.021		0.021		
		온라인 동아리	0.091**		0.091**		
		개인참여	0.109*		0.109*		
		행복감					0.082
		태도	0.258*		0.258*		
		학교단체		0.032**	0.032**		
		교내동아리		0.026*	0.026*		
		교외동아리	-0.004	0.036**	0.032		
		청소년단체	-0.018		-0.018		
		개인참여	0.084**	0.045*	0.125**		
특성화고	태도					0.149	
		학교단체	0.228*		0.228*		
		온라인 동아리	0.103		0.103		
		개인참여	0.224*		0.224*		
	내적동기					0.163	
	태도	0.317*		0.317*			

학교 유형	내생변수	외생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학교단체		0.072**	0.072**	
		개인참여	0.068	0.071**	0.139*	
		교외동아리	0.094		0.094	
		온라인 동아리	0.168*	0.033	0.033	
		자아존중감				0.006
		온라인 동아리	-0.080		-0.080	
		목표지향몰입				0.149
		태도	0.282*		0.282*	
		학교단체	0.043	0.064**	0.107	
		개인참여	0.125*	0.063**	0.188**	
		청소년 단체	0.206*		0.206*	
		온라인 동아리	-0.089	0.029	-0.060	
		행복감				0.027
		태도	0.081		0.081	
		학교단체		0.019	0.019	
		교외동아리	-0.135*		-0.135*	
		청소년 단체	0.076*		0.076*	
		개인참여		0.018	0.018	
		온라인 동아리		0.008	0.008	

*p <.05, **p<.01.

[그림 IV-12]에 제시된 연구모형은 [그림 IV-11]과 비교하여 외생변수(참여방식)가 종속변수(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의 수가 줄었으며, 체험활동 참여방식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학교급별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표 IV-19>에서, 모든 학교급의 적합도 지수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다.

경로계수와 효과수준을 제시한 <표 IV-20>과 <표 IV-21>에 따라, 전반적으로 체험활동 참여방식 중 개인참여가 대부분의 정의적 특성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는 다른 학교급이나 일반고등학교와 달리 교외동아리, 청소년단체 등 자발적 참여방식이 정의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형의 설명력은 중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체험활동 참여방식이 내적동기와 목표지향 몰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그림 IV-10]와 [그림 IV-12]에 제시된 체험활동(폭과 강도, 참여방식)의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는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업 활동 등을 포함한 개인 및 학교 특성이 보다 광범위하게

분석모형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은 체험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체험활동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학교 및 개인 맥락변수가 분석모형에 포함될 때, 체험활동의 고유영향과 이에 따른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형 범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 참여방식은 내적동기, 자이존중감, 몰입, 행복감 등 청소년 정의적 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라는 매개 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경로분석모형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2. 학부모 요구조사

1) 조사의 개요

자녀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41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이상의 초·중·고생 자녀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대상자는 서울의 강북지역 및 강남지역과 중소도시지역 중에서는 청주시, 읍면동 지역 중에서는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선정하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강북과 강남지역의 차이가 현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두 지역으로 나누어 대상자 그룹을 선정하였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지역 중 한 곳(충청북도)을 선정한 후 중소도시와 군 지역을 각각 한 곳씩 선정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로 직장인과 전업주부의 비율을 50:50으로 구성하였다(<표 IV-22> 참조).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1차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5점 척도로 하여 5점 ‘매우 관심이 많다’에 응답한 대상자를 최종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한정된 대상자에 대한 FGI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는 2013년 9월 26일, 27일, 28일 3일간 실시하였으며, 서울지역은 전업주부 그룹과 직장인 그룹을 별도의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중소도시(청주시)와 군 지역(증평군)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와 직장인을 함께 조사하였다. 따라서 조사그룹은 총 6개 그룹이다. 1개 그룹 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실시하였다.

표 IV-22 학부모요구조사(FGI) 대상 일람

그룹	ID	직업	지역	자녀사항
Goup 1	A1-1	전업주부	서울 강남구	초6(남)
	A1-2	전업주부	서울 송파구	초6(남)
	A1-3	전업주부	서울 강남구	중2(여)/초5(남)
	A1-4	전업주부	서울 송파구	중1(남)/초3(여)
	A1-5	전업주부	서울 송파구	고2(남) 2명 / 대학생(여)
	A1-6	전업주부	서울 강남구	고3(남)/중1(남)
	A1-7	전업주부	서울 강남구	고3(여)/중3(여)
Goup 2	A2-1	직장인	서울 서초구	초5(남)
	A2-2	직장인	서울 서초구	초6(여)/초3(남)
	A2-3	직장인	서울 송파구	중2(남)
	A2-4	직장인	서울 송파구	중1(여)/초5(여)/초4(남)
	A2-5	직장인	서울 송파구	중1(남)
	A2-6	직장인	서울 강남구	고2(남)/고1(여)
	A2-7	직장인	서울 강남구	고2(남)/중3(여)
	A2-8	직장인	서울 송파구	고1(남)
Goup 3	B1-1	전업주부	서울 중랑구	초5(여)
	B1-2	전업주부	서울 중랑구	초6(남)/초3(남)
	B1-3	전업주부	서울 강서구	초6(남)
	B1-4	전업주부	서울 강서구	중1(남)/초5(여)
	B1-5	전업주부	서울 노원구	중3(남)/초6(여)
	B1-6	전업주부	서울 노원구	고1(여)/초6(여)
	B1-7	전업주부	서울 중랑구	고3(남)/중2(여)
Goup 4	B1-1	직장인	서울 성북구	초6(여)/초5(남)
	B2-2	직장인	서울 노원구	초5(남)
	B2-3	직장인	서울 성북구	중1(남)/초4(여)
	B2-4	직장인	서울 중랑구	중2(여)
	B2-5	직장인	서울 노원구	고2(여)/유아
	B2-6	직장인	서울 강서구	고1(남)/초6(여)
	B2-7	직장인	서울 성북구	고2(남)/중2(여)
Goup 5	C1-1	전업주부	충북 증평군	초6(남)/중3(남)
	C1-2	직장인	충북 증평군	초6(여)/초4(남)
	C1-3	전업주부	충북 증평군	중2(여)
	C1-4	직장인	충북 증평군	중3(남)/초6(남)
	C1-5	전업주부	충북 증평군	고3(남)/고1(여)/중2(남)
	C1-6	직장인	충북 증평군	고3(남)/고1(여)
Goup 6	C2-1	전업주부	충북 청주시	초5(여)/유아(여)
	C2-2	직장인	충북 청주시	초6(남)/대학생 2명
	C2-3	전업주부	충북 청주시	중3(여)
	C2-4	직장인	충북 청주시	중3(남)/중2(여)
	C2-5	전업주부	충북 청주시	고1(남)/중2(남)
	C2-6	직장인	충북 청주시	고1(여)/유아(여)

집단심층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자녀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및 유형’, ‘체험활동 실태 및 평가’, ‘체험활동 경험과 학업·입시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학부모들이 아직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2013년에 일어난 ‘태안해병태캠프’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청소년활동의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을 물었으며,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수련회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군지역의 FGI에서는 단어카드를 제시하여 수련활동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고르게 한 후 수련활동의 이미지나 인식을 물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표 IV-23>과 같다.

표 IV-23 반구조화된 학부모요구조사(FGI) 질문지

조사영역	반구조화된 질문지
자녀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들이 하고 있는 체험활동에 대한 인지 및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많은 체험활동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의견 ○ 자녀들이 하고 있는 체험활동 유형(창의적 체험활동/방과후 학교/학교밖 체험활동/사적인 체험활동) ○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체험활동 실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하는 체험활동 횟수 및 기회의 적절성 ○ 자녀가 하고 있는 체험활동 실태 및 참여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및 학원 등에서 개인적으로 시키고 있는 체험활동의 종류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등에 대한 평가 - 체험활동 유형, 투여시간, 비용의 부담 정도 - 방과후학교 및 개인적인 체험활동을 시키지 않는 이유 ○ 자녀가 하고 있는 체험활동의 인성교육 등 교육적 도움 및 효과에 대한 생각 ○ 학교(또는 학교 밖)에서 하는 체험활동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체험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의 선택 여부(강제성 여부), 원하는 활동의 제한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 제공의 충분성 - (창의적 체험활동/방과후학교 등)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 학교 체험활동의 예산지원 등 정부지원에 대한 생각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충분성 -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사영역	반구조화된 질문지
체험활동 경험과 학업·입시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 자녀의 체험활동과 학업/입시(입학사정관제 등)에 대한 도움 여부 및 그 이유 ○ 향후 체험활동 경험의 대입 반영(입학사정관제 등)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지도 ○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평가	○ 수련활동에 대한 이미지 ○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 청소년 체험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센터 등)에 대한 평가

2) 조사결과

(1) 자녀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및 유형

가. 자녀의 체험활동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하고 있는 체험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방과후학교나 학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학교내 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으며, 직장을 가진 학부모들의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 그 이유를 대체로 학교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데서 찾았다.

“학교에서는 진로체험이나 창의적 체험이라고 했을 때는 자세한건 몰라요. 학교에서 운영되는 거라서 그냥 뭐 한다 뭐 한다 그게 지금 들어서 이게 창의적 활동이 체계적으로 된거구나...전반적으로 자세한건 모르겠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지같은 게 있었으면...” (A2-2)

“세세하게까지는. 하는건 알려주지만 어떻게 진행하는 것까지는. 전화 올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모르죠.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남자애라서. 그냥 다니고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만...” (B1-2)

“애가 좋아하는거 위주로 동아리나 방과후 하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엄마인데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A2-4)

그렇지만, 학교에서 자녀를 통해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기 때문에 정보가 충분하다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으며,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창의적 체험활동이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가 일일이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방과후학교나 개인적인 체험활동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비용을 지불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 관심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 대부분은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경향을 보이며,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잘 응답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 만큼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에서의 자녀의 체험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자녀의 성별이나 학교급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별로 보자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인지도나 관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성별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저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지만 남자아이라 많은 얘기를 하게 되지는 않아서 아이가 갔다 왔으면 제가 물어봐도 엄마 그냥 그랬어 하고 말아버리니까 애한테 어떤 영향이 있고 애가 어떤 걸 느꼈는지, 애가 다음에 이걸 또 하고 싶은지를 솔직히 잘 모르니까요.” (B1-2)

당연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체험활동의 기회가 적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거랑 관계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학습 많이 해야 되니까 조금. 그런데 고3 되면 그건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1-6)

“고등학교 때 뭘 한다는 자체가 체험활동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2학년 때는 토요일에도 학교 가죠, 3학년 때는 일요일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도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바쁘니까 고등학생들의

체험활동은 거의 못 이뤄진다는 생각이 깔려있어요...” (C2-2)

전반적으로는 전업주부가 직장인에 비해 자녀가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가정통신문으로 오거든요. 주는 친구들은 엄마가 너무 잘 알고 안주는 친구들은 모르는거죠...”
“뒤져야죠”, “네, 엄마가 뒤져야죠.”, “그래서 학교에서 문자로 보내주더라구요. 일정표를 보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B1그룹 학부모 다수)

“(아이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물어봤더니 프로그램은 되게 많더라구요. 중학교는 더 많아요. 고등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두개 다 축구를 했대요. 일주일에 두번 하는데 화요일, 수요일. 그런데 수요일은 2주에 한 번씩 돌아온대요. 화요일은 계속 가는거고 수요일은 2주에 한번씩. 두개 다 축구동아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C2-5)

“학교에서 한다는건 아는데 뭘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남자애다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초등학교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해서 했는데 서서히 엄마의 성격을 파악하는 순간 안내놓기 시작하죠. 중요치 않은건 아주 없애버려요...” (C2-4)

강남과 강북을 비교할 때, 강남의 인지도나 관심이 강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이거나 지역 차이라기보다는 학교 선생님의 관심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니까 지금은 교육청에서 직업체험을 초중고 전부 다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사람 구경만 하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갔어요. 다시 체험을 온전하게 하고 왔어요...” (A2-8)

“세세하게까지는. 하는건 알려주지만 어떻게 진행하는 것까지는. 전화 올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모르죠...” (B1-2)

지역에 비해 서울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거나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나. 자녀들이 하고 있는 체험활동 유형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외에 방과후 학교와 학교밖 체험활동을 모두 진행하나,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학교밖 체험활동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보통 많이 체험활동 하고 방과후도 많이 하거든요. 6학년 아이는 아무래도 공부쪽으로 조금 더 치중하게 되더라고요, 중학교 때문에. 하기는 하되 체험활동이 좀 줄더라고요. 줄고 공부쪽, 학원쪽 비중을 늘리고.” (B1-2)

“중1은 학교에 가보니 체험활동을 각자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더라고요.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들고” (A2-4)

전업주부들은 고학년 자녀에 대해서도 체험활동을 시키려는 경향이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태권도도 갔는데 중학교 가니까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부모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점점 줄이는 것 같아요.” (B2-3)

“애가 고2니까 본인이 줄여요. 모의고사 저번에 봤고 선생님이란 상담하잖아요. 인성이나 다 갈 수 있는데를 이야기 하다보면 본인 실력이 안된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하고 있던 것도 줄이더라고요.” (B2-5)

“저도 체험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3이지만 고3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 붙잡아놓는다고 그 애들이 다 공부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쟁으로 학교에서 부모하고 사회에서 다 경쟁으로 공부만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공부 할 애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거 할 애들은 체험활동을 통해서 그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게 다 발판이 되는거잖아요. 체험활동 하면서 사회생활을 조금 일찍 경험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A1-6)

“저는 당연히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가면 모르게 다 중단되고 학업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저도 고1 되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고3 엄마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도 1, 2학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는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첫아이일 경우에 그 아이의 마지막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3 아이가 있는데 개도 고2까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A1-7)

“저는 고3이라 지금 체험활동이라는건 거의 안했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게 많아요.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거.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체육쪽이기 때문에 따로 하기도 하고. 저는 체험활동 위주로 가도 진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시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B1-7)

“(자녀가 고학년이라도 체험활동이 더 늘어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시면 엄마들이 발로 뛸 수 없잖아요. 정보가 많아야 되는데 정보가 없는거예요...” (B1-6)

지역은 서울에 비해 교과수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후 학교 체험활동을 위주로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입시 제도가 고3쪽으로 가는데 교외 스펙은 사실 중요시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교외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내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외에 관계 된 것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지금은 거의 활동 안하게 되고 교내에서 이뤄지는 방과후 활동이나 창체로 가고 있어요.” (C1-6)

증평은 지역 시설이나 지역 전통 체험활동 내용을 위주로 시키며, 반면 청주는 증평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에 가까운 체험활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가다 오다 보기도 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많이. 사이트 들어가면 그런거 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평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활동이 있어서 애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요.” (C1-3)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거 못했고 거의 책으로만 해줬고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책 사줘서 읽고, 또 체험 가서 방문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거의 책으로만 하고 박물관 위주로 다녔던 것 같아요.”(C1-6)

“도서관에는 클럽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 가서 많이 활용했어요.” (C1-5)

“주로 증평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에서 동아리 식으로 하는게 많아요.” (C1-3)

다. 체험활동 정보습득 경로

전반적으로 체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찾을 때 인터넷이나 다른 학부모, 학교의 방과후 활동 안내문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멀리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이 하자고 전화하죠.” (A1-1)

학부모 그룹으로부터 나온 정보 및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기에는 인터넷이나 제가 스스로 알아봤는데 애가 처해있는 상황하고 적절하게 맞물릴 수 있는건 그래도 학부모들 입소문을 통한게 더 정확하구나, 이게 무시할게 못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A1-1)

초등학교에서는 다른 학부모를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한 편이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부모를 통한 정보 획득 정도가 전업주부와 직장인간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가능해요. 토요일 방과후때 나가서 같이 얘기하다보면 공유는 어느 정도 다 되는 것 같아요.... (반면 중학교에 올라가면) 하나도 몰라요. 못 만나요.” (B2 다수)

“고등학교 가면 엄마들이 그런 얘기 안 해줘요. 학교 엄마들이 그런 얘기 안 해줘요. 라이벌인데요. 라이벌이에요. 고등학교 엄마들은 안 해주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엄마들은 같이 컸으니까 그 엄마들은 해줘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안 해줘요.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하고 말아요. 절대 얘기 안 해줘요.” (B2-5)

전업주부들의 정보획득 경로가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저희(전업주부)는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많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면서 많이 듣고 또 내가 스스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니까 직장엄마들보다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B1-7)

지역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체험활동에 대해 인터넷(특히 포털사이트)에 대한 활용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지자체 및 지역 내 시설(시설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저는 애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도서관을 많이 활용했어요 "(C1-5)

"그거 말고도 구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사 정보를.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에서 하는거, 구청에서 하는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거,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 등 많은 정보를 주시거든요."(C1-1)

(2) 체험활동 실태 및 평가

가. 학교에서 하는 체험활동 횟수 및 기회의 적절성

자녀가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및 활동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학부모가 많았다.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슬로건으로 내거는 활동 이외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방과후는 저희가 사비를 내는거 말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A1-1)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저학년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반면 중학교 고학년 이상에서는 적절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너무 적어요." ,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B1-1, B1-2)

"저는 고2쯤 되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는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A1-5)

공통적으로 체험활동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표 구성 및 활동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다른건 모르겠고 작년에 수영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딱 왔는데 첫날 가서 발차기가 다 되고 둘째 날 자유수영이 다 되고 열 번 만에 마스터가 됐어요.... 1년씩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열 번에 어떻게 수영이 마스터가 될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설렁설렁 대충 대충 하더라구요..." (B1-1)

나. 자녀가 하고 있는 체험활동 실태 및 참여정도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순으로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시키고 있었다. 중학교 이후로는 학과 공부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체험활동의 횟수 등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때는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탭댄스, 미술도 하고 수영도 조금 하고, 중학교 때는 난타하고 그런걸 했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거죠. 프로그램 자체도 없고 일단 시간도 안되고 그러니까 못하는거예요."(B1-6)

"(초등학교 땐 피아노도 시켰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다보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학교 끝나고 학원 가면 집에 10시 넘어서 오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만뒀어요." (C1-4)

주로 스포츠, 예술 위주로 체험활동을 시키고 있으며, 비용 부담은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의견인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저희 고등학교는 방과후가 예술 쪽은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방과후가 다 공부, 논술, 영어 경시 하니까 학교에서 완전히 다 배제돼있었던 것 같고.."(A2-8)

방과후 학교의 수강 인원이 너무 많은 문제, 시간표 선택의 폭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다.

"저는 일단 시간이 안 맞아서요. 그리고 어차피 아이들이랑 전체가 하는거기 때문에 시간만 맞으면 저는 방과후로 돌리거든요. 그런데 방과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방과후로 돌릴 의향은 있어요."(A1-1)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없거나 방과후 학교에 불만을 느끼는 학부모는 사교육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미술도 방과후를 하려고 했는데 애네들은 강남애들이니까 입시 위주 미술로만 하는거예요. 그래서 방과후가 자꾸 결성이 안 되는거예요. 저희 아이는 입시미술은 하기 싫는데...동네 미술학원을 다니고

됐는데 상당히 좋아하죠. 안정감을 갖고.."(A.2-7)

"가격 대비 인원수가 너무 많아요. 한반에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돼야 개설되거든요. 그럼 한 아이당 3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센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받게 되면 차라리 1대 1로 배우니까 그게 아이한테 훨씬 집중도 잘 되고 이해하는 것도 훨씬 빠르고.."(A2-6)

"방과후는 진짜 비용 대비 효과가 나타난다고 다량의 애들을 그 비용으로 하니까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것밖에는 배울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방과후 시간하고 학원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에 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학원으로 가죠. 학원이 그 비용 대비 잘 가르치시니까..."(A1-6)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강북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희 아이들 학교는 종류가 별로 다양하지 않아요. 저희 같이 근무하는 분은 동대문구쪽에 사는데 그 학교는 굉장히 다양해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내려줄 때 특성화시키는 분야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학교는 방과후에 대한 특성화해서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방과후가 되게 발전되었는데는 발전이 돼있고 안 그런데는 발전이 안되어있어서 다양화돼있지 않고..."(B2-1)

서울의 경우 방과후 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과후는 수준이 너무 낮고 피아노가 아니고 전자오르간으로 하고 선생님이 엄마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죠. 절대 보낼 수 없죠.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 방과후가 일주일에 하루해서 악기를 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A2-4)

다. 자녀가 하고 있는 체험활동의 인성적/교육적 도움 및 효과
전반적으로 인성적/교육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으며, 본인이 즐기거나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해 시킨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교육적인 것보다는 애가 친구들과하고 단단하게 형성되었으니까 그런걸 바라보는거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어가려면. 그리고 엄마들하고 친해지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꼭 이어가려는거지. 그리고 운동도 좀 하

고..”(A1-2)

“인성교육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즐기고 좋아라 하니까 연속으로 안 끊기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A2-2)

“나는 변화를 기대하고 애를 보내는데 그다지 눈에 띄게 변하는건 없는 것 같아요. 영어는 눈에 띄는거고, 모르는 단어를 읽으니깐, 수영이야 물에 안 뜨던 애가 뜨니까 그 정도 변하지 학습효과나 생활에서 막 변화되는건 없어요.”(B1-1)

일부 학부모들은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게 많아요.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거,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체육 쪽이기 때문에 따로 하기도 하고.”(B1-7)

일부 직장인 학부모는 교육적 효과보다 본인이 없는 시간 활용을 위해서 시킨다고 응답하였다.

“큰 교육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직장 다니다보니까 아이 시간 관리하는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시간에 다른 학원을 다녀서 거기에서 나쁜거 하지 않고 그걸 배울 수 있으니깐 시간 활용하는게 좋고. 그런데 특별히 아주 좋아졌다는건 잘 모르겠어요.”(B2-3)

“초등학생들은 엄마들이 직장을 나가면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시켜요. 학원은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미술, 태권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학원을 다녀요. 엄마가 직장 다니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저희 같은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더 수업 일수가 많아요.”(B1-1)

라. 학교(또는 학교 밖)에서 하는 체험활동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체험활동의 경우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는 마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와서 뭘 했는지를 보여주고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피드백을 어떻게 했고 그런걸 얘기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강제성에 대한 그런게 있더라구요.”(A2-3)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판단이 우세하였다.

"가끔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체험같은건 학부모 동의를 받고 아이가 안 좋다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안갈 수도 있더라구요"(C1-3)

동아리 활동 등의 경우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동아리나 모임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학교에서도 밀어주는 동아리가 있어요. 학교 자체 내에서도 끌고 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고가 들어가는건 그런 위주의 학생들을 정말 학교에 두세개 정도 그런 동아리를 보여주시는거고 나머지 30개 정도는 그냥 형식상. 그게 더 문제라는거죠."(A2-6)

학교에서 하는 체험활동의 경우 강제성이 있으며, 높은 학교급 및 고학년에서 강제적으로 체험활동을 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저희는 수련회 그걸 먼저 체험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그걸 갔는데 3학년 때는 솔직히 그런건지 몰랐는데 조금씩 학년이 높아지면서 그런게 너무 심해지고 엄마들의 반대가 많더라구요. 그 다음부터 다 없어졌어요."(A2-2)

"저희 아이 성격이 그런걸 별로. 정적인 성격이라 그런 활동을 너무 싫어해요. 학교 활동이니까 제가 억지로 보내요. 가기 싫다는 말을 올라갈수록 더 하더라구요. 고등학교 가서도 교관이 할 때는 안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 활동이고 누구나 다 하는거니까 너도 경험해야 된다 해서 제가 보내기는 보냈거든요..."(B2-7)

전반적으로 수련활동의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중학교 가면 담배 피고 술 먹고 한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도 터치 안한대요. 애들도 밤새도록 떠들어도 말 안한대요. 맞을까봐 아무도 말 안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대요."(A2-8)

"수련회같은데에 가면 그 월에 맞춰서 짜야 되는데 10월 말에 래프팅을 하라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추워요. 그런 식으로 시키니까 부모들은 안좋고. 저희 6학년 여자애가 이번에 수련회를 두 번을 가는거예요,

2박 3일로, 수련회를 가고 수학여행을 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안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거예요. 친구들끼리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엄마들이 수련회 가는걸 안좋아해요."(B1-6)

프로그램 정보 제공에 대해 강남과 서울 쪽이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며, 반면 지방은 현재 상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참여를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정보를 핸드폰으로 계속 주세요."(C1-1)

"고등학교는 3학년을 말하면 따로 유인물을 받지 않고. 아이가 안줘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받지는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다 커트시키고 보여 줄거 보여주더라고요. 대신에 문자로는 가끔 확인 받고 있고. 방과후는 대부분 다 수업에 연계된 과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창체로 가는 것 같아요."(C1-6)

강남 및 강북 전업주부의 경우 수련활동의 안전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반면, 강북 직장인 일부 및 지방의 경우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다.

"저는 그런 걱정보다는 우리 아이들은 입이 짧아서 가면 올 때 헐썩해서 오니까 먹는 부분이 걱정돼요. 교사들, 교관들 그런 걱정보다는 먹는건 걱정되더라고요."(B2-6)

"이번에 사고 난 것도 사실은 룰을 벗어나서 사고가 난거잖아요. 기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더 단호한 강제성이 필요하지 않을까."(C2-4)

"어느 학교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학교가 운이 나빠서 걸린 것뿐이지 그걸 자세히 알아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B2-7)

마.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충분성

강남에 비해 강북지역 학부모들이 지역 내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체육시설은 충분한 것 같아요."(A1-4)

"송파구는 애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거지 기관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아요."(A1-5)

"그것도 굉장히 좋고 지원도 굉장히 좋아요... 체험활동도 벽화그리기도 강남에서도 해요. 서초구에서도

하고,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들어가면...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것뿐이지 굉장히 많아요."(A2-6)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생기는 했지만 특수한게 없어요. 애가 원하는게 특수한거라면... 그런걸 찾으려면 동네에 없는게 많거든요. 그럼 움직여야 되고 많이 가야 되고."(B1-7)

"저희 동네는 안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엄마들 생각이 너무 없다, 뭘 할게 없다. 저희도 인터넷에서 찾아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 동네는 별로 없다는 의견들이."(B1-2)

전업주부에 비해 직장인 부모들이 지역 내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가까운데는 없고 멀리 가기는 가야 돼요... 우리 동네, 구만 한정시키면 없고"(A2-8).

"차 타고 나가야 돼요"(A2-2)

"중3때 애니메이션쪽을 잠깐 생각했는데 주변에 없는거예요. 일반 미술학원은 있는데 애니메이션이나 전문적인 학원이 없어보이는거예요."(B2-7)

증평의 경우 시설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지역 내 기관들에 대한 신빙성이 낮고, 비용을 지불하려는 시설에 대한 요구도 낮았다.

"저는 아이가 시간도 없기도 하지만 보내려고 하면 접근성이. 청소년수련관도 좀 거리가 있어요, 증평에는. 애가 혼자 왔다갔다 하기에는..." (C1-3)

"가까이 있지만 신빙성이 떨어지는거예요. 예를 들자면 체험박물관 개관이 2년 됐거든요. 그런데 인천, 대전, 천안 다 와요, 방문객들이. 그런데 정작 관내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이용 안 해요. 하더라도 공짜로만 이용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너무 지천에 깔려있고 다 공짜로만 수혜를 받다보니까 돈 주고 하는게 너무 아깝고, 돈 줄거면 버스 타고 이동해서 좀 더 새로운 곳으로 가야지라는 관념이 강한 것 같아요."(C1-6)

반면 청주의 경우 시설은 있으나 비용 등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실 운천동에서는 가까운데가 별로 없어요. 청소년수련관 이런데 사이트 들어가서 하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많다는건 알지만 사실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시간도 없거니와 주변 가까운 데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없어요."(C2-6)

"사는 곳에 지역적인 특성이. 청주가 어떻게 보면 시골같은데 같아도 나름 개발된 곳과 개발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가려면 부모가 데리고 가야 돼서 비용적인 면, 시간적인 면, 또 좋은 곳은 비싸요. 그런 것에서 정말 어렵다고 생각돼요. 쉽게 접할 수는 없어요"(C2-1)

(3) 체험활동 경험과 학업/입시와의 관련성

가. 체험활동 경험과 학업/입시에 대한 도움 정도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는 현행 입시에서 체험활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일부 학생들에게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태권도를 해서 저희 조카들 보면 중고등학교에서 합기도까지 해서 사범까지 될 정도로 단이 올라가더라고요. 애를 초등학교 때 몇 년 시켜봐서 이쪽에 적성이 맞고 흥미를 가지면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그래야 그게 효과가 나오지 초등학교 때 잠깐 하고 끝낼거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음악, 미술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B2-7)

반면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입시 보다는 학업에 일부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도움은 되죠. 어느 구석이 되든지. 만약에 미술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집중력도 길러질 수 있는거고 독서동아리를 한다 해도 글을 쓰거나 읽는 것에 도움은 어느 구석에도 된다고 보는데 입시는 아직까지는 감도 안오고." (B1-1)

강남 학부모들이 강북 학부모들에 비해, 전업주부들이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과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저는 체험활동 도움 된다고 생각하고 입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제를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더라고요. 하면서 해야지. 조건이 되는게 아예 공부를 안하고 그 분야만 잘 하면, 아주 특출난 학생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거의 드물고 기본적으로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입학사정관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A1-6)

“저는 애가 이과를 가고 싶어하면 체험도 그쪽으로 가는거죠, 진로를 아예 그 라인으로. 그쪽으로 계속 알아보는거예요...네. 자기가 노하우가 쌓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안한 애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하면 조금 더 애한테 좋으니까. 그런데 두개를 같이 하려니까 좀 버겁죠.(B1-6)

“저는 창체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창체를 함으로서 진로를 모색하는게 아니라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창체를 찾아봐야 되는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정보 속에서 엄마들이 정말 열심히 찾아내서 빈 구석을 뚫고 들어가서 일부러 커리어를 만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객이 전도됐거든요. 애가 뭘 열심히 하다보니까 찾은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빈 구석을 찾아다닌다고 돈도 써야 되니까 나라 전체가 웃기게 되는거죠. 어릴 때부터.”(B1-4)

"입시랑 크게 연관은 없고 운동 하는거 체력 단련이나 정신수양은 되겠지만 입시랑은 크게 연관 없을 것 같아요.”(B2-4)

서울에 비해 지역 학부모들은 체험활동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식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들이 그 자체를 그렇게 크게 두지를 않아요. 입시라는거 하나에 두기때문에 선생님들도 굳이 창의적 활동을 아이들한테 말을 안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아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도에는”(C2-2).

“고등학교 때는 입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지만. 저만 좋아서 가서 신나서 축구하는데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있으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C2-5)

“제가 큰애들 대학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수련관을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들어봤어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열린 와닿지도 않고 지금도 그게 엄청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C2-2)

“입시제도가 그러니까 내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듣기 좋아서 체험활동 많이 시키고 이런 것들 다 누구든지 좋아하죠, 당연히. 그런데 입시제도가 그렇지를 않아요. 할 수 있는 시간 쪼갤 수도 없고요.(C1-5)

나. 향후 입시에 반영에 대한 의견

향후 입시에 반영할 경우 학생 부담 및 사교육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태권도를 했는데 아이가 좋아해서 한건 아니고 처음에는 운동을 시켰는데 나중에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에서도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일부러 태권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는 원하지 않는데 초등학교 때밖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자꾸 하니깐. 그런데 이걸 입시에 반영한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B2-2)

“요새 수행평가 음이체 갖고도 따로 가야금 한다고 가야금 때문에 그룹을 해서 그 체험활동을 시켜요, 엄마들이 몇 명 모여서 애들을. 사교육만 더 늘리는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들도 힘들어요.(C2-2)

(4)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전업주부에 비해 직장인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 자체에 대해 반대하거나 자유학기제가 1개 학기만 이루어진다는 것, 해당 학기에 체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불신감이 높았다.

“모든 학기라는건 아니고 한 분야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험학습을 한 학기에 몰아서 하고 시험도 안보겠다고 얘기하는건데 말은 그런데 저는 애들이 따라줄지가 걱정이예요. 그리고 중학교 애들이 제일 붕 떠있는 아이들인데 왜 하필 중학교부터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B1-7)

“한학기가 중간, 기말이 없으면 애들은 한 학기를 논다고 생각할거고 그 이후 학기부터 다시 학업에 들어가려면 애들이 복귀하기가 힘들어지죠. 학업이 연결되기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5, 6교시나 7교시를 비중을 조금 높여서 한 학기에, 지금 창체 네시간 하던걸 시간을 조금 늘린다든지 해서 개발하는걸로, 진로탐색할 수 있게. 진로탐색도 전문성 있게. 엄마들이 진로탐색 하는거 학교에서 주는 자료들 하나도 안 믿어요. 전문기관 다시 찾아가요. 돈 비싸게 주더라도 전문기관 가서 다시 진로탐색 하거든요. 그런걸 학교에서 단체로 도입해서 진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룹별로 나누는 거죠. 어느 쪽에 애들이 소질이 있는지. 교사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안 해요, 비용만 들이고.”(B2-7)

“시험을 안보잖아요. 점수를 안내고, 한 학기 동안은. 나는 여기에 충실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선행이 다 들어갔으면 우리 애만 확 쳐지는거 아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2016년도부터니까 우리 애들은 해당사항이 안되겠지만 그런 불안감은 있을 것 같아요.”(C2-4)

중학교의 모든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시행하거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속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아무래도 걱정되는 것도 있죠.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엄마들이 사교육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거고, 이걸 토대로 해서 오히려.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월등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미치면. 제가 걱정하는건 그런거거든요. 사교육이 조금 더.”(A2-2)

(5) 청소년활동시설에 관한 평가

가. 수련활동에 대한 이미지

수련활동에 대한 이미지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협동심을 꼽았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강제성을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기도 했다.

“좋은 의미인거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서 활동 프로그램을 나름 만들어놨잖아요. 밥 먹는 것도 질서 지키게 되고 잠 자는 것도 다 같이 뭘 잘 해야 잠을 빨리 잘 수 있는거예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서 협동심도 배우지 않나.”(C2-2)

“저는 이거(강제성) 긍정적인 이미지로 든거예요. 저는 자율성도 좋지만 규칙과 룰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놈들이 있을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C2-4)

수련활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강제성, 기합, 벌, 교관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렸으며, 자녀가 수련활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경험했던 경우에는 수련활동에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지금 선생님이 하신 얘기도 맞는데 아무래도 연계가 되겠죠. 강제성이 있는 교관과 기합과 모든게.

단체로 행동을 하니까 누구 하나로 인해서 단체로 벌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어쨌든 그것도 규칙이기는 하지만 강제성인거죠 “(C1-2)

나. 청소년 체험시설에 대한 평가

청소년 체험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센터 등)에 대해 학원에 비해서 질은 떨어지나,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방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저는 토요일 날 학교를 안가기 때문에 스포츠활동을 시켰었거든요. 제가 매일 매일 시킬 수가 없는건데 격주로 해서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 하는걸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는 아니었지만 시킬 때 만족수위를 그렇게 높게 안했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C1-1)

“학원보다는 약간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질적인 부분에서 처음에는 약간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자세하고 애들 위주로 많이 생각하셔서 실력도 있으신 것 같고,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학원에서 운영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C1-4)

3.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FGI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중요한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춰져야 한다. 설문조사와 FGI조사는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의 참여 행태는 학교급이나 성별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학부모들은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지역 간 차이가 보였다는 점으로부터도 수요자 요구에 맞춰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많은 청소년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그런 기대감도 높게 표출되었다. 청소년단체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이러한 점을 반증해 준다. 결국 자발적 참여와 양질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이용경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률은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양적 확충에 대한 요구로만 해석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질이며, 수요자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많은 체험활동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고 있다. 체험활동의 기회가 많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의적 영역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험활동이 적어도 인성발달에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체험활동의 기회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FGI결과는 지금까지 보다 지나치게 많은 기회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직 정책의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을 수 있으나, 학부모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체험활동의 양과 질, 두 가지 요인에 대한 보다 엄밀하고 과학적인 판단의 근거를 찾는 것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외국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체험활동 촉진 정책은 문화자본의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그 같은 개연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사업이 청소년육성이나 청소년사업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것처럼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 V 장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1. 청소년활동정책 자원 분석 및 평가의 목적과 개요
2. 주무부처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
3. 중앙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4. 종합적인 논의 및 시사점

제 V 장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1. 청소년활동정책 자원 분석 및 평가의 목적과 개요

1)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의 목적

청소년활동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활동정책의 자원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책의 자원이란 인력, 사업 및 프로그램, 시설 및 기관, 예산, 계획, 전달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각각의 자원의 규모를 산출하거나 추정하고 난 다음에는 각각의 자원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평가의 기본적인 패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은 물론 청소년활동정책이 포괄적으로 평가된 적은 없다. 사업단위별, 이를 테면, 프로그램 평가나 시설평가 등의 부문별 평가는 이루어져 왔어도 정책전반에 걸쳐서 평가된 적은 없다. 정책전반적인 평가는 부처의 자체평가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5년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도 청소년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평가의 틀을 갖추지는 못했다. 순수하게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피드백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부처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과학적 평가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정책의 성과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때 예산확보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평가가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도 줄곧 반영되어 있듯이 수요자맞춤형의 정책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의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장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 이 장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효진(여성가족부 전문위원)이 집필하였음.

위한 것이다.

2) 분석 및 평가대상의 범위

청소년활동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2장에서 다룬 것처럼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위는 청소년활동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활동정책은 유럽의 '청소년사업'개념이나 일본의 '청소년육성'개념처럼 독립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공적인 서비스로서의 체험활동 수혜자를 일반적인 청소년에 한정짓지 않고 소외계층 청소년 또는 취약위기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 즉, 복지영역의 사업 중 체험활동을 매개로 한 사업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문제는 논쟁거리이다. 중앙부처 수준의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정책 사업에 한정짓지 않고, 모든 중앙부처의 정책 사업을 모두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정책의 분석 및 평가대상 범위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청소년활동, 특히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모든 중앙부처의 사업으로 복지사업의 성격을 띠지 않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분석 및 평가의 수준과 방법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과 평가는 크게는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수준은 역사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 역사적인 평가에서는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의 사업을 주로 다루었다.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자원변화는 주로 인프라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관련법, 중장기계획, 정책 또는 사업이다. 정책 또는 사업에는 인력과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이 주된 분석대상이다.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도식화하고, 시기별로 특징을 기술하였다.

두 번째 수준은 시도단위별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이다. 아울러 시도별 청소년활동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시도별 청소년활동정책은 주로 여성가족부 자원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하되 교육정책 등 기타 부처의 사업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세 번째 수준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활동관련 정책의 현재 수준에 대한 분석과 평가이다. 여성가족부 이외에 19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 정책과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청소년활동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문헌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정책 관련된 행정자료들이다. 1980년대 이후 발간된 청소년백서 및 아동·청소년백서, 2013년도 각 중앙부처의 예산설명자료와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각 부처가 생산한 「2013년도 시행계획」과 청소년체험활동 관련 계획들이다. 2013년도 중앙부처 예산설명자료는 이른바 「예산설명자료(Ⅱ)」로서 2013년 3월 23일자로 시행 공포된 정부조직법¹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설명자료(Ⅱ)」이다(<그림 V-1> 중 '●' 표시된 기관). 시도단위별 청소년활동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각 시도별 「2013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활용하였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활용하였다. 청소년활동정책 평가를 목적으로 쓰인 연구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안 또는 사업별로 이루어진 연구물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중앙부처 청소년활동정책 및 시도별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기존의 청소년활동정책 평가 관련 연구물을 토대로 기초항목을 추출한 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물어 평가항목을 수정하고, 평가항목별로 16개 시도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각 항목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1차 평가를 마친 후, 항목별로 정리된 평가내용을 이메일을 통하여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2차 평가를 마치고 난 후에는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각 지역별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사항을 수정하고, 각 부처별 담당공무원의 면접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 별 청소년활동정책자원분석 및 평가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10) 정부조직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전부개정]



*주: 분석대상 중앙행정기관(●)

【그림 V-1】 정부조직도 및 자원분석 중앙부처

2. 주무부처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

1) 역사적 평가

청소년이 정책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이후의 일이다. 청소년정책의 기원은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Ariès(1962)의 생각처럼 청소년기를 근대의 탄생물로 보든 그렇지 않든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근대사회에 들어서려든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근대사회의 산물인 청소년정책은 근대사회에 들어서도 오랜 시간 청소년을 통제중심 또는 문제중심의 시각으로 봐왔다(金鉉哲, 2013, p.21). 1980년대 말의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5~1987)도 그런 시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 청소년육성법(1987)과 청소년기본법(1991)이 제정되고,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과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이 수립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는 청소년 문제중심의 청소년보호대책 중심으로 보던 시기로부터 청소년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은 분명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또는 문제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전 육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이 시기를 ‘청소년사업 2.0’시대로 부르거나(이광호, 2011), 청소년정책의 태동기, 도약기로 구분하기도 한다(김광웅 외, 2009). 이 시기는 청소년정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온 시기이지만, 특히 청소년활동정책이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라는 특징이 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되고, 독립된 청소년관련 법제가 만들어졌으며, 청소년육성정책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를 청소년활동정책의 태동기로 봐도 좋을 것이다.

[그림 V-2]는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에 걸친 관련사업과 인프라가 축적되어온 발자취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정책태동기로부터 현재까지 청소년활동정책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시기를 구분하고 그 시기를 특정 시기로 명명하는 것은 정책을 요약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각각의 시기를 정확한 연도로 구분하기에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작업이 아직은 일천하다. 각 시기의 경계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시기의 구분은 정책의 변화를 요약적으로 말해준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책태동기’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시작되고, 청소년관련법이 제정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청소년육성정책’의 태동기이며, 동시에 ‘청소년활동정책의 태동기’이

기도 하다. 청소년활동시설이 1989년 193개에서 2012년 738개로 증가한 것은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의 양적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 시기는 ‘정책차별화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략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시기로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기로 보자면, 제6차 교육과정기를 거쳐 제7차 교육과정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5.31 교육개혁조치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유보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 시기에 16개 시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된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이 시기를 ‘정책차별화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육성정책’이 의도적으로 학교교육과 차별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정책태동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이 시작되고, 청소년활동시설 인프라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학교 밖의 인프라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이미숙 외,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 밖 청소년활동시설 인프라의 형성은 학교 내의 청소년활동과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맹영임 외, 2007)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부터 ‘제3차 청소년육성정책5개년계획’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청소년활동분야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련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조장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수립한다는 비전 아래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청소년지도자 양성 등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맹영임 외, 2007, p.30).

세 번째 시기는 ‘인프라구축기’로 명명할 수 있다. 대략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과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기에 걸쳐 있다. 정책차별화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기까지는 이른바 문화부시기이며, 청소년활동정책이 보호·복지 영역과 이원화된 시기이다.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정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국립청소년활동시설이 설립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인프라구축기’라고 명명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제4차 청소년정책5개년계획 수립연구’는 “제3차 청소년육성정책5개년 계획년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도입되었고, 청소년

년활동정보시스템도 도입되었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도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청소년육성기 금공모사업의 비체계적인 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청소년활동정보 시스템 미흡, 참여의 이벤트화 또는 비밀상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맹영임 외, 2007, p.51).

네 번째 시기는 청소년 정책이 문화부에서 새로운 부처로 이동이 시작된 시기이다. 국가청소년 위원회로부터 보건복지부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이르렀다. 10년이 채 안된 기간 동안 세 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었다. 대부분의 청소년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청소년활동정책이 위축된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원인을 부처의 이동이 잦았던 데서 찾고 있다. 그렇지만, [그림 V-2]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이 다양해지고, 개별사업들이 안정화되어 가는 측면도 있다. 사업의 전체 구도로 보자면, 청소년활동시설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9년 193개이던 것이 740여개의 시설로 확충되었다. 국립시설들도 점차 증가하여 1998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 개원한 이래 2013년 2개 국립시설이 완공되어 총 5개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청소년참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같은 프로그램사업과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를 ‘사업안정화기’라고 명명할 수 있다. 물론 네 번째 시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네 번째 시기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청소년의 역량개발이 강조되기 시작한 점이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시작하여 ‘역량개발’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되었으며(국가청소년 위원회, 2007;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0),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역량’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는 이전보다 더 분명해진 측면이 있지만,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역량개념을 어떻게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지를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량’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청소년활동정책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최근 몇 년 사이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의 기회가 크게 증가한 점이다.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2011년부터 도입되어 2013년에 초·중·고 전 학년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었으며, 2013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체험활동도 활발해졌다. 또한 학교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동아리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클럽활동 등이 강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에 전면 도입될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학교는 그야말로 체험활동으로 넘쳐나게 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학교 체험활동의 양적

평창을 감안하자면, 네 번째 시기는 ‘학교 체험활동 강화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청소년활동정책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물론 학교의 지역사회의존도도 높아지게 되었다. 반면에 ‘태안해병대캠프 사건’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1988이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 .



† 자료: 1. 문화체육부(1994). 청소년백서 1994, 2. 문화관광부(2000, 2001, 2003, 2004). 청소년백서, 3.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보호백서 2002, 4. 국가청소년위원회(2005~2007). 청소년백서. 서울:국가청소년위원회, 5.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9). 아동·청소년백서, 6. 여성가족부(2010~2012). 청소년백서, 7. 김혁진, 김형주, 김정주, 김인규, 김문주 (2012).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8. 여성가족부(2012d).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참여활동'

† 자료설명: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수), 청소년지도사자력검정(1,2,3급 누계), 청소년지도사배치(수), 청소년참여위원회(개소 수), 청소년운영위원회(개소 수),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개소 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공모사업(예산, 백만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프로그램 수), 동아리활동지원(동아리 수), 청소년문화존(수),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참여기관 수), 방과후아카데미(수), 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참여자 수), 지역사회연계사업(코디네이터기관 수)

【그림 V-2】 청소년활동정책 연표

2) 현단계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평가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2011년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된 세미나(『한국청소년활동의 길을 묻다』)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다음과 같은 평가들이 이루어졌다. 첫째, 청소년활동사업이 공적 서비스로서 자기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이광호, 2011), 둘째,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 중심으로만 편재되어 있다는 평가(김기현, 2011), 셋째, 보다 실질적인 청소년참여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평가(정건희, 2011; 김지수, 2011) 등이다. 본 연구과제의 예비적인 연구로서 이루어진 김현철(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활동개념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며, 특히 수련활동개념의 외연을 너무 넓혀 온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며, 오히려 청소년활동개념이야말로 외연을 넓혀야 하고, 청소년 역량계발의 개념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을 완전히 차별화하여 네트워크 중심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시설 및 기관들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사업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지도인력양성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주도적 참여의 원리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활동정책에 있어서 지역격차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위 내용 중 청소년활동개념 재개념화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다루었다. 나머지 항목을 포함하여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정책 평가를 위한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이다.

- ① 시도의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평가
- ②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 ③ 청소년활동 시설에 대한 평가
- ④ 청소년지도인력에 대한 평가
- 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평가

위 다섯 가지 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2013년 7월에 벌어진 태안해병대캠프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상의 평가항목에 대해 시도 청소년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의견조

사를 실시하였다.

(1) 시도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평가

시도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은 지역의 청소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자체의 중장기 계획이 없고 따라서 시도 고유의 정책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시도별로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것 이외의 중장기 계획이나 고유의 사업계획이 없으며, 시행계획도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내용을 수집해서 모아놓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은 지역의 공공이나 민간의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의 상황이며, 따라서 사업 간의 연계성도 없고, 효율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안전행정부가 시행하는 지자체 평가에서 청소년활동정책 평가항목을 추가하게 되면, 지자체의 청소년활동정책의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2011년 이후 지자체 종합평가지표에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평가지표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 대조적으로 위기청소년 관련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반영되어 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청소년활동시설평가만으로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 전담조직과 인력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 시도마다 담당부서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지역특색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잦은 이동에 지자체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만큼 지자체의 청소년활동정책 담당조직의 한계가 드러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담당공무원수는 줄어들고, 예산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청소년복지사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는 담당공무원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한 몫하며, 이것은 잦은 인사이동과도 관련이 있다. 그 만큼 전문성을 쌓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면, 지역 고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서울시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시도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예 운영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다(표 V-3 참조). 서울시를 포함한 많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서울은 그나마 주요 청소년정책 사항의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청소년기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전담기구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많은 지자체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시도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정책 사업이 집중되기도 한다. 시도와 시군구 간의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이 또한 시도의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넷째,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이 없다. 시도 전반에 걸친 행정통계 시스템의 취약성은 지자체 청소년활동정책의 취약성을 대변한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생산하는 행정통계나 평생교육기관 등의 통계체계는 중앙에서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반면,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통계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것은 청소년활동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2)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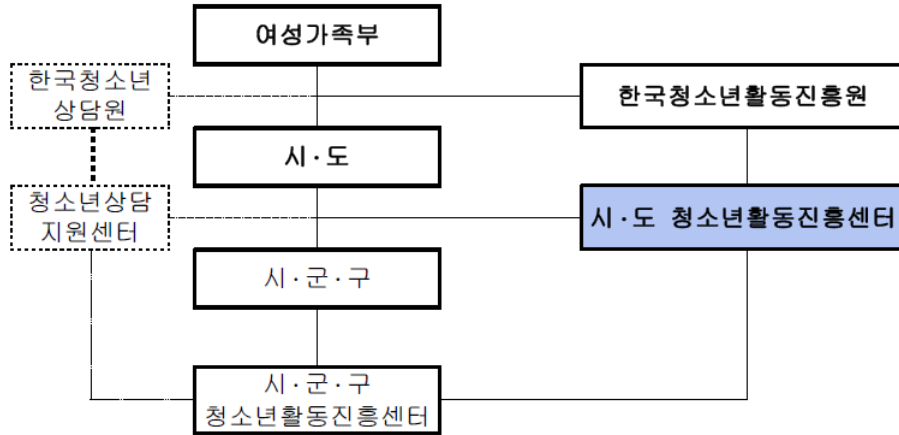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의 문제는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로부터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은 여성가족부-지자체로 이어지는 행정체계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체계이지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전달체계가 미완의 상태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단위에서의 연계체제의 문제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통합법인으로서 국립시설을 산하에 두고 있지만, 국립시설들이 전달체계상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각 국립시설들은 지역사업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국립시설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시설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서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모호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의 연계체제에 문제도 제기되었다. 청소년활동개념의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이원적인 체제는 통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긴밀한 연계체제는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체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대상

의 성격을 볼 때에도 혼돈스러운 부분이다. 청소년활동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간의 긴밀한 연계가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시도센터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시도와의 관계도 작용한다. 시도센터의 입장에서 보자면, 센터는 시도와 한국청소년진흥원 모두를 상위조직으로 두고 있는 셈이다. 시도센터와의 관계는 시도센터가 직영 또는 통합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시도센터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진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시도센터의 관계는 조직구조상으로 보면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시도와 시군구 간의 연계 또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지역에서 시도센터가 시군구 단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시군구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지만(관계부처합동, 2012, p.101), 시군구센터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는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2013년도 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하면, 시군구 단위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정책과 청소년활동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그림 V-3 참조). 전문가들 대부분 시군구 단위 센터설립의 필요성은 제기하고 있지만, 시군구 센터가 어떤 형태로 설립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은 없다. 조사에 응답한 일부 전문가들은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역 사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이 시군구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시도센터의 정체성 확립의 문제가 미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군구까지 확장되는 전달체계가 어떤 구도로 재편되어야 할 것인지는 시도센터가 당면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에서 구상될 필요가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2012c), 「2013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p.127

【그림 V-3】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넷째,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도센터의 고유업무를 청소년자원봉사지원업무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위임사업, 시도의 정책사업 중 어디에 두어야 할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핵심기능(청소년활동요구조사 및 제공,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역량강화, 청소년활동 홍보·지원,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중점 지원학교 등의 학교 등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정책과제 사업(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지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지원), 지역특성화사업 그리고 수탁사업(여성가족부, 2013c, p.134) 중 지역의 청소년활동 지원정책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력과 규모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상담복지업무나 기타 교육관련 업무와의 연계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탁운영으로 3년마다 재위탁심의를 받기 때문에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직영센터의 경우에는 고유사업과 청소년활동시설 지원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특별 법인화하여 신분안정성, 공공성,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조직이 보다 안정화된다면, 센터는 기능개편과 함께 지역의 청소년활동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보다 역점을 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활동정책 시행계획수립과 실천여부의 모니터링 기능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평가

첫째,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제기해 오던 공공의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지원미비의 문제이다. 지원의 미비로 수익성 사업에 치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유 업무에 소수의 인력을 배치하게 되는 등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 전기세 감면 등의 공공요금 감면을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혜택, 보조금지급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최근 청소년활동시설의 설립주체를 위탁운영에서 재단설립운영으로 전환해 감으로써 비전문가 임원을 채용한다든지 목적사업보다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우선시 하는 경향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에서 이들 재단 소속 시설들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향후 시설의 설립주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금까지와 같이 대규모 시설 중심에서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 청소년문화의집보다도 작은 지역 거점 기관을 설립하고,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중심으로 활동하는 거점기관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경우에는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의 거점이면서 동시에 지역네트워크의 중심인 방식으로 기능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었다.

넷째, 2013년 7월에 벌어진 '태안해병대캠프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사건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처해오지 못했다는 반성적인 입장도 제기되었고, 향후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영난에 대한 우려도 표출되었다. 또한 향후 시설평가나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서 질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청소년활동시설 기관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인증제 및 안정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고, 청소년활동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다섯째,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역할이 미진하다는 평가이다. 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기본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운영되므로 공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와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전달체계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협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방협회 대부분은 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수협에만 가입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지방협회에만 가입한 시설도 있다. 지방협회의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시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보다 강한 조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지방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방협회 가입비의 일정부분을 한수협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수협은 시설평가사업을 통해서 위상이 높아졌고, 2013년 ‘태안해병대캠프 사건’으로 인하여 평가주체로서의 책무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수협은 지방협회의 관계정립을 통해서 전국적인 조직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시도센터로 이어지는 공적인 전달체계와 공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여 협회를 구성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지역이 있는 등 모든 시도에 지방협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표 V-3 참조).¹¹⁾ 지방협회는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앞에서 제시한대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공조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회원기관의 회비를 통한 예산확보비중을 높임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하여야만 공적인 전달체계와의 바람직한 공조가 가능하다.

(4) 청소년지도인력에 대한 평가

첫째, 청소년시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지도인력의 경우에도 임금 및 복지의 열악한 수준에 대한 문제점은 고질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높은 이직률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학과가 없는 지역에서는 인력수급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임금표준안 조차 없어 지역에 따라서는 배치지도사 기준으로 급료를 지급하는 지역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임금표준안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한 곳 뿐이다.¹²⁾ 임금 뿐 아니라 직무표준화

11) 2013년 현재 10개 지역 지방협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협회 설립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과 강원 두 곳이다.

12) 서울특별시립청소년수련시설 2013년 예산편성기준

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013년 현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화(NCS)에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직무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직무표준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 임금표준안 작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지도사의 복지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는 청소년지도사 법정 최소 인원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청소년활동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율 전국 평균은 30.7%: 표 V-3 참조)는 것과 국립시설 이용 시 전액무료화 등의 복지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지도자공제회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학교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주말프로그램 등 비교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셋째, 시설장의 경우에는 자격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채용이 되고 있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시설장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준하여 시설장 임용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넷째, 근본적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양성과정에서부터 실습을 강화하는 등 역량강화에 주력해야 하며, 자격검정제도도 근본적으로 재검점해야 하며, 보수교육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평가

첫째, 최근에는 청소년활동시설이나 청소년단체 이외에도 많은 기관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사업과 타기관의 유사사업의 차별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점에 동의하고 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아동·청소년과 이외에도 교육협력국의 주말체험활동 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사업들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진로체험사업과 유사하다. 방과후 사업이나 주말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이며,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컨설팅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하였다. 기타 지역의 평생교육시설, 지역의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유사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사기업이나 사교육시장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소년활동사업의 차별성은 더욱 없어지고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 사업들이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청소년활동사업 전체가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며, 또 어떠한 사업들이 확충되고,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데 있다. 이것은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에 대한 재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 때 고려해야 할 것은 타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유사사업에 대한 분석이다. 타영역의 서비스보다 많은 양의 서비스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차별적인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한 충분한 합의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태안사태'도 전혀 새롭지 않은 그리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온 것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었던 것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규제책이나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활동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표 V-1 청소년활동정책 전문가 평가결과(요약)

평가항목	평 가
<p> 시도 청소년활동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자체의 중장기 계획 부재 및 시도 고유의 정책추진 미흡 · 청소년활동정책 체계 미흡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산발적 사업 추진 · 담당공무원수 및 예산 축소경향 · 대체로 청소년복지사업에 비해 축소 경향 · 담당공무원의 낮은 청소년정책 이해도, 잦은 인사이동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서울시는 주요사항 결정 참여) · 시도 자체의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체계적 정보관리 시스템 부재 · 특정 지역 중심으로 사업이 집중되는 사례
<p>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국립시설간의 관계 및 지역에서의 국립시설의 역할 모호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긴밀한 연계 미흡 · 시도와 시군구의 연계 미흡 · 상담복지업무 및 기타 교육관련 업무와의 연계 미흡 · 센터 고유사업에 대한 정체성 미확립(자봉, 진흥원 위임사무,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혼돈) · 위탁운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 효율성 확보 어려움. · 직영센터의 경우 고유사업과 청소년활동시설 지원사업에 어려움. · 별도의 기관명칭 사용(전남)으로 정책 혼선
<p> 청소년활동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청소년활동시설 설립 후 지원 미비 · 수익성 사업 치중으로 고유 업무 담당인력 소수배치 · 고유목적사업 추진 부실, 공익성 약화 · 일부지역에서 설립주체를 재단설립을 확산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재단설립운영은 비전문가 임원채용 및 재단관리목적 운영 등의 문제가 있으나,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지역 간 시설 불균형 (태안 사건에 대한 다양한 입장 견지) · 보통이상 시설평가시설 및 인증프로그램 운영시설에 한정하여 청소년활동참여를 허가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의견 · 매년 반복적으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견 · 사건에 대한 지역의 공동대처과정에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 · 장기적으로 청소년활동시설 기관인증제 도입을 통해서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 인증제 강화 및 안전강화의 문제를 넘어 청소년활동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역할) · 모든 시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설치된 경우에도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평가항목	평 가
	<p>활동 미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협회구성이 어려운 지역도 있음. · 한수협에만 가입하거나 지역협회에 이중 가입 등 지역협회 회비납부 저조 · 청소년지도사 권익보장 노력 미흡
청소년지도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급여 및 복지수준/높은 이직률 · 인력수급이 어려운 지역 상존(특히 청소년관련학과 없는 지역) · 서울시 이외에 임금표준안 전무: 배치지도사 기준 급여지급 시설 사례 · 직무표준화 필요 · 자격기준요건 미충족 시설장 채용(법규위반 방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유관기관의 청소년활동사업과 차별성 상실 경향 ·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이외에도 유사 사업 추진 행정부서 다수(예, 서울시 교육협력국 등) · 최근 학교에서의 진로체험교육 강화로 청소년기관의 진로프로그램의 강점 상실 · 교육청 진로체험사업과 중복 (※ 서울, 부산 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진로체험센터 위탁 운영 중이며, 서울 등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방과후사업, 주말프로그램 등 교육(지원)청 및 복지서비스와 중복사업 추진 ·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도 중복(※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체계적 컨설팅 및 평가 시행) · 평생교육시설, 지역의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과도 대동소이 · 사기업, 사교육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도 차별성 모호

표 V-2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지역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설립형태	청소년수련시설 협회설립유무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도자배 치비율(%) (전국평균 30.7%)	청소년활동시설현황 †				
					a	b	c	d	e
서울	주요사항결정 ¹⁾	위탁	○	28.9	59	8.0	17.7	3.5	2.2
부산	형식적 운영 ¹⁾	위탁	○	25.1	23	3.1	6.4	3.7	1.4
대구	형식적 운영 ¹⁾	통합법인	○	34.8	12	1.6	5.2	2.4	1.1
인천	형식적 운영 ¹⁾	위탁	○	27.7	25	3.4	5.7	4.6	1.8
광주	형식적 운영 ¹⁾	위탁	○	40.0	11	1.5	3.5	3.3	1.4
대전	형식적 운영 ¹⁾	위탁	○	33.6	13	1.8	3.4	4.0	1.6
울산	형식적 운영 ¹⁾	위탁	X	22.2	9	1.2	2.4	3.8	1.0
경기	형식적 운영 ²⁾	위탁	○	34.4	144	19.5	25.1	6.0	3.2
강원	형식적 운영 ¹⁾	위탁	○	33.5	77	10.4	3.0	26.6	13.6
충북	형식적 운영 ¹⁾	통합지역	○	26.6	43	5.8	3.2	14.1	8.5
충남	형식적 운영 ²⁾	통합법인	X	24.9	46	6.2	4.3	11.3	5.3
전북	형식적 운영 ²⁾	위탁	○	28.1	53	7.2	3.8	14.7	5.1
전남	형식적 운영 ²⁾	통합법인	X	37.4	44	6.0	3.5	13.2	6.9
경북	형식적 운영 ²⁾	통합법인	X	30.3	66	8.9	5.0	13.8	5.5
경남	형식적 운영 ¹⁾	통합법인	○	32.9	71	9.6	6.6	11.2	4.8
제주	형식적 운영 ¹⁾	위탁	X	24.7	43	5.8	1.3	35.5	9.4

† 청소년활동시설현황 자료: a=청소년활동시설수, b=청소년활동시설수 시도비율, c=학령인구(6~21) 대비 시도별 학령인구 비율, d=학령인구 10만명당 시설수, e=시설수용인원/학령인구(%)

*1: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2: 기초자치단체 조례만 제정된 지역

자료: 김혁진, 김형주, 김정주, 김인규, 김문주 (2012),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3),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자료(내부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의견조사결과로부터 작성

3. 중앙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1) 중앙부처별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결과

(1) 분석자료 작성방법 및 분석표의 설명

중앙부처별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자원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각 부처의 2012년에 국회예산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설명자료(II)』이다. 이 자료에는 2013년도 각 부처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세부내역과 사업의 특징과 주요연혁, 관련법, 국회 또는 감사원 등의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 등 중앙부처의 모든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자료로부터 34개 중앙행정기관의 2013년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내용을 추출해서 하나의 표로 제시한 것이 <표 V-4>이다. 34개 중앙행정기관 자료 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총 27개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각 부처별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들을 추출해 낸 후, 크게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근거 및 예산액’ 자료를 추출하였다.

<표 V-4>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가장 왼쪽 행의 부처명 아래 괄호 속의 수치는 해당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총예산액이다.

둘째, 프로그램 및 사업 행의 사업명은 예산설명자료(II)의 단위사업명이다. 바로 오른쪽 세부사업명은 단위사업 내용 중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내용만 추출한 것으로 세부사업명별로 괄호 속에 예산액을 기입하였으며, 이 예산액의 합을 단위사업명 다음 괄호 안에 기입하였다. 단위사업이 복수인 경우에는 단위사업의 총합계 예산액이 해당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총예산액이 된다.

셋째, 시설 및 기관 행의 사업은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기관이나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들이다. 이 사업명의 후미에도 예산액을 기입하였다.

넷째, 전문인력 행의 사업은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는 배치와 관련된 사업들이다. 이 사업명의 후미에도 예산액을 기입하였다.

다섯째, 마지막 행에는 각 사업예산의 종류와 해당부처에서 생산한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계획들을 기입하였다.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각 항의 예산액 중 괄호표기만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이며, “*”로 표기한 예산들은 특별회계이거나 기금들이며, 부처별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종류를 표기하였다.

여섯째,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출한 자료이다. 일곱째, 취약위계층 아동·청소년 대상사업 또는 복지사업은 제외하였다.

여덟째, 사업에 따라서는 순수하게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단, 세부사업에서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정리하였지만, 아동에서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를 테면, 박물관 운영과 같은 사업은 포함시켰다.

아홉째, 학교교육과정 중 교과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제외시켰으며, 정규학교 건립과 관련된 사업도 제외시켰다. 다만, 학교 밖 활동과 관련된 시설이나 교과 이외의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은 포함시켰다.

(2) 분석결과

<표 V-4>의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별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자원을 분석하는 첫 번째 목적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추진 사업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총액은 118,908 백만원으로 모든 부처 예산총액 1,516,041백만원의 7.8%에 해당한다. 대략 여성가족부 예산의 약 13배 정도의 정부예산이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된 예산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수치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분석대상범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액의 폭은 크게 바뀔 수 있다. 여성가족부 예산규모는 더 낮을 수도 있지만, 비예산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을 포함시키면 비중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 매칭사업이나 특별교부금 사업 중 시도교육청 매칭 사업에 대한 분석이 고려되면 여성가족부사업의 비중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특히 2014년에는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예산이 크게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 예산규모를 사업영역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및 사업은 3.2%이고, 시설 및 기관은 41%, 전문인력은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시설이나 기관의 규모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프로그램 및 사업이나 전문인력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사업 중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참여활동 제도는 타부처의 사업과

비교적 차별적이지만, 안행부의 민주운동기념사업 등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타 사업들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많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정행정부의 비중도 높다. 그 밖에 부처들의 사업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타 부처들의 전체 사업규모는 여성가족부 사업 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이다.

셋째, 시설 및 기관의 규모는 여성가족부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시설과 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이 청소년활동정책에서는 주력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활동사업의 차별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과 기관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에 과학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체육관시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문화예술부문에 있어서는 중앙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있고, 전국에 13개의 국립박물관(중앙, 경주, 광주, 전주, 부여, 대구, 청주, 김해, 제주, 춘천, 진주, 공주, 나주 등)이 있으며, 어린이박물관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연전시지원센터를 통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나 야외공연 상설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 미술관 건립도 확충되고 있으며, 국립시설로 국립생물자원관 자생생물 전문 전시관, 농업과학관도 운영되고 있다.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안전체험센터, 발명교육센터도 설립·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전문인력의 규모는 기준에 따라서는 훨씬 적은 규모로 추산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문화예술강사, 스포츠강사를 비롯하여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커리어코치, 학부모 코치, 진로진학상담교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이들 인력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중복되면서 영역별 전문성은 보다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지도사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청소년활동사업을 견인해갈 인프라로서 기대역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섯째,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일반예산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전부이지만, 각 부처의 예산 출처를 보면, 그 밖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복권기금, 국제교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앙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정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은 예산규모 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전 부처 사업 중 하나의 사업, 즉 'one of the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무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이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거나 외소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새로운 정책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차별성이 없으면, 예산확보의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든다.

둘째, 총괄조정을 위해서 이러한 중앙부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중앙부처의 자원분석은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며, 이들 예산은 보다 과학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반드시 중앙부처 단위에서의 총괄조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연계를 통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단위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청소년활동정책관련 자원들이 철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2절에서 제기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만 해도 적지 않은 가시적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관련 예산을 통한 예산확보도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활동시설이나 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그 역할이 부각될 때 지자체 예산이나 시도교육청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2년과 2013년도에 추진된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모델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학교와의 연계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사업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가 그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청소년활동사업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측면에서 차별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규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회전반적인 유사사업을 리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활동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공헌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양보다는 질'을 선택해야 한다. 그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차별화된 방법은 모든 청소년활동사업에 청소년의 참여적인 요소 또는 자기주도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시설 및 단체도 이를 바탕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표 V-3

중앙부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표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여성가족부 (102,569)	청소년참여활동 (1,8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기구(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766)** · 청소년특별회의 운영(180)** ·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45)** · 청소년의 달 행사(청소년의 달 행사, 대한민국청소년 박람회 등)(736)** · 푸른성장대상(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시설 건립 지원(영덕청소년환경센터, 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5,250)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지역개발계정): 2007년도부터 지역개발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분리(69개소)(49,168)* · 청소년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계정): 2007년도부터 지역개발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분리(3개소)(1,382)* · 청소년시설 안전지원(청소년문화의집 215개소)(331)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청소년문화의집 215개소)(172)**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립고흥청소년우주센터,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포함) 운영 지원(23,121)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3,085)**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100)**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12 75개 단체, 320만 회원](579)**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44개소] (2,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양성/청소년 보수교육 (450)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3,3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역특별회계 **청소년특별회계
	청소년활동 지원 (9,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국제교류활동(4,019)** ·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157개 프로그램 지원)(1,771)** · 청소년문화준 운영 지원(126개)(2,400)** ·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2,000개)(800)** · 국제청소년상취포상제(340)** ·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사업(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364개소) (913)** 		
여성가족부 (보호·복지) (16,339)	정보화추진(정보화)(4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 구축(437) 			
	이동·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250) 			
여성가족부 (보호·복지) (16,339)	청소년 인권총지지원(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상담소 운영(289) 			
	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 지원(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회방센터 운영(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설안전지원(331) /수련시설 안전점검(301) /홍사자 안전교육(30) 		***여성발전기금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 지원(266) 			
	어머사랑이 가게발 지원(8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300) · 센터 지원(425)** · 프로그램 지원(345)** · 공동참여사업(98)** · 강사운영비(17)** 			

단위: 백만원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교육부 (373,544)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6,424)**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6,424)***			
	성범죄청소년 치료재활(1,200)**	· 성매매피해청소년교육(1,200)**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5,767)**	·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5,767)**			
	창의적인재육성(7,500)	· 산학연교육 기부 활성화(5,200) · 창의·인성교육넷(창의체험지원지도, CRM) 활성화(800) · 창의성교육의 확산(1,500)			
	지속가능발전교육(1,140)	· 초·중등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1,040) ·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협력강화(100)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2,692)	· 지속가능발전교육 진흥: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학생 모의유네스코총회, 유네스코 청년포럼(200) · 한중일 CAMPUS Asia 사업(학생교류 및 초중학생 체제비)(2,492)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ODA)(482)	· 세계학생교육교류 지원 ¹³⁾ (482)			
	과학기술인재육성(2,300)	· 수학·과학교육활동지원(1,000) · 융합형 인재역량 강화사업: 학생체험 탐구활동, 영재교육-대학연계 프로그램 지원, STEAM 대학생 교육기부단 활동(1,300)			
	융합형 과학기술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2,100)	· 학문분야 주제별, 첨단제품 활용형, 과학·예술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2,100)			
	과학문화 확산사업(10,878)*	·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5,830)* · 과학기술 안내서 등 활동 지원(650)* · 청소년 과학탐구 활동 지원(2,700)* · 과학추진 운영·지원(1,698)*			
창의인성교육강화(12,600)**	· 창의교수학습과, 방과후학교지원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5,600)**	· 학생부지정학과, 학교폭력대책과				
방과후학교 활성화(3,900)**	· 방과후학교지원과				

*과학기술진흥기금
**특별교부금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
· 창의적 청소년 과학교육(252)*

· 과학관 건립(서울강북관, 부산)(35,200)
· 국립과학관 운영(대구, 광주)(8,156)
· BTL전문과학관지원(4개소)(3,528)
·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1,400)*
· 과학관 협력망 구축 운영사업(300)*
·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10,325)*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217,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미불 온종일 돌봄교실 (39,124)** · 초·중등 진로교육 지원 (21,800)** · 특성화고 현장중심 교육 지원 및 기반 강화 (25,272)** ·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83,537)** ·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일교 지원(3,050)** · 초·중등 평생교육기관 활성화(3,694)** ·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3,650)** · 창의경영학교지원 (70,000)** · 과학교육 활성화 (7,780)** ·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 시스템 구축(4,480)** · 국제교류 활성화 (2,8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지원과 · 진로교육정책과 · 직업교육정책과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학습정책과 · 창의교수학습과 · 창의교수학습과, 학교정책과, 학교교육팀, 인성체육 예술교육과, 학생건강지원과, 영어교육팀 · 통합교육팀 · 창의교수학습과 · 교육개발협력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초·중고 100개소, 유소년 축구센터 1개소)(3,800)***** ·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30개소) · 국립극단 운영: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운영사업 (9,300)***** · 국립극단 운영: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운영사업 (200)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1,000) · 공연전시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문화행사, 야외공연 상설 프로그램 등(117) · 국립박물관(중앙, 경주, 광주, 전주, 부여, 대구, 청주, 김해, 제주, 춘천, 진주, 공주, 나주 등 13개 프로그램 운영(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박물관 운영)(5,8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 특별회계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영화제 육성(200)* · 공식성 활동 강화 (1,550)** ·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 연수(5,425)** · 예술인력육성(54)*** · 문화재 해외전시 및 박물관 고개서비스 강화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200)* · NIE시범학교 구득로 지원(1,550)** · NIE프로그램 운영지원(청소년연수) 및 청소년 NIE강 고교실 운영(3,190)*** · 영기문화진흥사업(685)*** · 청소년구독로지원(1,550)** ·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청소년문학 온라인문제진 발간 및 운영(54)**** · 박물관고객 서비스 강화: 대학생 멘토 운영(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초·중고 100개소, 유소년 축구센터 1개소)(3,800)***** ·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30개소) · 국립극단 운영: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운영사업 (9,300)***** · 국립극단 운영: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운영사업 (200)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1,000) · 공연전시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문화행사, 야외공연 상설 프로그램 등(117) · 국립박물관(중앙, 경주, 광주, 전주, 부여, 대구, 청주, 김해, 제주, 춘천, 진주, 공주, 나주 등 13개 프로그램 운영(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박물관 운영)(5,8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 특별회계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32,047)***** · 토요일스포츠강사 배치 (22,191)*****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예술강사 지원(39,421)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2,828)*****	· 여성체육활동 지원: 여자어린이축구클럽 양성 등 (500)***** · 유소년 축구교실 및 리그 운영(1,500)***** · 전통스포츠 보급: 유소년 전통놀이 한마당, 초등학교 씨름교실, 어린이씨름왕선발대회 (628)***** · 바둑 보급: 초등학교 바둑교실 지원사업 (200)*****			
	증고문화활동지원 (1,100)	·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1,100)			
	영상산업 육성(300)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활용(200) · 영상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청소년 및 영상 미디어교실 운영(100)			
	게임산업 육성(800)	· 게임 과목입 예방 및 해소: 초중학교 예방교육 지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800)			
	저작권 교육 및 홍보 (4,625)	· 저작권 교육 강좌(3,485) · 저작권 홍보 강화(1,000) · 청소년 · 대학생 대상 저작권 공모전: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대학(원)생 저작권 논문 공모전 (140)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160)	· 출판산업 활성화 지원: 어린이도서 전시, 문화행사를 위한 어린이 책 한마당 사업비(160)			
	박물관 진흥지원 (29)	· 박물관 운영 활성화: 대학생 박물관 · 미술관 문화시 민봉사단 운영지원(29)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 환경 개선(320)14)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문화예술 기반문 다양성 교육(320)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550)	· 청소년 인성교육(번역화): 전국 순회강좌, 옹따예방 토요 인성교실 등(150) ·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400)			
	토요문화학교 운영 (20,500)	· 문화예술기반 토요문화학교 운영(20,000) · 순수예술의 가치 확산: 예술학교 특화사업15)(50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50,571)	·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2,500)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문화예술 활성화(48,071)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2,103)	· 독서환경조성, 독서생활화, 독서운동 전개(1,496) ·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407) · 독서문화학교 운영(200)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보호·복지) (13,926)	미술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719) 국악보존전승 및 국악기 연구(5) 국악진흥(347) 민속박물관 사회문화 교육 활성화(83) 국제체육 교류협력(220)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60)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 체)(100)***** 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600) *****	· 어린이미술분야 전문화(438) · 문화나눔 교육프로그램(281) · 청소년 국악기 제작 체험(5) ·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347) · 전통문화체험 활성화(83) · 국제산악활동지원: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220) · 대학생 기지단 운영(60) · 문화산업체 수요인력 교육: 지역 고교 및 대학민원학 과생 교육(100)***** · 어린이문화원: 전시 콘텐츠 제작(600)*****			
	스포츠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 (1,350)***** 고궁 및 역사문화관광 상품화(400)***** 체육바우처 지원 (10,584)*****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1,592)*****	· 탐방로별 프로그램 운영(1,200)***** · 청소년여행문화학교 운영(150)***** · 세계유산 연계사업(세계유산 지역청소년 교양강좌 프로 그램 사업 개발 및 신규 운영)(400)***** · 체육바우처 지원 (스포츠 강좌 바우처 만7세~19세)(10,584)***** · 장애청소년생활체육활동지원(710)***** ·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지원(882)*****			
문화재청 (1,630)	해양유물전시교육프로 그램운영(481)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499)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650)	·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 운영 사회교육 및 문화행사(바 다문화학교운영, 어린이날기념행사, 심마늘 다문화가 족초청 프로그램, 바다역사체험교실, 자원봉사프로그램 캠프운영 등)(481) · 왕실문화교육 운영 및 보급(499) ·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 방문교육지원, 체험활동교 육(650)			
	문화재청 (보호·복지) (7,326)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고용노동부 (511,912)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제(87,385)* ⁶⁾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기업지원금(87,385)*	·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11,200)		*고용보험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제(161,262)	· 취업인턴(인턴지원금, 취업지원)(154,762) · 창업인턴(기업지원금, 창작지원금, 위탁사업비 등)(6,500)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 지도(3,514)*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콘텐츠 강화(711) · 한국직업사전, 진로 직업박람회 등(909) ·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보급(763) · 진로상담/탐색자료 개발 및 보급(241) · 취업지원영상매체 제작 및 보급(640) · 사이버 진로연수 자료(250)			
	청년취업 진로지원사업 (7,902)*	· 대학 취업지원관 채용지원[143개교](5,148)* ·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운영(39개교)(2,484)*			
	일-학습-자격 연계형 고졸인력 양성(2,100)*	· 교육과정개발(600)* · 현장실습인프라 구축(1,500)*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8,730) ¹⁷⁾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 운영(8,730)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주)(456)**	· 연수지원, 취업캠프 운영 등(456)**			
	글로벌 취업지원 (13,821) ⁸⁾	· 맞춤형 해외취업훈련(4,500) · 글로벌 청년취업(4,500) · 취업에로청년층 해외취업지원(900) · 해외취업알선 및 구인처 개척(2,921) · 리크루트사 취업지원 위탁(1,00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57,334)	· 취업성공패키지(청장년층) 청장년 yes 프로젝트 (57,334)			
	한국잡월드운영 (14,883)	· 작업세계관, 진로세계관, 어린이 및 청소년체험관, 공 연프로그램 운영, 직업지도세미나 운영, 자원봉사자 및 서포터즈 운영, 홍보, 전시체험관 운영 및 유지 등(14,883)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39,300)	· 청년취업아카데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39,300)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지원(100,016)	· 내일배움카드제(100,016)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2,057)	· 위기청소년 대상 취업사관학교 운영(2,057)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고용노동부 (보호·복지) (169)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76)**	· 장장년내일희망찾기(276)**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1,676)**	· 내일배움카드제(1,676)**			
행정안전부 (11,667.8)	장애 인식 개선키워드 (169)	· 청소년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1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국민안전의식 선진화(200)	· 국민안전교육강화사업: 찾아가는 안전교실, 안전문 화 홍보·캠페인 사업(200) ·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등 실시(54) ·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대한민국 어린 이 안전퀴즈대회,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 체험박람회 (20) · 나눔포털시스템 운영지원: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 (Dovol)(164) · 상속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새 윤리 도덕함양 시민교 육, 바른생활 학생 봉사단 조직 운영(도덕지킴이 활동, 나라사랑을 위한 이 층무공 정신 계승(나라사랑교육, 유적지 순례)(580) · 가정사랑 실천 확산: EBS와 연계한 청소년 바른생활 교육(70) · 그린코리아 녹색생활 실천(500) · 자유민주 시민의식 함양: 전국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운영(272) · 따뜻한 자유 구현: 대학생 지식봉사활동(13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장체함, 학술연구 사업경비, 민주시민교육사업 경비 (679) · 광주민주인권화사업지원: 전국 고등학교 학생토론회, 5.18 청소년문화제/사적지안내 및 체험학습, 청소 년, 일반국민 참여 기념사업 등(701)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제14회 청소년노동문화포럼(130)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정착: 자전거안전교 육 추진,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및 이용 활성화(1,450)		· 자원봉사활성화 지원(경상): 자원봉사자 보충료 지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6,690) ·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자원봉사자 보충료 지원(130)** ※ '13년 자원봉사진흥 제 2차 국 가기본계획 수립	
	상속한 자유민주 가치 함양(402)				
	민주화운동기념 관련 사업(1,399)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1,450)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행정안전부 (보호·복지)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기록관 운영(14.8) 안전사고 대책 및 재난 현장 응급처치 지원(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문화 프로그램 운영: 가족과 함께 하는 기록문화 학교, 청소년조선왕조실록 교실 운영(14.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강화(120) 			
환경부 (7,3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환경 보전 교육·홍보(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물환경 체험교실(80)* 			*환경개선특별회계 ※ 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보건종합계획」('11~' 20)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사업(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분리배출 체험교실 운영(60개교)(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보전단체 운영 지원(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학술조사 및 연구, 교육홍보사업: 전국자연공원대회(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39)*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운영, 환경교육사범학교 운영 등(4,447)* 학교 및 민간단체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생물자원관, 자생생물 전문 전시관 운영 및 기획/특별전시(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교육강화(5,4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교육과정 운영(1,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출판경비(국립환경인력개발원)(1,183)¹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사업(4,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환경건강보호종합대책(4,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청년리더양성(2,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간선특성화대, 현장훈련지원(2,355) 				
국토교통부 (6,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2,0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교육 교재개발, 시범학교운영, 동아리운영, 포털 사이트 운영(829) 해양체험프로그램(455) 해양양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400) 극지 문화행사(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국토교육지원(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소년단연맹 지원 및 장비 구입(300)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1,680)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농촌진흥청 (2,501)	4-H 경진대회(250) 지민활용기술보급 (1,750)* 지민활용기술보급 (제주)(100)*	· 4-H 중앙경진대회 개최(250) · 농촌체험활동활성화: 지역네트워크, 농촌교육농장 육성, 농촌체험 영동화(1,750)* · 농촌체험활동활성화: 지역네트워크, 농촌교육농장 육성(100)*	· 농업과학관 운영(401) * 농업과학관 신축 개관(2002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인권위원회 (1,446)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320) 지역인권문화 확산(87)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 교육 운영(582) 인권교육연구와 콘텐츠 개발(313) ²⁰⁾	· 인권문화콘텐츠 개발보급, 인권작품 공모, 인권의날 행사(320) · 시민참여형 인권홍보, 권역별 상담네트워크 운영, 이 주민주민 차별인식 캠페인, 인권 올레길, 인권항안포럼 운영(87) · 인권 연수과정 운영, 사이버 인권교육(582) · 인권교육 기반조성, 학교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313)	· 지역인권문화 확산: 인권체험관(부산, 광주, 대구, 서울) 운영(144) * -2008, 광주 인권체험관 개관 -2010, 부산 인권체험관 개관	* 2011. 인권증진 3개년 계획 [2012~2014]
국가보훈처 (4,637)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3,537) 국내외 사적지 탐방 (805) 호국보훈의 달 행사 (295)	· 나라사랑교육 '12년 전국 25개 민간기관을 통한 나 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규 운영(3,537) · 청소년 및 교원탐방(805) · 청소년 문화행사(295)			
	농림축산식품부 (7,554)	식물산업 및 식문화 교육 (1,888)* 도농교류활성화지원 (5,666)	· 건강한 식생활 확산: 올바른 식생활 교육 및 체험 지원(1,888)* · 도농교류촉진, 협력사업(4,076) · 농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340) · 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1,250)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89,404) · 주5일수업제 관련 토요운영 지원(4,311) · 아동복지교사 파견(23,350) ·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음부초패수 운영(100) · 맞춤형 권리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90) · 아동권리주간 지원 및 세미나 개최(50) · 어린이날 및 주간행사(140) · 대한민국 아동총회(12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도농교류 5개년 계획('10~ '14) 수립 및 발표
보건복지부 (117,565)	방과후돌봄서비스 (117,065)				
	이동인권 증진 지원 (500)				
경찰청 (2,897)	교통안전교육홍보 (2,897)	· 교통안전홍보활동 경비(2,561) · 합력단체 교통활동 지원(336)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공정거래위원회 (80)	공정거래지원(80)	·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80)			
국방부 (2,000)	국방행정지원(2,000)	· 역사교육관(20,000)			
국세청 (350)	조세박물관 운영 (15)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335)	· 세금체험교육프로그램 코너 운영 등(15) · 학생세금교육 교재 제작(335)			
금융위원회 (72)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 장려(72)	· 저축홍보 책자 발간 등(72)			
기상청 (300)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300)	· 캠프 운영(300)			
기획재정부 (9,887)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지원(9,887)* /인천 청소년 아영장 조성(2,971)* /대전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5,716)* /제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1,200)*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보충)(250)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250)*	·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소비자교육(250)*			
방송통신위원회 (1,438)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1,438)	· 산진 인터넷 문화 정착 및 역기능 예방활동 지원: 우 · 청소년 교육(1,118) ·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 및 활성화(320)			
방송통신위원회 (보충)(3,749)	방송심의활동 강화 (3,749)*	· 간단한 미디어활경 조성(497)* · 통신심의 지원(2,642)* · 간단한 정보문화 조성(610)*			*방송통신발전기금
소방재청 (10,500)	소방재청	· 소방안전체험센터실시(충남, 부산)(10,500) ※ 현 운영 소방안전체험관(서울 2, 대구 1개소) 및 2013년 준공예정인 전북소방안전체험관, 2014 년 준공예정인 충남/부산 소방안전체험관, 시도별 1개소씩 연차적 건립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 (29)	사전예방적 위해 관리 (29)	· 과학프로그램 "식약청 꿈나무 체험교실" 운영(29)			
외교부 (2,403)	위험관리데이 이행(589) 청소년 교류(1,814)*	· 위험관리데이 이행(589) · 청소년 교류 확대, 한-시우디 청소년 교류 신규 추진 (1,814)*			*국제교류기금

에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 안건 상정)

- 15) 토요문화학교 운영: '12년 주5일 수업제에 대한 학부모 사회 등의 우려
 - 주5일 수업제 찬성 비율 : 66.3~68.1% (교사 96.3% 찬성)
 - "중산층 이하 가정 중에는 토요일에 자체적으로 양질의 체험활동을 시켜줄 여유가 없는 곳이 많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11.7)
 - "주5일 수업제 도입 이전부터 교육계가 토요일에 방치될 아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12.5)

16)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08.12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계획 확정(12.19 장관결재)

- ① 국회지적
 - 현재의 청년인턴제 시스템은 "노동부→사업운영기관위탁→대학에 모집홍보" 구조로서 대학의 취업지원실이 청년인턴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중간에 사업운영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사업운영비용이 추가 소요되므로 사업시스템 개선 필요(환노위 '10년 예산검토)
 -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은 기존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충뉴스타트프로젝트와 지원대상,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사업성과를 저하시키고,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충뉴스타트프로젝트사업 집행률 저조('09년 결산)
- ② 국회 임범조사처 평가
 - 80~90%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략> 세수를 확보하여 그 일부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활용한다면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 학교교육 보완을 통한 청년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 해소,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이미 검증된 청년인턴제는 청년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

17)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 '02년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변경(취업지원제+연수지원제)
- '06년부터 연수지원제만 시행('취업지원제' 폐지)
- '08년부터 사업의 일부를 대학 및 경제단체 등에 위탁
- '11년 운영기관으로 특성화고 확대 시행
- '12년 운영기관 대학선정, 고용센터 직영

18) 글로벌 취업지원

- '08.3월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사업 중점 국경과제로 선정
- '08.4.29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종합계획 확정
- '10.6.8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실무협의회)
- '11.1.11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해외취업활성화 정부-민간 합동회의)

19) 교육훈련경비(국립환경연구원) 2009년 국장감사

- 환경 인력양성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담당 강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강사 중 공무원의 비율이 과다하고, 강사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매년 개설과목 중 상당 과목의 수강생 수가 적어 다음해 폐강 및 통합되는 경우가 많은바, 교육과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연간 계획인원을 정확히 선정할 것

20) 인권교육연구와 콘텐츠 개발

- 2003. 초중고 인권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연차적 인권교육교재 개발·보급
- 2004. 동화책, 초중고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200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 및 자료 개발
- 2009. 인권친화적 교과서 학생·교사 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계속)

21) 신학협력 기술·기능 인력 양성

- ①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평가
 - ('10.1. 감사원) 신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요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90%로 진학자를 제외한 전문계고 평균 취업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 생산현장 인력을 공급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 증대에 기여
- ② 국무총리실 주관 일자리 창출 특정 평가 결과: '10~' 11년 우수과제로 선정

4. 종합적인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청소년활동정책의 자원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는 198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개별사업들은 안정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사업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향후 예산확보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이지만, 지역의 청소년활동상황을 보건대, 현재로서는 전달체계,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미결의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질적인 도약'이다. 여전히 전달체계의 수직적·수평적 체계는 취약하며, 지자체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정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 취약하고, 청소년활동정책은 차별화되기보다는 주변화되었다. 이 때문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생기지만, 지역에서의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무부처의 청소년활동사업의 규모는 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의 약 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만큼 총괄 조정해야 하는 대상부처 사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많은 사업들이 중복적이다. 청소년활동관련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이 중요하지만, 지역연계를 통해서 사업 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총괄조정만으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의 청소년활동정책은 규모면에서는 또 하나의 사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사업들은 차별화되어야 한다. 즉,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사업으로 타 부처 사업들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청소년들의 참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의 청소년참여기구의 질적 도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관련사업에서의 청소년의 참여, 자기주도성을 높여야 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은 지역에서 그 역할을 주도하는 거점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지도 전문인력은 이 부분에서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한 마디로 현 단계의 청소년활동정책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도약에 중점을 두고 성장해 가야 한다.

제 VI 장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방안**

제 VI 장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책방안은 중앙부처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과 지자체 수준에서 추진해야 할 것,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해야 할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정책추진주체(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별로 제시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정책추진주체별로 제시하게 되면 각 사안별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리되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안별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각각의 정책제안들은 항목별로 먼저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정책대안 간의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책대안 간의 관계를 그림(그림 VI-1)으로 제시하였다.

1)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과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활성화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제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들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의 규모보다 훨씬 크다.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이들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를 맡아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서 총괄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과 성과평가 등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개편”을 한다고 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p.99). 그렇지만, 비단 청소년정책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회정책에 있어서 각 부처의 총괄조정업무는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 장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 더욱이 청소년활동정책이라는 틀이 기타 부처에 통용될 수 있는 틀이 아니고, 그 범주를 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총괄조정 대상이 모호하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 방과후 활동, 주말체험프로그램 등이 있지만, 교육부 내에서 각각의 사업들을 주관하는 부처가 상이하여 총괄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자유학기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역시 다르기 때문에 좀처럼 정책의 총괄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청소년활동정책 전체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여성가족부 내의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위 또한 명확한 것은 아니다.

· 결국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어떤 정책 사업이든 예산과 함께 지역으로 내려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위사업의 수행 측면에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간의 연계나 연계의 토대가 되는 지역사회연계사업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는 각 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기 일췌이다. 그렇지만, 모든 부처가 지역사회연계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중복사업이 될 수 있다. 이 역할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역점을 두어 지역단위에서 청소년활동정책사업을 비롯한 청소년정책 사업이 상호연계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에서의 연계를 원활히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청소년활동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에서의 청소년활동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 경기 지역을 벗어나서는 전반적으로 인프라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며,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중앙단위에서의 총괄조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초점은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모색이다. 그렇지만, 청소년활동정책만을 위한 구심점 만들기의 노력보다는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청소년활동정책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선방안

· 지역에서의 사업간 연계를 위한 좋은 방편 중의 하나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지만, 제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제대로 운영되

지 못하고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면,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사업간 연계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지역단위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은 중앙부처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부처 간 협의회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총괄조정방식이 바람직하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은 청소년활동정책에 한정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 수준에서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체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제정은 지자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지역의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신성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시도 지역 뿐 아니라 많은 시군구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만 서울특별시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외에 기타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시행령 규정의 마련과 조례제정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마련 이외에는 두 가지 방법을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 지역의 청소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행정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지표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정책 종합평가지표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실적만을 넣기보다는 청소년친화지수와 같은 보다 포괄적인 지표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부터 찾을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여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가칭 청소년정책종합평가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평가지표에는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지표를 넣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종합평가기구를

들 필요가 있다. 청소년정책의 종합평가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소년정책 전반을 보다 체계화시킬 수 있다.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의 청소년사업 또는 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하거나 리드해 갈 수 있는 조직이라면, 어떤 형태이든 구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축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협회나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될 수도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방법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지역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자체가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전달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과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단위정책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연계사업이야말로 청소년활동정책 및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더군다나, 점점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으로 청소년활동관련 정책업무들이 이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활동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청소년활동정책 장기비전 및 목표 설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설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정책의 변화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제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담은 청소년활동정책종합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청소년활동정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그러나 그저 새로운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청소년활동정책을 견인하기 위한 철학과 비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급선무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정책을 포함한 청소년정책 전반이 파편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대부분 기존의 정책 사업들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립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사업의 확장과 신규 사업의 편재를 기본틀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다 실효성 있고, 또 질적인 도약을 모색하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의 논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의 문제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도 실효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힘들 수 있다.

·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활동’개념을 둘러싼 혼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인 긴 논쟁이 필요하다. 제2장에서 연구진의 생각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다 지속적인 연구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도 청소년활동의 이념을 세우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청소년정책과 관련 학문의 역사가 타 분야에 비해 길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보면, 이제야말로 이념정립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청소년 관련 학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노력도 절실하다. 과거처럼 법조문에 의해, 정책적인 용어로서 청소년 활동이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가치 논쟁을 학문적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활동·역량 연구실 독자의 연구플랜을 만들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초연구를 리드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제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에는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주에 들어갈 다양한 정책사업과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의 양이 급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정책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청소년활동정책의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은 시급하다.

● 개선방안

· 청소년활동개념 재정립을 위한 학문적인 논쟁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 관련 학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활동개념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련활동’의 외연은 너무 넓으며, 수련활동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 또한 청소년활동정책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개념으로서는 수명을 다하였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념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미 청소년활동은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제3조 제3항에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다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에서 이 세 가지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부터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의 방향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하나의 방편은 청소년활동을 세 가지 활동영역으로 구분하지 말고, 다소 중복되더라도 문화예술활동, 여가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련활동 등으로 나열함으로써 수련활동의 의미를 축소하고,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 ‘수련’을 삭제하고,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인증제’ 등의 용어로 대체하는 노력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 아울러 청소년활동개념과 청소년역량 개념 간의 관계를 법규상에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역량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2항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의에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를 ‘청소년의 역량을 계발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다’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역량의 개념을 ‘청소년육성’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역량계발이 이미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청소년활동이 반드시 청소년의 역량계발을 목표로 하지 않고 청소년육성의 수단인 하나이며,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사업이 청소년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활동정책이 별개의 정책이기보다는 청소년육성사업 또는 청소년사업의 틀 안에서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전문인력, 청소년활동프로그램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시설의 장기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국립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의 확충계획을 중장기적인 수요예측과 현 단계의 문제점을 토대로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설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시설경영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발전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청소년활동시설들을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기타 배치지도사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임금표준안 제정 등 세세한 전략들을 목록화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기존의 협회와 조직들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태안해병대캠프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강화가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청소년활동시설의 공공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인 변화노력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어렵다. 청소년활동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하며, 학교와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태안사태에 대해서 규제중심의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일 향후 대책의 방향을 규제중심으로 풀어가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활동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다. 현재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들,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 청소년문화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참여기구운영 등 청소년활동 정책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각 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운영계획이 필요하다. 단위사업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전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청소년활동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2012년과 2013년에 추진한 ‘지역사회연계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연계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청소년육성 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간 MOU 체결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기관과 학교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의 국립시설을 이용해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청과의 MOU 체결을 통해서 교원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강사요원과정을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관은 단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중심에서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와의 연계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하거나 지역학교장협의회 등의 조직과의 소통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청소년기관의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기관이 학교를 찾아가기보다는 학교가 청소년

기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일상적으로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기관의 운영위원회에 학교장이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퇴직 교육공무원 등 교육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청소년기관은 학교의 학교운영운영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상시적인 접촉창구를 유지해야 한다.

-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복지 영역과 분리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있듯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기 힘든 상황이다.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사업이라는 통합적인 틀에서 보았을 때는 통합운영이 맞지만, 통합운영에 따라 자칫 청소년활동영역이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의 가치를

- 중앙부처의 장기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별 장기발전계획수립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계획은 앞으로는 정책의 큰 방향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자체 수준에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요원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기점으로 지자체 나름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제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결여,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지자체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무 규정화되기는 쉽지 않다.

● 개선방안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짚은 인사이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청소년업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한계가 명백하며, 현재로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업무를 추진할 시스템을 갖추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 같은 조직의 구성이 중요하다. 담당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지역의 인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행정체계를 보완하는 전달체계 기구로서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을 활성화는 산파역을 하거나 허브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정체계를 바꾸는 것보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을 재편하고 강화하는 편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된다.

4)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의 재정비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는 어느 정도 수직적 체계를 갖추었지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국립시설 그리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이 주로 정책 사업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경우에는 정책사업 중심으로 기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의 허브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된다. 국립시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달체계는 무엇보다 지역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사업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경우에는 운영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위탁운영과 통합법인 또는 직영운영 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 개선방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현재 진로정책과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 내 관련 부서별로 별도로 조직된 중앙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을 위한 중앙협의체와 진로교육중앙협의체가 그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두 협의체가 실효성 있는 협의체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독자적인 중앙협의체 기구를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선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그리고 한국청소년지도자연합회 등의 청소년현장 조직을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자유학기제 운영과 진로교육지원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체 참여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중앙협의체 역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중앙단위에서의 이원화된 전달체계, 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원화된 운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두 기관간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더욱이 지역에서의 허브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사업수행 비율을 낮추고 허브기능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계기로 운영하기 시작한 지역사회협의회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중의 하나이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또한 지역의 청소년 활동시설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전문화되어야 한다. 이 역할은 2012년과 2013년의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컨설팅사업은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핵심적인 업무가 되어야 한다.

· 시군구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이 정책 사업 중심의 기능이라면 여타 청소년활동시설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센터의 기능을 먼저 재정립한 후에 점차적으로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설립하더라도 새로운 기관이나 시설의 설립형태가 아닌 기존의 시군구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활동시설에 두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다만, 시군구상담복지센터에 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청소년활동정책과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복지 정책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두 가지 업무를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며, 업무의 전문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5) 청소년지도인력양성 시스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지도자인력양성과정은 양적인 면에서는 크게 신장되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무시험제도 도입으로 인한 문제가 현 단계 인력양성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은 청소년상담사 양성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요건에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보수교육은 2013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고, 미이수 시 소속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교육의 의무화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렇지만 보수교육이 어떤 성격의 띠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될 수 있다.

● 개선방안

· 가장 먼저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현장실습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장실습을 의무화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도 예상되지만, 양질의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 실습 청소년활동시설이나 청소년단체 등이 현장실습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습기관을 반드시 청소년기관에 한정짓지 말고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이나 학교 등 다양한 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과정도 지금보다는 연수과정을 심화시키되, 지금까지처럼 강의 중심의 연수에서 다양한 실습중심으로 운영하고, 현장실습도 연수과정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일반교육보다는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특히, 특기적성분야별로 교육과정을 전문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기관별 교육보다는 전문과정별 교육과정개발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6)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통계체계의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관련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생산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이외에는 반복횡단조사자료는 전무한 상황이어서 과학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수집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직업체험활동 등 전반적으로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어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만으로는 청소년들의 활동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부모나 청소년현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행정통계 수집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인프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시스템이 없어 행정수요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통계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행정통계 역시 제한적인 범위에서 밖에는 수집되지 못하고 있다.

● 개선방안

·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학교 내 체험활동, 학교 밖 체험활동, 방과후 활동, 주말체험활동, 직업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가 반복횡단조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기본틀로 하는 조사여야 정책적인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본 과제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는 이 점을 의식하여 실시되었으며, 본 과제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반복횡단조사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 2012년에 청소년수련시설통계편람이 생산되었다. 향후 주기적으로 이 같은 통계편람이 생산되어야 하겠지만, 청소년활동시설 및 단체, 협의회 등에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행정통계가 수집·정리되어야 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및 자체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백서와 같은 형태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청소년참여를 핵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참여제도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 그렇지만, 청소년참여활동은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기구와 프로그램들은 [그림 V-2: 청소년활동정책연표]에 나와 있는 기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청소년참여활동과 기타 청소년참여활동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기관과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이나 기관과의 차별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고, 특정 영역의 활동들은 오히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단순히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강사를 수급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차별화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 개선방안

· 향후 청소년참여기구활동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들, 즉, 교류활동, 청소년문화존, 청소년공모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통합하거나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청소년활동이든 반드시 ‘참여’ 또는 ‘자기주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수한 강사 또는 운영자는 지역사회에 얼마든지 있다.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특징은 ‘자기주도적인 참여’에 있다.

· 모든 프로그램에서의 자기주도성이 담보된다면, 청소년참여기구들은 다양한 자기주도적 참여활동의 수렴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이나 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보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태안해병대캠프 사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처법이기도 하다.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미명 아래 비참여적이고 훈육적이며, 때로는 인권침해적인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청소년 참여’의 원리를 강조해야 한다. 이것이 청소년활동정책의 차별화하고,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며, 이것을 청소년활동의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정책전반에 반영시켜야 한다. ‘안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안전’의 문제에만 집착하여 참여의 원리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청소년 참여의 원리의 반영을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철저한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청소년지도인력 양성과정에서 그리고 보수교육을 포함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그리고 지역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하며, 사례발굴과 전파를 통해서 확산해 가야 한다.

8) 종합적인 제언: 융합, 연계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자기주도성 강화

- 지금까지의 정책제언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달리 말하면, [그림 VI-1]을 구현하는 방법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는 지역단위에서의 청소년활동정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종합평가단(가칭)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 청소년친화지수 등 청소년정책평가지표를 반영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청소년위원회 활성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 도입 등 청소년활동정책 활성화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종합평가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종합평가단의 운영 하나만으로도 청소년활동정책을 포함한 청소년정책 전반의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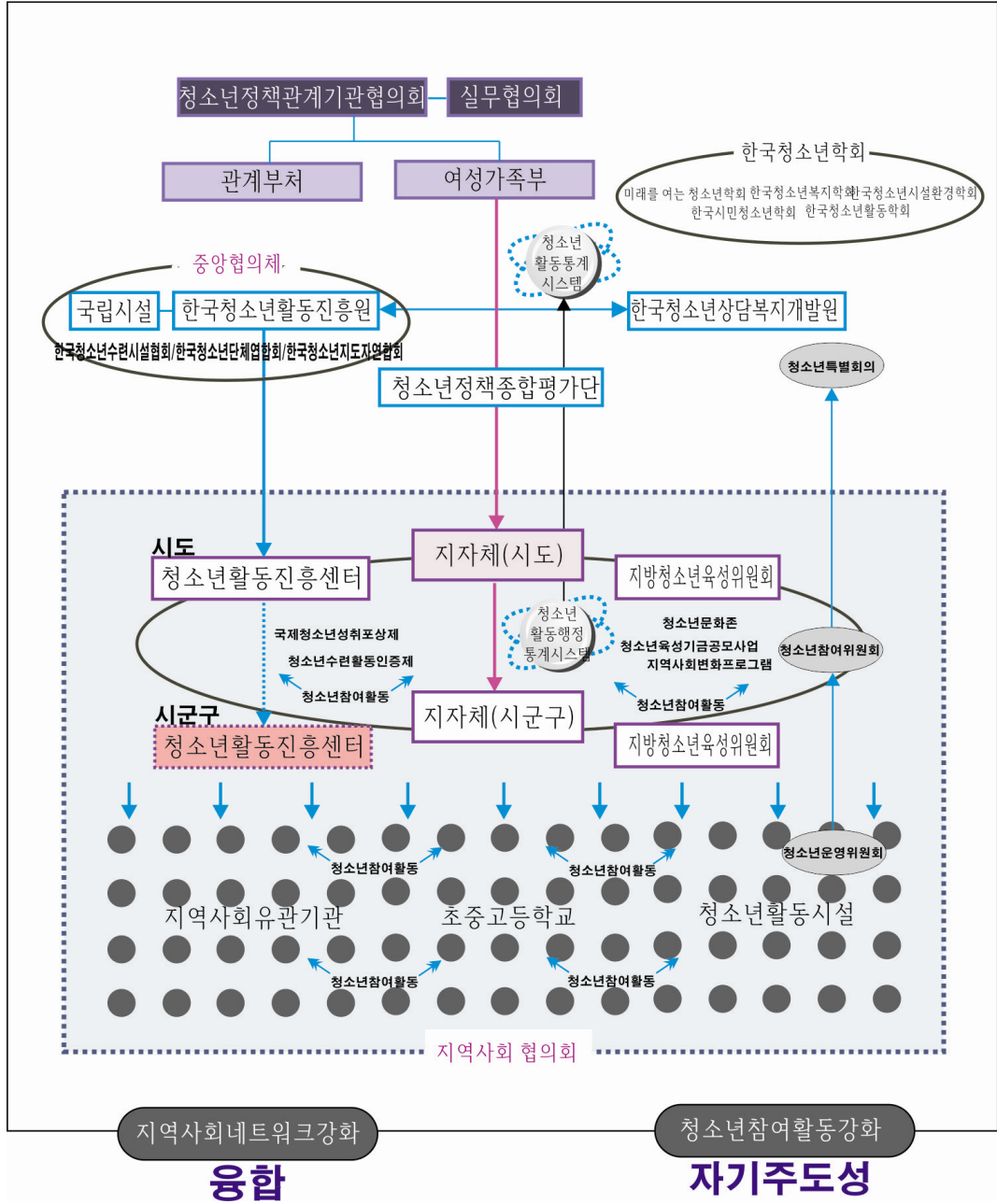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중심으로 국립청소년활동시설들과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지도자연합회는 물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협의체를 운영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정책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연계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 기관 및 학교 등 청소년 유관기관에 대해서 컨설팅 등의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 국제성취포상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문화존,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 지역사회 변화프로그램, 청소년참여기구활동 등 제반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관련 사업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모든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기본원리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청소년활동정책의 학문적인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관련학과들의 연계도 필요하다. 공동의 학문적인 이슈를 도출해내고, 학문적인 논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학회들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청소년학회를 모학회로 기존의 학회들이 학문적 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요약하자면, 크게 기존의 사업과 사업, 그리고 기관과 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강화 원칙과 모든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강조하는 원칙 등 두 가지 원리에 의해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



【그림 VI-1】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체계

제 VII 장



결론 및 요약

1. 요약
2. 결론

제 VII 장 결론 및 요약*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활동개념 관련된 연구, 청소년역량개념 관련 연구 등 선행연구 분석과 청소년관련 법규 및 19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설명자료 등 문헌자료를 분석하였고,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역량개념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초·중·고생들의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녀의 체험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과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청소년수련활동개념은 외연이 너무 넓게 사용되어 청소년정책을 견인하기에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반면 청소년활동개념은 다양한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정책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지향하기 위하여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역량개념은 청소년활동개념의 결과요인으로 해석되지만, 청소년역량지표 관련 연구의 내용분석과 체험활동의 효과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결과, 전인적 발달을 위한 청소년역량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청소년활동개념은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시에 청소년활동은 경험의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요인들에 의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요선진국들은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 중의 하나는 지역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에서의

* 이 장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정책이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많은 선진국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이면서도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램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진로체험활동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청소년 체험활동의 실태를 체험활동의 참여정도와 참여방식, 시설 이용정도, 장애요인 및 요구,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1년간 평균 6개 영역의 체험활동을, 중·고등학생은 5개 영역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체험활동 폭이 넓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체험활동의 폭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체험활동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방식별 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단체활동 또는 개인참여 방식으로 참여할 때의 참여도가 대부분의 활동영역에서 높은 편이었고, 청소년단체, 개인참여 등 자발적 참여방식이 정의적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는 체험활동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험활동의 폭보다는 강도가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들은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는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기를 기대하였지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보다 전문적인 활동지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그만큼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다.

넷째, 청소년활동정책을 평가한 결과, 주무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은 청소년정책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 1990년대 이후로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단위사업들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타영역에서의 체험활동정책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청소년활동정책은 주변화되어 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중앙행정기관들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을 비교분석한 결과 주무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은 규모면에서 약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정책대안들을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과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활성화 방안이다. 청소년활동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서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단위에서 총괄조정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지표에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지표를 반영하거나 가치 청소년정책종합평가단을 조직하여 지자체 수준에서의 청소년활동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 장기비전 및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 즉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도인력, 청소년활동프로그램별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청소년활동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 차원의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사정에 맞게끔 청소년활동정책을 포함한 청소년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제고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관련 행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의 재정비 방안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양한 청소년 민간조직과 타영역 공공 및 민간조직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포함하는 중앙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의 진흥을 견인해야 한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정책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지역사회 허브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 및 학교 등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지도인력양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취득요건으로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와 보수교육도 강의중심의 교육과정을 변화시켜 현장실습과정 등의 과정을 편성하고, 특히 보수교육은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교육과정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통계체계의 수립이다. 과학적인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을 종합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자체에는 지역의 청소년활동관련 행정통계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청소년참여를 핵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관련사업들은 어떤 청소년활동이든 반드시 ‘참여’ 또는 ‘자기주도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것이 청소년활동정책의 차별화 전략의 핵심이 되며, 청소년활동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된다.

2.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정책의 이념의 핵심이 되는 청소년활동개념과 관련한 결론이다.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활동개념을 재정립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개념이 혼용되기도 하고,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개념을 정립하는 일은 정책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검토하고, 관련법상의 개념을 분석한 끝에 얻은 결론 중의 하나는 청소년수련활동개념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었다는 점이다. 청소년수련활동개념은 청소년활동정책의 이념적인 역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청소년활동개념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빚거나 아니면 보편적이거나 일상적인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버려 앞으로의 청소년활동정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축소해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다. 최근 교육계나 사회전반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관련 정책을 담보해내고, 수요자들과 소통하기에는 어려운 개념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러한 점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위설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하나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이에 최근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사업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구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사업(youth work)를 청소년활동개념의 대체개념으로 보는 입장에 대한 것이다. 결론은 청소년사업은 청소년활동을 포괄하는 청소년육성개념에 가깝다는 것이다. 청소년사업은 청소년활동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육성개념이 더 가깝다는 것은 청소년활동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점은 이 연구로부터 얻은 결론 중의 하나이지만,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즉, 청소년활동을 청소년보호나 청소년복지영역에서 분리시킬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그간에 지향해 왔던 청소년활동정책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른바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취약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정책이 차별화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와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데 있지만, 동시에 청소년 체험활동이 강화되면서 문화자본의 격차를 유발할 가능성도 커졌고, 또한 체험활동은 취약위기 청소년들에게도 동기를 갖게 하거나 자아정체성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체험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결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볼 때 청소년활동정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청소년보호 및 복지영역과 점진적으로 통합되어가는 모델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국사례조사,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및 학부모대상 요구조사 그리고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얻은 결론은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청소년활동정책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 상황을 보더라도 양적인 확대가 반드시 청소년활동정책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받았다. 청소년체험활동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 결론도 마찬가지이다. 체험활동의 기회는 계층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이것은 향후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지만, 본 연구가 분석한 모든 자료들이 일관되게 말해주는 것은 양보다는 질이다. 이미 정책제언을 통해서 제시하였지만, 질을 담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각종 사업을 잘 융합하고 연계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더 많은 사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사업을 잘 연계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서 비효율적이거나 비효과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나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역연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가급적 자기주도적인 체험활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너무 많은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운영주체도 많아졌다. 단순히 강사가 투입되거나 개인의 요구에 맞추지 못한 집체형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기주도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되며, 최근 벌어진 안전사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면 청소년활동정책은 더욱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경빈, 문동규 (2006). 청소년의 여가활동유형과 참여정도에 따른 몰입경험 비교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7(5), 905-916.
- 강명숙, 이현림 (2007).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습부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직업교육연구**, 26(2), 1-18.
- 강봉화 (2004). 여가활동 참여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와 학교생활만족도간의 인과관계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1, 741-751.
- 강선영 (2010). 스포츠여가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1), 115-123.
- 강성구 (2007). 청소년의 태권 수련활동이 정서와 신체적 자기 지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리서치**, 18(4), 683-692.
- 강진령, 이영주 (2009). 진로의식,탐색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동기와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2(1), 113-125.
- 고관우, 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고종욱, 김민환, 김기운, 정일호 (2006). 청소년기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 유형과 정도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7(5), 867-874.
- 공성배, 이원희 (2008). 청소년의 e-스포츠 참여정도와 몰입정도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121-131.
- 교육과학기술부 (2010.1).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 구분행, 김을교 (2002).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활동 참여정도와 도덕성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6(2), 5-19.
- 구창모 (2004).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3(5), 91-100.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2007).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보호백서 2002**. 서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권순용 (2010). 청소년기 스포츠 참가의 의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5-13.
- 권일남, 김영철 (2006).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4(2), 33-43.
- 권일남, 이창식, 김태균 (2011).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보고서 :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세미나 11-S37). 3-61.
- 권일남, 정철상, 김진호, 김영철 (2008). **청소년활동지도론**. 서울: 학지사.
- 김경란 (2004). 초등학생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가 자아신체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1), 593-602.
- 김광웅, 이종원, 천정웅, 이은교, 길은배, 전명기, 정효진 (2009).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귀봉, 김영수 (1999). 청소년기의 스포츠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과학연구소논총**, 18, 51-60.
- 김기현 (2011).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원1주년 기념 청소년활동 토론회: “청소년 활동, 다시 길을 묻다” -청소년활동의 과제와 대안**.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도영 (2013a). 공부압력과 공격성간의 경로모형 검증 -청소년활동,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4), 225-243.
- 김도영 (2013b). 부모감독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과 교사애착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0(6), 315-336.
- 김도영, 임영식 (2013). 청소년활동과 비행 간의 경로모형 검증 -자기효능감, 적응유연성,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5), 157-182.
- 김동배, 조학래 (199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1, 147-170.
- 김명희, 신현숙 (2007). 초등학생의 진로태도, 진로이해,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활동중심 및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1), 23-40.

- 김미성 (1997).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 인성에 미치는 영향. **동광**, 94, 60-82.
- 김미연, 김정해 (2013). 중학생의 동아리학급활동이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K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2(1), 139-157.
- 김민 (2010).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체험(수련)활동 개념에 대한 문화론적 비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126-141.
- 김민섭 (2004). 아동의 방과후 체육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3(6), 105-113.
- 김범식, 박종진 (2000). 방과후 체육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9(4), 101-112.
- 김선숙, 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에 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성택, 김주훈 (2003). 청소년 야외활동이 사회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4(4), 747-759.
- 김수겸 (2007). 초등학교 아동의 인지적 운동능력과 선호도 및 방과 후 신체활동참여가 심리적 욕구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8(4), 747-756.
- 김수호, 이태욱 (2013). 컴퓨터활용교육 II: STEAM 기반 창의적 체험활동이 초등학교 학생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7(1), 41-44.
- 김아영 (2010). **학습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영수 (2001). 청소년기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집단 응집력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체육학회지**, 11(1), 21-30.
- 김영호 (2012). 청소년 활동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년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육성, 수련, 활동, 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1-20.
- 김용규, 정난희, 김주호 (2009). 야외수련활동에 참가한 초등생의 성취감과 자아개념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1), 659-667.
- 김유나, 박옥식(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79-99.
-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종백 (2010). 청소년 체험활동의 교육심리학적 논리와 근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101-110.
- 김지수 (2011). 지역중심 청소년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원1주년 기념 청소년활동 토론회: “청소년 활동, 다시 길을 묻다” -청소년활동의 과제와 대안-**, 69-75.
- 김지연, 이영순 (2011).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331-331.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창환 (2010). 청소년체험활동의 교육철학적 의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74-87.
- 김철주, 최미란 (2008).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형태와 정서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행동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2(3), 13-25.
- 김혁진, 김형주, 김정주, 김인규, 김문주 (2012).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김현철 (2012).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2013a).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모색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세미나 자료집** (13-S05), 23-45.
- 김현철 (2013b).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 1-30.
- 김현철, 이기봉 (2011). **일본 케센누마시의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 사례집**.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최창욱, 오해섭, 이춘화, 김지연 (2010).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연구보고 2010-38). 서울: 여성가족부.
- 김현철, 황여정 (2012).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미간행).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연구보고 12-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진, 황명자 (2009). 방과후 학교 생활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6), 185-193.
- 김홍석 (2008). 방과후 태권도 수련을 통한 청소년의 신체적 자신감이 자아존중감 및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2(1), 517-526.
- 나명훈, 최종연 (2006). 중학생의 여가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6, 345-354.
- 남승구 (2002).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친 사회적 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1(2), 111-117.
- 노규식 (2010). 방과후 활동에 대한 뇌과학적 관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14-25.
- 도종수 (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1-45.
- 문경숙, 김현철, 김지연, 민경석 (2008).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II-총괄보고서** (연구보고 08-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 (2009). **2009년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및 효과성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문성호, 문호영 (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문용, 강봉화 (2004).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기간별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3, 59-69.
- 문화관광부(2000, 2001, 2003, 2004).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부(1994). **청소년백서 1994**. 서울: 문화체육부.
- 민전순 (2013). 핀란드의 청소년활동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40), 31-60.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경묵, 서보운 (2011).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학급 단위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2), 45-69.
- 박경석 (2009). 초등학생의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와 신체적 자기개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6, 469-478.

- 박병국 (2004).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1, 633-644.
- 박선영 (2013). 영국의 청소년활동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40), 1-29.
- 박성준, 김재현 (2007). 청소년의 스포츠여가프로그램 참여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체육학회지**, 17(1), 1-12.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재숙 (2011). 초기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4), 47-69.
- 박정화 (2009). 아동의 방과 후 스포츠 종목과 참여 수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5), 535-545.
- 박주희 (2010). 초등 도덕과와 연계된 창의적 체험 활동 : 자율활동 관련 대화저널 쓰기를 통한 도덕적 교실공동체 형성방법. **2010년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 연차학술대회 발표원고**. 216-253.
- 박진성, 조춘호 (2000). 단전호흡 수련과 스포츠활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4, 155-165.
- 박충효, 변재철, 류호상 (2006). 방과 후 12주간 자율체육활동이 남자고등학생의 체력과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14(4), 101-109.
- 박혜란 (2007).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1(4), 5-18.
- 배미희, 김홍순, 김청송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현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9), 309-325.
- 배성민 (2003). 청소년의 태권도 여가활동 수련기간과 여가만족과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4(5), 925-936.
- 변영호 (2010). 초등 도덕과와 연계된 창의적 체험 활동 : 동아리 활동을 통한 창의/인성의 함양. **2010년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 연차학술대회 발표원고**. 85-110.
- 변해심, 노재현 (2011). 초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여가스포츠참가와 심리적 웰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4(1), 479-492.

- 보건복지가족부(2008). **아동·청소년백서 2008**. 서울: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백서 2009**. 서울:보건복지가족부.
- 설민희 (2009). 청소년의 문화 활동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1, 140-172.
- 성은모, 이해연, 황여정, 변수용, 유승훈, 이주석, 정동원, 이승재 (2012).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서울:여성가족부.
- 소경희 (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 연구**, 25(3), 1~21
- 손준구 (2001). 방과후 조직적 체육활동의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왕따) 감소효과 분석. **한국스포츠 교육학회지**, 8(1), 119-129.
- 손연희, 서영환 (2012). 방과후 재즈댄스활동이 여자중학생의 신체형태 및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0(2), 95-100.
- 송병국, 박정배 (2006). 청소년의 활동경험과 진로선택준비도와와의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19(2), 33-50.
- 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청소년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121-147.
- 신선미 (2013). 프랑스의 청소년활동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29), 33-65.
- 신선영, 송명자, 이현림 (2009).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성 및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2(1), 145-170.
- 신세윤 (2004). 댄스스포츠 교육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7, 35-42.
- 신은섭 (2010). 초등 도덕과와 연계된 창의적 체험 활동 : 적응활동 지도를 통한 창의/인성의 함양 -정보윤리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2010년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 연차학술대회 발표원고**. 119-145.
- 신정현, 전선혜 (2012). 방과 후 체육특기적성 활동참여가 학생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6(3), 1-14.
- 안은미, 이지연, 정익중 (2013). 정서학대가 또래애착과 교사애착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201-226.

- 안정덕, 한남익, 조쟁규 (2003).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리 체육활동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4(4), 885-896.
- 양수민, 주희진, 조규판 (2009). 특성요인이론에 따른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학연구**, 22, 45-64.
- 양종훈, 이종하 (2010).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 및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9, 343-350.
- 여성가족부 (2010). **201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0).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2008~2012)**.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 **201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b).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c). **2013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d).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참여활동」**.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염두승 (2003). 청소년 후기 스포츠활동 참여수준에 따른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2(6), 211-221.
- 염두승, 이영민, 윤상문 (2004).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수준과 일탈수준과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5), 1181-1188.
- 유성렬 (2012). 청소년 역량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년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육성, 수련, 활동, 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21-46.
- 윤만수, 강진홍 (2001). 스포츠 활동 참가가 중, 고등학생의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4(1), 173-183.
- 윤명희, 김진화 (2008).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2), 173-197.
- 윤철경, 박병식, 김진호, 강현주 (201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연구보고 12-R0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갑철 (1999). 청소년의 여가 활동 참가 및 참가 유형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0(4), 165-174.
- 이강우 (2002).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자아증진감의 관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1(5), 129-137.
- 이강우 (2003).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폭력행동의 관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3), 153-160.
- 이강우, 채환국 (2002).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스트레스의 관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1(5), 139-147.
- 이건미 (2010). 초등학생의 방과후 무용활동이 정서 및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무용학회논문집**, 62, 119-133.
- 이경일, 김영숙 (2003). 아동의 방과 후 학습활동 참여가 자아 효능감 및 자아 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4(5), 611-622.
- 이광우, 전제철, 허경철, 홍원표, 김문숙 (2010).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광호 (2005). 학교 밖 일상 체험활동의 청소년 교육적 의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372-396.
- 이광호 (2011).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사업의 진화 필요성과 청소년활동 사업의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원1주년 기념 청소년활동 토론회: “청소년 활동, 다시 길을 묻다” -청소년활동의 과제와 대안-**, 1-19.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미숙, 민용성, 조성기, 조덕주, 이낙중, 김현철 (2007). **학교교육 내실화 후속지원 연구(V)**.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민희 (2013). 독일의 청소년활동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독일, 프랑스, 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40), 1-32.
- 이병관 (2004). 방과후 자율체육활동 참여의 목적과 효과. **한국스포츠리서치**, 154(1), 259-270.
- 이상균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환경동아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5(1), 114-123.
- 이상행, 서희진 (2000). 청소년의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유형과 셀프모니터링 및 또래지위의 관계.

-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1), 143-156.
- 이선경 (2009). 방과 후 사회무용 활동이 초등학생의 신체상, 수업 흥미도 및 정서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1), 1-23.
- 이성은 (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313-335.
- 이성학, 원주연, 권정두 (2012). 청소년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가 심리적 변인(우울증, 공격성, 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1, 86-119.
- 이수연, 김영모 (2011).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비행청소년에게 미치는 임파워먼트 효과분석. **청소년학연구**, 18(10), 207-228.
- 이영익 (2007). 중, 고등학생의 여가활동 참가가 시험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9, 593-604.
- 이용교, 이중섭 (2010).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참여의식,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2), 203-232.
- 이은석, 이선장 (2003). 청소년의 태권도 수련활동 참여에 따른 예절의식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4(5), 911-924.
- 이재형 (2005).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6(5), 1483-1490.
- 이종경, 서동균 (2004).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와 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1491-1500.
- 이충섭 (1999). 방과후 자율체육활동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8(3), 260-271.
-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2007년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 07-R44).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화, 김현숙 (2012). 중학교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및 자아정체감에 대한 학급단위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191-217.
- 이진갑 (2000). 여가스포츠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도덕성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9(3), 175-184.
- 이진갑 (2002). 청소년의 여가스포츠활동참가유형과 정도에 따른 자기표현행동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1(3), 147-158.
- 이창호, 주영아, 권혜수, 안현의 (2002). **청소년 수월성 촉진 프로그램 기초 연구: 플로우**

- 이론을 중심으로** (2002 청소년상담연구 99).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 (2009). 청소년의 진로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신뢰 및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8), 129-148.
- 이한숙 (2008). 청소년의 스포츠 특기·적성활동 몰입경험과 가정생활만족간의 학업스트레스 매개모형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2), 59-70.
- 이현립, 박필자 (2006).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3(1), 191-210.
- 이현립, 장정숙, 정상영 (2005).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18(1), 19-33.
- 이현립, 최남옥, 류진영 (2007). 활동중심 진로인식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인간관계와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0(1), 45-54.
- 이혜진 (2004). 방과 후 학교 운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건강관련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2), 1265-1272.
- 임상용, 오진식 (2009).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이 신체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6(1), 479-492.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08). **2008년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 개발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10).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0), 253-276.
-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II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보고 08-R0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IV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연구보고 09-R12-1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김기현 (2006). **청소년 활동참가실태조사연구** (연구보고 06-R41).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장승욱, 한선혁 (2004). 청소년 문화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칠곡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11(1), 193-216.
- 장진우, 윤상문 (2004). 청소년의 방과 후 스포츠활동 참여와 사회적 능력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1481-1490.

- 전명기 (2010). 청소년활동의 재개념화(청소년육성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41-60.
- 정건희 (2011). 청소년자치 및 참여활동의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원1주년 기념 **청소년 활동 토론회: “청소년 활동, 다시 길을 묻다” -청소년활동의 과제와 대안-**, 53-65.
- 정덕조, 권용일, 이연주 (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가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 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4), 145-154.
- 정우현, 박상범 (2000).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 청소년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8(1), 85-96.
- 정윤경 (2010). **청소년 체험활동의 교육적 의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88-100.
- 정진오, 한아름 (2008).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자기표현력과 사회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학회지**, 47(6), 279-289.
- 정철영, 김봉환, 송병국, 최동선, 이종범, 김은석, 주홍석, 김보경 (2012). 직업체험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학습동기, 창의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5(3), 1-17.
- 조남홍 (2011). 여가스포츠 사회화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3), 83-102.
- 조성심, 주석진 (2010).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이 고등학교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23(3), 47-64.
- 조연철, 최창석 (2001).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와 자아효능감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 **한국사회 체육학회지**, 15, 213-221.
- 조영승 (1998). 청소년육성법론 연구를 위한 서설 -청소년육성법론의 의미와 연구방법-. **청소년학 연구**, 5(3), 197-230.
- 조호운, 조성환, 김영희 (2012).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21(4), 72-744.
- 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성취기준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은설 (2013).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4(1), 185-217.
- 진은설, 임영식 (2009). 청소년활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6(4), 211-234.
- 최명수, 정명섭, 김봉경 (2006). 중학생의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5(1), 47-61.
- 최미화, 최병렬, 최병순 (2005).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활동에서 수준별 선택실험모형의 적용 효과. **대한화학회지**, 49(6), 591-602.
- 최용민 (2006).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와 참여정도에 따른 자아효능감 비교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7(4), 695-704.
- 최원호, 우규환, 박현주 (2004).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활동 경험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사례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6), 1070-1081.
- 최현주 (2013). 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40), 87-117.
-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9(1), 23-45.
- 표내숙, 정상훈, 박철용 (2009). 중학생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가 신체적 자기개념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3), 359-374.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황용준, 김갑선 (2005). 청소년기의 스포츠동아리 활동 참여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6(6), 871-880.
- 허성철, 이은석, 이종영 (2003). 청소년의 검도 수련활동 참가에 따른 예절의식과 예절행동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6(2), 415-430.
- 허정식 (1999). 청소년의 여가 활동 참가 유형 및 관련 변인들이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9(1), 133-144.
- 허정철 (2005).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7(1), 19-40.
- 현정혁, 홍준희, 이현영. (2010).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및 행복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9(6), 161-171.
- 市川伸一 (2002). **學力低下論爭**. ちくま親書.
- 荻谷剛彦 (2001). **階層化日本と教育危機—不平等再生産から意欲格差社會へ**. 有信堂.
- 日本青少年教育振興機構 (2009). **長期宿泊体験活動に對應した學校教育のカリキュラム開**

- 發と有効性に關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
- 文部省編 (1999). 平成年度我が国の文教施策一進む「教育改革」. 大蔵省印刷局.
- 文部科学省 (2010). 平成22年度文部科学白書.
- 金鉉哲 (2013). 青少年政策の日本日韓 渡辺秀樹外 (2013) 勉強と居場所一学校と家族の日韓比較 東京: 勁草書房. pp. 21-39.
- 「トライやる・ウィーク」評価検委員会(2008). 地域に学ぶ「トライやる・ウィーク」- 10年目の評価検委(報告).
- Anderson, L. W. & Krathwohl, D. R. (Eds.) (2001) *A 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ing: 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Allyn Bacon. Boston, MA (Pearson Education Group)
- Ariès, Philippe (1962). *La Societe Francaise, 1789~1970*. 박단·신행선 역(2000). *프랑스 사회사: 1789~1970*. 서울: 동문선.
- Bloom B. S.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ndbook I: The Cognitive Domain*. New York: David McKay Co Inc.
- Caillois, R. (1958). *Les jeux et les hommes*. 이상률 역 (1994). *놀이와 인간*. 서울: 문예출판사.
- Cason, D. & Gillis, L. H. (1994). A meta-analysis of outdoor adventure programming with adolescents.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17(1), 40-47.
- Crean, H. F. (2012). Youth activity involvement, neighborhood adult support, individual decision making skills, and early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s: Testing a conceptual mode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75-188.
- Crenshaw, D. A. & Mordock, J. B. (2005). *les hommes*. 권윤정 외 역 (2012). *놀이치료핸드북*. 서울: 학지사.
- Csikszentmihalyi, M. (1999). *Beyond Boredom and Anxiety: Experience Flow in Work and Play*. 이삼출 역 (2003). *몰입의 기술*. 서울: 더불어책.
- Csikszentmihalyi, M. (2003). *Finding Flow*. 이희재 역(2010). *몰입의 즐거움*. 서울: 해냄.
- Durlak, J. A., Weissberg, R. P., & Pachan, M. (2010). A meta-analysis of after-school programs that seek to promote personal and social skill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3-4), 294-309.

- Gillis, L. H., & Speelman, E. (2008). Are challenge (ropes) courses an effective tool? A meta-analysis.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31(2), 111-135.
- Hans, T. A. (2000).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adventure programming on locus of control.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0(1), 33-60.
- Huizinga, J. (1938). *Homo Ludens :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이종인 역 (2010).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경기: 연암서가.
- Kline, R. B.(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ford.
- Neill, J. T. (2002). Meta-analytic research on the outcomes of outdoor education. In *6th Biennial Coalition for Education in the Outdoors Research Symposium*, Bradford Woods, IN (pp. 11-13).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Executive summary.
- Root-Bernstein, R. (1999). 박종성 역 (2007). **생각의 탄생**. 서울: 에코의서재.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ipale, I. (2006). *100 sosiaalista innovaatiota Suomesta*. 조정주 역 (2010). **핀란드가 말하는 핀란드 경쟁력 100**. 서울: 비아북.
- Wilson, S. J., & Lipsey, M. W. (2000). Wilderness challenge programs for delinquent youth: A meta-analysis of outcome evalu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1), 1-12.

【법령자료】

- 강원도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강원도조례 제3457호, 2011.3.11.]
-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272호, 2012.3.15.]
- 정부조직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 11690호, 2013.3.23.]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4.22.]
-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1290호, 2012.2.1.]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40호, 2013.1.28.]
-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 11835호, 2013.5.28.]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3.23.]

【중앙행정기관 예산자료】

- 경찰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고용노동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공정거래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관세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 국가보훈처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국가인권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국민권익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국방부 (2012).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 국세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국토해양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6권.
- 금융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기상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기획재정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농림수산식품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기금, 회계).
- 농촌진흥청 (2012). 2013년 정부예산 확정안 사업설명자료(Ⅱ-1).
- 문화재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법무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법제처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보건복지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산림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소방방재청 (201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 여성가족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외교통상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 조달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중소기업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지식경제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통계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통일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특허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 2013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해양경찰청 (2012). 2013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 행정안전부 (201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Ⅱ-1).
- 환경부 (2012). 2013년 예산안(정부확정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3권.



부 록

1. 체험활동효과 메타분석 문헌리스트
2. 설문조사 표본설계 및 가중치와 모수추정
3. 설문조사 결과표
4. 설문지

부록 1 : 체험활동효과 메타분석 문헌리스트

부록표 1-1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고,1,2(학교 및 수련관) [* 저소득층 포함]	지역 도구활동 역량 검사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검사 자율적 행동 역량 검사	검증, 공분산분석, 질적연구	교과 프로그램 활동→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언어·수리(+) 창의적 체험활동→자기 관리 역량(+) 사교영역활동→비판적 사고기술(+) [* 저소득가정 청소년] 자율행동활동→목표·과제수립의 수행(+)
권해수, 김민성, 강영신(2010)	합평교 1-2학년	-	t-test	(역량 기반의 교과형 수업모형) 참여→도구활용능력(+), 자율적 행동역량(+), 사회적 상호 작용역량(+), 도구활용역량(+) (역량 기반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참여→상호작용 역량(인성)(+), 도구활용 역량 (인성)(+), 자율적 행동역량(진로)(+), 관계 만족수준(+)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2010)	청소년시설프로그램참여 청소년 112명(비교집단: 108명)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척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08)	검증	과학교육활동→과학교육활용능력(+) 문화예술활동→문화예술이해(+), 문화예술기능(+), 창의성(+) 봉사활동→자기효능감(+), 사회적 책임감(+) 직업체험활동→자기이해(+), 실천의지(+) 환경보전활동→책임감(+), 환경감수성(+), 자연친화성(+)
박재숙(2010)	만12-18세 학생청소년 2,004명[* 2008 아동청 소년종합실태조사패널]	자이존증감 공동체역의식(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패널)	구조방정식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자이존증감(+)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공동체역의식향상(+) [* 자이존증감 매개] [* 수련활동=문화예술활동, 취미특기활동, 과학교육관련활동, 체육관련활동, 모험개 척활동, 환경보호활동, 직업능력관련활동, 정채참여활동, 국내외교류활동 등을 합산한 값]

연구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허정철(2005)	중1~3, 고 인문계 1~3 888명	-	다중회귀분석	수련활동→자아존중감(+), 사회성(+), 도덕성(+) 자연봉사활동→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사회성(+), 도덕성(+) [※수련활동=7차교육과정의 특별활동영역]
김용규, 정난희, 김주호(2009)	청소년 야외캠프에 참여 초등 129명	성취감(민진,1986) 자아개념검사지(윤희준,1984)	일원변량분석, t검증, 중다회귀분석	수련활동→성취감(+), 자발적 참여의 경우) 수련활동→자아개념(또래관계, 타인관계, 정서요인)(+) [※자발적 참여의 경우]
김성택, 김주훈 (2003)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참여 남자 초등 111명	자아존중감(Rosenberg,1965) 자아개념(송인섭,1983) 자기효능감(김미영, 차정은,1996)	t검증	수련활동→자아존중감(+) 수련활동→자기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수련활동→자아개념(일반적자아, 학문적자아, 중요타인자아, 정서적자아)(+)
강성구(2007)	태권 수련 참여 남자 초등 17명(비교집단: 16명)	정서(Grove&Prapavessis,1992) 신체적 자기기지(Fox&Corbin,1989)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수련활동=태권] 수련활동→긴장(-), 우울(-), 활력감(+), 자긍심(+), 자긍심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수련활동→신체적 자기기치(+), 스포츠유능감(+), 신체적 컨디션(+), 근력(+), [※측정시점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배성민(2003)	태권도 활동 참여 초등 749명	여기만족도(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1995)	공변량분석과 중분류분석	[※여가활동=태권도] 여가활동→생리적여가만족도(+), 교육적여가만족도(+), 신체적여가만족도(+), 심리적여가만족도(+), 휴식적여가만족도(+), [※수련기간에 따라 다름]
이은석, 이신장 (2003)	수련기간 참여 중고등223명 (비교집단: 198명)	예절의식(장경선, 1993) 청소년비행(임변장, 1986)	일원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	[※수련활동=태권도] 수련활동 참여, 참여기간, 참여빈도→예절의식(+) 수련활동→가정생활비행(-), 학교생활비행(-), 사회생활비행수준(-)
허성철, 이은석, 이종영(2003)	김도도장 참여 초등등 171 명(비교집단: 189명)	예절의식과 예절행동(장경선, 1992)	공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	[※수련활동=경도] 수련활동→예절의식(몸가짐, 인사, 언어, 방문, 전화/통신)(+) 수련활동→예절행동(몸가짐, 인사, 언어, 방문, 전화/통신)(+) 수련활동→예절행동(+), [※예절의식 매개]
권일남, 김영철 (2006)	중등 397명(사후: 384명)	Resilience Scale(Wagnild & Young, 1993)	t검증	[※수련활동=구림중앙청소년수련원의 수련활동(캠프, 모험활동)] 수련활동→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 잠재능력의 개발(+), 적극성/추진력 파악(+), 문제해결력을 발휘하는 안목(+)
윤만수, 강진홍 (2001)	중고등 568명	자아개념(송인섭,1983)	공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	스포츠활동→자아개념(+)

연구	연구대상	추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공성배, 이원희 (2008)	고등 345명	물인(취버즈니스네트워킹사의 증독증상 진단 항목) 사회성(천정실, 2004)	다중상행회귀분석	e-스포츠 참여기간→물인(사회적행동변화, 심리적변화, 대인관계)(+) e-스포츠 참여기간→물인(심리적변화)(+) e-스포츠 참여빈도→물인(사회적행동변화, 심리적변화, 대인관계)(+) e-스포츠 참여기간→사회성(사교성, 수용성, 안정성)(+) e-스포츠 참여기간→사회성(지도성)(-) e-스포츠 참여빈도→사회성(사교성, 수용성, 안정성)(+) e-스포츠 물인(사회적행동변화)→사회성(안정성)(+) e-스포츠 물인(심리적변화)→사회성(사교성)(+), 사회성(지도성)(-) e-스포츠 물인(대인관계)→사회성(수용성, 자주성)(+)
박성준, 김재현 (2007)	중고등 295명	자이정체성(박아침, 1996)	검정,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취미활동, 스포츠및건강활동→주체성(+) 관광활동, 스포츠및건강활동, 문화활동→자기수용성(+) 문화활동→무표지향성(+) 문화활동, 사고활동→주도성(+) 사고활동→친밀성(+) [*여기프로그래밍=스포츠및건강활동, 행사활동, 관광활동, 문화활동, 사교활동, 유동및오락활동, 감상활동, 봉사활동]
변해신, 노재현 (2011)	초등 264명	여기스포츠참가(Kenyon&Schutz, 1970) 자이타력성(O'Connell-Higgins, 1983) 심리적웰빙(Ryff, 1989)	요인분석,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	여가스포츠→자이타력성(+) 여가스포츠→심리적웰빙(+) 여가스포츠→심리적웰빙(+) [*자이타력성 매개] [*여가스포츠활동=방과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가스포츠 참가]
신세윤(2004)	고등 40명 (비교집단: 40명)	사회성(경범모, 1971; Scott, 1965)	공변량분석	스포츠활동→사회성(활동성, 지배성, 사교성, 성취성)(+) [*스포츠활동=맨스포츠]
이상행, 서희진 (2000)	중고등 480명	셀프모니터링(Snyder, 1974) 포래지위(Cole&Dodge, 1983)	교차분석	여가스포츠활동→셀프모니터링(+), 포래관계(+)
이진갑(2000)	중고등 781명	도덕성(Rest, 1979) 사회적 관계(정희영, 1994)	공변량분석, 표준중다회귀	대인종목에 참여→도덕성(사회문제에 관심)(+), 친구관계(+)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시간→친구관계(+) 여가스포츠활동 참여기간, 빈도→친구관계(+)
이진갑(2002)	중고등 756명	자이표현행동(Rathus, 1973) 자이조절능력(Kendall&Wilcox, 1979)	공변량분석, 표준중다회귀	단체종목과 대인종목 참가→자이표현행동(적극적표현, 윤리적표현, 간접적표현행동, 반소극성, 반회피성)(+) 단체종목과 대인종목 참가→자이조절능력(주의성, 침착성, 집중성, 규범성, 인내성)(+) 여가스포츠활동 참가정도→자이표현행동(적극적표현, 윤리적표현, 이타적표현, 직설적표현)(+) 소극적표현행동(-) 여가스포츠활동 참가정도→자이조절능력(주의성, 인내성)(+)

연구	연구대상	추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이환숙(2008)	고등 356명	스포츠특기적성활동물인경험 (Augustine&Zoss, 2006) 학업스트레스(장윤정, 1996) 가정생활만족도 (Simmons&Ouslander, 2005)	단순위다중회귀분석 Baron&Kenny(1996) 회귀분석 Test&Meyer (1993)의 경로모형	스포츠특기적성활동 도진물인경험→학업스트레스(-), 가정생활만족(+) 스포츠특기적성활동 집중물인경험→학업스트레스(-), 가정생활만족(+) 스포츠특기적성활동 기술물인경험→학업스트레스(-), 가정생활만족(+) 스포츠특기적성활동 도진물인경험→가정생활만족(+) [* 학업스트레스 매개] 스포츠특기적성활동 집중물인경험→가정생활만족(+) [* 학업스트레스 매개]
조남홍(2011)	중고등 547명	여가스포츠사회화(정범모, 1971; 이종승, 1971) 청소년비행척도(구정모, 1991)	다중회귀분석	여가스포츠 사회화→사회질서 비행(지배성(-), 사교성(-), 활동성(+)) 여가스포츠 사회화→대물 비행(사교성(+), 활동성(+), 자율성(+), 안정성(+)) 여가스포츠 사회화→일반 비행(지배성(-), 사교성(-), 활동성(+)) 여가스포츠 사회화→대인 비행(지배성(-), 사교성(-), 활동성(+))
조연철, 최창석 (2001)	고등 469명	-	변량분석, 공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	여가스포츠 참가강도→신체적 효능감(+) 여가스포츠 참가빈도→일반적 효능감(+) 여가스포츠 참가기간, 참가강도→자아성취감
최용민(2006)	중등 270명	자아효능감 (Mahoney, 1988; 이상구 역, 1998; Sherer, 1982; 김홍석, 1998)	일원변량분석, 공변량 분석, 중다회귀분석	여가스포츠 매일참여 집단→신체적 자아효능감(+), 일반적 자아효능감(+), 전체자아효능감(+) [* 참여빈도에 따라] 여가스포츠 참여기간→신체적 자아효능감(+), 일반적 자아효능감(+), 사회적 자아효능감(+), 전체자아효능감(+) [* 참여빈도에 따라]
김귀봉, 김영수 (1999)	고등 330명(대표급운동선수 110명, 운동부서를 120명, 일반학생 130명)	SCL-90-R(김광일, 1976)	일원변량분석, t검정	운동부서의 스포츠활동→적대감(+), 강박증(+), 불안증(+), 정신증(+) [대표급운동선수 일반학생보다]
김영수(2001)	고등 508명(대표급운동선수 128명, 운동부서를 195명, 일반학생 185명)	집단응집력(Hovarth&Greenberg, 1989) 사회성(정범모, 1971)	변량분석, 회귀분석	대표급운동선수의 스포츠활동→수용성(+), 활동성(+) 스포츠활동 빈도→수용성(+) 스포츠활동 강도→부위기(+) 스포츠활동 기간→활동성(+), 지배성(+) 집단응집력(수용성(+), 집단참여(+)), 사회성(활동성(+), 사교성(+))
이강우, 채환국 (2002)	고등 293명	스트레스(Korea StressManagement; 김인수, 1994)	t검정, 다중회귀분석	스포츠활동 참가정도(빈도, 강도, 기간)→심리적스트레스(-), 신체적스트레스(-), 가정생활적스트레스(-)
구본행, 김을교 (2002)	중고등 558명	도덕성(양병환, 1994) 사회적 관계(양성아, 1995)	회귀분석	레크레이션활동 참여강도→책임성(+), 간접성(-), 정직성(-), 신뢰성(-) 레크레이션활동 참여기간→책임성(+), 신뢰성(-), 정직성(-) 레크레이션활동 참여빈도→간접성(+), 신뢰성(+) 레크레이션활동→준법성→사회적지지(+), 접촉빈도(+), 접촉범위(-), 친밀도(-) 레크레이션활동→간접성→사회적지지(+) 레크레이션활동→정직성→사회적지지(-)

연구	연구대상	추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이강우(2002)	고등 371명	자이존중감(Gurney,1988) 스포츠참가형태(Kenyon, 1969)	회귀분석	직접스포츠활동→자이존중감(+) 간접스포츠활동→자이존중감(+) [※ 직접스포츠활동=직접참여, 스포츠동아리참가, 체육대회참가, 스포츠교실참가 간접스포츠활동=경기관람, 중계시청, 관련서적및신문구독]
남송규(2002)	중고등 302명	친사회적 행동(Eisenberg, 1989; 양진숙, 1991)	공변량분석, 표준중다회귀분석	스포츠활동 참여→친사회적행동(+) 스포츠활동 참여기간, 빈도, 강도→친사회적행동(+)
이강우(2003)	고등 381명	폭력행동(Straus,1979; 임영옥,1999) 스포츠활동참가(Kenyon,1969)	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	스포츠활동 참가빈도(일상적 참가)→폭력행동(-) 스포츠활동 참가형태(행동적 참가, 정서적 참가)→폭력행동(+)
임두승(2003)	19~24세 879명	스포츠활동참여(양성아, 1995) 자이존중감(박이정, 1996) 사회적관계의측정(이경희, 1988; 양성아, 1995)	정준상관분석	스포츠활동 조직적 참여→자이존중감(주제성, 친밀성)(+), 사회적관계(진밀도, 사회지지)(+) 스포츠활동 비조직적 참여→자이존중감(주제성, 자기수용성, 미래활성성)(+), 사회적관계(진밀도, 접촉빈도, 사회지지)(+)
이종경, 서동균(2004)	고등 237명 (비교집단: 190명)	스트레스(미우위싱턴대학스트레스연구소, 1977; 이소우, 1991)	공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	스포츠활동 참가→일상적스트레스(-), 대인관계스트레스(-), 학교생활스트레스(-), 심리적스트레스(-) 스포츠활동 빈도, 기간, 강도→일상생활스트레스(-) 스포츠활동 빈도, 기간→대인관계스트레스(-), 심리적스트레스(-) 스포츠활동 빈도, 기간→학교생활스트레스(+) 스포츠활동 강도→학교생활스트레스(-)
염두승, 이영민, 윤상문(2004)	중고등 727명	일탈(임반장, 1986; 정영린, 1997)	평균비교, 공변량 분석	스포츠활동 조직적 참여→가정생활일탈(-), 사회생활일탈(-), 학교생활일탈(-) [비조직적 참여보다]
박병국(2004)	고등 597명	학교생활적응(유윤희, 1994) 자이성취감(민진, 1986)	1검증, 중다회귀분석	스포츠활동 참여→학교생활적응(+) 스포츠활동 참여 정도→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생활(+), 학교규칙(+) 스포츠활동 참여빈도→학교규칙(+) 스포츠활동 참여기간→교우관계(+) 스포츠활동 참여→자이성취감(+) 스포츠활동 참여 정도→능력개발(+), 목적이상실현(+) 스포츠활동 참여빈도→능력발휘(+)
고종욱, 김민환, 김기윤, 정일호(2006)	청소년 583명	생활체육활동참여(강구상, 1997) 사회성(한태룡, 1998)	공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	생활체육활동 단체 및 대인중목 참여→지배성(+), 활동성(+), 전체사회성(+), [개인중목보다] 생활체육 참여빈도→지배성(+), 생활체육 참여강도→인정성(+), 활동성(+), 협동성(+)

연구	연구대상	추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양종훈, 이종하 (2010)	초중고등 309명	포레관계(Furram, 1985) 학교생활적응(박정현, 2000) 친사회적행동(양진숙, 1991)	중대회귀분석	스포츠험들참가청소년→포레관계(유능감, 자신감)(+)→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적응, 교우관계 적응, 규칙준수적응, 담임교사적응)(+) 스포츠험들참가청소년→포레관계(지도성)(+)→학교생활적응(담임교사적응)(+) 스포츠험들참가청소년→포레관계(유능감, 자신감, 지도성)(+)→친사회적행동(+) 스포츠험들참가청소년→학교생활적응(+)-친사회적행동(+)
한정혁, 홍준희, 이현영(2010)	중고등 71명	신체적 자기개념(최선인, 정창희, 김병준, 2005) 행복요인(신지연, 2007)	일원분산분석, 중대회귀분석	스포츠험들 참여빈도→신체적 자기개념(외모, 건강, 유연성, 규칙적운동, 체지방, 근력, 지구력)(+) 스포츠험들 참여빈도→행복요인(자기만족, 대인관계, 능력/잠재력, 가족관계)(+)
김철주, 최미란 (2008)	중등 270명	신체활동(김영남, 나현주, 2003) 정서행동(Daniel, 1995) 학교생활적응행동(Birch, Ladd, 1996)	일원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	기능적 신체활동 참여→정서행동(자기인식, 자기조절및공간적이해력)(+) 기능적 신체활동 참여→정서행동(통기화)(+), 학업적/ 사회적 적응행동(+) 일상적 신체활동 참여→정서적 적응행동(+) 기술적 신체활동 참여→사회적 적응행동(+) 신체활동 참여→정서행동(+)-학교생활적응행동(+)
박진성, 조춘호 (2000)	중등 60명 (단진호흡수련 20명, 농구 20명, 비교집단 20명)	간이정신건강진단검사 (SCI-90-R, Derogatis, 1977)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단진호흡수련 참여→신체화(-), 강박증(-),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 농구 참여→신체화(-), 강박증(-),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
나명훈, 최종연 (2006)	중등 560명	학교생활적응(임현철, 2002)	일원변량분석, 공변량분석, 표준다회귀분석	여기활동→교우관계(+), 학교규칙(+) 여기활동→학교생활적응력(+) [비참여집단보다] 여기활동 참여강도→학교수업(+), 학교규칙(+)
이재형(2005)	고등 955명	삶의질(하만형, 2001)	다중회귀분석	여기활동 활동형→경제적 삶의질(+) 여기활동 취미형→환경적 삶의질(+), 사회적 삶의질(+) [*여기활동=활동형, 소일형, 취미형, 사회형, 문화형]
박혜란(2007)	중고등 512명	학교생활적응(김양식, 임영희, 2004) 여기활동 참가유형(문화체육부, 1995; 강신욱, 김상원 외, 1996)	'감정, 일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신체적 여기활동 참가 청소년→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비신체적 여기활동 참가 청소년보다] 신체적 여기활동 참가기간→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교우관계(+)) 신체적 여기활동 참가빈도→학교수업적응(-) [*여기활동=스포츠, 취미교양, 관람관광, 사교, 관광행량, 놀이, 기타휴식, 단식]

연구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이영익(2007)	중고등 913명	여가활동참가(김광득, 1997) 시험 스트레스(김교현, 권선중, 심미영, 2005) 신체화 증상(한덕용, 전경구, 탁진규, 1992; SCL-90-R)	공변량분석, 회귀분석	여가활동 참여→시험스트레스(-) 스포츠 및 건강활동, 감상 및 관람활동→시험스트레스(-) 여가활동 참여→신체화(-) 스포츠 및 건강활동→신체화(-) 여가활동 참여→시험스트레스(-)→신체화(-) [여가활동=스포츠및건강활동, 취미교양활동, 오락및사교활동, 오락및관람활동]
정덕조, 권용일, 이연주(2008)	중고등 665명	Beck불안척도 우울증척도(CES-D)	일원변량분석, 공변량분석	문화예술활동=불안(+) [취미&오락활동보다] 여가활동 참여빈도→불안(-), 우울(-) [※여가활동=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취미오락활동, 기타활동]
허정식(1999)	중등 347명	자이정체감(박이정, 1984)	일원분산분석	여가활동 참여→자이정체감(+)(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 대인관계) 스포츠활동, 놀이활동→자이정체감(+) [취미, 관람, 사교, 관광활동 보다] [※여가활동=스포츠활동, 취미교양활동, 관람감상활동, 사교활동무문, 관광행락활동, 놀이오락활동]
이갑철(1999)	고등 1012명	자신감(Bandura, 1977)	변량분석	여가활동 참가유형→자신감(+) [※여가활동=스포츠, 취미교양, 관람감상, 사교, 관광행락, 놀이오락] 참가기간, 참가강도
강경빈, 문동규 (2006)	청소년 14-18세 310명	몰입경험(정용라, 1997)	검정, 일원변량분석	신체적 활동→몰입(+) 여가활동 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시간→몰입경험(인지, 적극, 행위)(+) [※여가활동=청소년수련활동에 일소한 여가활동으로 신체적활동, 휴식적활동, 예술적활동, 오락적활동, 사회적활동]
강봉화(2004)	고등 874명	건강증진행위(kim, 1997; 박인숙, 1995) 여가만족도(정영린, 1997) 학교생활만족도(강봉화, 김홍식, 2000)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	여가활동 청소년→건강증진행위(체력관리, 스트레스관리, 사회적지지, 자아실현, 영양관리, 운동)→여가만족도(+) 여가활동 청소년→건강증진행위(체력관리, 사회적지지, 영양관리, 운동)→학교생활만족도(+) 여가활동 청소년→건강증진행위→여가만족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 여가활동=사회적, 지적, 창조적/예술적, 스포츠 활동분야]
강선영(2010)	남자 중등 114명	학교생활적응(유연희, 1994)	검정, 일원변량분석	스포츠여가활동 참여기간→학교생활적응(교서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스포츠여가활동 참여빈도→교서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스포츠여가활동=장기간 주말 스포츠클럽에 규칙적으로 참여]

연구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구창포(2004)	중고등 473명	여기활동유형(Luzin 등, 1973) 자이정체감(박아청, 1996)	요인분석, 공변량분석	[남학생] 여기활동유형→자이정체감(주체성, 자기수용, 미래확신, 목표지향, 주도성, 친밀성)(+) [여학생] 여기활동유형→자이정체감(주체성, 목표지향성, 친밀성)(+) [*여기활동=신체적, 사교적, 문화적, 자연적, 자연적, 정신적]
문용, 강봉화(2004)	중고등 595명	여기스포츠험기(문용, 1999) 사회적행동(정중식, 1988)	공변량분석	여기스포츠험기기간 8년이상→사회성(+), 주도성(+), 충동성(+) 여기스포츠험기기간 1년미만→권태민감성(+)
김미성(1997)	여자 중등 181명	자원봉사활동시간에 따른 만족도(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성격진단검사(중앙정신연구소)	검증	자원봉사활동 50시간이상→인성(사회성(+), 책임감(+)) [*자원봉사활동=교내봉사클럽에서 자원봉사활동]
김선숙, 안재진(2012)	청소년 1,426명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09)	자이존중감(Rosenberg, 1965) 포래에착(Armsden&Greenberg, 1987)	경로분석	자원봉사활동 시간→공동체 의식(+), 자이존중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자이존중감(+), 포래에착(+), 공동체 의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공동체 의식(+), 자이존중감, 포래에착 매개]
이성은(2009)	중2 3,449명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09)	자이존중감(Rosenberg, 1986)	다중회귀분석(Fixed effects model)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이존중감(+)
이수연, 김명모(2011)	40명 [※청소년센터 이용 비행청소년]	임파워먼트(김희성, 2002)	검증	자원봉사활동 참여→진체 임파워먼트(+)(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조효운, 조성환, 김영희(2012)	중등 3,570명 고등 4,002명 (※서울교육중년패널연구, 2010)	-	경로분석	중학생) 자원봉사활동→포래관계(+)[시민의식, 긍정적 자기지각 매개] 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포래관계(+) 자원봉사활동→포래관계(+)[시민의식, 긍정적 자기지각 매개]
도종수(2011)	2,827명 (※2009청소년활동육구 및실태조사, 2009)	-	중다회귀분석	자원봉사활동 참여→삶의 행복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삶의행복감(+), 생활만족도(+)
김지혜(2012)	중1 1,426명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공동체 의식(권해원, 2004) 삶의 만족도(김신영외, 2006) 자이존중감(Rosenberg, 1965) 자이탄력성(Block&Kreman, 1996)	구조방정식	봉사만족도→자이존중감(+), 자이탄력성(+) 봉사만족도→공동체 의식(+), 삶의만족도(+)[자이존중감, 자이탄력성 매개]
김동배, 조학래(1997)	고등 186명 (비교집단:190명)	자이정체성(최정훈외, 1986) 도덕성(Berkowitz&Luterman, 1968외)	교차분석, 검증, 공변량분석	자원봉사활동→자이정체성(+) 자원봉사활동→도덕성(+) [사후, 6개월이후에도 모두 지속]

연구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최미화, 최병렬, 최병순(2005)	여자 고등 60명	논리적사고력(GALT 축소본)	기검증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수준별 선택실험모형→탐구능력(+) [*과학 동아리활동→특별활동 과학반]
최형인, 이재성, 문영경(2012)	중1 2,351명 (*한국어동성소년패널조사, 2010)	자이타력성(Block&Kremen, 1996) 학교생활적응(민병수, 1991)	구조방정식	교내/교외 동아리활동→자이타력성(+), 학습활동(+), 학교구직(+), 교우관계(+), 교사관계(+), 전체 학교생활적응(+) 교외동아리활동 만족→학습활동(+), 학교구직(+), 교우관계(+), 교사관계(+) [*교내동아리→방송반, 컴퓨터반 등, 교외동아리→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지원 동아리]
김미연, 김정혜(2013)	중등 555명	동아리 활동수준(최성임, 2010) 학교생활만족도(김지연, 2002) 자이타력성(홍혜영, 1995; 김아영, 1997)	일원배치 분산분석, 단순회귀분석	동아리 학습활동수준→교우관계(+),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사관계(+), 수업활동(+) 동아리 학습활동수준→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동아리 학습→클럽활동, 특기적성활동, 단체활동의 모든요소를 포함]
최원호, 우규환, 박현주(2004)	학생 2명, 지도교수 1명	-	질적방법 (개인에세이, 면담)	직업적 역할 모델로서의 열정 있는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직접적 체험을 경험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과학실험을 준비하며, 비수한 재능과 희망을 가진 또래의 과학 동아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은 학생들을 과학관련 진로로 격려하는 좋은 요인임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활동]
이혜화(2003)	남자 고1, 2 130명	간이정신진단검사지(SCL-90-R)	기검증, 일원변량분석	방과후 스포츠 동아리활동 참여→강박증(-), 대인예민(-) 스포츠 동아리활동 참여강도→강박증(-), 대인예민(-), 불안(-) 스포츠 참여동기→신체화(-), 정신증(-), 강박증(-) [건강, 여가선용가 스트레스 해소보다]
안정덕, 한남익, 조재규(2003)	남자 고1 126명	자이타력성(Coopersmith, 67)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기검증	동아리 체육활동(태권도)→총체적 자이타력성(+), 사회적 자이타력성(+) 동아리 체육활동(태권도)→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감(-), 공포불안(-), 편집증(-)
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2012)	중1 6,908명(*한국교육 중단연구패널)	-	다층성장모형 (2-level hierarchical growth model)	동아리활동→사회자이타개념(+), 학업자이타개념(+)
최명수, 정명섭, 김봉경(2006)	중등 341명	학교생활만족도(송희숙, 2002)	기검증, 일원변량분석	스포츠동아리 활동빈도→만족감(+), 기대충족(+), 학교생활(+) 스포츠동아리 활동기간→만족감(+), 기대충족(+), 학교생활(+) 스포츠동아리 활동여부→교우관계(+), 만족감(+) 스포츠동아리 활동 중 자발성, 적응성, 적극성→만족감(+), 기대충족(+), 학교생활(+)
황용준, 김갑신(2005)	중등 600명	사회성 발달(박재식, 1999; 이현구, 2001; 정범모, 1971; 한태룡, 1998)	기검증, 일원변량분석	스포츠동아리 활동→사회성(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 스포츠동아리 활동 참여기간→활동성(+), 지배성(+), 자율성(+) 스포츠동아리 활동 참여빈도→안정성(+) 단체종목→활동성(+), 안정성(+)
이병권(2004)	청소년 16명	-	심층면담	방과후 자율체력활동→체력(+), 세물거나 숙련된 기능(+), 스트레스(-), 경쟁성 함양, 규칙 준수, 책임감(+), 교우관계(+), 협동성(+)

연구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손준구(2001)	초등 67명	사회적 지지척도 중 급우지지 영역 11문항 (이명숙, 1994)	검증	체육활동→집단간 응대현상(-) 극기훈련→집단간 응대현상(-) 공놀이→집단간 응대현상(-) 레크레이션→집단간 응대현상(-) 민속놀이→집단간 응대현상(-) [*방과후 조직적 신체활동 프로그램=1학기 중 45시간, 스트레스와 명상, 극기훈련, 공놀이, 레크레이션, 민속놀이]
장진오, 한아름 (2008)	초5 110명	자기표현력(Rakos & Schroeder, 1980) 사회성(민봉순, 2004) 학교생활만족도(순순자, 1993)	사전-사후조사 다변량분산분석, 다변량공분산분석, 단계적다중회귀분석	특수교육, 체육특기개발교육→음성적 자기표현력(+), 협동성(+) 체육특기개발교육, 인성교육→학교생활만족도(+)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진로교육, 체육특기개발교육, 인성교육, 독서교육]
임상용, 오진식 (2009)	남 고등 480명	성취목표지향(이주화, 김아영, 2005) 신체적유능감(Hom, 1991)	다변량분산분석, 단변량분산분석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기간, 참여유형→성취목표지향, 신체적 유능감 원숙점근, 원숙회피, 수행점근, 수행회피→신체적 유능감(+)
이건미(2010)	초등 203명	정서(송인태, 2006) 사회성(이상훈, 2007)	표준중 다회귀분석	방과후 무용활동의 참여기간→정서(생활태도 발달)(+) 방과후 무용활동의 빈도→생활태도 발달(+) 방과후 무용활동의 참여강도→사회성(지배성)(+), 사교성(+) 방과후 무용활동의 참여빈도→자율성(+)
손연희, 서영환 (2012)	여중2 15명(비교집단: 15명)		검증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근지구력=윗몸 일으키기, 유연성=앉아 윗몸 일으키기,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 심폐지구력=오래 달리기 걷기]
김혜진, 황명자 (2009)	초2-3 여학생 31명 (비교집단: 31명)	자아개념(정종진, 한국적성연구소, 1996)	검증	방과후 학교생활무용프로그램→전체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학업적 자아개념(+)
김홍석(2008)	10-15세 청소년345명	신체적자기효능감(Ryckman, 1982) 학업스트레스(유안진, 한미현, 1995)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개인존중감→학업스트레스(-) [*개인존중 매개] 친구존중감, 신체적자신감→학업스트레스(-) [*친구존중감 매개] 학교존중감, 신체적자신감→학업스트레스(-) [*학교존중감 매개] [*방과후 태권도 수업]
김민섭(2004)	초6 18명(비교집단: 20명)	친사회적 행동(Mcgrinnis & Goldstein, 1990)	평균비교, 공변량분석	방과후 체육활동→친사회적 행동(개인정서조절능력(+)) 방과후 체육활동→친사회적 행동(대인관계형성능력(+)) 방과후 체육활동→친사회적 행동(학교적응능력(+))
김범식, 박종진 (2000)	실업계고 88명(축구리더팀) (비교집단: 151명)	사회적 능력(Kohn & Rosman, 1972)	이원변량분석	방과후 체육활동→사회적 능력(+)(인기도(+), 사교성(+), 주도성(+))

연구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정우현, 박상범 (2000)	중1-3, 고1-2 148명 (비교집단: 135명)	신체적 자기효능감 (Ryckman, 1982)	분산분석	스포츠활동참여→인지된 신체능력(+) 스포츠활동참여→신체적 자기효능감(+) [*남학생,고등학생] 스포츠활동 참여→신체적 자기표현자신감(+) [*남학생,고등학생] -스포츠활동 참여/비참여 비교(방과후 특기적성) -성별, 연령(중/고등=학교급)
이충섭(1999)	중등 159명 (비교집단: 144명)	자신감(Bandura, 1977) 행복감(양명환, 1996)	t검증	방과후 자율 체육활동→정신적자신감(+),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신체적자신감(+),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 행복감(+)
신정현, 전신혜 (2012)	중등 566명	신체적자기효능감(Ryckman, 1982) 학교생활만족도(도상철,1982)	t검증, 일원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	방과후 체육특기적성활동→신체적 자기효능감(+)(인지된 신체능력(+), 신체적 자기표현자신감(+)) 방과후 체육특기적성활동→전반적 학교생활만족도(+)(생활만족(+), 수업만족(+), 교사만족(+), 교우만족(+)) 참여종목(단체/개인),참여기간→신체적자기효능감(+), 학교생활만족(+), 교사만족(+), 교우만족(+)
이성화, 원주연, 권정두(2012)	중등 619명	우울증(Kovacs & Beck, 1977) 공격성(Buss et al., 1992) 불안(조수철, 최진숙, 1990)	t검증, 일원변량분석, 분석, 이원변량분석, 분석	방과후 스포츠활동→우울증(-) 방과후 스포츠활동→공격성(-) 방과후 스포츠활동→남학생 불안(-), 여학생 불안(+)
이선경(2009)	초5 439명	신체성(Ryckman, et al., 1982)	t검증	방과후 사회무용활동→운동범위 및 지속영역(+), 운동조절영역(+) [*신체성=운동범위 및 지속영역, 운동조절영역, 체형영역, 외모영역, 심리영역(수업휴미도=인식영역, 호과영역/정서상태=활력영역, 자신감영역, 우월성영역, 불안영역)]
표내숙, 정상훈, 박철용(2009)	중등 460명	신체적자기개념(Marsh, et al., 1994) 정서(McNaire, et al., 1971)	t검증, 다중회귀분석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유무→신체적 자기개념(유능감(+), 외모(+), 신체활동(+), 지구력(+), 근력(+), 신체자반(+)), 정서(활력(+)) 성별→신체활동,지구력, 활력 빈도, 시간, 기간→유능감, 외모, 신체활동, 지구력, 근력, 신체전반, 활력, 피로-, 혼란-
박정화(2009)	초등 884명	사회성(장범모, 1971)	단계적다중회귀분석, 모수요인분석	선호운동→협동성(+), 활동성(+), 사교성(+) 스포츠활동참여수준: 자신감, 주관빈도→사회성(+) 배운기간→협동성(+) [*스포츠활동참여형태=선호운동, 배운운동, 하는운동/참여수준=배운기간, 주관빈도, 자신감]
김수겸(2007)	초등5-6 1,725명	심리적 욕구만족(Wilson et al., 2006)	일원분산분석	스포츠활동(예능활동이나 주요교과목 활동을 하는 학생보다)→심리적만족도(+)
박종호, 변재철, 류호성(2006)	남고등(기숙사거주) 56명 (비교집단: 58명)	신체적자기개념(성창훈, 조중훈, 1999)	공변량분석	방과후 자율체육활동→신체적 자기개념(건강(+), 자신감(+), 규칙적 운동 및 근력(+),지구력 요인(+))
김경민(2004)	초등 256명	자아신체감(송인섭, 1983) 자아존중감(Rosenberg, 1965)	일원분산분석, 중다 회귀분석	방과후 활동→자아신체감(+), 자아효능감(+), 자아성취감(+), 자아존중감(+) [방과후 활동=신체적(음악미술무용), 예술적(태권도기타), 인지적 활동(영어수학기타)]

연구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이혜진(2004)	남 중3 20명 (비교집단: 16명)	-	검증	방과후 운동프로그램→체지방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엳몸일으키기(+), 엳몸앞으로 굽히기(+), 오래달리기-걷기(+)
이경일, 김영숙 (2003)	초등 256명	자이호능검(Bandura, 1977)	일원분산분석	방과후 활동→자이호능검(+), 자이성취감(+) [방과후 학습활동(신체적(음악미술무용), 예술적(태권도기타), 인지적 활동(영어수학기타))]
장진우, 윤상문 (2004)	중학생 192명(비교집단: 170명)	사회적능력(Michelle, 1999)	검증, 일원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	방과후 스포츠활동→사회적 능력(대인능력, 지역사회참여)(+) 단체스포츠유형→대인능력(+) 대인스포츠유형→지역사회참여(공동체정서, 공동체참가, 이타성)(+)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정도→사회적 능력(+)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기간, 참여강도→지역사회참가(+)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빈도→이타성(+)
박경석(2009)	초등4-6 395명	신체적자기개념(Fox & Corbin, 1989) 사회적능력(Kohn & Rosman, 1972)	일원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신체적 자기개념(신체적 자기개념)(+), 스포츠유능성(+), 몸매(+), 체력(+), 신체적 컨디션(+), 사회적 능력(사회참여도(+), 인기도(+), 사교성(+), 대인적응성(+))
신은섬(2010)	초3 39명(비교집단: 39명)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기진단 검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 복력성(연구자) 양적연구: 설문지(인터넷중독지수 및 폭력성 측정)	질적연구: 면담기록물, 현장노트(FieldNote), 학생들의 학습결과물, 녹화된 수업분석	인터넷 중독예방치료를 위한 정보요리 교육프로그램 참여→인터넷 이용시간의 변화(-), 인터넷 게임이 순수놀이로 변함: 인터넷중독(-)
변영호(2010)	하늘강동아리 조직및운영(환경동아리) 2003년U초등학교 2005년CH초등학교	일상일상 생태연못 만들기 / 워자지컬 생태연못 만들기 / 교실 내 생태프로그램 / ON-LINE 활동	-	교내 직접적, 장기적 체험활동→새로운 가치 인식(+), 내면화(+), 다양한 측면에서 행동이나 사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인식(+) [※창의적 체험활동(환경동아리)]
박주희(2010)	초5 38명	교사-아동 간 대화 저널쓰기(마주이야기), 아동-아동 간 대화 저널쓰기(둘러이야기)	내러티브	자기인식 및 표현) 그림된 자아와 마주함, 스스로의 힘으로 타자와 미주함, 타자와 함께 나눔을 구성함, 타자와 함께 공유적 의미를 만들어감 타인과의 관계형성) 편견을 내려놓고 이해로 향함, 인간은 관계적 존재임을 인식함, 선생님과의 보살핌관계가 형성됨, 친구들과의 보살핌관계가 형성됨 [※초등 도덕과 연계된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관련 대화저널 쓰기]
김수호, 이태욱 (2013)	초등 학생대상 (일수 없음)	STEAM 기반 창의적 체험활동 12주실시 (실험집단)	검증	STEAM 기반 창의적 체험활동→감성지능(+),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연구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박경목, 서보윤 (2011)	초4-5 62명 (비교집단: 62명)	사회적기술척도	김중, 이원범 공분산분석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사회적 기술의 총점(+), 자기주장(+), 공감(+) [※4학년]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사회적 기술의 총점(+), 자기주장(+), 공감(+), 이타성(+), 적극성(+), 자기역제(+) [※5학년]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사회적 기술의 총점(+), 자기주장(+), 공감(+), 이타성(+), 적극성(+), 자기역제(+) [※4-5학년]
이상균(2012)	진해 U초등학교 공고미 환경동아리 4-6학년 12명 (비교집단: 일반 동아리 12명)	환경소양검사(Dunlapetal, 2000) 환경친화적태도검사(이항숙, 2005)	변화비교	환경동아리 프로그램(창의적체험활동)→환경소양함양(+), 환경 친화적 행동(+)
배미희, 김홍순, 김형승(2012)	중학생 122명	집단괴롭힘피해(신성응, 권석우 외, 2000) 집단괴롭힘기해(신광식, 2003) 창의적 체험활동(맹선해, 2011)	일원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	창의적 체험활동(지을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기해경험(-)
진은설(2013)	중, 고등 308명	청소년활동 참여동기(연구자) 청소년활동 만족도(임영식, 이찬욱, 이신호, 문성호, 정경은, 2009) 적응유연성(주소영, 이양희, 2011) 행복감(Lyubomirsky & Lepper, 1999)	구조방정식	활동의 참여동기→활동만족도(+)(간접효과)→적응유연성(+)(간접효과)→행복감(+)
김도영, 임영식 (2013)	중, 고등 317명	청소년활동(진은설, 임영식, 2008) 자기효능감(김아영, 1997) 적응유연성(주소영, 이양희, 2011) 진로성숙도(이기학, 1997) 비행(이생준, 강혜영, 2011)	구조방정식	청소년 활동→자기효능감(+), 적응유연성(+)(직접효과)→진로성숙도(+)(간접효과)→비행(-) ※청소년 활동: 문화예술관련활동, 스포츠활동, 모험개척활동, 참여활동, 봉사활동 등 12개로 범주화.
김도영(2013a)	1,462명 (※한국청소년패널조사 4차)	-	구조방정식	공부압력→청소년 활동, 부모애착→공격성(-)(직접효과) [※청소년 활동, 부모애착 매개]
김도영(2013b)	941명 (※한국청소년패널조사 4차)	-	구조방정식	부모감독→청소년 활동, 교사애착→문제행동(-) [※청소년 활동, 부모애착 매개]
고관우, 남진열 (2011)	중 2,351명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학교생활적응(민병수, 1991)	공동체의식(권혜원, 2004) 학교생활적응(민병수, 1991)	t-test, 다중회귀분석	봉사활동, 모험/개척활동, 직업체험활동, 건강/보건활동, 건강/예술활동, 문화/예술행동, 자기개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존활동, 교류활동→공동체의식(+) 봉사활동, 과학/정보활동, 자기개발활동, 환경보존활동, 문화/예술행동→공동체의식(+) 봉사활동, 과학/정보활동→교사관계(+) 봉사활동, 과학/정보활동, 문화/예술활동, 직업체험활동→학습활동(+) 봉사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존활동→학교규칙(+) 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직업체험활동→교우관계

연구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서대석(2013)	고등학교1~3 178명 (경기도 32개 자원봉사센터)	-	다중회귀분석	복지위(복지수혜자), 복지대상자 수(多), 봉사영역(우문, 자선, 지도활동), 복지대상 접촉여부(직접접촉), 총 봉사 경력(多), 활동빈도(정기적 참여) → 복지이익(+) 문화감성활동 프로그램 참여→문화예술의 이해(+), 공동체의식(+), 문화예술기능(+), 창의성(+), 주체성(+) 과학교육활동 프로그램 참여→과학적 태도(+), 과학활동능력(+), 탐구심(+)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자기효능감(+), 자율성(+), 사회적책임감(+) 모험개척활동 프로그램 참여→자신감(+), 도전정신(+) 직업재향활동 프로그램 참여→경제의식(+), 자기이해(+), 실천의지(+) 환경보존활동 프로그램 참여→환경보존태도(+), 환경에 대한 책임감(+), 환경감수성(+), 자연친화성(+)
문성호, 문호영 (2010)	만족도 분석 1,141명 효과성 분석 625명	청소년 활동의 참여 실태 및 만족도 (문성호 외, 2009) 효과성(임영식 외, 2009)	검증	
이용교, 이종섭 (2010)	13~18세 청소년 524명 (1318 happy Zone 이용)	사회참여활동, 사회참여의식, 사회적 신뢰감, 친사회성, 시민성(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구조방정식	사회참여활동→사회참여의식→시민성(+) 사회참여활동→친사회성, 사회적신뢰감→시민성(+)
박재숙(2011)	중1 2,351명 (※한국이동청소년패널 1차)	-	구조방정식	사회참여활동→공동체의식(부분매개)→삶의 만족도(+)
진은실, 임영식 (2009)	15명	-	현상학적 연구방법, 심층면접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1년이상 활동경험 있는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즐거움: 자유로움, 재미, 스트레스해소, 새로운경험 자기만족: 성취, 자부심 나의발전: 자신감, 리더십, 책임감, 성숙된 사고, 긍정적 행동, 미래의 비전, 청소년에 대한 관심, 대인관계 개선, 지역사회에 대한 개선
양종국(2004)	고등보통산중, 고등(서울소년원) 중 퇴원 10개월 이상 남겨둔 학생 24명 (비교집단: 12명)	태도, 능력(한국교육개발원, 1992)	검증	체함활동중심의 진로탐색프로그램→독립성(+), 진로문제에 대한 관심(+), 직업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력(+)
이광호(2005)	초4~6, 중1~3 1,281명	-	중다회귀분석	자연체험활동→사회적 역량(+) 교류체험활동→사회성(+), 사회적 역량(+) 일상생활 체험활동→사회성(동작성, 협동성, 책임성)(+), 자아정체성(독특성, 자율성, 자기수용성)(+), 사회적 역량(주도성, 유능성, 사고성)(+) [※청소년 체험활동(자연체험활동, 교류체험활동, 일상생활체험활동)]

연구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박가나(2009)	청소년 304명	공동체의식지표(McMillan & Wandersman, 1986)	다중회귀분석	단체/개인의사결정수준→공동체 의식(+)(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육구의 통합과 충족, 정서적 연계) 오프라인 참여활동→공동체 의식(+) 참여 속의 정도→공동체 의식(+) 참여기간→공동체 의식(+) [사회참여활동, 외제변수: 청소년 참여활동의 참여수준(단체/개인의사결정참여수준), 참여형태(온라인/오프라인), 참여과정(집단/개인)속의과점참여정도, 참여 양(참여경험기간, 참여빈도수)]
송병국, 박정배 (2006)	중3 3,209명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검증	진로관련활동(진로관련 개별활동 수행여부), 수련활동(체력증진, 정서함양, 자연체험, 여정수강, 사회봉사, 진로문화활동 참여여부 중 정서함양), 자원봉사활동(개별 봉사활동 참여여부), 동아리 활동(유형별-교내 공식, 사이버)-진로선택 준비도(+)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2009)	중등 2,967명 (한국청소년패널 중등 5차)	-	조절회귀분석	진로 관련활동→진로성숙(+) 진로관련활동→진로성숙(+) [※ 부모예측 조절]
김윤나, 박유식 (2009)	3,121명 (※ 한국 청소년패널조사 1-4차)	-	회귀분석	수련활동→자이존중감(+) (1, 3, 4차) 자원봉사활동→자이존중감(+) (고1) 동아리활동→직업성숙도(+) (고1시기 제외) 수련활동→직업성숙도(+) 모든 청소년활동→학업성취(+) 자원봉사활동(중2), 수련활동(중3), 동아리활동(고1)→삶의 생활만족도(+) 동아리활동(중2, 고1)→스트레스(+) 동아리활동(중2)→비행(+) 자원봉사활동→비행(+)(고2) 수련활동→비행(-)(고2)
장승우, 한선혁 (2004)	중, 고등 344명	자이존중감(Gurney)	일반량분석	간접문화활동, 직접문화활동→자이존중감(+) 여가활동 참여정도→자이존중감(+) 문화활동→일반적/사회적/학교 자이존중감(+) [직접문화활동: 컴퓨터게임, 인극배우기, 종이접기, 춤, 민화창작, 오리, 스포츠, 문화탐방, 다도, 문예창작, 당구, 사물놀이/간접문화활동: 영화연극음악회무지킴이관람, 문화축제 참가, 문학작품읽기 등]
설민희(2009)	중, 인문계, 실업계고 743명	심리사회적 적응(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검증, 일반량분석, 다중회귀분석	평균 여가시간, 여가생활만족도→우울(-), 불안(-) 여가생활만족도, 문화활동참여만족도→비행(-) 여가생활만족도→공격성(-) [문화활동요인: 평균여가시간, 여가생활만족도, 문화활동지출비용, 문화활동참여횟수, 문화활동참여만족도, 문화시설이용만족도]

연구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염상석(2012)	중고등 110명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Scale) 스트레스(Lazarus & Folkman, 1984)	사전-사후 t-test	난타활동→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자신감(+), 과제난이도(+)
정철영, 김봉환, 송병, 최동신, 이종범, 김은석 외 (2012)	초3.5 42명 (비교집단: 55명)	-	반복측정분산분석	직업체험→진로발달(+), 학습동기유발(+), 창의성 발달(+)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2011)	고3 2,332명(*한국청소년 패널2003-2008년)	-	구조방정식	체험활동→긍정적자아관(+), 내직업가치관(+) 체험활동→긍정적자아관→내직업가치관(+) [체험활동→진로활동, 수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조성심, 주석진 (2010)	고등 540명	진로준비행동(김봉환, 1997)	검증	진로교육집단프로그램→진로준비 행동수준(+)
김명희, 신현숙 (2007)	초5 92명	진로태도, 진로이해(강원도교육연구원, 1993) 학교생활적응(서순자, 2002)	공분산분석	활동중심, 수업중심 진로교육집단→교사와의 관계(+), 규칙준수(+), 학교행사 참여정도(+), 교우관계적응(+)
이현림, 최남옥, 류진영(2007)	초등 30명	활동중심진로인식프로그램(대구교육과학연구원, 2002) 인간관계검사(Schlein, 1971) 진로의식성숙(Crites, 1978)	공변량분석	활동중심 진로인식 프로그램→인간관계(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및 개방성(+), 진로의식성숙(진로결정성(+), 진로관여성(+), 진로독립성(+), 진로타협성(+))
이현림, 장정숙, 정상영(2005)	초등 18명(비교집단: 17명)	활동중심진로교육프로그램(대구교육과학연구원, 2002) 진로교육프로그램(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2003) 자이존중감(Coopersmith, 1981) 진로의식성숙(Crites, 1978)	공변량분석	활동중심 진로교육프로그램→일반적 자이존중감(+) 활동중심 진로교육프로그램→진로결정성(+), 진로독립성(+), 진로성향성(+), 진로타협성(+)
이현림, 박필자 (2006)	중등 30명	진로의식성숙(Crites, 1978) 진로결정자기효능감(ShortForm, Taylor, & Betz, 1983) 진로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대구교육과학연구원, 2002)	공변량분석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진로의식성숙 전체(+), 진로결정성(+), 진로관여성(+), 진로타협성(+), 진로성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계획수립(+), 목표설정(+)
이종화, 김현숙 (2012)	중등 372명 (비교집단: 237명)	진로탐색프로그램(부산교육청, 2007) 진로정체성(조은주, 2001) 자이존중감(박아청, 1996)	이원변량분석	진로탐색프로그램→진로정체감(+), 자이존중감(+)

연구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주요결과/효과
김지연, 이영순 (2011)	대학4 74명 (비교집단: 68명)	-	1검증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수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양수민, 주희진, 조규판(2009)	전문계 고등 25명 (비교집단: 27명)	성취동기(McClland, 1965)	공변인분석	진로탐색프로그램→전체 성취동기(+), 과업지향성(+), 미래지향성(+), 책임감(+), 도전의식(+)
강진령, 이영주 (2009)	초등 33명 (비교집단: 32명)	학습동기(Pintrich & DeGroot, 1990) 자존감(Coopersmith, 1967)	다변량분신분석	진로의식, 탐색프로그램→학습동기 전체(+), 자기효능감(+), 성취기치(+), 학업성취동기(+), 자존감 전체(+), 사회적 자존감(+), 학교 자존감
신선영, 송범자, 이현림(2009)	중등 45명	진로발달(Crites, 1978) 내적통제성(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81)	공변량분석	진로탐색 집단상담→자기효능감(+), 내적 통제성(+), 진로발달 수준(+)
강명숙, 이현림 (2007)	중등 16명 (비교집단: 16명)	자이존증감(김희화, 김경연, 1996) 성취동기(문선아, 2002) 진로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Chapman, 1976)	공변량분석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능력 자아(+), 교사관련 자아(+), 자이존증감 전체(+), 미래지향성(+), 자신감(+), 책임감(+), 도전의식(+), 과업지향성(+), 성취동기 전체(+)

부록표 1-2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메타분석 논문 일람

연구	분석대상	추정도구 참여자	연구방법 프로그램	주요결과/효과
Cason & Gillis (1994)	야외체험활동(outdoor adventure programs)의 효과를 다룬 논문 43편	11세부터 대학신입생, 이 중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 및 교사에 의해 정서 및 신체상 위함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포함됨	1971~1996년에 실시된 야외체험활동(예: Outward Bound programs). 36시간~10개월 지속된 프로그램	자기개념(+), 타인에 의한 행동평가(+), 태도(+),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우울/불안(-), 학교성적(+), 학교출석률(+) [체험활동 참여기간(+)] [연령(-)]
Neill (2002)	야외교육프로그램(outdoor education program)의 효과를 다룬 메타분석을 이용한 논문 5편 (1994~2002년)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팀워크(+), 자기개념 영역(자기와 관련된 변인, 행동지향성(action-orientation), 대처행동)(+) ※모든 체험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효과성은 다양하게 나타남 ※체험활동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관해서는 일반화하기 어려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 [참여자 연령], [프로그램 기간]
Wilson & Lipsey (2000)	wilderness challenge programs의 효과를 다룬 논문 28편	10~21세의 반사회적 또는 비행행동을 보이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을 포함한 연구 대상	1967~1992년에 실시된 체험활동 연구	반사회적 행동(-), 비행(-) ※활동에 참여한 처지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행동이 덜 나타남 [참여기간] ※장기 프로그램(10주 이상)은 전반적으로 작은 효과크기 나타남 [상대적으로 강도가 센 활동], [치료적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 ※비행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
Gillis & Speelman (2008)	Challenge(ropes) course의 효과를 다룬 논문 44편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1986~2006년에 실시된 체험활동 연구	가족 관련 변인, 신체 변인, 성격 변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집단 역동(대인관계, 응집력, 효과성)(+), 신체조건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 행동관찰(+), 자아존중감(+), 자기개념(+), 학업성취도(+) 치료적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 발달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
Durlak, Weissberg, & Pachan (2010)	방과후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룬 논문(1980~2007년) 75편	5~18세	방과후프로그램 - 학기중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되었으며 성인이 지도한 프로그램 - 문제해결, 갈등해결, 자기관리, 리더십, 의사결정과 같은 개인적 및 사회적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기인식(self-perceptions)(+), 학교와의 유대감(bonding to school)(+),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 학교성적(+), 성취도평가 점수(+), 문제행동(-) ※모든 방과후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은 아님 [SAFE 프로그램(Sequenced, Active, Focused, Explicit; 순차적, 적극적, 집중적, 명시적)]

부록 2 : 설문조사 표본설계 및 가중치와 모수추정

1) 표본설계

(1) 모집단 분석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먼저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 수를 <부록표 2-1>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1,775,534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596,676명, 중학교 2학년생 609,039명, 고등학교 2학년생 640,936명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은 531,007명, 특성화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은 109,929명이다.

지역×학교급별 학교 수, 학급 수, 학교당 평균 학급 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부록표 2-2>~<부록표 2-5>에 정리되어 있다.

부록표 2-1 지역별 · 학교급별 학생 수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합계
				일반고	특성화고	
서울	101,513	103,679	114,715	96,714	18,001	306,350
부산	35,666	37,862	42,337	32,894	9,443	111,521
대구	30,625	31,893	35,806	29,289	6,517	94,495
인천	32,993	33,856	35,924	28,886	7,038	99,100
광주	21,559	22,173	22,785	19,016	3,769	63,727
대전	19,667	20,455	21,182	17,825	3,357	59,035
울산	14,896	15,763	17,154	14,243	2,911	45,905
경기	153,616	152,997	154,250	132,333	21,917	443,156
강원	17,935	18,696	18,845	15,724	3,121	53,434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합계
				일반고	특성화고	
충북	18,983	19,663	19,958	14,190	5,768	56,695
충남	25,241	25,360	25,923	21,520	4,403	73,963
전북	23,029	24,121	24,991	20,618	4,373	69,586
전남	22,268	22,916	24,044	18,055	5,989	66,439
경북	29,676	29,624	31,807	25,948	5,859	87,270
경남	40,940	42,153	43,237	37,340	5,897	121,802
제주	8,069	7,828	7,978	6,412	1,566	23,056
전국	596,676	609,039	640,936	531,007	109,929	1,775,534

부록표 2-2 지역별 · 학교급별 학교 수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고등학교		합계
				일반고	특성화고	
서울	594	379	317	244	73	1,290
부산	300	171	143	107	36	614
대구	217	124	92	73	19	433
인천	247	134	119	92	27	500
광주	150	86	67	56	11	303
대전	145	89	61	50	11	295
울산	122	61	52	42	10	235
경기	1,209	594	433	363	70	2,236
강원	410	163	117	95	22	690
충북	278	131	84	56	28	493
충남	447	195	118	92	26	760
전북	421	208	132	102	30	761
전남	518	259	157	109	48	934
경북	548	292	193	143	50	1,033
경남	523	275	189	157	32	987
제주	118	43	30	23	7	191
전국	6,247	3,204	2,304	1,804	500	11,755

부록표 2-3 지역별·학교급별 학급 수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합계
				일반고	특성화고	
서울	3,843	3,193	3,459	2,798	661	9,991
부산	1,403	1,167	1,330	999	331	3,754
대구	1,184	929	1,018	802	216	2,997
인천	1,284	962	1,129	875	254	3,235
광주	821	631	628	516	112	1,979
대전	744	611	609	493	116	1,895
울산	568	491	481	389	92	1,475
경기	5,370	4,267	4,391	3,710	681	13,480
강원	788	606	627	499	128	1,951
충북	799	627	596	408	188	1,945
충남	1,055	786	808	653	155	2,566
전북	978	778	821	658	163	2,488
전남	992	736	827	579	248	2,467
경북	1,227	997	1,056	837	219	3,136
경남	1,625	1,325	1,337	1,127	210	4,140
제주	310	227	224	174	50	733
전국	22,991	18,333	19,341	15,517	3,824	58,232

부록표 2-4 지역별·학교급별 학교당 평균 학급 수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특성화고	
서울	6.47	8.42	10.91	11.47	9.05	7.74
부산	4.68	6.82	9.30	9.34	9.19	6.11
대구	5.46	7.49	11.07	10.99	11.37	6.92
인천	5.20	7.18	9.49	9.51	9.41	6.47
광주	5.47	7.34	9.37	9.21	10.18	6.53
대전	5.13	6.87	9.98	9.86	10.55	6.42
울산	4.66	8.05	9.25	9.26	9.20	6.28
경기	4.44	7.18	10.14	10.22	9.73	6.03
강원	1.92	3.72	5.36	5.25	5.82	2.83
충북	2.87	4.79	7.10	7.29	6.71	3.95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특성화고	
충남	2.36	4.03	6.85	7.10	5.96	3.38
전북	2.32	3.74	6.22	6.45	5.43	3.27
전남	1.92	2.84	5.27	5.31	5.17	2.64
경북	2.24	3.41	5.47	5.85	4.38	3.04
경남	3.11	4.82	7.07	7.18	6.56	4.19
제주	2.63	5.28	7.47	7.57	7.14	3.84
전국	3.68	5.72	8.39	8.60	7.65	4.95

부록표 2-5 지역별 · 학교급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특성화고	
서울	26.4	32.5	33.2	34.6	27.2	30.7
부산	25.4	32.4	31.8	32.9	28.5	29.7
대구	25.9	34.3	35.2	36.5	30.2	31.5
인천	25.7	35.2	31.8	33.0	27.7	30.6
광주	26.3	35.1	36.3	36.9	33.7	32.2
대전	26.4	33.5	34.8	36.2	28.9	31.2
울산	26.2	32.1	35.7	36.6	31.6	31.1
경기	28.6	35.9	35.1	35.7	32.2	32.9
강원	22.8	30.9	30.1	31.5	24.4	27.4
충북	23.8	31.4	33.5	34.8	30.7	29.1
충남	23.9	32.3	32.1	33.0	28.4	28.8
전북	23.6	31.0	30.4	31.3	26.8	28.0
전남	22.5	31.1	29.1	31.2	24.1	26.9
경북	24.2	29.7	30.1	31.0	26.8	27.8
경남	25.2	31.8	32.3	33.1	28.1	29.4
제주	26.0	34.5	35.6	36.9	31.3	31.5
전국	26.0	33.2	33.1	34.2	28.7	30.5

(2)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_{\alpha/2} s)^2}{Nd^2 + (z_{\alpha/2} s)^2}$$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_{\alpha/2}$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_{\alpha/2}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N \frac{z_{\alpha/2}^2 p q}{Nd^2 + z_{\alpha/2}^2 p q}$$

여기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4,500명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5\%P$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 값보다 약간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3)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2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급 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표본설계에서 1차 추출단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고, 2차 추출단위는 학급이다. 2013년 표본설계에서는 각 표본학교에서 원칙적으로 1개 학급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였다.

표본설계에서 고려한 층화변수는 권역 구분, 각 권역 내 도시 규모(인구 및 인구밀도 고려) 등이다. 우선 전국의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을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호남·제주, 영남)으로 구분하였고, 각 권역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등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고등학생 대상의 조사에서는 우선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로 층화하고, 권역 구분, 도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층화하였다.

서울시의 경우는 전체 인구 규모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4개 지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부록표 2-6>은 서울시의 세부층 현황이다.

부록표 2-6 서울시의 세부층별 해당 구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부록표 2-7>은 권역 및 세부 층별 초등학교 모집단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대상 전체 학교 수는 6,247개교이다. 전체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읍·면 지역의 6학년 학생의 학교당 학급 수는 대개 2개 학급 미만이고, 전체 6학년 학생 수도 30명 미만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들 지역의 학교당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

<부록표 2-8>은 권역 및 세부 층별 중학교 모집단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대상 전체 학교 수는 3,204개교이다. 전체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읍·면 지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교당 학급 수는 대개 5개 학급 미만이다. 특히 강원이나 호남·제주권 읍·면 지역의 중학교 2학년 학급 수는 2개 미만이다.

<부록표 2-9>과 <부록표 2-10>은 각각 권역 및 세부 층별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모집단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일반고등학교의 조사대상 학교 수는 1,804개교이고,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 수는 500개교이다.

부록표 2-7 권역 및 세부 층별 초등학교 및 학생 현황

권역	세부층	학교 수	초등학교 6학년 기준			
			학급 수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학교당 학생 수
서울	북동	193	1,285	33,609	6.7	26.2
	북서	112	636	16,448	5.7	25.9
	남동	116	809	22,268	7.0	27.5
	남서	173	1,113	29,188	6.4	26.2
경기·인천권	인천광역시	209	1,242	32,313	5.9	26.0
	중소도시	799	4,380	128,463	5.5	29.3
	읍면 지역	448	1,032	25,833	2.3	25.0
강원	중소도시	98	409	11,935	4.2	29.2
	읍면 지역	312	379	6,000	1.2	15.8
충청권	대전광역시	144	743	19,653	5.2	26.5
	중소도시	175	915	25,161	5.2	27.5
	읍면 지역	551	940	19,077	1.7	20.3
호남·제주권	광주광역시	150	821	21,559	5.5	26.3
	중소도시	316	1,369	37,707	4.3	27.5
	읍면 지역	741	911	15,659	1.2	17.2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561	2,896	74,952	5.2	25.9
	중소도시	331	1,687	47,423	5.1	28.1
	읍면 지역	818	1,424	29,428	1.7	20.7
전국		6,247	22,991	596,676	3.7	26.0

부록표 2-8 권역 및 세부 층별 중학교 및 학생 현황

권역	세부층	학교 수	중학교 2학년 기준			
			학급 수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학교당 학생 수
서울	북동	122	1,029	33,502	8.43	32.6
	북서	71	519	16,053	7.31	30.9
	남동	82	716	24,143	8.73	33.7
	남서	104	929	29,981	8.93	32.3
경기·인천권	인천광역시	118	935	33,178	7.92	35.5
	중소도시	432	3,571	130,214	8.27	36.5
	읍면 지역	178	723	23,461	4.06	32.4
강원	중소도시	47	378	12,919	8.04	34.2
	읍면 지역	116	228	5,777	1.97	25.3
충청권	대전광역시	89	611	20,455	6.87	33.5
	중소도시	101	821	28,239	8.13	34.4
	읍면 지역	225	592	16,784	2.63	28.4
호남·제주권	광주광역시	86	631	22,173	7.34	35.1
	중소도시	153	1,088	38,859	7.11	35.7
	읍면 지역	357	653	16,006	1.83	24.5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324	2,407	79,931	7.43	33.2
	중소도시	201	1,473	49,640	7.33	33.7
	읍면 지역	398	1,029	27,724	2.59	26.9
전국		3,204	18,333	609,039	5.72	33.2

부록표 2-9 권역 및 세부 층별 일반고등학교 및 학생 현황

권역	세부층	학교 수	일반고등학교 2학년 기준			
			학급 수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학교당 학생 수
서울	북동	69	808	28,162	11.7	34.9
	북서	48	508	16,626	10.6	32.7
	남동	56	706	25,058	12.6	35.5
	남서	71	776	26,868	10.9	34.6
경기·인천권	인천광역시	81	850	28,206	10.5	33.2
	중소도시	287	3,198	115,276	11.1	36.0
	읍면 지역	87	537	17,737	6.2	33.0
강원	중소도시	35	293	10,489	8.4	35.8
	읍면 지역	60	206	5,235	3.4	25.4

권역	세부층	학교 수	일반고등학교 2학년 기준			
			학급 수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학교당 학생 수
충청권	대전광역시	50	493	17,825	9.9	36.2
	중소도시	67	629	22,779	9.4	36.2
	읍면 지역	81	432	12,931	5.3	29.9
호남·제주권	광주광역시	56	516	19,016	9.2	36.9
	중소도시	108	931	31,908	8.6	34.3
	읍면 지역	126	480	13,177	3.8	27.5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205	2,081	72,557	10.2	34.9
	중소도시	158	1,348	44,826	8.5	33.3
	읍면 지역	159	725	22,331	4.6	30.8
전국		1,804	15,517	531,007	8.6	34.2

부록표 2-10 권역 및 세부 층별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생 현황

권역	세부층	학교 수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기준			
			학급 수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학교당 학생 수
서울	북동	23	233	6,357	10.1	27.3
	북서	22	174	4,689	7.9	26.9
	남동	9	81	2,174	9.0	26.8
	남서	19	173	4,781	9.1	27.6
경기·인천권	인천광역시	25	250	6,942	10.0	27.8
	중소도시	54	601	19,484	11.1	32.4
	읍면 지역	18	84	2,529	4.7	30.1
강원	중소도시	6	65	1,797	10.8	27.6
	읍면 지역	16	63	1,324	3.9	21.0
충청권	대전광역시	11	116	3,357	10.5	28.9
	중소도시	22	195	6,270	8.9	32.2
	읍면 지역	32	148	3,901	4.6	26.4
호남·제주권	광주광역시	11	112	3,769	10.2	33.7
	중소도시	32	254	7,316	7.9	28.8
	읍면 지역	53	207	4,612	3.9	22.3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58	590	17,476	10.2	29.6
	중소도시	30	257	7,354	8.6	28.6
	읍면 지역	59	221	5,797	3.7	26.2
전국		500	3,824	109,929	7.6	28.7

(4) 표본배분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의 목표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150개교를 추출하여 각 표본학교에서 1개 학교를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중학교에서는 2학년,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생을 조사하여 전체 4,500명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사의 1차 추출단위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고, 2차 추출단위는 학급이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조사의 각 층별 표본 학교 수는 <부록표 2-11>와 같다. 각 층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층별 최소 표본 학교 수를 2개로 조정하였다²²⁾. 이와 같은 표본배분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초등학생 대상의 조사결과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등의 지역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부록표 2-11 각 층별 표본 초등학교 수 현황

권역	세부층	학교 수	학생 수	학생 수 비율	비례배분	조정안
서울	북동	193	33,609	5.6%	3	2
	북서	112	16,448	2.8%	1	2
	남동	116	22,268	3.7%	2	2
	남서	173	29,188	4.9%	2	2
경기·인천권	인천광역시	209	32,313	5.4%	3	3
	중소도시	799	128,463	21.5%	10	10
	읍면 지역	448	25,833	4.3%	2	2
강원	중소도시	98	11,935	2.0%	1	1
	읍면 지역	312	6,000	1.0%	1	1
충청권	대전광역시	144	19,653	3.3%	2	2
	중소도시	175	25,161	4.2%	2	2
	읍면 지역	551	19,077	3.2%	2	2
호남·제주권	광주광역시	150	21,559	3.6%	2	2
	중소도시	316	37,707	6.3%	3	2
	읍면 지역	741	15,659	2.6%	1	2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561	74,952	12.6%	6	6
	중소도시	331	47,423	7.9%	4	4
	읍면 지역	818	29,428	4.9%	3	3
전국		6,247	596,676	100.0%	50	50

22) 학생 수가 특히 작은 강원도의 경우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1개 학교씩을 배정하였고, 추정량의 분산은 두 층을 통합(collapsing)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부록표 2-12 각 층별 표본 중학교 수 현황

권역	세부층	학교 수	학생 수	학생 수 비율	비례배분	조정안
서울	북동	193	33,502	5.5%	3	3
	북서	112	16,053	2.6%	1	2
	남동	116	24,143	4.0%	2	2
	남서	173	29,981	4.9%	2	2
경기·인천권	인천광역시	209	33,178	5.4%	3	3
	중소도시	799	130,214	21.4%	11	10
	읍면 지역	448	23,461	3.9%	2	2
강원	중소도시	98	12,919	2.1%	1	1
	읍면 지역	312	5,777	0.9%	1	1
충청권	대전광역시	144	20,455	3.4%	2	2
	중소도시	175	28,239	4.6%	2	2
	읍면 지역	551	16,784	2.8%	1	1
호남·제주권	광주광역시	150	22,173	3.6%	2	2
	중소도시	316	38,859	6.4%	3	2
	읍면 지역	741	16,006	2.6%	1	2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561	79,931	13.1%	7	7
	중소도시	331	49,640	8.2%	4	4
	읍면 지역	818	27,724	4.6%	2	2
전국		6,247	609,039	100.0%	50	50

부록표 2-13 각 층별 표본 고등학교 수 현황

계열	권역	세부층	학교 수	학생 수	학생 수 비율	비례배분	조정안
일반고	서울	북동	69	28,162	4.4%	2	2
		북서	48	16,626	2.6%	1	2
		남동	56	25,058	3.9%	2	2
		남서	71	26,868	4.2%	2	2
	경기·인천권	인천광역시	81	28,206	4.4%	2	2
		중소도시	287	115,276	18.0%	9	7
		읍면 지역	87	17,737	2.8%	1	2
	강원	중소도시	35	10,489	1.6%	1	1
		읍면 지역	60	5,235	0.8%	1	1
	충청권	대전광역시	50	17,825	2.8%	2	2
		중소도시	67	22,779	3.6%	2	2

계열	권역	세부층	학교 수	학생 수	학생 수 비율	비례배분	조정안	
특성 학교	호남·제주권	읍면 지역	81	12,931	2.0%	1	2	
		광주광역시	56	19,016	3.0%	2	2	
		중소도시	108	31,908	5.0%	2	2	
		읍면 지역	126	13,177	2.1%	1	2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205	72,557	11.3%	6	4	
		중소도시	158	44,826	7.0%	3	2	
		읍면 지역	159	22,331	3.5%	2	2	
	특성 학교	서울		73	18,001	2.8%	1	2
		광역시		105	31,544	4.9%	2	2
중소도시		144	42,221	6.6%	3	3		
읍·면 지역		178	18,163	2.8%	2	2		
전국			2,304	640,936	100.0%	50	50	

중학교 2학년 대상 조사의 각 층별 최종 표본 학교 수는 <부록표 2-12>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층별 학생 수에 비례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층의 표본 학교 수를 조정하였다. 초등학생 대상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중학생 대상의 조사에서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등의 지역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대상 조사의 각 층별 최종 표본 학교 수는 <부록표 2-13>와 같다. 다른 학교급 조사와 마찬가지로 각 층별 학생 수에 비례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의 조사에서는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로 1차 층화하고, 지역구분과 도시 규모로 2차 층화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전체 학교 수가 500개소에 불과하고, 학생 수도 109,929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2학년생의 17.2%이다. 따라서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각각 41개교와 9개교의 표본학교를 배분하고, 세부 층에서는 각 층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고등학생 대상의 조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등의 지역별 분석뿐만 아니라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별 비교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5) 표본추출

이 조사에서 1차 추출단위는 학교이고, 2차 추출단위는 학급이다. 각 표본학교에서 원칙적으로 1개 학급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각 층에서 표본 학교의 추출은 학교 내 해당 조사대상 학년의 학급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추출하였다. 즉, 층화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서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표본추출 후에 조사 대상자의 성별 구성을 검토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은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대개의 학급이 모두 남녀 혼합반으로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남녀 구성비가 맞게 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급 구성이 남녀 혼합반인 경우와 단독 성별로 구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표본학교로 선정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구성의 특성과 학급별 학생 수 등을 파악한 후에 표본학교에서 표본학급을 표본학급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표본학급으로 선정된 학급의 전체 학생이 조사대상자이지만, 장기결석, 문자해독 불가 학생, 전학, 자퇴 및 퇴학 등의 학생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하였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였으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2)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 구분과 지역 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1차 추출단위인 학교는 조사대상 해당 학년의 학급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표본추출 과정은 층화2단집락추출법이며 표본추출률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 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조사대상 학년의 학급 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급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표본학교에서 한 학급씩을 표본으로 추출함에 따라 $n_{hi} = 1$ 이다. 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 = 1, 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조정계수는 다음 식과 같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설계 가중치의 성별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사후층화 조정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2)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 구분×층 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된다.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_{..}$: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_{..}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한다.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한다.

④ 추정량의 분산 계산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률, n_h/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i.}$$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 $n_h = 1$ 인 경우 $\hat{V}_h(\bar{Y}) = 0$ 으로 계산된다.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alpha=0.05$)에서 $z_{\alpha/2}=1.96$ 이다.

부록 3 : 설문조사 결과표

부록표 3-1 건강·보건활동 참여도

단위: %

		전체(명)	전혀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02	38.0	29.0	25.7	7.3	2.02	0.964	
성별	남자	2,358	39.5	27.0	24.6	8.9	2.03	0.998	29.425***
	여자	2,144	36.2	31.2	27.1	5.6	2.02	0.925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29.4	28.4	31.1	11.1	2.24	0.996	115.077***
	중학교	1,486	41.3	28.6	24.9	5.1	1.94	0.929	
	일반고	1,298	41.9	30.0	22.2	5.9	1.92	0.934	
	특성화고	260	46.7	29.5	18.1	5.7	1.83	0.922	
지역 규모	대도시	1,955	35.4	29.2	26.3	9.0	2.09	0.985	26.944***
	중소도시	1,857	40.4	29.7	24.2	5.7	1.95	0.933	
	읍/면	690	38.7	26.4	28.2	6.7	2.03	0.96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1	37.6	28.9	26.2	7.3	2.03	0.965	17.720*
	한부모가정	332	42.2	31.1	21.4	5.4	1.90	0.918	
	조손가정	69	46.4	27.9	16.6	9.2	1.89	0.999	
	기타	36	25.1	26.3	31.2	17.4	2.41	1.059	
경제적 수준	상	703	31.6	26.5	28.9	13.0	2.23	1.035	60.389***
	중	3,526	38.8	29.3	25.7	6.1	1.99	0.944	
	하	270	43.9	31.0	17.4	7.8	1.89	0.956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2 과학정보활동 참여도

단위: %

		전체(명)	전혀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496	58.1	21.1	14.9	5.9	1.69	0.932	
성별	남자	2,353	54.6	21.5	16.3	7.6	1.77	0.980	41.496***
	여자	2,144	62.0	20.6	13.4	4.0	1.60	0.867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7	47.6	22.3	20.3	9.8	1.92	1.032	171.183***
	중학교	1,484	60.7	21.8	13.2	4.2	1.61	0.870	
	일반고	1,298	62.5	20.8	12.5	4.1	1.58	0.861	
	특성학교	257	79.6	11.1	7.0	2.4	1.32	0.710	
지역 규모	대도시	1,952	56.7	19.5	16.2	7.5	1.75	0.983	29.198***
	중소도시	1,856	59.1	23.1	13.2	4.6	1.63	0.880	
	읍/면	688	59.3	20.2	15.8	4.7	1.66	0.90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57	57.1	21.4	15.4	6.1	1.71	0.938	40.314***
	한부모가정	332	70.8	15.8	8.3	5.0	1.48	0.848	
	조손가정	69	60.8	15.8	20.9	2.5	1.65	0.900	
	기타	34	48.0	43.2	6.3	2.4	1.63	0.720	
경제적 수준	상	703	47.4	23.3	19.0	10.3	1.92	1.036	56.955***
	중	3,522	59.8	20.7	14.3	5.1	1.65	0.907	
	하	269	62.8	20.6	12.3	4.2	1.58	0.864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3 교류활동 참여도

단위: %

		전체(명)	전혀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498	69.8	17.0	10.2	3.0	1.46	0.797	
성별	남자	2,356	73.4	15.8	8.0	2.8	1.40	0.753	37.018***
	여자	2,142	65.8	18.3	12.5	3.3	1.53	0.837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6	59.1	21.8	14.7	4.4	1.64	0.889	136.374***
	중학교	1,485	72.0	16.9	8.5	2.5	1.42	0.753	
	일반고	1,298	77.5	12.5	8.0	2.0	1.35	0.713	
	특성화고	260	78.5	13.4	5.0	3.1	1.33	0.713	
지역 규모	대도시	1,954	67.8	17.2	11.2	3.8	1.51	0.836	14.863*
	중소도시	1,855	71.5	16.9	8.8	2.7	1.43	0.765	
	읍/면	688	70.6	16.6	11.0	1.8	1.44	0.7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59	69.6	17.1	10.1	3.1	1.47	0.798	37.544***
	한부모가정	332	75.6	13.1	9.2	2.1	1.38	0.740	
	조손가정	69	63.2	12.3	19.0	5.5	1.67	0.971	
	기타	34	41.6	48.3	8.7	1.5	1.70	0.696	
경제적 수준	상	702	60.0	17.3	15.8	6.9	1.70	0.972	81.416***
	중	3,524	71.3	17.2	9.3	2.3	1.43	0.753	
	하	270	75.3	14.3	7.6	2.8	1.38	0.747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4 모험·개척활동 참여도

단위: %

		전체(명)	전혀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497	46.0	22.2	21.7	10.1	1.96	1.040	
성별	남자	2,354	46.1	23.1	20.4	10.4	1.95	1.039	6.036
	여자	2,143	46.0	21.1	23.1	9.8	1.97	1.04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7	32.3	23.0	26.9	17.8	2.30	1.101	261.308***
	중학교	1,485	50.5	21.3	19.9	8.3	1.86	1.008	
	일반고	1,298	53.2	22.9	19.4	4.5	1.75	0.918	
	특성학교	257	61.3	18.4	13.8	6.5	1.66	0.947	
지역 규모	대도시	1,953	47.8	21.0	19.9	11.3	1.95	1.061	28.704***
	중소도시	1,857	46.2	23.6	21.3	8.9	1.93	1.012	
	읍/면	688	40.5	21.4	27.7	10.4	2.08	1.04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59	45.4	22.2	21.9	10.4	1.97	1.045	17.853*
	한부모가정	332	54.2	20.6	19.6	5.7	1.77	0.955	
	조손가정	69	45.4	22.6	18.0	14.0	2.01	1.100	
	기타	33	33.2	33.5	23.6	9.7	2.10	0.988	
경제적 수준	상	703	36.7	20.2	26.1	17.0	2.24	1.120	67.418***
	중	3,521	47.7	22.2	21.1	8.9	1.91	1.019	
	하	270	49.2	25.7	17.1	8.1	1.84	0.98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5 직업체험활동 참여도

단위: %

		전체(명)	전혀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07	32.9	31.0	25.6	10.5	2.14	0.993	
성별	남자	2,366	38.0	31.9	21.8	8.3	2.00	0.964	92.919***
	여자	2,141	27.2	30.0	29.9	12.9	2.28	1.0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33.7	27.3	25.4	13.7	2.19	1.050	83.450***
	중학교	1,487	37.5	30.9	23.5	8.1	2.02	0.967	
	일반고	1,296	26.4	35.3	29.5	8.8	2.21	0.932	
	특성화고	265	34.9	31.4	20.1	13.7	2.13	1.041	
지역 규모	대도시	1,959	30.0	30.9	27.1	12.1	2.21	1.004	22.488**
	중소도시	1,857	35.1	31.1	24.2	9.7	2.08	0.986	
	읍/면	691	35.4	31.2	25.5	8.0	2.06	0.9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4	32.2	31.3	25.9	10.6	2.15	0.991	24.191**
	한부모가정	332	39.8	26.7	24.7	8.8	2.03	1.000	
	조손가정	69	49.5	27.0	16.3	7.2	1.81	0.962	
	기타	38	18.4	44.9	20.4	16.2	2.34	0.972	
경제적 수준	상	706	30.0	29.6	26.7	13.8	2.24	1.030	16.302*
	중	3,526	33.6	31.1	25.7	9.6	2.11	0.983	
	하	272	31.7	33.7	22.0	12.7	2.16	1.01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6 환경보존 활동 참여도

단위: %

		전체(명)	전혀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06	56.5	25.1	13.9	4.5	1.66	0.878	
성별	남자	2,362	59.0	23.3	13.1	4.5	1.63	0.875	13.456**
	여자	2,144	53.8	27.0	14.7	4.5	1.70	0.88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60	46.1	27.3	19.4	7.2	1.88	0.964	137.333***
	중학교	1,486	59.2	24.4	12.5	3.8	1.61	0.848	
	일반고	1,295	64.0	23.7	9.8	2.5	1.51	0.773	
	특성학교	265	62.4	23.5	10.9	3.2	1.55	0.812	
지역 규모	대도시	1,956	54.7	24.9	15.3	5.1	1.71	0.906	14.579*
	중소도시	1,859	58.9	25.2	12.1	3.8	1.61	0.841	
	읍/면	691	55.4	25.3	14.5	4.8	1.69	0.89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3	55.9	25.8	13.7	4.6	1.67	0.878	16.449
	한부모가정	332	62.8	19.2	14.8	3.2	1.58	0.855	
	조손가정	69	63.9	12.5	18.3	5.2	1.65	0.959	
	기타	38	51.9	24.9	18.4	4.8	1.76	0.928	
경제적 수준	상	706	47.1	28.2	16.7	8.0	1.86	0.970	48.177***
	중	3,527	57.9	24.7	13.5	3.9	1.63	0.857	
	하	272	63.6	21.9	10.7	3.7	1.55	0.83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7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도

단위: %

		전체(명)	전혀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08	54.2	24.6	15.5	5.7	1.73	0.921	
성별	남자	2,365	59.2	23.0	12.9	5.0	1.64	0.888	54.034***
	여자	2,143	48.8	26.3	18.5	6.4	1.82	0.94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44.2	28.1	19.0	8.7	1.92	0.988	111.441***
	중학교	1,487	60.2	22.5	13.1	4.2	1.61	0.868	
	일반고	1,297	57.1	24.2	14.9	3.8	1.65	0.868	
	특성화고	265	62.3	19.0	12.8	6.0	1.62	0.922	
지역 규모	대도시	1,958	51.4	25.4	16.3	6.9	1.79	0.954	28.648***
	중소도시	1,858	57.3	24.5	13.4	4.8	1.66	0.883	
	읍/면	691	54.1	22.6	18.8	4.5	1.74	0.91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5	53.6	24.8	15.9	5.7	1.74	0.925	13.632
	한부모가정	332	61.7	20.3	13.0	5.0	1.61	0.895	
	조손가정	69	58.1	25.3	10.3	6.4	1.65	0.910	
	기타	38	47.6	37.5	12.8	2.1	1.69	0.782	
경제적 수준	상	705	46.1	25.5	20.1	8.3	1.91	0.994	33.123***
	중	3,528	55.7	24.4	14.8	5.1	1.69	0.902	
	하	272	56.3	24.6	13.0	6.2	1.69	0.920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8 봉사활동 참여도

단위: %

		전체(명)	전혀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06	32.5	31.1	26.9	9.6	2.13	0.978	
성별	남자	2,364	37.5	31.1	22.8	8.6	2.02	0.973	73.456***
	여자	2,142	26.9	31.2	31.3	10.6	2.26	0.97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44.5	27.5	19.6	8.4	1.92	0.986	202.004***
	중학교	1,485	29.0	33.3	29.5	8.2	2.17	0.941	
	일반고	1,297	21.4	33.4	32.6	12.6	2.36	0.955	
	특성학교	265	40.2	27.5	23.8	8.5	2.01	0.991	
지역 규모	대도시	1,958	29.6	32.0	28.4	10.0	2.19	0.972	16.408*
	중소도시	1,857	35.5	30.4	25.2	8.9	2.07	0.978	
	읍/면	691	32.5	30.4	27.0	10.2	2.15	0.99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4	32.0	31.1	27.2	9.7	2.15	0.979	11.949
	한부모가정	331	36.0	31.2	25.2	7.6	2.04	0.957	
	조손가정	69	42.7	31.2	18.2	7.9	1.91	0.965	
	기타	38	31.3	36.5	15.7	16.4	2.17	1.062	
경제적 수준	상	706	32.6	29.6	24.6	13.3	2.18	1.034	17.781**
	중	3,526	32.5	31.3	27.5	8.7	2.12	0.966	
	하	271	31.1	33.6	24.1	11.3	2.16	0.99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9 사회참여활동 참여도

단위: %

		전체(명)	전혀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03	83.9	10.0	4.6	1.5	1.24	0.600	
성별	남자	2,359	85.2	9.6	3.7	1.5	1.22	0.581	10.100*
	여자	2,144	82.5	10.5	5.6	1.4	1.26	0.62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80.3	11.5	6.2	1.9	1.30	0.669	40.077***
	중학교	1,484	83.1	10.9	4.6	1.4	1.24	0.598	
	일반고	1,295	88.2	7.5	2.9	1.4	1.17	0.533	
	특성화고	265	87.3	8.7	3.8	0.2	1.17	0.478	
지역 규모	대도시	1,954	82.7	10.8	4.9	1.6	1.25	0.617	7.075
	중소도시	1,857	85.4	8.8	4.4	1.5	1.22	0.590	
	읍/면	691	83.3	11.1	4.5	1.1	1.23	0.5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1	83.6	10.2	4.7	1.5	1.24	0.605	10.889
	한부모가정	332	87.4	7.9	3.7	1.0	1.18	0.532	
	조손가정	69	84.2	7.6	5.2	3.1	1.27	0.701	
	기타	37	80.1	19.9	0.0	0.0	1.20	0.405	
경제적 수준	상	706	79.3	10.7	7.0	2.9	1.34	0.734	25.369***
	중	3,523	84.8	9.9	4.1	1.2	1.22	0.569	
	하	272	84.4	9.7	4.6	1.3	1.23	0.587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10 대중문화활동 참여도

단위: %

		전체(명)	전혀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04	66.8	13.5	12.0	7.7	1.61	0.970	
성별	남자	2,361	73.7	12.1	8.8	5.4	1.46	0.867	118.194***
	여자	2,144	59.2	15.1	15.5	10.2	1.77	1.049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64.4	14.0	12.7	8.9	1.66	1.005	15.292
	중학교	1,484	66.9	12.9	12.7	7.5	1.61	0.972	
	일반고	1,297	68.9	13.5	11.3	6.2	1.55	0.921	
	특성화고	265	68.7	14.2	7.9	9.2	1.57	0.977	
지역 규모	대도시	1,957	64.8	14.5	12.5	8.2	1.64	0.986	8.453
	중소도시	1,857	68.1	13.0	12.0	7.0	1.58	0.950	
	읍/면	690	68.9	12.3	10.6	8.2	1.58	0.97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4	66.6	13.5	12.2	7.7	1.61	0.971	6.598
	한부모가정	332	70.5	12.8	9.4	7.3	1.54	0.938	
	조손가정	69	64.8	13.4	14.9	6.9	1.64	0.978	
	기타	35	57.9	18.7	9.5	13.9	1.80	1.107	
경제적 수준	상	706	63.6	13.4	13.3	9.7	1.69	1.031	8.593
	중	3,527	67.6	13.4	11.7	7.3	1.59	0.957	
	하	270	64.2	15.4	13.1	7.2	1.63	0.966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11 팬덤문화활동 참여도

단위: %

		전체(명)	전혀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02	72.0	11.4	8.6	8.0	1.53	0.951	
성별	남자	2,360	82.1	8.7	5.5	3.7	1.31	0.737	276.820***
	여자	2,142	60.7	14.3	12.1	12.8	1.77	1.09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5	65.6	10.9	11.3	12.1	1.70	1.079	140.066***
	중학교	1,485	69.2	12.6	9.5	8.7	1.58	0.979	
	일반고	1,297	80.2	10.8	6.0	2.9	1.32	0.714	
	특성학교	265	81.5	9.3	2.0	7.2	1.35	0.836	
지역 규모	대도시	1,954	70.0	11.3	9.5	9.2	1.58	0.993	12.888*
	중소도시	1,857	72.8	12.0	8.1	7.1	1.50	0.917	
	읍/면	691	75.2	9.9	7.7	7.3	1.47	0.9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0	71.6	11.5	8.8	8.2	1.53	0.956	7.318
	한부모가정	332	76.0	10.7	6.6	6.7	1.44	0.885	
	조손가정	69	77.1	7.1	7.8	8.1	1.47	0.950	
	기타	37	63.2	14.9	14.8	7.2	1.66	0.989	
경제적 수준	상	705	67.9	10.8	10.8	10.5	1.64	1.039	16.837*
	중	3,524	72.6	11.3	8.3	7.7	1.51	0.939	
	하	270	74.0	13.7	6.8	5.5	1.44	0.846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12 고급문화활동 참여도

단위: %

		전체(명)	전혀 참여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06	49.8	22.0	17.9	10.3	1.89	1.038	
성별	남자	2,363	60.4	20.6	12.3	6.7	1.65	0.934	266.479***
	여자	2,144	38.1	23.5	24.0	14.3	2.15	1.084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38.2	22.2	23.8	15.7	2.17	1.105	181.890***
	중학교	1,486	54.5	21.4	16.0	8.1	1.78	0.989	
	일반고	1,297	54.1	23.1	15.3	7.5	1.76	0.968	
	특성학교	265	66.8	18.2	8.0	7.0	1.55	0.910	
지역 규모	대도시	1,957	45.5	23.2	19.1	12.2	1.98	1.064	31,118***
	중소도시	1,858	53.1	21.7	16.5	8.7	1.81	1.005	
	읍/면	691	53.2	19.6	17.9	9.3	1.83	1.02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5	48.8	22.4	18.2	10.6	1.91	1.042	25,400**
	한부모가정	332	59.9	20.2	13.5	6.4	1.66	0.938	
	조손가정	69	58.5	13.2	13.6	14.6	1.84	1.141	
	기타	36	51.1	15.2	26.3	7.3	1.90	1.042	
경제적 수준	상	706	43.5	19.7	21.4	15.4	2.09	1.123	39,092***
	중	3,528	50.6	22.4	17.4	9.5	1.86	1.021	
	하	270	55.4	22.3	15.3	7.1	1.74	0.963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13 건강·보건활동 참여방식(복수응답)

단위: %

		전체(명)	학교 단체 참여	교내 동아리 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온라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개인 활동
전 체		2,779	68.2	18.6	7.7	11.0	1.6	4.3	30.3
성별	남자	1,416	65.6	20.0	7.5	9.2	2.2	4.2	33.1
	여자	1,363	70.9	17.0	7.8	12.9	1.1	4.4	27.3
학교 유형	초등학교	1,027	69.6	11.0	8.4	19.1	2.0	4.3	32.8
	중학교	869	66.7	21.4	9.0	7.8	1.9	4.2	30.4
	일반고	750	67.7	26.0	5.6	5.0	0.3	3.9	27.2
	특성화고	134	69.9	16.7	5.0	3.0	4.6	7.7	26.6
지역 규모	대도시	1,257	68.8	16.9	8.5	11.0	2.1	4.4	31.2
	중소도시	1,104	68.4	19.8	6.9	9.8	1.2	4.6	30.1
	읍/면	418	65.8	20.2	7.4	14.0	1.2	3.4	2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524	67.9	18.7	7.8	11.5	1.4	4.3	30.6
	한부모가정	192	71.8	17.0	5.5	5.5	2.2	4.4	24.3
	조손가정	37	66.4	19.0	7.0	10.3	8.5	5.6	37.5
	기타	25	74.9	13.8	11.1	5.8	4.9	5.6	29.4
경제적 수준	상	480	63.4	17.9	11.0	15.8	2.2	3.1	40.0
	중	2,145	69.3	18.3	6.9	10.2	1.6	4.6	28.3
	하	152	67.0	23.4	8.1	6.2	0.0	4.2	26.4

부록표 3-14 과학정보활동 참여방식(복수응답)

단위: %

		전체(명)	학교 단체 참여	교내 동아리 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온라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개인 활동
전 체		1,868	59.4	23.3	5.7	8.2	2.7	0.9	28.0
성별	남자	1,055	55.1	27.4	6.6	8.0	3.4	1.0	29.1
	여자	813	65.1	18.0	4.4	8.5	1.7	0.8	26.5
학교 유형	초등학교	759	56.6	14.0	5.7	13.9	3.2	1.4	37.3
	중학교	575	65.7	21.8	5.8	6.4	2.0	1.1	25.4
	일반고	484	58.2	39.3	5.2	2.4	1.7	0.0	16.1
	특성화고	50	43.0	27.5	7.6	0.0	12.5	0.0	30.6
지역 규모	대도시	838	56.9	26.0	6.5	8.4	3.5	1.3	30.5
	중소도시	752	62.5	21.6	5.5	7.1	1.8	0.7	25.8
	읍/면	278	58.8	19.7	3.7	10.7	2.6	0.3	26.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729	58.9	23.5	5.8	8.5	2.4	0.9	28.4
	한부모가정	97	65.7	25.8	1.4	2.1	5.8	0.5	21.3
	조손가정	25	63.9	15.2	15.7	11.8	9.1	4.9	25.5
	기타	16	76.7	0.0	3.8	7.8	0.0	0.0	23.1
경제적 수준	상	368	56.5	24.2	7.4	10.6	3.0	1.0	35.2
	중	1,400	60.4	22.8	5.1	7.9	2.7	0.9	26.5
	하	100	57.2	27.8	6.5	4.7	0.8	0.0	21.9

부록표 3-15 교류활동 참여방식(복수응답)

단위: %

		전체(명)	학교 단체 참여	교내 동아리 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온라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개인 활동
전 체		1,347	53.4	14.8	6.2	10.1	5.6	5.5	31.3
성별	남자	617	54.0	13.4	8.1	10.1	6.4	5.9	25.5
	여자	730	52.9	16.1	4.5	10.0	4.9	5.3	36.3
학교 유형	초등학교	591	53.8	9.9	5.7	15.3	4.3	6.0	35.3
	중학교	412	57.1	14.0	4.5	7.2	7.4	5.0	31.0
	일반고	290	47.7	24.6	9.5	5.1	4.0	5.3	24.9
	특성화고	54	51.3	23.4	7.1	1.8	14.4	6.5	24.9
지역 규모	대도시	622	54.3	12.3	8.1	9.0	6.7	6.1	35.1
	중소도시	524	52.6	16.5	3.3	9.7	5.9	5.4	29.2
	읍/면	201	52.6	18.1	7.8	14.4	1.1	4.4	2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22	52.7	14.5	6.1	10.6	5.2	5.6	31.8
	한부모가정	81	62.6	21.2	6.1	5.3	10.7	5.2	19.4
	조손가정	25	53.3	18.5	10.1	3.6	8.2	8.4	41.4
	기타	18	62.6	7.0	4.6	6.8	3.3	0.0	36.8
경제적 수준	상	279	47.2	17.3	7.8	11.5	5.9	6.6	41.7
	중	1,003	55.7	13.6	5.4	9.9	5.7	5.2	28.4
	하	65	44.4	22.8	11.3	6.8	2.7	6.3	31.9

부록표 3-16 모험·개척활동 참여방식(복수응답)

단위: %

		전체(명)	학교 단체 참여	교내 동아리 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온라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개인 활동
전 체		2,414	56.3	9.3	8.4	16.0	1.6	5.2	41.9
성별	남자	1,259	53.9	10.9	8.9	13.6	2.2	5.0	41.6
	여자	1,155	58.9	7.5	7.8	18.6	0.9	5.5	42.2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6	49.3	6.5	9.6	27.5	1.9	5.0	47.0
	중학교	728	55.9	12.3	9.1	10.9	1.1	6.4	42.1
	일반고	604	69.3	9.7	5.7	5.4	0.9	3.2	33.3
	특성화고	96	49.4	11.7	7.7	3.1	6.1	11.6	42.6
지역 규모	대도시	1,015	50.8	9.8	9.7	17.2	2.2	5.9	45.7
	중소도시	994	60.2	9.5	7.8	13.7	1.2	5.2	39.8
	읍/면	405	60.3	7.4	6.6	18.6	1.1	3.6	3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203	55.9	9.2	8.3	16.7	1.4	5.1	42.0
	한부모가정	152	62.3	9.2	8.2	11.1	3.7	4.3	35.1
	조손가정	37	52.5	17.1	13.9	2.9	0.0	16.7	52.5
	기타	20	63.8	0.0	9.6	6.1	6.1	8.9	54.3
경제적 수준	상	444	47.3	9.3	10.5	23.3	1.7	4.3	52.0
	중	1,830	58.3	9.1	7.9	14.6	1.5	5.6	40.3
	하	137	58.7	11.4	8.5	10.0	2.1	3.4	30.6

부록표 3-17 직업체험활동 참여방식(복수응답)

단위: %

		전체(명)	학교 단체 참여	교내 동아리 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온라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개인 활동
전 체		3,005	68.9	16.7	5.4	5.1	4.5	2.1	33.7
성별	남자	1,453	68.7	17.3	5.5	3.8	5.0	1.8	29.7
	여자	1,551	69.1	16.1	5.3	6.4	4.0	2.3	37.6
학교 유형	초등학교	966	58.8	7.3	6.8	10.9	3.2	2.8	44.5
	중학교	920	72.1	16.1	5.2	3.5	6.6	2.0	29.8
	일반고	950	74.7	25.0	3.8	1.8	3.9	1.5	28.8
	특성화고	168	76.8	26.1	7.3	0.0	3.8	1.5	21.3
지역 규모	대도시	1,364	70.1	18.0	5.0	4.9	4.8	1.9	35.2
	중소도시	1,198	66.7	16.4	6.1	4.7	4.5	2.0	34.0
	읍/면	442	71.1	13.3	4.7	7.1	3.5	2.8	28.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41	68.5	16.8	5.3	5.3	4.4	1.9	34.3
	한부모가정	198	75.9	14.5	5.1	3.4	5.0	3.4	25.2
	조손가정	34	68.4	21.7	6.8	0.0	9.8	6.2	31.5
	기타	29	61.7	13.4	12.5	4.4	3.1	6.0	35.4
경제적 수준	상	494	59.7	13.2	7.6	7.5	4.9	2.5	44.3
	중	2,323	70.4	17.4	5.0	4.9	4.4	2.0	31.8
	하	186	75.4	17.6	4.9	2.2	4.0	1.5	30.6

부록표 3-18 환경보존활동 참여방식(복수응답)

단위: %

		전체(명)	학교 단체 참여	교내 동아리 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온라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개인 활동
전 체		1,945	52.2	13.9	6.2	10.1	2.0	3.9	41.2
성별	남자	960	50.7	14.1	7.1	8.5	2.6	4.5	40.4
	여자	985	53.7	13.7	5.3	11.6	1.5	3.4	42.0
학교 유형	초등학교	783	50.2	7.9	4.5	16.8	3.7	3.7	48.5
	중학교	601	51.2	14.9	8.6	6.5	0.7	4.2	41.6
	일반고	465	54.6	23.5	5.1	4.9	1.1	2.8	32.3
	특성화고	97	63.9	10.8	10.1	3.2	2.2	10.3	23.3
지역 규모	대도시	879	52.3	15.2	6.8	9.2	2.2	4.4	41.4
	중소도시	761	50.6	12.7	6.0	9.7	2.2	3.6	42.4
	읍/면	305	55.9	13.2	4.9	13.4	1.2	3.5	3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779	52.1	13.7	6.3	10.2	2.1	4.3	41.7
	한부모가정	123	56.0	18.0	3.4	8.3	2.5	0.0	31.9
	조손가정	25	38.2	7.9	11.0	3.7	0.0	4.0	58.7
	기타	17	64.8	17.6	11.8	16.2	0.0	0.0	31.1
경제적 수준	상	373	49.3	11.4	7.1	13.8	2.3	4.4	47.7
	중	1,473	53.0	14.2	5.7	9.4	1.9	4.0	39.5
	하	99	52.1	19.4	9.8	6.4	2.4	1.9	42.9

부록표 3-19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방식(복수응답)

단위: %

		전체(명)	학교 단체 참여	교내 동아리 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온라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개인 활동
전 체		2,051	62.5	20.5	5.5	4.8	2.6	2.9	27.9
성별	남자	960	58.4	19.7	6.3	4.4	3.6	3.2	27.9
	여자	1,091	66.1	21.1	4.7	5.2	1.7	2.7	27.9
학교 유형	초등학교	810	63.5	14.8	3.9	7.2	2.9	2.5	31.7
	중학교	589	62.9	17.6	7.5	4.5	3.7	3.1	27.5
	일반고	553	60.3	31.1	5.2	1.9	1.1	3.7	24.0
	특성화고	98	64.5	24.5	7.2	3.5	0.9	1.6	20.3
지역 규모	대도시	947	63.4	19.1	5.3	5.5	3.0	3.1	26.2
	중소도시	788	61.5	20.5	5.2	3.6	2.2	2.5	30.9
	읍/면	317	62.1	24.4	6.5	5.8	2.0	3.5	2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78	62.1	20.5	5.2	5.2	2.2	3.0	28.2
	한부모가정	127	72.5	16.3	9.9	0.9	5.0	2.1	21.4
	조손가정	28	55.1	32.2	4.8	0.0	14.0	0.0	37.1
	기타	18	40.8	24.7	3.3	0.0	6.8	6.2	28.8
경제적 수준	상	377	55.0	20.0	6.3	7.6	2.2	3.3	37.6
	중	1,554	64.2	20.5	5.1	4.4	2.7	2.9	25.2
	하	119	64.1	22.2	8.0	1.0	0.9	2.6	32.5

부록표 3-20 봉사활동 참여방식(복수응답)

단위: %

		전체(명)	학교 단체 참여	교내 동아리 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온라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개인 활동
전 체		3,020	49.0	18.9	11.9	8.2	2.5	5.5	49.9
성별	남자	1,464	50.4	20.1	13.6	7.0	3.1	5.3	45.8
	여자	1,556	47.7	17.8	10.2	9.3	1.9	5.7	53.8
학교 유형	초등학교	804	52.3	8.1	6.2	16.1	3.6	8.1	41.7
	중학교	1,047	45.0	12.3	13.4	6.0	3.0	5.2	57.3
	일반고	1,016	49.4	33.6	14.8	5.2	1.3	3.8	49.5
	특성화고	154	56.5	24.2	11.2	2.3	1.5	5.0	45.8
지역 규모	대도시	1,370	51.5	18.2	11.8	7.9	3.4	4.8	49.6
	중소도시	1,189	45.9	21.3	12.8	6.6	2.1	6.8	51.7
	읍/면	461	49.7	15.2	9.6	13.2	1.0	4.3	46.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46	49.1	19.1	11.8	8.2	2.5	5.6	49.8
	한부모가정	209	49.2	20.0	10.7	7.7	3.2	5.1	52.9
	조손가정	38	42.6	13.1	19.6	5.2	2.8	5.0	49.2
	기타	24	53.2	3.2	14.1	23.3	0.0	4.6	36.5
경제적 수준	상	474	47.7	17.3	12.1	11.9	2.5	6.1	50.8
	중	2,358	49.6	19.2	11.5	7.8	2.4	5.3	49.2
	하	187	44.9	20.4	15.3	4.4	3.4	6.7	57.0

부록표 3-21 사회참여활동 참여방식(복수응답)

단위: %

		전체(명)	학교 단체 참여	교내 동아리 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온라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개인 활동
전 체		719	41.1	12.5	9.4	8.1	7.0	6.5	41.9
성별	남자	348	39.7	14.3	7.9	6.8	8.6	6.2	41.7
	여자	371	42.5	10.9	10.8	9.3	5.4	6.7	42.1
학교 유형	초등학교	286	41.1	8.7	8.6	15.2	8.1	7.0	43.5
	중학교	249	45.7	13.1	8.7	2.6	5.8	7.3	40.7
	일반고	152	32.8	19.8	13.0	5.3	7.3	2.0	40.3
	특성화고	32	45.5	7.8	4.3	0.0	4.5	17.0	44.2
지역 규모	대도시	334	44.7	9.4	9.6	7.9	6.8	7.8	41.1
	중소도시	270	36.8	15.8	8.8	8.7	7.5	6.4	42.6
	읍/면	114	40.8	14.0	10.0	7.2	6.2	3.0	42.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60	41.7	12.7	9.6	8.5	6.6	6.3	41.1
	한부모가정	42	40.8	11.3	6.4	4.9	8.1	4.7	45.6
	조손가정	11	0.0	8.2	12.3	0.0	30.1	30.4	82.1
	기타	6	57.7	14.2	0.0	0.0	0.0	0.0	28.2
경제적 수준	상	145	29.9	11.8	8.5	14.9	6.3	6.5	51.8
	중	531	44.4	11.8	9.6	6.1	7.5	6.6	39.2
	하	42	39.0	23.8	9.4	9.6	2.4	5.3	41.5

부록표 3-22 대중문화활동 참여방식(복수응답)

단위: %

		전체(명)	학교 단체 참여	교내 동아리 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온라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개인 활동
전 체		1,486	27.5	22.7	7.9	5.4	6.1	5.5	57.7
성별	남자	616	28.2	22.4	7.1	5.5	7.3	4.5	55.8
	여자	870	26.9	22.9	8.5	5.3	5.3	6.2	59.1
학교 유형	초등학교	517	32.1	16.0	6.9	8.6	5.5	4.1	60.0
	중학교	487	28.0	22.3	7.9	5.6	7.8	5.3	57.0
	일반고	401	21.9	31.8	9.0	1.2	5.1	6.8	55.9
	특성화고	81	22.0	22.4	9.1	4.2	5.6	9.2	56.0
지역 규모	대도시	686	25.7	22.3	7.7	6.1	5.8	6.2	61.3
	중소도시	588	29.3	22.9	7.6	4.8	7.1	4.7	54.9
	읍/면	211	28.0	23.6	9.5	4.5	4.6	5.5	53.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350	28.3	23.0	7.8	5.7	5.8	5.3	57.3
	한부모가정	98	16.1	21.9	6.7	3.0	10.3	7.5	59.9
	조손가정	24	23.3	20.3	15.7	0.0	10.9	9.1	69.7
	기타	13	37.4	3.7	9.8	0.0	0.0	8.5	58.4
경제적 수준	상	256	26.3	19.5	9.1	10.6	5.3	4.8	61.9
	중	1,132	28.0	23.2	6.9	4.7	6.6	5.5	56.6
	하	97	24.6	25.6	16.0	0.0	3.2	7.5	58.5

부록표 3-23 팬덤문화활동 참여방식(복수응답)

단위: %

		전체(명)	학교 단체 참여	교내 동아리 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온라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개인 활동
전 체		1,255	10.3	4.6	3.3	3.8	25.7	1.1	73.2
성별	남자	419	19.4	10.1	7.2	5.7	19.9	2.1	62.3
	여자	835	5.7	1.8	1.4	2.8	28.7	0.6	78.6
학교 유형	초등학교	497	10.1	4.3	3.6	7.8	30.2	1.1	69.8
	중학교	456	13.9	5.8	4.1	1.9	23.4	0.8	70.4
	일반고	255	4.4	3.4	2.1	0.2	22.9	1.4	81.8
	특성화고	47	9.1	2.9	0.0	0.0	17.4	2.0	88.7
지역 규모	대도시	583	11.1	3.7	3.3	4.8	23.9	1.2	73.2
	중소도시	503	9.0	5.6	3.2	2.3	26.9	1.0	73.8
	읍/면	169	11.4	4.6	4.0	4.9	28.6	1.2	7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147	10.4	4.6	3.5	4.0	25.6	1.0	73.1
	한부모가정	80	11.5	3.1	0.0	0.8	28.2	0.0	75.8
	조손가정	16	6.8	12.0	8.5	7.8	33.6	4.6	54.2
	기타	12	0.0	0.0	0.0	0.0	12.8	10.3	87.2
경제적 수준	상	227	14.8	5.3	5.5	9.3	22.2	0.7	70.3
	중	957	9.3	4.4	2.8	2.8	27.0	1.1	73.5
	하	70	9.5	5.1	4.6	0.0	20.4	2.5	77.0

부록표 3-24 고급문화활동 참여방식(복수응답)

단위: %

		전체(명)	학교 단체 참여	교내 동아리 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온라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개인 활동
전 체		2,244	23.5	13.5	4.9	2.4	2.8	3.7	75.8
성별	남자	925	24.7	13.6	5.3	2.7	3.2	3.5	71.1
	여자	1,320	22.7	13.5	4.6	2.2	2.6	3.8	79.2
학교 유형	초등학교	895	23.9	11.6	6.2	4.0	3.7	3.1	77.2
	중학교	669	24.5	14.7	4.7	2.4	2.4	3.0	73.5
	일반고	595	21.2	14.7	2.6	0.3	1.4	4.8	78.2
	특성화고	86	29.2	16.0	8.7	0.0	6.4	7.1	63.7
지역 규모	대도시	1,060	23.9	12.6	5.4	2.5	2.3	3.9	75.1
	중소도시	864	22.0	12.8	3.9	2.4	3.7	3.5	77.0
	읍/면	320	26.5	18.3	5.8	2.1	2.2	3.3	75.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68	23.5	13.5	4.9	2.5	2.6	3.6	75.9
	한부모가정	131	28.1	16.3	3.3	1.6	5.3	2.6	72.7
	조손가정	29	15.1	11.2	14.5	0.0	5.5	3.4	76.4
	기타	16	7.9	3.1	0.0	0.0	7.7	16.3	84.4
경제적 수준	상	396	20.6	13.7	7.1	4.4	3.3	3.9	78.7
	중	1,727	24.3	13.3	3.9	2.1	2.7	3.4	75.4
	하	121	22.3	16.3	12.1	0.0	3.4	6.7	72.0

부록표 3-25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

단위: %

		전체(명)	있다	없다
전 체		4,519	45.8	54.2
성별	남자	2,370	42.1	57.9
	여자	2,149	49.9	50.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60	39.0	61.0
	중학교	1,490	40.5	59.5
	일반고	1,299	58.9	41.1
	특성화고	269	48.8	51.2
지역 규모	대도시	1,967	46.2	53.8
	중소도시	1,860	47.0	53.0
	읍/면	692	41.3	58.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4	45.8	54.2
	한부모가정	332	47.7	52.3
	조손가정	69	36.3	63.7
	기타	38	51.6	48.4
경제적 수준	상	706	42.8	57.2
	중	3,537	45.5	54.5
	하	272	58.6	41.4

부록표 3-26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순위응답)

단위: %

		공부 방해	참여할 시간 없음	참가비용 부담	부모님의 반대	필요/흥미 느끼지 못함	프로그램 마음에 들지 않음	활동내용 잘 모름	신청방법 모름	같이 참여할 친구없음	기타
전 체		12.8	30.4	10.7	7.5	6.5	5.9	10.4	5.8	7.2	2.9
성 별	남자	12.4	29.8	9.8	8.1	8.4	6.5	9.5	5.6	6.8	2.9
	여자	13.2	30.8	11.6	7.0	4.7	5.3	11.2	5.9	7.5	2.8
학 교 유 형	초등학교	7.3	32.5	10.5	12.4	6.1	6.2	6.9	4.1	10.2	3.9
	중학교	12.4	30.5	10.2	7.0	8.8	6.4	9.0	6.2	7.1	2.3
	일반고	18.0	30.1	10.7	5.3	4.4	4.6	13.0	6.0	5.3	2.4
	특성학교	7.6	22.0	14.0	1.9	9.6	9.2	16.3	9.8	5.7	3.7
지 역 규 모	대도시	12.6	31.3	9.5	7.8	6.6	6.5	10.4	5.9	7.0	2.5
	중소도시	13.5	29.5	11.8	7.4	6.4	5.1	10.5	5.4	7.3	3.2
	읍/면	11.5	29.8	11.4	7.1	6.4	6.3	10.2	6.6	7.5	3.3
가 족 유 형	양부모	13.0	30.9	10.4	7.5	6.4	5.8	10.3	5.8	7.0	3.0
	한부모	11.4	26.3	13.4	6.7	6.6	6.2	14.0	5.9	8.0	1.6
	조손	10.7	26.2	17.7	15.4	4.1	6.1	4.7	5.8	5.8	3.6
	기타	10.2	22.4	13.7	7.7	17.3	5.9	1.9	1.6	14.1	5.2
경 제 수 준	상	15.1	34.3	6.9	9.8	6.1	6.4	8.4	4.5	5.7	2.8
	중	12.5	30.3	10.5	7.3	6.6	5.7	10.9	6.0	7.4	2.8
	하	11.8	23.8	20.2	5.4	5.8	6.0	9.2	6.4	7.6	3.7

* 1순위에 300%, 2순위에 200%, 3순위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례수를 산출한 후, 전체 사례수 대비 각 항목의 사례수를 산출한 비율임.

부록표 3-27 체험활동 참여 필요사항(순위응답)

단위: %

		참여기록을 학교성적에 반영	정보제공	학교에서 기회 제공	참가비용 지원	참여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기타
전 체		17.3	21.9	24.9	22.9	11.8	1.3
성별	남자	17.2	21.4	24.6	22.8	12.4	1.6
	여자	17.4	22.5	25.2	22.9	11.1	0.9
학교 유형	초등학교	16.7	20.0	27.0	22.4	12.6	1.4
	중학교	18.4	19.9	24.3	23.8	12.4	1.1
	일반고	16.5	25.9	24.7	21.8	9.7	1.4
	특성화고	17.8	23.8	17.7	25.6	14.3	0.8
지역 규모	대도시	17.6	22.0	25.4	21.9	11.7	1.3
	중소도시	16.6	22.3	24.0	23.9	11.8	1.3
	읍/면	18.0	20.2	26.0	22.8	11.8	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7.3	22.0	25.2	22.7	11.7	1.2
	한부모가정	15.7	22.4	23.5	23.9	12.6	2.0
	조손가정	18.3	16.6	18.4	26.6	15.4	4.7
	기타	22.7	16.2	21.6	27.6	11.1	0.8
경제적 수준	상	18.8	20.5	26.2	20.3	13.0	1.3
	중	17.1	22.1	24.8	22.9	11.7	1.3
	하	15.0	22.4	22.7	29.6	9.4	0.8

* 1순위에 300%, 2순위에 200%, 3순위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례수를 산출한 후, 전체 사례수 대비 각 항목의 사례수를 산출한 비율임.

부록표 3-28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 이용빈도

단위: %

		전체(명)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 에 1번	1주일 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χ^2
전 체		4,510	36.0	48.1	7.6	3.0	2.3	1.4	1.0	0.6	
성별	남자	2,363	37.6	45.9	8.2	2.8	2.7	1.1	1.1	0.5	18.418*
	여자	2,147	34.2	50.4	6.9	3.2	1.9	1.8	1.0	0.6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8	38.7	41.8	8.9	3.2	2.3	1.9	2.0	1.2	104.229***
	중학교	1,487	32.0	54.9	7.4	2.6	1.2	1.1	0.5	0.3	
	일반고	1,297	37.3	47.0	6.6	3.0	3.8	1.1	0.8	0.3	
	특성학교	269	36.8	49.3	6.0	4.1	1.6	1.8	0.2	0.3	
지역 규모	대도시	1,963	35.8	49.8	7.8	2.4	1.5	1.6	0.8	0.3	26.885*
	중소도시	1,856	35.8	47.2	7.1	3.5	3.2	1.3	1.2	0.7	
	읍/면	690	37.2	45.5	8.4	3.1	2.2	1.3	1.2	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6	35.5	48.5	7.9	2.8	2.4	1.3	1.1	0.5	59.453***
	한부모가정	331	38.8	44.9	5.8	5.0	0.9	2.8	0.7	1.1	
	조손가정	69	49.9	40.8	0.7	7.3	1.3	0.0	0.0	0.0	
	기타	38	35.0	40.4	5.6	0.0	8.7	1.6	3.4	5.2	
경제 수준	상	705	36.1	45.6	8.1	2.7	2.3	2.0	2.3	0.8	35.051**
	중	3,529	35.6	49.0	7.7	3.0	2.1	1.2	0.8	0.5	
	하	272	40.8	41.8	5.1	3.4	4.8	2.4	0.9	0.8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29 유스호스텔, 야영장 이용빈도

단위: %

		전체(명)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 에 1번	1주일 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χ^2
전 체		4,514	39.3	46.6	10.9	2.1	0.8	0.1	0.2	0.1	
성별	남자	2,367	39.3	45.9	11.3	2.0	0.9	0.1	0.2	0.2	7.809
	여자	2,148	39.2	47.3	10.5	2.2	0.5	0.1	0.1	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8	36.0	40.7	16.7	4.3	1.4	0.2	0.5	0.1	261.395***
	중학교	1,489	35.3	49.6	12.3	1.8	0.8	0.0	0.0	0.1	
	일반고	1,299	44.7	51.0	3.8	0.2	0.2	0.0	0.0	0.0	
	특성학교	268	52.4	40.1	6.2	1.0	0.0	0.2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1,965	38.7	45.8	12.2	2.1	0.9	0.1	0.2	0.0	16.842
	중소도시	1,857	41.1	46.3	9.5	2.1	0.5	0.1	0.2	0.1	
	읍/면	692	36.2	49.4	11.3	2.1	1.0	0.0	0.0	0.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0	38.7	46.7	11.3	2.2	0.8	0.1	0.1	0.1	97.689***
	한부모가정	332	46.5	46.2	6.0	0.9	0.0	0.0	0.4	0.0	
	조손가정	69	47.9	33.9	8.8	3.7	1.4	0.0	4.3	0.0	
	기타	38	21.5	56.4	19.0	3.2	0.0	0.0	0.0	0.0	
경제 수준	상	706	31.5	42.5	17.5	5.9	1.8	0.3	0.1	0.4	158.695***
	중	3,533	39.7	47.8	10.1	1.5	0.6	0.0	0.2	0.0	
	하	272	53.7	41.3	4.5	0.5	0.0	0.0	0.0	0.0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30 사회복지관 이용빈도

단위: %

		전체(명)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 에 1번	1주일 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χ^2
전 체		4,515	69.8	18.0	6.1	3.4	1.5	0.7	0.2	0.3	
성별	남자	2,367	69.8	18.0	6.1	3.1	1.7	0.8	0.2	0.4	3.146
	여자	2,148	69.7	17.9	6.1	3.7	1.3	0.6	0.3	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76.4	15.8	3.4	1.8	0.8	0.8	0.3	0.6	143.252***
	중학교	1,488	67.6	19.5	8.3	3.1	0.7	0.4	0.1	0.2	
	일반고	1,299	63.8	18.8	6.9	5.7	3.4	0.9	0.2	0.2	
	특성학교	269	74.8	17.2	4.2	2.4	0.8	0.2	0.2	0.2	
지역 규모	대도시	1,966	69.8	18.2	6.5	3.0	1.3	0.6	0.2	0.5	24.018*
	중소도시	1,858	71.0	16.9	5.7	3.8	1.8	0.5	0.3	0.1	
	읍/면	691	66.5	20.1	6.0	3.6	1.5	1.6	0.3	0.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0	70.0	17.8	6.0	3.4	1.6	0.6	0.2	0.3	25.639
	한부모가정	332	67.6	19.1	6.6	2.7	1.4	1.3	0.7	0.6	
	조손가정	69	72.8	18.5	1.3	2.8	1.1	3.6	0.0	0.0	
	기타	38	56.9	22.9	15.0	2.9	2.2	0.0	0.0	0.0	
경제 수준	상	706	69.6	18.7	5.5	2.4	1.8	0.9	0.4	0.7	27.214*
	중	3,534	69.9	18.0	6.2	3.6	1.4	0.6	0.1	0.2	
	하	272	68.6	15.7	6.3	3.3	2.5	2.0	0.8	0.7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31 도서관 이용빈도

단위: %

		전체(명)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 에 1번	1주일 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χ^2
전 체		4,509	9.2	14.5	20.8	16.7	17.3	9.6	7.4	4.6	
성별	남자	2,364	11.2	16.7	20.6	15.5	16.0	9.2	6.5	4.4	53.172***
	여자	2,144	7.0	12.2	21.0	18.0	18.6	10.1	8.4	4.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60	4.4	10.2	12.7	16.5	20.2	15.3	12.8	7.8	482.272***
	중학교	1,487	10.4	15.6	23.6	19.2	14.5	7.6	5.0	4.1	
	일반고	1,294	10.2	15.9	24.9	16.3	18.4	7.1	5.1	2.1	
	특성화고	267	23.3	25.1	28.9	5.8	11.2	2.2	2.2	1.4	
지역 규모	대도시	1,963	9.1	14.8	20.2	16.3	17.3	10.2	7.5	4.6	7.305
	중소도시	1,855	9.5	13.8	20.9	17.5	17.0	9.6	7.3	4.4	
	읍/면	690	8.4	15.9	21.8	15.7	17.9	8.1	7.5	4.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5	8.8	14.4	20.9	16.8	17.3	9.9	7.5	4.5	44.373**
	한부모가정	332	13.8	15.2	23.2	16.3	15.8	6.7	4.7	4.3	
	조손가정	69	11.2	16.9	8.9	9.5	19.4	9.8	12.0	12.3	
	기타	38	3.3	18.0	6.3	22.2	25.3	12.2	10.8	1.9	
경제 수준	상	705	7.6	12.0	14.5	14.2	21.6	11.7	10.6	7.8	81.866***
	중	3,528	9.2	15.0	22.1	17.3	16.1	9.5	6.9	4.1	
	하	272	13.4	14.1	20.4	15.3	21.3	6.5	6.0	3.0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32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 이용빈도

단위: %

		전체(명)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 에 1번	1주일 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χ^2
전 체		4,503	45.2	36.3	12.4	3.7	1.7	0.4	0.2	0.1	
성별	남자	2,359	47.3	33.3	12.4	4.1	2.2	0.4	0.2	0.2	28.420***
	여자	2,144	42.9	39.6	12.4	3.2	1.2	0.5	0.2	0.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8	30.7	40.9	18.0	6.4	2.8	0.8	0.2	0.2	350.544***
	중학교	1,484	43.7	36.6	13.3	3.2	2.1	0.5	0.3	0.2	
	일반고	1,295	58.8	32.7	6.2	1.8	0.4	0.0	0.1	0.0	
	특성화고	267	66.6	26.2	6.5	0.4	0.0	0.3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1,959	44.7	36.0	13.3	3.7	2.0	0.3	0.1	0.0	17.420
	중소도시	1,852	45.7	35.8	11.6	4.2	1.7	0.5	0.2	0.3	
	읍/면	692	45.3	38.3	12.0	2.2	1.1	0.7	0.2	0.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0	43.8	37.0	12.9	3.7	1.8	0.5	0.1	0.1	116.157***
	한부모가정	332	61.6	28.2	5.8	3.1	1.0	0.0	0.3	0.0	
	조손가정	69	52.5	30.2	10.4	3.7	1.8	0.0	1.3	0.0	
	기타	38	30.3	36.2	25.3	0.0	3.4	0.0	0.0	4.8	
경제 수준	상	703	33.2	38.1	16.4	7.4	3.0	1.0	0.3	0.5	136.519***
	중	3,525	46.0	36.6	12.2	3.1	1.5	0.3	0.2	0.1	
	하	272	65.3	26.9	4.9	1.1	1.2	0.3	0.0	0.4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33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기념관, 과학관 이용빈도

단위: %

		전체(명)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 에 1번	1주일 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χ^2
전 체		4,513	20.3	44.4	26.2	5.6	2.7	0.6	0.2	0.0	
성별	남자	2,364	22.3	42.9	25.7	5.5	2.8	0.6	0.3	0.1	18.105*
	여자	2,149	18.0	46.2	26.9	5.8	2.6	0.5	0.1	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13.7	37.0	34.7	8.5	4.7	1.1	0.2	0.0	327.682***
	중학교	1,487	18.4	46.3	26.4	5.8	2.4	0.3	0.2	0.1	
	일반고	1,299	25.5	49.9	20.0	3.0	1.2	0.3	0.1	0.0	
	특성학교	268	41.1	47.5	9.2	1.9	0.3	0.0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1,966	17.3	43.6	28.6	6.3	3.3	0.9	0.0	0.0	57.349***
	중소도시	1,855	23.7	43.6	24.2	5.8	2.1	0.3	0.3	0.1	
	읍/면	692	19.6	49.0	24.9	3.6	2.5	0.3	0.1	0.0	
가족 유형	양부모정	4,068	19.1	44.6	27.1	5.7	2.7	0.6	0.2	0.0	59.973***
	한부모정	332	34.1	44.0	15.3	4.3	2.1	0.3	0.0	0.0	
	조손가정	69	23.8	37.2	26.7	5.6	4.9	1.8	0.0	0.0	
	기타	38	18.6	38.0	30.2	10.0	3.2	0.0	0.0	0.0	
경제 수준	상	705	12.7	34.9	33.1	12.1	5.3	1.2	0.6	0.1	208.827***
	중	3,532	20.4	46.7	25.7	4.4	2.2	0.4	0.1	0.0	
	하	272	38.2	40.2	15.2	4.4	1.4	0.7	0.0	0.0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34 테마파크, 놀이동산, 공원,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이용빈도

단위: %

		전체(명)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 에 1번	1주일 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χ^2
전 체		4,514	13.8	44.9	29.8	6.3	3.4	1.0	0.5	0.3	
성별	남자	2,368	16.7	43.9	27.2	7.0	3.3	0.9	0.6	0.4	48.939***
	여자	2,145	10.6	46.1	32.6	5.7	3.4	1.1	0.4	0.2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8	7.1	37.9	35.4	10.6	6.3	1.3	0.8	0.4	363.278***
	중학교	1,489	11.3	46.0	31.6	6.3	2.8	1.0	0.4	0.5	
	일반고	1,298	22.1	51.1	22.2	2.5	0.9	0.7	0.3	0.1	
	특성학교	269	23.2	46.7	25.4	2.0	1.9	0.5	0.3	0.0	
지역 규모	대도시	1,965	12.6	43.0	30.3	8.0	4.3	1.0	0.5	0.4	40.923***
	중소도시	1,856	14.5	45.2	30.0	5.7	2.8	1.0	0.6	0.2	
	읍/면	692	15.4	49.6	27.8	3.3	2.3	0.8	0.5	0.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9	13.4	44.5	30.5	6.3	3.5	0.9	0.5	0.3	52.230***
	한부모가정	332	18.0	49.8	22.9	6.0	1.4	1.6	0.2	0.0	
	조손가정	69	9.8	55.0	15.4	8.6	6.4	1.0	1.8	1.9	
	기타	38	17.7	29.1	42.2	4.8	1.7	1.3	0.0	3.2	
경제 수준	상	705	7.9	37.0	36.4	9.9	6.0	1.5	0.8	0.6	151.956***
	중	3,533	13.7	46.5	29.5	5.9	2.9	0.9	0.4	0.3	
	하	272	29.8	45.6	16.6	3.4	1.9	1.2	1.1	0.3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35 공연장, 음악회 이용빈도

단위: %

		전체(명)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 에 1번	1주일 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χ^2
전 체		4,513	37.8	41.3	15.1	3.7	1.4	0.4	0.1	0.1	
성별	남자	2,366	42.7	39.8	13.0	3.0	1.0	0.2	0.2	0.1	68.970***
	여자	2,147	32.4	43.1	17.4	4.5	1.8	0.7	0.1	0.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7	35.8	39.6	17.3	4.2	1.9	0.8	0.0	0.3	86.822***
	중학교	1,490	35.4	41.7	15.5	4.9	1.8	0.3	0.3	0.1	
	일반고	1,297	40.2	43.5	13.3	2.1	0.6	0.2	0.0	0.0	
	특성화고	269	50.5	38.1	8.7	2.0	0.3	0.3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1,964	34.3	41.9	16.9	4.1	1.8	0.8	0.1	0.1	41.596***
	중소도시	1,859	40.6	40.7	14.1	3.2	0.9	0.1	0.2	0.1	
	읍/면	690	40.4	41.3	12.5	3.9	1.5	0.1	0.1	0.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1	37.2	41.6	15.3	3.8	1.4	0.5	0.1	0.1	31.265
	한부모가정	332	43.6	38.8	14.2	2.8	0.6	0.0	0.0	0.0	
	조손가정	67	48.9	34.0	12.9	0.0	4.1	0.0	0.0	0.0	
	기타	38	26.7	51.7	6.3	12.1	3.2	0.0	0.0	0.0	
경제 수준	상	705	29.3	39.3	20.5	7.3	2.1	0.7	0.2	0.5	103.241***
	중	3,533	38.5	42.5	14.1	3.1	1.3	0.4	0.1	0.0	
	하	270	51.8	31.4	14.4	1.6	0.8	0.0	0.0	0.0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36 스포츠경기장(프로 축구·야구·농구 등) 이용빈도

단위: %

		전체(명)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 에 1번	1주일 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χ^2
전 체		4,512	52.7	27.9	11.2	3.9	1.9	0.8	0.9	0.8	
성별	남자	2,366	43.9	29.8	14.4	5.1	2.9	1.3	1.3	1.2	206.997***
	여자	2,147	62.3	25.7	7.6	2.5	0.8	0.3	0.4	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60	49.4	26.5	12.6	4.8	2.8	1.2	0.9	1.8	124.578***
	중학교	1,487	47.4	31.3	12.2	4.7	1.9	0.8	1.2	0.6	
	일반고	1,296	59.2	27.4	9.0	2.3	1.0	0.4	0.6	0.1	
	특성학교	269	67.4	19.0	8.1	1.8	1.6	1.4	0.6	0.0	
지역 규모	대도시	1,965	49.0	29.5	12.8	4.3	2.0	0.6	0.8	1.0	38.091**
	중소도시	1,856	54.8	26.6	10.5	3.4	1.7	1.1	1.3	0.7	
	읍/면	692	57.5	26.6	8.3	3.9	2.2	0.7	0.1	0.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7	51.9	28.3	11.6	3.9	1.8	0.8	0.9	0.8	51.654***
	한부모가정	332	61.8	22.2	8.4	3.2	1.7	1.2	0.6	0.8	
	조손가정	69	56.8	26.6	2.8	1.5	8.5	0.9	2.8	0.0	
	기타	38	49.9	28.6	6.7	8.0	0.0	5.2	0.0	1.7	
경제 수준	상	705	41.3	31.6	14.1	6.8	2.0	1.8	0.6	1.8	81.433***
	중	3,532	54.2	27.5	10.8	3.4	1.9	0.7	0.9	0.7	
	하	271	63.5	22.2	7.9	2.8	0.8	0.8	1.5	0.5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37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헬스장 이용빈도

단위: %

		전체(명)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 에 1번	1주일 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χ^2
전 체		4,510	18.5	21.6	15.5	8.8	6.2	5.7	11.7	12.1	
성별	남자	2,363	17.2	18.9	14.2	9.3	6.6	6.7	11.8	15.4	84.545***
	여자	2,147	20.0	24.6	16.9	8.2	5.8	4.5	11.5	8.4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5	10.9	19.1	16.4	8.1	5.8	6.2	15.0	18.4	242.331***
	중학교	1,489	17.3	23.0	16.4	9.6	5.6	4.7	12.0	11.5	
	일반고	1,298	26.8	23.0	13.8	8.8	6.8	6.2	8.2	6.4	
	특성학교	267	26.6	21.1	13.4	7.6	8.5	5.5	8.9	8.3	
지역 규모	대도시	1,963	18.4	20.5	15.3	8.2	6.1	6.1	13.1	12.2	15.230
	중소도시	1,857	19.1	22.0	15.4	9.1	6.5	5.5	10.9	11.5	
	읍/면	690	17.1	23.8	16.4	9.3	5.7	5.0	9.6	13.0	
가족 유형	양부모정	4,067	17.7	22.1	15.6	8.8	6.2	5.9	11.5	12.2	51.675***
	한부모정	331	29.3	13.9	16.2	8.9	5.3	3.7	13.3	9.3	
	조손가정	69	16.8	30.7	6.6	5.3	8.3	7.4	10.4	14.5	
	기타	38	13.0	20.3	13.7	12.7	7.3	0.0	15.9	17.1	
경제 수준	상	705	10.3	19.4	14.0	10.1	8.6	7.8	11.5	18.2	97.379***
	중	3,532	19.3	22.2	15.9	8.5	5.9	5.3	11.9	11.0	
	하	269	30.2	20.2	14.8	7.8	3.7	4.4	8.6	10.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38 직업체험관(키자니아, 잡월드 등) 이용빈도

단위: %

		전체(명)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에 1번	1주일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χ^2
전 체		4,511	70.8	24.2	3.8	0.6	0.4	0.1	0.0	0.0	
성별	남자	2,362	72.1	23.2	3.4	0.7	0.5	0.0	0.0	0.1	13.509*
	여자	2,149	69.5	25.4	4.2	0.5	0.2	0.2	0.0	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2	58.7	32.9	6.1	1.3	0.5	0.3	0.0	0.1	229.067***
	중학교	1,490	70.3	25.2	3.5	0.4	0.5	0.1	0.0	0.0	
	일반고	1,299	83.3	14.6	1.8	0.1	0.1	0.0	0.0	0.0	
	특성화고	269	78.8	18.6	2.6	0.0	0.0	0.0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1,961	69.8	24.9	4.2	0.4	0.4	0.1	0.0	0.1	14.198
	중소도시	1,860	72.8	22.7	3.3	0.7	0.4	0.2	0.0	0.0	
	읍/면	690	68.5	26.3	4.2	0.8	0.1	0.1	0.0	0.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7	70.3	24.6	4.0	0.6	0.4	0.1	0.0	0.1	77.021***
	한부모가정	332	78.9	19.3	1.8	0.0	0.0	0.0	0.0	0.0	
	조손가정	69	81.0	12.7	0.7	1.3	1.8	2.5	0.0	0.0	
	기타	38	46.4	47.0	3.3	3.3	0.0	0.0	0.0	0.0	
경제 수준	상	704	58.5	32.3	6.8	1.5	0.8	0.1	0.0	0.1	79.138***
	중	3,533	72.8	23.0	3.3	0.5	0.3	0.1	0.0	0.0	
	하	270	77.2	19.5	3.2	0.0	0.0	0.0	0.0	0.0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39 만화방, 노래방, PC방, 게임방 이용빈도

단위: %

		전체(명)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 에 1번	1주일 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χ^2
전 체		4,516	13.7	13.6	16.3	15.8	14.7	8.9	11.2	5.7	
성별	남자	2,369	12.8	11.6	10.5	10.8	13.6	12.1	18.7	9.9	660.394***
	여자	2,147	14.8	15.8	22.8	21.2	15.8	5.3	3.1	1.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8	23.9	22.3	17.4	10.3	8.5	6.4	7.4	3.9	505.797***
	중학교	1,490	10.9	10.1	13.2	17.9	15.4	10.0	14.6	7.9	
	일반고	1,298	7.6	9.8	19.2	19.0	19.6	10.0	10.2	4.7	
	특성화고	269	4.6	5.2	14.4	17.7	19.8	11.1	18.6	8.6	
지역 규모	대도시	1,966	13.9	14.0	17.4	17.4	13.6	9.0	9.0	5.7	42.528***
	중소도시	1,859	14.1	12.7	15.5	13.4	15.7	9.0	13.9	5.8	
	읍/면	691	12.4	15.3	15.5	17.4	15.1	8.3	10.4	5.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1	14.0	13.9	16.9	15.7	14.5	8.7	10.9	5.4	45.197**
	한부모가정	332	10.7	9.1	14.1	17.3	16.0	9.9	15.1	7.8	
	조손가정	69	12.7	15.9	2.3	11.2	18.3	12.7	13.1	13.8	
	기타	38	14.6	19.9	5.5	17.6	12.5	12.3	16.3	1.4	
경제 수준	상	706	19.0	19.2	15.0	11.2	12.1	6.4	10.4	6.6	77.786***
	중	3,534	13.0	13.1	16.7	16.6	14.9	9.0	11.3	5.5	
	하	272	9.9	6.3	15.6	17.4	18.1	13.4	12.7	6.7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40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9	3.0	18.1	61.7	17.1	2.93	0.684	
성별	남자	2,370	4.0	18.8	59.1	18.1	2.91	0.723	27.040***
	여자	2,149	1.9	17.5	64.6	16.1	2.95	0.63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60	3.2	13.0	58.7	25.1	3.06	0.711	137.845***
	중학교	1,490	3.5	19.0	63.0	14.5	2.88	0.680	
	일반고	1,299	2.4	20.7	63.9	13.1	2.88	0.646	
	특성학교	269	2.1	29.0	61.0	7.9	2.75	0.625	
지역 규모	대도시	1,967	2.5	17.3	59.5	20.7	2.98	0.693	35.016***
	중소도시	1,860	3.5	19.2	63.0	14.2	2.88	0.680	
	읍/면	692	2.9	17.8	64.7	14.6	2.91	0.6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4	2.8	17.6	62.2	17.4	2.94	0.678	22.168**
	한부모가정	332	4.8	22.7	59.7	12.8	2.80	0.714	
	조손가정	69	4.5	22.9	50.4	22.1	2.90	0.795	
	기타	38	1.6	32.7	51.0	14.7	2.79	0.712	
경제적 수준	상	706	3.8	12.9	56.5	26.9	3.06	0.738	81.950***
	중	3,537	2.6	19.4	63.1	15.0	2.90	0.662	
	하	272	6.3	16.2	58.1	19.3	2.90	0.776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41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9	5.8	22.3	48.1	23.8	2.90	0.827	
성별	남자	2,370	7.4	24.1	44.2	24.3	2.85	0.871	44.253***
	여자	2,149	4.1	20.4	52.3	23.2	2.95	0.773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60	4.1	13.0	43.5	39.3	3.18	0.811	366.713***
	중학교	1,490	7.0	23.9	50.7	18.4	2.80	0.817	
	일반고	1,299	5.1	28.6	50.9	15.4	2.77	0.767	
	특성학교	269	12.2	34.2	44.1	9.5	2.51	0.828	
지역 규모	대도시	1,967	5.5	22.4	45.5	26.6	2.93	0.840	18.185**
	중소도시	1,860	6.4	22.1	50.3	21.2	2.86	0.818	
	읍/면	692	5.4	22.6	49.3	22.6	2.89	0.81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4	5.7	21.8	48.4	24.1	2.91	0.824	16.317
	한부모가정	332	8.0	28.6	44.8	18.7	2.74	0.853	
	조손가정	69	4.5	25.6	45.3	24.5	2.90	0.826	
	기타	38	1.6	24.2	44.4	29.9	3.02	0.787	
경제적 수준	상	706	5.4	19.8	40.4	34.4	3.04	0.870	59.100***
	중	3,537	5.7	22.8	49.7	21.9	2.88	0.812	
	하	272	9.2	23.8	46.5	20.6	2.78	0.876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42 체험활동에 빠져든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7	6.0	25.2	50.0	18.8	2.82	0.804	
성별	남자	2,368	8.3	26.6	46.3	18.7	2.75	0.853	62.593***
	여자	2,149	3.4	23.7	54.1	18.8	2.88	0.74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5.6	18.8	46.1	29.5	2.99	0.841	202.475***
	중학교	1,489	7.3	26.6	51.3	14.9	2.74	0.798	
	일반고	1,299	4.6	28.4	53.3	13.7	2.76	0.741	
	특성학교	269	7.8	37.3	48.0	6.9	2.54	0.738	
지역 규모	대도시	1,967	5.2	24.7	48.6	21.5	2.86	0.807	20.140**
	중소도시	1,858	6.7	25.4	51.0	16.9	2.78	0.802	
	읍/면	692	6.4	26.4	51.2	16.0	2.77	0.79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2	5.8	24.9	50.3	19.0	2.83	0.800	17.795*
	한부모가정	332	8.4	26.4	50.3	14.9	2.72	0.819	
	조손가정	69	8.7	35.8	33.5	22.0	2.69	0.917	
	기타	38	1.4	35.0	44.3	19.3	2.82	0.762	
경제적 수준	상	706	6.4	19.4	44.4	29.8	2.98	0.864	74.323***
	중	3,535	5.8	26.6	51.0	16.7	2.79	0.786	
	하	272	8.4	23.6	50.8	17.2	2.77	0.83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43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8	4.9	16.9	42.6	35.7	3.09	0.843	
성별	남자	2,368	6.9	20.1	39.8	33.2	2.99	0.899	91.431***
	여자	2,149	2.6	13.3	45.6	38.4	3.20	0.763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3.6	11.3	35.0	50.1	3.32	0.812	223.174***
	중학교	1,490	6.2	19.8	46.3	27.8	2.96	0.849	
	일반고	1,299	4.5	17.6	47.0	30.9	3.04	0.815	
	특성학교	269	5.8	27.4	42.3	24.5	2.85	0.857	
지역 규모	대도시	1,966	4.4	16.8	42.5	36.4	3.11	0.834	3.841
	중소도시	1,860	5.3	16.5	43.3	34.9	3.08	0.849	
	읍/면	692	4.9	18.3	41.2	35.6	3.07	0.85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3	4.8	16.6	42.9	35.7	3.10	0.840	7.474
	한부모가정	332	5.4	19.5	39.7	35.4	3.05	0.875	
	조손가정	69	3.4	17.0	38.7	40.9	3.17	0.833	
	기타	38	0.0	25.3	44.2	30.4	3.05	0.755	
경제적 수준	상	706	5.3	14.9	34.7	45.1	3.20	0.879	45.147***
	중	3,536	4.7	17.3	44.6	33.4	3.07	0.830	
	하	272	6.5	16.4	36.3	40.8	3.11	0.906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44 다시 해 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6	5.3	16.9	44.7	33.0	3.05	0.842	
성별	남자	2,368	7.4	17.5	43.1	32.0	3.00	0.889	45.979***
	여자	2,148	3.0	16.3	46.4	34.2	3.12	0.783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4.5	10.8	36.1	48.6	3.29	0.832	273.879***
	중학교	1,490	7.0	18.4	47.6	27.0	2.95	0.856	
	일반고	1,298	3.9	20.2	50.8	25.1	2.97	0.779	
	특성학교	269	7.0	26.8	45.4	20.7	2.80	0.848	
지역 규모	대도시	1,965	4.9	18.3	43.5	33.3	3.05	0.842	8.101
	중소도시	1,859	5.8	16.3	44.9	33.0	3.05	0.849	
	읍/면	692	5.3	14.7	47.5	32.5	3.07	0.82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1	5.2	16.9	44.7	33.2	3.06	0.841	5.242
	한부모가정	332	6.3	18.0	45.7	30.0	2.99	0.856	
	조손가정	69	5.3	16.1	39.8	38.8	3.12	0.870	
	기타	38	0.0	19.3	47.4	33.3	3.14	0.721	
경제적 수준	상	706	4.3	13.8	40.9	41.0	3.19	0.829	39.636***
	중	3,535	5.2	17.4	46.0	31.4	3.04	0.833	
	하	272	9.6	19.5	37.2	33.7	2.95	0.958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45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4	8.4	39.8	39.2	12.7	2.56	0.817	
성별	남자	2,367	10.3	38.1	36.9	14.6	2.56	0.864	47.351***
	여자	2,147	6.2	41.6	41.6	10.6	2.57	0.762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7.6	31.7	41.0	19.7	2.73	0.863	133.518***
	중학교	1,487	9.5	43.6	36.6	10.4	2.48	0.804	
	일반고	1,298	7.6	43.7	40.1	8.7	2.50	0.759	
	특성학교	269	10.3	43.9	39.3	6.5	2.42	0.762	
지역 규모	대도시	1,966	8.7	39.6	37.1	14.7	2.58	0.843	17.117**
	중소도시	1,859	8.3	39.9	40.2	11.6	2.55	0.804	
	읍/면	690	7.6	39.9	42.4	10.0	2.55	0.77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9	8.3	39.5	39.2	13.0	2.57	0.819	13.169
	한부모가정	332	9.7	42.4	39.9	8.0	2.46	0.778	
	조손가정	69	8.4	37.4	36.3	17.8	2.64	0.876	
	기타	38	0.0	47.6	36.5	15.9	2.68	0.741	
경제적 수준	상	706	8.5	30.5	36.6	24.3	2.77	0.915	120.119***
	중	3,534	8.0	41.5	40.1	10.4	2.53	0.786	
	하	270	13.2	41.2	33.7	11.9	2.44	0.867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46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5	10.5	38.1	35.5	15.9	2.57	0.879	
성별	남자	2,367	13.1	37.4	32.8	16.7	2.53	0.919	44.039***
	여자	2,148	7.6	39.0	38.4	15.0	2.61	0.832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7	9.3	28.4	37.2	25.2	2.78	0.928	182.406***
	중학교	1,490	11.1	40.7	35.4	12.8	2.50	0.853	
	일반고	1,299	10.9	44.5	34.2	10.4	2.44	0.820	
	특성학교	269	11.6	46.3	32.7	9.4	2.40	0.814	
지역 규모	대도시	1,966	11.1	38.6	33.1	17.1	2.56	0.901	15.527*
	중소도시	1,857	10.0	37.9	38.1	14.0	2.56	0.852	
	읍/면	692	10.1	37.3	35.1	17.5	2.60	0.89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1	10.3	38.1	35.5	16.0	2.57	0.879	12.166
	한부모가정	332	12.9	40.4	34.5	12.2	2.46	0.867	
	조손가정	69	8.5	30.9	39.0	21.6	2.74	0.899	
	기타	38	3.4	35.9	35.4	25.3	2.83	0.858	
경제적 수준	상	705	10.0	29.8	35.1	25.1	2.75	0.943	68.840***
	중	3,535	10.3	39.8	35.9	13.9	2.53	0.857	
	하	272	14.3	37.9	30.0	17.8	2.51	0.946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47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4	9.6	34.7	42.4	13.3	2.59	0.836	
성별	남자	2,368	11.7	34.7	39.9	13.7	2.56	0.870	33.330***
	여자	2,147	7.2	34.7	45.3	12.8	2.64	0.7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8	9.5	33.0	40.6	16.9	2.65	0.869	34.340***
	중학교	1,490	9.9	37.3	41.2	11.6	2.55	0.823	
	일반고	1,298	8.7	33.9	45.3	12.1	2.61	0.810	
	특성학교	268	12.2	33.0	45.6	9.2	2.52	0.824	
지역 규모	대도시	1,964	9.7	33.4	42.4	14.5	2.62	0.849	7.046
	중소도시	1,858	9.3	35.9	42.9	11.9	2.57	0.818	
	읍/면	692	9.8	35.3	41.3	13.6	2.59	0.84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1	9.3	34.6	42.5	13.6	2.60	0.835	17.608*
	한부모가정	332	12.4	35.2	44.0	8.5	2.49	0.818	
	조손가정	69	11.0	35.1	35.6	18.4	2.61	0.915	
	기타	37	0.0	42.5	36.3	21.2	2.79	0.780	
경제적 수준	상	705	9.3	26.4	42.5	21.8	2.77	0.895	65.255***
	중	3,533	9.4	36.5	42.4	11.7	2.56	0.817	
	하	272	12.1	32.9	42.4	12.6	2.56	0.86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48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5	9.2	34.2	44.6	11.9	2.59	0.815	
성별	남자	2,368	11.5	33.8	41.8	12.9	2.56	0.857	39.750***
	여자	2,147	6.8	34.6	47.8	10.8	2.62	0.766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6	8.9	31.6	45.4	14.2	2.65	0.831	15.774
	중학교	1,490	9.6	35.5	44.1	10.8	2.56	0.809	
	일반고	1,299	9.3	35.3	44.1	11.3	2.57	0.810	
	특성학교	269	9.4	35.7	46.1	8.8	2.54	0.784	
지역 규모	대도시	1,967	8.7	32.9	44.5	13.9	2.64	0.827	16.256*
	중소도시	1,856	10.0	35.6	44.4	10.0	2.55	0.805	
	읍/면	691	8.9	34.4	45.5	11.3	2.59	0.80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0	9.2	34.0	44.9	11.9	2.59	0.815	8.206
	한부모가정	332	9.3	36.0	43.1	11.6	2.57	0.815	
	조손가정	69	14.2	33.9	37.6	14.3	2.52	0.912	
	기타	38	0.0	40.4	51.0	8.6	2.68	0.632	
경제적 수준	상	705	9.0	27.1	43.8	20.1	2.75	0.879	68.548***
	중	3,534	9.0	35.7	45.1	10.2	2.57	0.794	
	하	272	13.5	32.4	41.3	12.8	2.54	0.88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49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3	5.5	18.2	50.9	25.3	2.96	0.809	
성별	남자	2,366	7.6	18.8	48.0	25.6	2.92	0.860	47.505***
	여자	2,148	3.2	17.6	54.1	25.1	3.01	0.746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8	4.5	15.3	45.4	34.8	3.10	0.820	115.232***
	중학교	1,488	6.6	20.4	52.0	21.0	2.88	0.813	
	일반고	1,298	5.2	17.9	55.3	21.6	2.93	0.774	
	특성학교	269	6.1	24.0	53.9	16.0	2.80	0.778	
지역 규모	대도시	1,962	5.1	16.8	50.3	27.8	3.01	0.805	15.104*
	중소도시	1,860	6.1	18.9	51.7	23.3	2.92	0.812	
	읍/면	692	5.2	20.4	50.5	23.8	2.93	0.80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0	5.5	17.9	50.8	25.8	2.97	0.809	20.381*
	한부모가정	331	6.4	20.3	54.1	19.2	2.86	0.796	
	조손가정	69	4.1	30.6	35.7	29.5	2.91	0.877	
	기타	38	0.0	19.9	59.8	20.3	3.00	0.643	
경제적 수준	상	704	5.3	16.7	45.8	32.3	3.05	0.837	29.504***
	중	3,535	5.3	18.5	52.0	24.3	2.95	0.797	
	하	271	9.2	19.7	49.4	21.8	2.84	0.87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50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7	9.4	34.3	41.5	14.9	2.62	0.849	
성별	남자	2,367	11.5	33.3	40.4	14.8	2.58	0.877	27.291***
	여자	2,149	7.0	35.3	42.7	15.0	2.66	0.816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60	6.6	25.3	45.1	23.1	2.85	0.851	200.347***
	중학교	1,489	10.1	36.0	39.7	14.1	2.58	0.854	
	일반고	1,299	11.4	41.4	39.2	8.0	2.44	0.797	
	특성학교	268	10.8	38.6	42.8	7.8	2.48	0.790	
지역 규모	대도시	1,967	9.5	33.2	40.5	16.8	2.65	0.868	12.731*
	중소도시	1,858	9.6	35.7	41.7	13.0	2.58	0.833	
	읍/면	692	8.7	33.2	43.5	14.6	2.64	0.83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2	9.3	34.0	41.5	15.2	2.63	0.851	11.503
	한부모가정	332	9.8	36.4	43.6	10.1	2.54	0.806	
	조손가정	69	13.1	32.6	35.4	19.0	2.60	0.945	
	기타	38	5.5	46.1	33.9	14.5	2.57	0.814	
경제적 수준	상	706	8.5	26.0	40.4	25.2	2.82	0.905	88.155***
	중	3,535	9.2	35.6	42.1	13.2	2.59	0.830	
	하	272	14.1	39.0	36.7	10.2	2.43	0.857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51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6	3.9	13.7	53.5	28.9	3.07	0.759	
성별	남자	2,367	4.7	13.7	50.9	30.7	3.08	0.792	20.624***
	여자	2,149	3.0	13.7	56.4	26.9	3.07	0.72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4.0	10.9	46.1	38.9	3.20	0.786	120.044***
	중학교	1,489	4.1	14.0	57.0	25.0	3.03	0.743	
	일반고	1,299	3.5	15.7	56.1	24.7	3.02	0.738	
	특성학교	269	4.1	17.5	62.0	16.4	2.91	0.704	
지역 규모	대도시	1,965	3.4	13.8	52.9	29.9	3.09	0.751	3.990
	중소도시	1,860	4.3	13.7	54.3	27.8	3.06	0.763	
	읍/면	691	4.3	13.4	53.2	29.1	3.07	0.76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2	3.8	13.6	53.0	29.6	3.08	0.760	16.441
	한부모가정	332	4.0	14.0	61.3	20.7	2.99	0.713	
	조손가정	69	3.8	12.5	50.1	33.6	3.14	0.776	
	기타	38	3.4	23.6	48.1	24.9	2.95	0.796	
경제적 수준	상	706	3.9	10.3	44.9	40.9	3.23	0.786	71.511***
	중	3,534	3.7	14.0	55.4	26.9	3.06	0.744	
	하	272	6.5	18.5	51.8	23.2	2.92	0.82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52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3	9.1	31.5	41.7	17.7	2.68	0.868	
성별	남자	2,366	10.7	31.3	39.3	18.7	2.66	0.902	24.488***
	여자	2,147	7.2	31.7	44.4	16.7	2.71	0.829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9	7.0	22.8	39.9	30.3	2.94	0.898	288.464***
	중학교	1,487	9.8	31.7	45.1	13.4	2.62	0.836	
	일반고	1,299	10.2	38.0	40.6	11.2	2.53	0.823	
	특성학교	267	10.9	45.8	38.2	5.1	2.38	0.745	
지역 규모	대도시	1,965	8.0	29.5	43.1	19.4	2.74	0.861	16.891*
	중소도시	1,856	9.7	32.8	41.2	16.2	2.64	0.866	
	읍/면	692	10.3	33.5	39.2	16.9	2.63	0.88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8	8.8	30.7	42.1	18.4	2.70	0.868	30.807***
	한부모가정	332	9.6	41.1	38.5	10.9	2.51	0.813	
	조손가정	69	19.1	30.2	35.6	15.1	2.47	0.973	
	기타	38	10.9	27.9	41.5	19.7	2.70	0.919	
경제적 수준	상	705	7.8	24.4	38.7	29.1	2.89	0.915	100.657***
	중	3,534	8.9	32.1	43.0	16.0	2.66	0.850	
	하	270	14.1	41.3	33.5	11.0	2.41	0.865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53 체험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3	5.7	15.1	37.7	41.6	3.15	0.878	
성별	남자	2,367	7.2	16.5	35.9	40.5	3.10	0.921	32.415***
	여자	2,146	4.0	13.5	39.7	42.8	3.21	0.824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8	4.4	9.5	29.2	56.9	3.39	0.831	237.180***
	중학교	1,488	7.0	17.6	41.3	34.2	3.03	0.893	
	일반고	1,299	5.0	16.6	42.5	36.0	3.09	0.846	
	특성화고	267	8.9	24.5	40.4	26.2	2.84	0.916	
지역 규모	대도시	1,965	5.3	14.1	37.2	43.4	3.19	0.868	10.740
	중소도시	1,856	5.6	16.6	38.4	39.4	3.12	0.878	
	읍/면	692	6.8	13.9	37.1	42.2	3.15	0.90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68	5.3	14.9	37.8	42.0	3.17	0.868	20.399*
	한부모가정	332	8.7	17.6	39.3	34.4	2.99	0.933	
	조손가정	69	10.9	10.3	32.8	46.0	3.14	0.997	
	기타	38	6.7	14.3	25.7	53.3	3.26	0.950	
경제적 수준	상	705	5.2	12.2	31.8	50.8	3.28	0.871	33.072***
	중	3,534	5.6	15.6	39.1	39.7	3.13	0.873	
	하	270	7.7	14.9	34.8	42.6	3.12	0.933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표 3-54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표준 편차	χ^2
전 체		4,518	9.6	30.8	41.3	18.3	2.68	0.880	
성별	남자	2,368	11.8	31.5	37.6	19.1	2.64	0.921	45.402***
	여자	2,149	7.1	30.0	45.5	17.5	2.73	0.829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60	8.5	26.7	42.1	22.8	2.79	0.889	47.759***
	중학교	1,489	10.1	33.1	41.2	15.6	2.62	0.866	
	일반고	1,299	10.1	30.8	41.8	17.3	2.66	0.878	
	특성화고	269	10.0	39.6	36.0	14.3	2.55	0.859	
지역 규모	대도시	1,966	8.7	30.1	41.9	19.3	2.72	0.874	6.348
	중소도시	1,860	10.2	31.9	40.6	17.3	2.65	0.882	
	읍/면	692	10.2	29.6	41.9	18.3	2.68	0.88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73	9.5	30.7	41.5	18.3	2.69	0.878	3.343
	한부모가정	332	9.5	32.2	41.3	17.1	2.66	0.871	
	조손가정	69	13.7	29.0	35.4	21.9	2.66	0.975	
	기타	38	7.6	31.3	39.4	21.7	2.75	0.890	
경제적 수준	상	706	10.5	27.6	38.5	23.4	2.75	0.932	25.570***
	중	3,536	9.1	31.5	42.3	17.1	2.67	0.863	
	하	272	12.9	29.1	36.7	21.3	2.66	0.954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록 4 : 설문지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	--	--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으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체험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떤 체험활동을 원하는지 조사하여 어린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어린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김현철 박사/임희진 박사	(02)2188-8836/8886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차장/염숙희 팀장	(02)3014-0086/0131

조사 일시	2013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①	②	③	④

☞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매우 기다려지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선택한 번호에 가위표(X)를 하고 바꾸고 싶은 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①	②	③	④

문 1. 학생은 최근 1년간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했나요? 각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참여도)' 응답한 다음, '어떻게 참여했는지(참여방식)'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 작성 예시

	참여도	참여방식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참여도에서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에는 오른쪽 참여 방식에 응답함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이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참여도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에는 참여방식에 응답하지 않음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이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 두개 이상의 활동을 함께 한 경우는 주로 했던 활동만 응답합니다(예: 과학캠프를 2박 3일로 가서
 응급처치 방법을 1시간 들은 경우는 '과학캠프'가 주로 한 활동이기 때문에 '과학정보활동'에 대해
 '참여도와 참여방식'을 응답하고, '건강·보건활동'은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을 응답).

	참여도	참여방식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건강·보건활동 - 신체 단련 활동 - 안전·응급처치 활동 등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이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과학정보활동 - 모형만들기, 로봇 활동 - 우주과학활동 - 정보캠프활동 등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이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교류활동 - 국제 교류 활동 - 다문화 이해 활동 - 세계 문화 비교 활동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이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모험·개척활동 - 탐사 등반, 야영활동 - 해양활동, 극기훈련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이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참여도	참여방식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직업체험활동 - 진로 탐색 활동 - 직업현장 체험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환경보존활동 - 생태 활동, 숲 체험 - 환경 살리기 활동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자기(인성)개발활동 - 토론 등 자기표현활동 - 심성수련 활동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봉사활동 - 일손 돕기, 캠페인 - 자선·구호 활동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사회참여활동 - 지역사회의 어른들이나 정치인에게 청소년들의 생각을 건의하는 활동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문화 활동 (1) - 힙합, 비보이 등 댄스활동 - 보컬, 락음악 등 음악활동 - 코스프레, 플래시 몹 등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문화 활동 (2) -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팬미팅, 팬카페 활동 등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문화 활동 (3) - 발레 등 무용, 미술활동 - 풍물, 민속놀이 - 고전음악감상 등 -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 연주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문 2. 학생은 최근 1년간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체험활동이 있나요?

- ① 있다 → 「문 2-1」로 가세요
- ② 없다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만약 학생이 최근 1년간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안에 해당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 ⑥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
| ②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 ⑦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
| ③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 ⑧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
| ④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 ⑨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
| ⑤ 필요 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 ⑩ 기타() |

문 3.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안에 해당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체험활동에 참여한 기록을 학교 성적에 반영 | ④ 체험활동 참가비용 지원 |
| ②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 ⑤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
| ③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⑥ 기타() |

문 4. 학생은 최근 1년간 아래와 같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해 보셨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에 1번	1주일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유스호스텔, 야영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기념관, 과학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테마파크, 놀이동산, 공원,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 공연장, 음악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9) 스포츠경기장(프로 축구·야구·농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0)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헬스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 직업체험관(*키자니아, *잡월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2) 만화방, 노래방, PC방, 게임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유스호스텔이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연과 친숙해지고 건전한 야외활동을 갖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 숙박시설

* 키자니아란? 만3세 이상 어린이들이 직접 여러가지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원/테마파크

* 잡월드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설계 프로그램 등 직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업 관련 종합 전시·체험관

문 5. 학생은 체험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체험활동에 빠져든다	①	②	③	④
4)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5) 다시 해 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7)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8)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①	②	③	④
9)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①	②	③	④
10)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①	②	③	④
11)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①	②	③	④
12)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14) 체험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15)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문 6. 다음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절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야단, 체벌)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는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나는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는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나는 솔직히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나는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인생에서 공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공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7. 아래의 내용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성품이란? 사람의 성격이나 타고난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성품이 착하다, 성품이 너그럽다 등으로 표현함

문 8. 학교 정규 수업 이외에 다음과 같은 학습활동을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하지 않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1) 수업 후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집, 공부방, 독서실 등에서 학교 숙제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교과서, 참고서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공부한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4) EBS 교육방송이나 교육청 등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 '에듀넷' 등을 통해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습지나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공부한다 (단, EBS 교육방송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6)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거나 과외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 에듀넷이란? 에듀넷의 의미는 '에듀'(교육)+'넷'(인터넷, 네트워크)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 사이트'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교생까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서비스

문 9. 다음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①	②	③	④
7)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예: 가족, 같은 반 친구,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들 등)의 사람들과 친하고 생각이 잘 통한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아래에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따로 사는 큰형 ☞ 표시합니다.

- ① 할아버지/외할아버지 ② 할머니/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번)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직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13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	--	--	--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으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들이 평상시에 어떤 체험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떤 체험활동을 원하는지 조사하여 청소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김현철 박사/임희진 박사	(02)2188-8836/8886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차장/염숙희 팀장	(02)3014-0086/0131

조사 일시	2013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①	②	③	④

☞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매우 기다려지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선택한 번호에 가위표(X)를 하고 바꾸고 싶은 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①	②	③	④

문 1. 학생은 최근 1년간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했나요? 각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참여도)' 응답한 다음, '어떻게 참여했는지(참여방식)'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 작성 예시

	참여도	참여방식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참여도에서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에는 오른쪽 참여 방식에 응답함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참여도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에는 참여방식에 응답하지 않음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 두개 이상의 활동을 함께 한 경우는 주로 했던 활동만 응답합니다(예: 과학캠프를 2박 3일로 가서
 응급처치 방법을 1시간 들은 경우는 '과학캠프'가 주로 한 활동이기 때문에 '과학정보활동'에 대해
 '참여도와 참여방식'을 응답하고, '건강·보건활동'은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을 응답).

	참여도	참여방식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건강·보건활동 - 신체 단련 활동 - 안전·응급처치 활동 등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과학정보활동 - 모형만들기, 로봇 활동 - 우주과학활동 - 정보컴프활동 등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교류활동 - 국제 교류 활동 - 다문화 이해 활동 - 세계 문화 비교 활동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모험·개척활동 - 탐사 등반, 야영활동 - 해양활동, 극기훈련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참여도	참여방식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직업체험활동 - 진로 탐색 활동 - 직업현장 체험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 활동(길/보이스기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환경보존활동 - 생태 활동, 숲 체험 - 환경 살리기 활동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 활동(길/보이스기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자기(인성)개발활동 - 토론 등 자기표현활동 - 심성수련 활동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 활동(길/보이스기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봉사활동 - 일손 돕기, 캠페인 - 자선·구호 활동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 활동(길/보이스기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사회참여활동 - 지역사회의 어른들이나 정치인에게 청소년들의 생각을 건의하는 활동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 활동(길/보이스기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문화 활동 (1) - 힙합, 비보이 등 댄스활동 - 보컬, 락음악 등 음악활동 - 코스프레, 플래시 몹 등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 활동(길/보이스기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문화 활동 (2) -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팬미팅, 팬카페 활동 등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 활동(길/보이스기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문화 활동 (3) - 발레 등 무용, 미술활동 - 풍물, 민속놀이 - 고전음악감상 등 -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 연주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③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④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 활동(길/보이스기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누리단, 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문 2. 학생은 최근 1년간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체험활동이 있나요?

- ① 있다 → 「문 2-1」로 가세요
- ② 없다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만약 학생이 최근 1년간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안에 해당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 ⑥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
| ②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 ⑦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
| ③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 ⑧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
| ④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 ⑨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
| ⑤ 필요 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 ⑩ 기타() |

문 3.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안에 해당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체험활동에 참여한 기록을 학교 성적에 반영 | ④ 체험활동 참가비용 지원 |
| ②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 ⑤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
| ③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⑥ 기타() |

문 4. 학생은 최근 1년간 아래와 같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해 보셨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이용한 적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1달에 1번	1달에 2번 이상	1주일에 1번	1주일에 2번 이상	거의 매일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유스호스텔, 야영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기념관, 과학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테마파크, 놀이동산, 공원,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 공연장, 음악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9) 스포츠경기장(프로 축구·야구·농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0)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헬스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 직업체험관(*키자니아, *잡월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2) 만화방, 노래방, PC방, DVD방, 게임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유스호스텔이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연과 친숙해지고 건전한 야외활동을 갖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 숙박시설

* 키자니아란? 만3세 이상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직접 여러가지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원/테마파크

* 잡월드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설계 프로그램 등 직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업 관련 종합 전시·체험관

문 5. 학생은 체험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하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체험활동에 빠져든다	①	②	③	④
4)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5) 다시 해 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7)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8)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①	②	③	④
9)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①	②	③	④
10)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①	②	③	④
11)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①	②	③	④
12)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14) 체험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15)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문 6. 다음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절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아단, 체벌)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는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나는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는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나는 솔직히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나는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인생에서 공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공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7. 아래의 내용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8. 다음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목표를 분명히 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목표 달성 정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업적을 잘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목표가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안다	①	②	③	④
4) 해도 해도 또 하고 싶은 활동이 많다	①	②	③	④
5) 중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할지 빨리 알아 본다	①	②	③	④
6) 내 생활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하는 일이 너무 쉬워 재미가 없을 때 난이도를 조금 높여 내 능력에 맞출 줄 안다	①	②	③	④
8)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기분은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지'하는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9) 세상일이 성공하고 안하고는 기본적으로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에게 있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일치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목표에 달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12) 목표 달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쉬운 일보다는 약간 어려운 일이 더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몸과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5) 목표가 있으므로 나는 내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16) 일단 시작한 일(공부 등)은 끝을 볼 때까지 방해받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8)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는 걱정과 근심도 잊게 된다	①	②	③	④
19)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과 관계가 없는 딴 생각은 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0) 어떤 일을 하다가 시간이 순식간에 흐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1) 내가 하는 일은 대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온 정신을 쏟아 땀 생각할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23) 나의 모든 정신 에너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4)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일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	①	②	③	④
25) 일을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6) 나는 일의 결과보다도 일 그 자체에 의미를 둔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어떤 일에 몰두하여(빠져들어) 내 자신을 잊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어떤 일에 쉽게 몰입한다(빠져든다)	①	②	③	④
29) 요즈음 나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30) 집중을 하여 일을 하다보면 앞으로의 걱정거리도 사라진다	①	②	③	④
31) 나는 쉽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2)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문 9. 학교 정규 수업 이외에 다음과 같은 학습활동을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하지 않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1) 수업 후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집, 공부방, 독서실 등에서 학교 숙제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교과서, 참고서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공부한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4) EBS 교육방송이나 교육청 등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 '에듀넷' 등을 통해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습지나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공부한다 (단, EBS 교육방송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6)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거나 과외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 에듀넷이란? 에듀넷의 의미는 '에듀'(교육)+'넷'(인터넷, 네트워크)으로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사이트'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교생까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서비스

문 10.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①	②	③	④
7)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아래에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따로 사는 큰형 ☞ 표시합니다.

- ① 할아버지/외할아버지 ② 할머니/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번)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직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13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bstract

Study on systematization of national youth activity policies

The study aims to establish plans to carry forward youth activities policies systematically. To achieve this, first of all, the concept of youth activities was reestablished and the related overseas case studies were analyzed, then, fact-finding surveys on youth's participation of experience-based activities and cultural activities on a nation-wide basis were conducted with the Focused Group Interview (FGI) for parents. Furthermore, after analyzing the resources related to youth activities policies of each cent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s, the plans to systematize youth activities policies we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idea of youth training activities has been used with too extensive extension denotation so it has some limitations to lead youth policies. When considering the current political circumstances that emphasize various experience-based activities, the idea of youth activities should be understood in a wide sense to pursue well- rounded development. Namely, the idea of youth activities should be understood in more inclusive and universal concept aiming at fostering youth. As the result of the meta-analysis for studies on effects of youth experience-based activities, the necessity of wide youth activities programs with good quality is raised to reach the goal of youth competences that are the results of youth activities.

Second, in advanced countries, local policies obtained through community network are emphasized rather than the polic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voluntary and self-directed programs and work-based activities for youth are also stressed.

Third, it is found that the lower the participation rate of youth experience-based activities

is, the higher the level of schools is; the higher, the higher economic level is. Although the study reports that both the range and strength of experience-based activities have positive effects on youth's affective characteristics, the strength has turned out to have stronger influence on them than the range. As the results of FGI on the needs of school parents for their children's activities participation, it is found that the parents of elementary students want their children to join various activities but the higher the level of the schools is, the greater expectation for guidance on professional activities is, it reflects the lower expectation for school activities.

Fourth, the youth activities policies have been growing steadily in a quantitative respect and policy projects have been stabilized over time. However, the scale of experience-based activities policies of other departments has been expanded so they have occupied just a marginal position. A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sources related to youth activities policies of cent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it is found that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ich is in charge of youth policies, account for very small part in the aspect of scale and has no differentiation in the aspect of contents so new qualitative changes should be pursued.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esults, the alternatives to systematize youth activities policies can be suggested as below.

First, 「Local Committee of Youth Fostering」 that is perfunctorily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ated; the indexes related to youth policies should be reflected to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s overall evaluation index on local governments; tentatively named 'Youth Policies Evaluation Board' should be organized to evaluate the local governments' youth activities policies.

Second, long-term visions and objectives for youth activities policies infrastructures should be established; facilities for youth activities, human resources for youth guidance, youth activities programs. The action plans on youth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to meet the local circumstances. In addition, the concept of youth activities should be newly set up; at this point, the concept of youth activities in the

Basic Youth Act and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should be revised.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related to youth of the local governments, adopting the exclusive officials for youth fostering is the most important. Enacting related ordinances is also required; establishing local cases one by one is important rather than complete introduction.

Fourth, Korea Youth Work Agency should lead the promotion of the whole youth activities policies by operating the central consultative group that contains various private organizations for youth, public and private entities of other areas. The local youth activities promotion center should be devoted to its role as the hub of local communities rather than policy projects and its functions should be reorganized to perform consulting works for youth facilities and schools, etc.

Fifth, hands-on work should be compulsory to be certified as the Youth Worker, in addition, qualification training and refresher training should be more specialized.

Sixth, the surveys on youth experiences-based and cultural activities should be regularly conducted and the system collecting administrative statistics related local youth activities should be established.

Seventh, youth activities policies should be differentiated by emphasizing 'participation' or 'self-directed' in all programs for youth activities.

Key Words: Youth activities policies, Evaluation of youth activities policies, Effects of youth experience-based activities, Participation, Self-directed, Systematization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희·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현석·최유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가지 종단부석 - / 황진구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 · 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 · 김형주 · 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 · 강석영 · 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 · 황여정 · 이준일 · 방은령 · 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 김나연 · 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 · 유성렬 · 김신영 · 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 · 김지영 · 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 · 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 · 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포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보고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8-89-7816-667-6 93330